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

중구향토사자료 제3집

서울 중구문화원



서울특별시 중구 향토사자료집 목록

- 제01집 중구 향토사 관계 자료집-중구 관련 논문 모음집
- 제02집 중구사화(史話)-중구의 문화유적에 얽힌 이야기
- 제03집 남산의 역사와 문화
- 제04집 서울 중구 도심 속으로의 역사기행
- 제05집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
- 제06집 중구의 구전설화
- 제07집 명동 변천사
- 제08집 중구의 축제
- 제09집 영화의 메카 충무로
- 제10집 중구의 세시와 풍속
- 제11집 정동, 역사의 뒀안길
- 제12집 남겨진 풍경 지나간 흔적
- 제13집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

중구문화원은 향토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한국사 연구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개원 초 향토사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원의 고유사업으로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 작업에 오랫동안 진력해 왔습니다. 향토사 연구위원과 관계 석학의 자문을 얻어 발행된 향토사 자료집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왔습니다.

귀중한 문화유산을 조사·연구하고 사료를 수집·보존하여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중구문화원의 향토사연구위원회는 꾸준히 자료집을 펴내온 가운데 이제 제13집으로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청계천은 남산, 북악산, 인왕산, 낙산의 물이 합류해서 이루어진 개천으로 청계천의 발원지는 수량으로 따져도 당연히 남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는 지금과는 다르게 과거 산업화와 편리성에 의해 인위적으로 필동천, 생민천, 창동천, 주자동천 등 남산의 지천이 복개되어 개천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지난 2년여 동안 남산의 지천을 연구하면서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남산의 지천 복원을 염두에 두면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 나라 5천년 가난의 굴레를 새마을운동으로 해결하고 근대화와 산업화로 오늘날의 기반을 마련했던 고(故)박정희 대통령 신당동 가옥 등 우리구 등록문화재의 향토사 자료를 수집·발굴하는 데에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향토사 연구 사업을 적극 지원해주시는 최창식 중구청장님과 중구의회 김수안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필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박경룡 박사님과 향토사 연구위원님께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 1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장 김장환



60년 만에 찾아온 흑룡의 해, 2012년 임진년(壬辰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와 함께 세상에 나온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책이 나오기까지 많이 애써주신 김장환 중구문화원 원장님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의 중심인 우리 중구는 경제·문화·관광 등 대한민국 모든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왔을 뿐 아니라, 청계천·덕수궁·서울 성곽·충무공 생가터 등과 같이 600년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문화적 자산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구는 물론 서울의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는 청계천에는 무수한 삶의 이야기들이 녹아 있습니다. 때로는 민초들의 빨래터나 물놀이터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지하에 묻혀 우리들의 눈에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내외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서울의 명소로 새롭게 태어났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청계천은 서울의 역사와 함께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 발간 사업을 통해 청계천과 주변의 지천, 다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발굴하고, 청계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짚어 보는 것은 향토문화사 연구에 있어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발간 사업이 청계천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더해주고, 보다 더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상서로운 기운으로 시작된 올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모든 가정에 만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올해 13회로 이어온 중구향토사자료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자료집 발간을 위해 고생하신 중구문화원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996년 제1호가 발간된 이후로 중구향토사자료집은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 계속 살아갈 공간인 중구에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건들과 인물들을 현대의 시간에 살려내어 지역의 역사를 복원하여 왔습니다. 그 연구와 노력의 결실로 중구의 친숙한 환경과 훌륭한 인물들이 중구의 아름다운 역사가 되어 우리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이번 자료집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는 그 이름이 지어지기도 전부터 삶의 애환을 함께 해온 물길인 청계천을 조사 연구한 자료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찾는 물길만큼 청계천과 함께한 우리네 삶의 소소하고 다양한 역사와 이야기들이 발굴되어 많은 분들께 지역문화로 전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향토사 발굴은 긍정적인 지역문화를 정립하고 중구민 모두가 향토애와 자긍심으로 지역의 주인이 되어 중구를 꾸려나가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구의 역사문화 발전에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중구향토사자료집 발간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중구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2.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김수안



| 차례 |



발간사 서울 중구문화원장 김장환	5
축사 서울 중구청장 최창식	6
축사 서울 중구의회 의장 김수안	7
들어가는 글	14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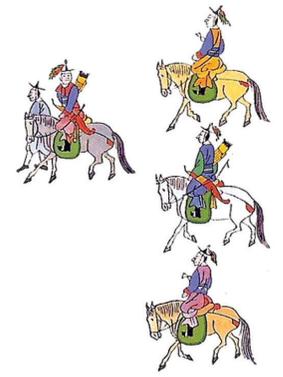
청계천, 역사와 함께 흐르다 20

1. 조선 시대의 청계천	22
1) 청계천, 이름과 구획	22
2) 청계천의 세시 풍속	36
3) 청계천의 범람과 치수 사업	44
4) 청계천에 얽힌 이야기	84
5) 조선 말 개화의 메카, 청계천변	105
2. 일제 강점기의 청계천	133
1) 남촌·북촌의 경계선이 된 청계천	133
2) 일제 강점기의 청계천 개조 사업	155
3. 광복 이후의 청계천	170
1) 청계천 복개 사업의 시작	170
2) 철거와 이주의 사회사	182
3) 청계천 복원과 새 시대	206



2부

청계천으로 흘러드는 물길 222



1. 남산에서 발원한 지천	224
1) 송례문을 들어서서 첫 번째로 건너는 창동천	224
2) 회현동에서 내려오는 장흥동천	239
3) 남산골에서 내려오는 남산동천	246
4) 신발 가게가 있던 이전동천	263
5) 주자소를 지나는 주자동천	267
6) 붓골을 지나는 필동천	276
7) 허생이 살았던 묵사동천	295
8) 쌍이문을 흘러내린 쌍리동천	305
9) 이간수문을 통하는 남소문동천	313
2. 응봉·정동·인왕산 안산에서 발원한 지천	327
1) 무당들이 많이 살았던 신당천	327
2) 덕수궁과 서울시청을 관통하는 정릉동천	331
3) 용산강으로 흘러드는 만초천	332
3. 청계천의 옛 다리들	350
모전교 · 352 광통교 · 353 장통교 · 356 광제교 · 358 수표교 · 358	
관수교 · 362 하랑교 · 363 신교 · 363 효경교 · 363 주교 · 364	
마전교 · 365 오간수교 · 366 영도교 · 367	
주(註) · 368	



도성도(都城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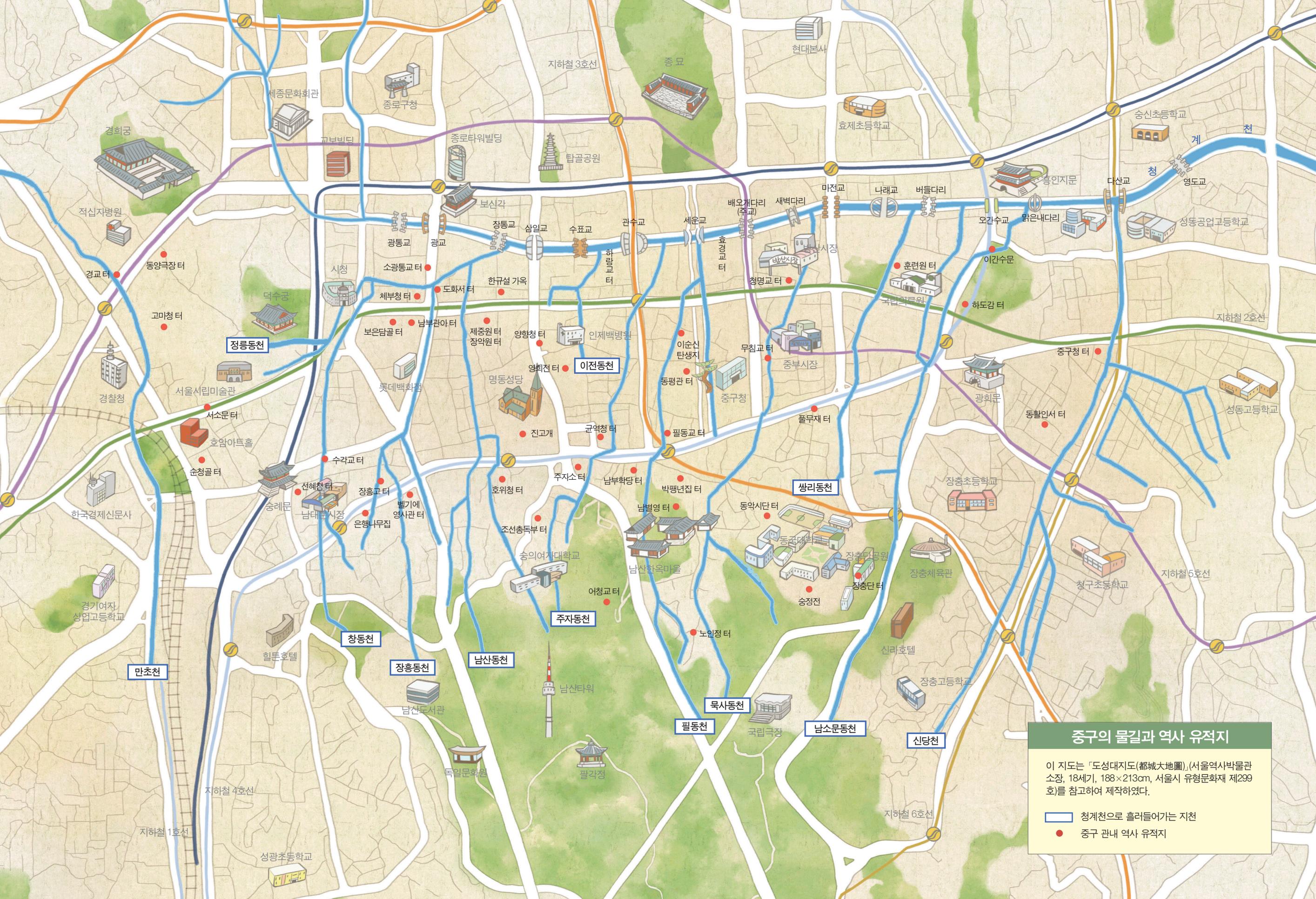
뛰어난 회화성으로 현존하고 있는 도성도 가운데 뛰어난 지도로 꼽힌다. 남쪽을 바라보며 정사를 보는 국왕의 시각에 맞추어 그려 지도의 위치가 바뀐 이유도 되어 있다.

東部六坊三六契 崇信 蓮花 崇教 彰善 孝德 仁昌 舊有瑞雲 德成 慈善 觀德 衆達 興成 今不知所在
 西部九坊九士契 仁達 積善 餘慶 皇華 養生 盤石 盤山 西江 舊有神化 不知所在 龍山 西江 舊所
 南部七坊七十契 廣通 好賢 明禮 太平 薰陶 誠明 樂善 明哲 屯之 漢江 巨毛 舊有貞心 誠身 禮成 不知
 所在 屯之 漢江 巨毛 舊所
 北部九坊三六契 廣化 陽德 嘉會 安國 瑞光 鎮長 俊秀 順化 義通 舊有明通 不知所在
 中部八坊九士契 澄清 瑞麟 壽進 堅平 寬仁 慶幸 貞善 長通
 合四三坊 舊四九 新增五 合三百九十九契



五部分界則五本名別
 本圖分圖以分一
 坊名亦各圖以爲標
 本圖上番所屬坊名字加圖以辨之
 一坊有界則坊名下宜寫字
 三軍門分界則以實界則之
 城外地圖故畧之

自敦化門由柵子橋東至于興仁門二千四百九十九步由柵子橋西至于鐘街又南至忠履門二千六百六十六步
 由柵子橋西至于敦義門二千七百七十五步
 自鍾街東至于興仁門二千四百八十八步南至忠履門九百九十九步西至于敦義門八百六十六步
 自興仁門西至于鐘街又南至忠履門二千四百七十七步
 自忠履門西至于鍾街又西至于敦義門一千八百六十七步
 自敦義門東至于興仁門二千二百七十六步



중구의 물길과 역사 유적지

이 지도는 「도성대지도(都城大地圖)」(서울역사박물관 소장, 18세기, 188×213cm,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99호)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 청계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지천
- 중구 관내 역사 유적지

이 지도는 서울 중구 지역의 지형, 교통, 그리고 역사 유적지를 상세히 보여줍니다. 청계천은 도시의 수맥을 이루며, 여러 지천이 이를 통해 흘러들어옵니다. 주요 지하철 선로는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 유적지로는 경희궁, 덕수궁, 정릉동천, 이전동천, 주자동천, 창동천, 장흥동천, 남산동천, 필동천, 신당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다양한 학교, 병원, 문화 시설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1. 중구를 흐르는 물길들

서울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중구에는 북악산, 인왕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청계천 외에 인왕산과 안산에서 발원한 만초천(蔓草川), 응봉에서 내려오는 신당천(新堂川), 남산에서 청계천으로 흐르는 12개의 지천(支川)이 있다.

2005년 서울시가 하천 중심의 도시 환경을 위해 청계천을 복원하였으나 아직 만초천, 신당천과 남산에서 내려오는 12개의 청계천 지천은 복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500여 년간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던 청계천은 조선 왕조의 도읍지로 정해진 이후 도성 안을 지리적으로 구분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주거 외에 사회·경제·문화 면을 구분하는 상징적인 경계선으로 작용하여 일제 때는 서울의 남촌·북촌이 이루어졌다.

중구는 서울의 관광·상업 지역으로서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도시 경관의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남산에서 내려오는 중구의 물길을 찾아내어 그 연혁을 살피고, 기능과 역할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청계천은 인왕산과 북악산의 남쪽 기슭과 남산의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도성 안의 중심부에서 만나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도시 하천으로, 무교동·광교·장교·수표교 등을 지나 방산동·평화시장을 거쳐 흘러간다. 청계천은 서울 도심부를 관통하다가 북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성북천, 정릉천과 차례로 만나고, 마장동을 지나 중랑천 본류와 합류하여 한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조선 시대에는 14개의 지천이 청계천에 합류되어 흘러내렸으나 대부분 복개되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성북천과 정릉천뿐이다. 청계천 지천에 놓였던 다리들은 조선 초에는 대부분 나무다리였다가 차츰 돌다리로 바뀌어 갔다.

현재 청계천 유역 내의 상습 침수 지역이었던 용두동 일대의 빗물을 모아 내보내기 위해 용두빗물펌프장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청계천 하구로부터 시작되는 정릉천변 내부순환도로가 정릉천 입구까지 고가도로로 물길을 따라 건설되어 있다.

2005년 이후부터 청계천은 도성 4대문 안의 빗물과 생활 하수를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통해 모아 배수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청계천변은 조선 왕조의 도읍지로 정해진 이후 600여 년 이상 우리나라의 정치·사회·문화·경제의 중심권을 담당해 온 유서 깊은 지역이다.

중구 관내를 흐르는 물길은 주로 남산에서 흘러내려와 청계천에 합류된다. 먼저 중구의 청계천 지류를 꼽자면 창동천(倉洞川)이 있다. 이 물길은 북쪽으로 흘러 수각교·전도감교를 거쳐 소광통교로 흐르며, 회현동에서 발원한 장흥동천(長興洞川)은 남대문로를 따라 흐르다가 창동천과 합류하여 청계천에 들어간다. 남산동천(南山洞川)으로 불리는 지천은 동현교를 거쳐 장통교에 이르러 청계천에 흘러 들어간다.

중부경찰서 부근에서 발원한 이진동천(履塵洞川)은 청계천 3가와 입정동을 지나 청계천에 합류된다. 예장동 남산1호터널에서 시작되는 주자



〈한양도성도〉, 1800년경, 호암미술관. 청계천을 비롯한 개천 수로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동천(鑄字洞川)도 북쪽으로 흘러 주자교를 거쳐 청계천의 하량교(河良橋)에 흘러 들어가며,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발원한 필동천(筆洞川)은 필동교를 거쳐 영풍교를 지나 청계천에 합류된다.

먹적골이라는 마을 이름을 딴 묵사동천(墨寺洞川)은 필동 2가에서 북쪽으로 흘러 내려와 무침교(無沈橋), 청녕교(靑寧橋)를 거쳐 이교(圮橋)에 흘러 들어가고, 쌍리동천(雙里洞川)도 남산공원길에서 동국대학교 옆을 지나 북쪽으로 흘러가면서 어청교를 거쳐 마전교에 각각 이어진다.

도성의 4소문 중 하나였던 남소문의 이름을 딴 남소문동천(南小門洞川)은 타워호텔에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광희문 앞을 지나 전일 동대문운동장이 자리한 곳의 이간수문(二間水門)을 통하여 도성 밖으로 흘러 나가 청계천 본류와 합류한다.

응봉(鷹峰)에서 발원한 신당천(新堂川)은 1950년대 즈음부터 그 이름을 얻게 된 지천이다. 이 지천변의 약수동에는 위장병에 효능이 좋은 약수가 있어 약수천(藥水川)이라고도 했고, 조선 시대 신당동에 동활인서가 위치하여 동활인서천(東活人署川)으로 불렸다. 신당천은 응봉에서 시작되어 '다산로'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 무학동을 지나 광희초등학교 앞을 거쳐 청계천으로 들어간다.

정동의 구 러시아 공사관 부근에서 발원한 정릉동천(貞陵洞川)은 덕수궁을 관통하여 서울시청을 지나 창동천과 합류하여 청계천으로 유입된다.

무악재에서 발원한 만초천(蔓草川)은 조선 시대에 만초(蔓草)라고 불릴 만큼 풀이 많이 자라서 붙여진 물줄기이다. 일제 때는 '욱천(旭川)'이라고 불렀는데 무악재 부근에서 서대문 네거리~서부역~청파로~용산전차상가~원효로를 지나 원효대교 북쪽 지점에서 한강과 합류한다.

2. 서민의 애환이 깃든 청계천

청계천 남쪽, 지금의 무교동 지역에는 국수집이 많아 국숫골(麵洞), 팔죽을 쑤어 팔아 두죽동(豆粥洞)이라고 불렸던 마을이 있었다. 현재도 이곳에 대중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옛 전통을 이어 왔기 때문이 아닐까?

무교동과 종로구 서린동 사이에는 모전교(毛塵橋)가 놓여 있는데, 이 다리에는 토산 과일을 팔던 모전(毛塵)이 있었기 때문에 불렸다. 장통교 부근의 장교동·관철동에는 갓전, 관자전(貫子塵), 소금전, 신전 등을 비롯하여 모자·양털·청포전(靑布塵)·모시전 등이 있어서 많은 상인들과 사람들이 왕래하였다. 입정동과 수표동에 걸쳐서는 갓전이 있어서 갓(笠)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이리하여 갓전동네, 갓동네, 갓동이라고 하다가 갑동(甲洞)으로 음이 바뀌었다. 장교동·수표동·을지로 2가에 걸쳐서는 대나무와 대그릇을 파는 죽전(竹塵)이 있어서 대전골, 또는 죽동(竹洞)이라고 하였다.

조선 시대에 청계천 남·북쪽 공터에는 나무 시장이 섰다. 당시 서울 거리에는 연료로 쓰이는 숯과 장작을 파는 시장이 곳곳에 섰다. 특히 숯을 팔고 시는 경우에는 검은 가루가 날리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장작을 부러 놓은 곳은 도로를 가로막아 시민들의 왕래에 큰 불편을 주었다. 조선 말 개화기에 한성부는 시탄(柴炭) 시장을 지정하여 경계를 획정한 다음 다른 지역에서는 사고팔지 못하게 하도록 경무청(警務廳)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조선 시대 청계천변 을지로 6가의 훈련원(訓練院) 주변에는 넓은 공터가 있어서 농사를 많이 지었으므로, 동대문 밖에는 큰 채소 시장이 서게 되었다.

종로 네거리를 중심으로 장통방(長通坊)·훈도방(薰陶坊) 등 청계천의 좌우측, 오늘날 종로와 을지로의 1~4가 지역 일대에는 상가와 시장과

환락가로 이루어진 도심이 형성되어 상공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 이곳에는 관리와 결탁하여 치부한 육의전(六矣廛)의 대상인들도 살았지만, 동시에 많은 서민들의 빈약한 가옥들이 밀집하여 혼잡과 시끄러움과 애환이 얽힌 마을을 이루었다.

남부의 명철방(明哲坊), 전일 동대문운동장 근처에는 훈련원이 위치하여 배오개(梨峴), 광희문, 왕십리 근처에는 군인들이 모여 살아 이들과 그 가족만으로 따로 장용영계(壯勇營契)라는 행정 구역 명칭이 붙여지기도 하였다.

청계천, 역사와 함께 흐른다

서울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중구에는 북악산, 인왕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청계천 외에 인왕산과 안산에서 발원한 만초천, 용봉에서 내려오는 신당천, 남산에서 청계천으로 흐르는 12개의 지천이 있다.

2005년 서울시가 하천 중심의 도시 환경을 위해 청계천을 복원하였으나 아직 만초천, 신당천과 남산에서 내려오는 9개의 청계천 지천은 복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500여 년간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던 청계천은 조선 왕조의 도읍지로 정해진 이후 도성 안을 지리적으로 구분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주거 외에 사회·경제·문화 면을 구분하는 상징적인 경계선으로 작용하여 일제 때는 서울의 남촌·북촌이 이루어졌다.



1. 조선시대의 청계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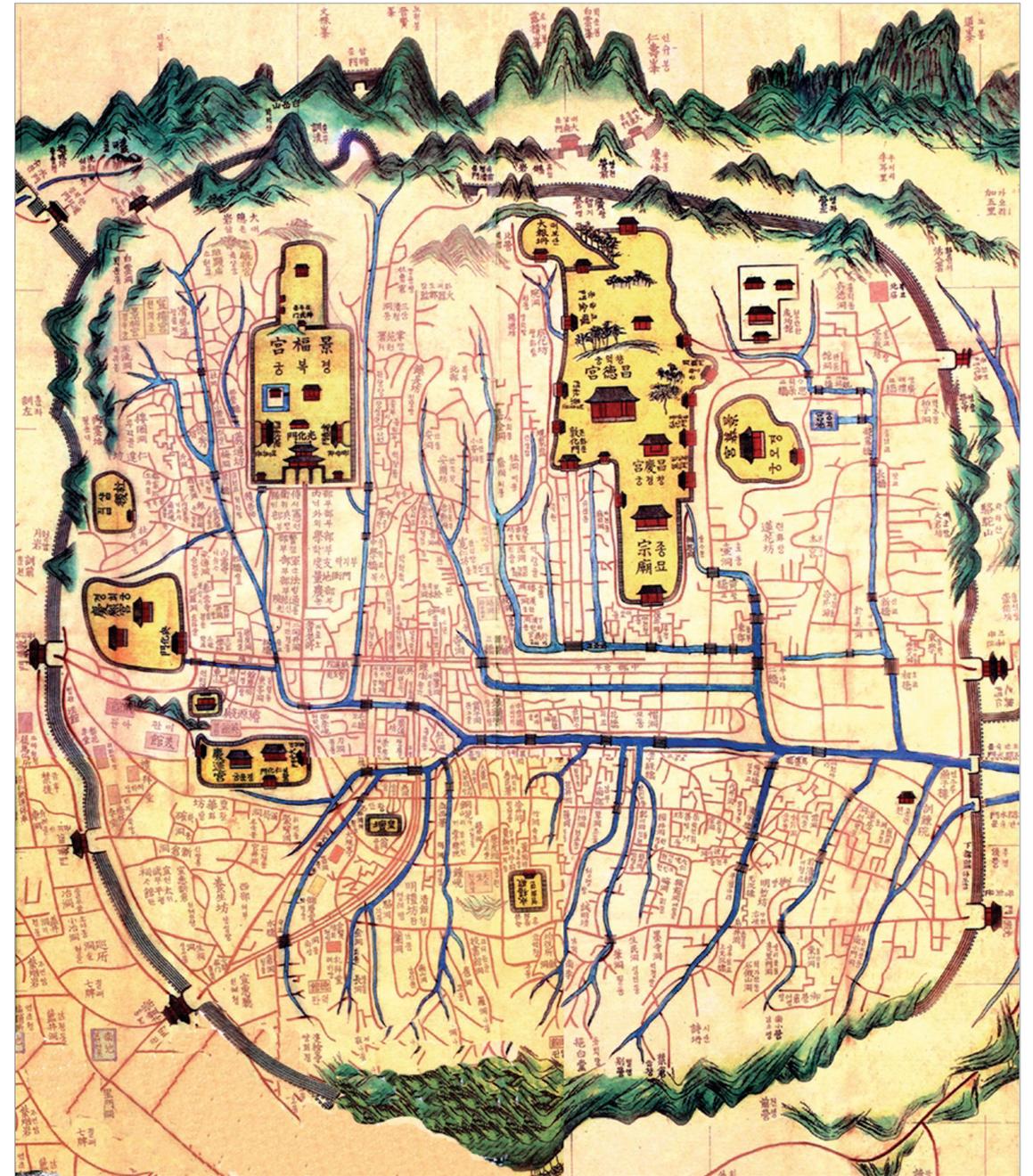
1) 청계천, 이름과 구획

개천(開川)으로 불렸던 청계천

‘맑은 계곡 내’라는 청계천(淸溪川)의 본래 이름은 고려 때 한양천(漢陽川)·경도천(京都川)으로 불리다가 조선 시대에는 개천(開川)이라고 표기되었다. 조선 후기에 유본예(柳本藝)가 서울의 성곽·궁궐·산천·고적 등의 형승(形勝)과 연혁을 기록한 『한경지략(漢京識略)』에 보면 “우리나라 강물이 모두 서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서울의 개천만은 동쪽으로 흘러 나가므로 사람들이 정도(正道)를 얻었다고 한다. 개성의 시냇물을 개천이라고 한 것을 한성에서 그 이름 그대로 옮긴 듯하다.”라고 써어 있다.

청계천은 북악산의 해발 290미터 지점에서 발원하여 인왕산과 남산에서 흘러내린 계곡물이 도성 안의 중심부에서 만나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중랑천과 합류하여 한강으로 흐른다. 청계천은 500여 년간 서울의 중심에 위치했던 길이 10.92km, 총면적 50.96km²의 도시 하천이다.

대체로 인공을 가해 물이 잘 흐르도록 만든 큰 냇물을 조선 시대에는 개천(開川)이라고 불렀다. 자연적으로 흐르는 냇물은 개천이라 하지 않고, 반드시 사람의 손이 ‘개(開)한 ‘천(川)이어야 하며, 개울보다는 규



〈수선전도〉에 표현된 청계천의 물길

모가 큰 하천을 일컬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의 신문을 보면 1916년경부터 ‘개천’이라는 명칭 대신 ‘청계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1927년 1월 22일 조선하천령(朝鮮河川令)이 제정된¹⁾ 이후에 호칭되었을 것이다. 청계천이란 명칭은 경복궁 서북쪽의 백운동 부근을 흐르는 청풍계천(淸風溪川)을 줄여서 부르게 된 것이라는 설도 있다.²⁾

조선 초에 발간된 『신증 동국여지승람』에는 “개천은 북악산, 인왕산, 남산 골짜기 물이 합쳐져 동쪽으로 흐른다. 이 물은 도성 한복판을 관통하여 3개의 수문(水門)을 빠져나가 중량포(中梁浦)로 들어간다.”고 소개하였다.

청계천은 조선 왕조의 도읍지로 정해진 이후 도성 안을 지리적으로 구분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주거 외에 사회·경제·문화 면을 구분하는 상징적인 경계선으로 작용하였다. 조선의 한양 천도 당시 청계천은 자연 하천이었지만 점차 인구가 증가하면서 모래와 흙이 쌓이는 것이 심하였고, 청계천변의 민가에서 흘러나오는 하수로 오염이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였다.

우대와 아래대, 북촌과 남촌

오늘날 서울을 ‘강북’과 ‘강남’으로 구분하여 부르듯이, 조선 시대에는 ‘우대’와 ‘아래대’라는 지역 구분이 있었다. 조선 시대에는 청계천 상류인 인왕산 밑의 옥인동, 누상동, 사직동, 효자동, 통인동에는 주로 문관, 양반 출신의 상류 계층이 살았다. 조선 말에는 이른바 장동 김씨(壯洞金氏)들도 이곳 인왕산 밑에 살았으며, 이곳을 ‘우대’라고 불렀다.

지금의 청계천 2~3가, 광교, 수하동 부근은 인왕산, 북악산, 남산 등지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합쳐지는 곳이었다. 조선 시대에 이 일대에는 주로 역관(譯官), 의원 등 중인 계층과 상인들이 많이 살았으므로 이곳을 ‘아래대’라고 불렀다. 이곳은 조선 500년간 서민들의 애환(哀歡)이 얽히

고 세시 풍속이 펼쳐진 곳이었는데,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모습이 사라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종로 네거리를 중심으로 오늘날 종로와 을지로 1~4가에 해당하는 지역 일대에는 상가와 시장과 환락가로 이루어진 도심이 형성되었으며, 상공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

도심이고 변화가라고는 하지만 이곳은 사실상 장안에서 가장 저지대였기 때문에 한 발자국 뒷골목에 들어가면 배수가 잘 안 되어 비만 오면 진흙 구덩이가 되었다. 여름철 가뭄 때는 개천의 악취가 퍼져, 주거 환경으로는 좋은 곳이 못 되었다. 이러한 뒷골목 서민들의 집에 끼어 빈한한 선비들의 가옥도 섞여 있었다.

한편 남산 기슭과 그 밑의 일대는 남촌이라 불렸다. 이들은 모두 가난하거나 벼슬 못한 선비들이 살던 지역이었다. 조선말 황현(黃炫)이 지은 『매천야록(梅川野錄)』에 보면 “서울 큰 거리를 사이에 두고 종각 이북은 북촌이라 하여 노론이 살고, 큰길 남쪽은 남촌이라 하여 소론 이하의 삼색(三色)이 섞여 살았다.”라고 하였다. 즉 북촌에는 정권을 쥐고 있던 노론파가 모여서 살고, 그 남쪽 남산 밑인 남촌에는 비록 지위가 높을지라도 소론과 남인·북인이 섞여 살았다는 것이다. 물론 남촌은 가난한 선비들만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실직한 양반들이나 미관말직의 관원들이 살았다.

이는 사색당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한 이후로 남촌 사람들이 나서서 시시비비를 가리려 들면 북촌의 노론과 대신들이 탄핵(彈劾)을 받곤 하였다. 이런 이유로 ‘남산골선님 제 벼슬은 못해도 남의 벼슬 뵈 재주는 있다’는 속담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굴산 이유원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조선강역총도 중 <도성도>, 17세기 말, 서울대학교 규장각

예로부터 남주북병(南酒北餅)이라는 속담이 있다. 남주는 장흥동, 회현동에서 빚어내는 것을 제일로 쳤다. 그 맛과 색깔이 뛰어나서 한 잔에 취하여도 쉬이 깰 뿐 아니라 갈증이 나지 않으니 가위 나라 안을 통틀어서 가장 이름난 명주이다. 떡은 누각골의 것을 제일 좋게 친다.

즉, '떡 빚는 북촌, 술 거르는 남촌'이라고 하는데, 이는 집에서 술을 빚어 팔기도 하고 시장기도 달래던 남산골재님과 곡식이 넉넉하여 떡 빚어 잔칫상을 차리고 아이들 군것질을 시키던 북촌 양반들의 일상생활을 대조적으로 풍자한 것이다.³⁾

한편 하급 관리들이나 양반의 자손으로 현직 고위 관리가 아닌 이들은 누상동, 누하동 막바지나 남촌에 살았다. 남촌은 중구 남산동~필동~묵정동에 이르는 지역인데 음지(陰地)이기는 하지만 배수가 잘 되고, 지하수가 풍부하여 취수에 편리하였다.

조선 중기까지 청계천 하류 지역에는 재인(才人)·백정(白丁)들이 거주하였고, 광고·수표교·오간수문 등 돌다리 아래에는 걸인들이 거주하였으며, 오간수문 밖은 인가가 드물어 '도깨비들이 노는 곳'으로 알려졌다.

주교동은 청계천변에 위치한 마을로 조선 시대에는 중인 이하의 신분이 주로 살았던 곳이다. 조선 초부터 개화기까지 고위 관리나 돈 많은 양반 집의 대문은 솟을대문이었다. 이러한 양반들은 나들이에 초헌(輶軒)이란 외바퀴 수레를 타고 다녔는데, 높은 초헌을 탄 채로 대문 안으로 들어서려면 솟을대문이 아니면 출입할 수 없었으므로 솟을대문은 바로 재상의 집을 상징하였다.

갑오개혁의 실시로 양반과 상민을 가르는 신분 제도가 철폐되자 조선 초부터 실시되어 오던 주택 규제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관철동의 부유한 중인들은 그들의 주택을 칸수의 제한 없이 상류층 주택의 규모 못지않게 건축하고, 종래의 평대문(平大門) 대신 양반가의 상징이던 솟을대문으로 개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이문골, 삼청동, 사직동으로 번져 나갔다. 이러한 사태가 점점 확산되어 가자 오히려 양반가에서는 솟을대문을 헐고, 평대문으로 개조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뿐 아니라 일찍부터 개화사상에 심취하여 개화운동에 앞장서 온 중인들은 유교 사회의 상징인 사당(祠堂)을 없애고, 그 공간을 목욕탕으로 개축하기도 하였다.

지금의 보신각 부근 관철동에 이르는 골목 옆에는 허술한 초막집들이 많았다. 광통방(廣通坊)은 청포(靑布)·갓·신발·철물 등을 파는 시전(市廛)들이 많은 중인촌(中人村)이었다.

청계천변 을지로 6가에는 훈련원이 있었는데 이 부근에는 군인들이 많이 살았다. 조선 시대 군인들은 요즘과는 달리 복무 기간이 길어 대개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良人) 남자는 군역의 의무를 담당하였다. 군인들은 일정한 월급이 없었고, 군대에서 사용하는 복장이나 무기도 스스로

마련하는 등 군 복무는 괴로운 의무로 간주되었다.

청계천변에 살았던 아전, 중인

청계천 2, 3가 · 광고 · 수하동 부근에는 역관, 의원, 화공(畫工) 등의 기술직이 살았다.

조선 시대 서리(胥吏)들을 가리켜 아전(衙前)이라 부른 것은 서울, 지방을 막론하고 그들이 대대로 관아 앞에 살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신분을 보면 조상은 양반 관료 계층이었으나 서얼 출신으로 신분 사회에서는 출세에 한계가 있었다. 그중에 재주가 있고 공부한 사람은 역관(譯官), 의원, 화공(畫工) 등 기술직에 종사하였다. 역관 중에는 사신을 따라 수행하면서 상거래로 돈을 모아 거부가 된 사람도 있었고, 새로운 문물을 접하게 되어 선각자가 된 사람도 있었다.

조선 시대 한성부 중부(中部)에는 사역원 · 전의감 · 내의원 · 도화서 · 교서감 · 도염서 · 통례원 · 종부시 등 주로 지적인 일을 다루는 관아가 모여 있어 역관(譯官) · 의관(醫官) · 검율관(檢律官) · 도서화원(圖書畫員) · 사자원(寫字員) · 계사(計士) 등에 종사하는 경아전(京衙前)들이 집단으로 거주하였다.

조선 말에 오경석(吳慶錫, 1831~1879)은 중인 출신의 역관으로 수포동에서 아래 보습곳이, 현재 수하동 11번지(중소기업은행 본점 뒤편)로 이사하여 살았다. 중인 출신 중에 재주 있고 배우기는 하였지만 출세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지와 재담으로 세상사를 풍자하고 비판하거나 재상이나 고관집 사랑에 놀러가서 얘기도 하고, 해학(諧謔)을 하며 한평생을 산 사람도 있었다. 이런 시사 풍자가 중 유명한 사람으로 서울의 정수동(鄭壽銅, 1808~1858), 대구의 정만서(鄭萬瑞, 1836~?) 등이 있다. 정수동에 관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하루는 정수동이 영의정 김홍근(金興根) 대감 집에 갔는데 계집종의 어린 아들이 동전 한 닢을 삼켜서 죽는다고 울고불고 하였다. 마침 문객으로 와 있던 정수동은 계집종에게 “그 먹은 돈이 제 돈이냐 혹은 남의 돈이냐?”고 물으니 제 돈이라고 하였다. 정수동은 다시 동전 몇 개를 먹었느냐고 물었다. 동전 한 개를 삼켰다고 하니까 정수동이 하는 말이 “걱정 말게, 이 집 대감은 수천 냥 삼켜도 끄떡 없는데 그 동전 한 닢 먹어서 무슨 탈이 나겠느냐.”라고 하였다. 때 마침 김홍근 대감은 남의 돈 2만 냥을 가로챈 일로 원망을 듣고 있었는데, 정수동의 이 말을 듣고는 크게 깨달아 2만 냥을 주인에게 바로 돌려주고 그 후부터는 청빈하게 살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자기를 일깨워 준 정수동을 무척 좋아했다는 이야기이다.

관아가 즐비했던 청계천변

청계천변은 혜민국 · 사자청 · 도화서 · 장악원 · 군기시 등의 관아가 위치하여 청진동, 장교, 수표교 부근에는 낮은 계급의 관리들이 거주함으로써 아전, 중인(中人)이라는 칭호가 유래되었다. 그들은 이 일대를 스스로 위향(委巷) · 여향(閭巷)이라고 칭하였다.

현재 을지로 2가, 즉 을지로 입구 일대를 예전에는 구리개라고 칭하였다. 구리개란 이름은 전에 을지로 1가와 2가 사이에 나지막한 고개가 있었는데 이 고개의 흙이 몹시 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 일대를 동현(銅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구리개를 한자로 고친 것이다.

조선 시대의 을지로 일대는 현재처럼 평지는 아니었다. 남산 줄기가 뻗어 내려온 탓으로 낮은 언덕이 있었고, 지천이 남산에서부터 흘러내려 청계천으로 들어갔다.

○ 전옥서(典獄署)

우리나라 각 지방 마을에는 수호신을 모신 서낭당 또는 동제당(洞祭堂)이



서울역사박물관에서 2011년에 전시한 <웃대 중인전> 포스터

있다. 서울에서는 서낭당이라 하지 않고 부군당(府君堂)이라고 부르는 것이 특색이다.

이 서낭당이나 부군당은 우리 민족이 선사 시대부터 행해 온 유구한 전통을 지닌 민속 신앙이다. 대개 부군당의 수호신은 건국 시조나 장군을 모셔 놓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성별(性別)을 보면 3대 7의 비율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이 출산을 하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多産)을 기원하는 주술적(呪術的)인 신앙에서 받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대체로 동제(洞祭)는 마을 사람들의 축제(祝祭)로서 주민들의 대동단결을 꾀하고 민속 예술을 짝트게 했다. 동네마다 차이는 있지만, 제사를 주관하는 제주(祭主)나 추진하는 사람은 제사가 있기 며칠 전부터 집안에 부정(不淨)한 일이 없어야 추대되었다.

『중보문헌비고』에 보면 부군당은 마을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관청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관청에는 으레 작은 사당이 있는데 종이돈(紙錢)을 걸어 놓고 부군(府君)의 호칭을 붙이며 모두 모여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신임 관원들은 반드시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다. 문종 때 어효침(魚孝瞻)이 사헌부의 종 3품 집의(執義)로 승진하여 첫 출근하자 이곳 하인들이 나와 부군당에 제사를 드려 복(福)을 비는 것이 전례라 말하였더니, 어효침이 “도대체 부군이란 어떤 물건이냐? 이것은 필경 미신(迷信)으로 귀신을 모셔 놓은 집이니 마땅히 없애 버리는 것이 옳

다.” 하고 지전(紙錢)을 꺼내어 불태워 버렸다. 그리고 다른 관아에 설치된 부군당도 모두 없애 버렸다. 그래도 어효침은 아무 탈 없이 승진하여 관직이 이조판서에 올랐고, 그 아들 어세겸(魚世謙)은 정승까지 되었다.

관아의 부군당에 제사를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써어 있다. 그리고 이곳에는 손각씨(孫閣氏), 즉 처녀 귀신을 위해 사방 벽에 나무로 만든 남근(男根)을 많이 매달아 놓아 음란하기 짝이 없었다. 그리하여 중종(中宗)은 이 부군당을 모두 없애도록 명했으나 남근을 숭배하는 부군당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남근 신앙(男根信仰)은 동해안 어촌에서 풍어(豐魚)를 빌기 위해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윤백남(尹白南)이 쓴 『조선형정사』에 보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전옥서(典獄署) 구내에는 작은 사당이 있고, 그 안의 네 벽에는 남녀 얼굴이 그려져 있다. 이 남녀 얼굴은 고구려 시조 동명왕과 그 왕비라고 전해 온다. 이러한 사당은 이곳뿐만 아니라 각 관아마다 있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 사당 안에 나무로 만든 남근(男根)에 붉은 칠을 한 것이 많이 있었다. 그 후에 전옥서 사당이 철폐되면서 그림과 제사 기구, 남근 등은 서대문 형무소에 보관되었다고 한다.

전옥서는 죄수들을 수감하는 교도소로서 조선 초부터 고종 때까지 종로구 서린동 42번지에 있었다. 이곳에 전옥서를 지은 까닭은 부근에 우포도청과 의금부가 있던 것과 무관하지 않으나, 이 터가 좋아 죄수들이 병사(病死)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설을 좇은 것이다.

조선 말에 리텔 신부(神父)가 쓴 기록에 보면, 전옥서의 풍습으로서 먼저 석방되는 죄수 중에서 부유한 자는 반드시 얼마간의 곡식을 재소자에게 기증하게 되어 있었다. 이 경우에 재소자들은 이 쌀로 전옥서 안의

부군당에 제사를 지내면서, 속히 석방되기를 기원했다.

○ 혜민서(惠民署)

오래 대구 하면 '사과', 개성 하면 '인삼'을 연상하듯이 서울의 구리개 하면 '약방'이었다. 그 까닭은 조선 초부터 5백 년간 현재 외환은행 본점이 들어선 동쪽에 혜민서(惠民署)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혜민서는 의약(醫藥)과 일반 서민의 치료를 맡았던 기관이다. 혜민서는 태종 때 그 명칭이 확정되었지만, 조선 초 서울 도성을 쌓을 때 많은 부상자를 수용, 치료한 바 있다.

혜민서와 관련된 것으로 '약방기생(藥房妓生)'을 빼놓을 수 없다. 조선 시대는 유교 관습으로 남녀가 유별했으므로 궁중의 비빈(妃嬪), 궁녀 및 고위직의 부인들은 건강을 진단하거나 설사 중병에 걸렸더라도 남자 의사가 직접 진맥(診脈)을 할 수 없었다. 즉, 휘장을 치고 팔만 내밀어 진맥을 하거나 손목에 실을 매어 문밖에서 진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병을 정확하게 진찰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궁리 끝에 지방 기생들 중에서 70여 명의 영리한 기생을 뽑아 혜민서에서 의술을 가르쳐 내보냈는데 이들을 흔히 약방기생이라고 하였다.

○ 장악원(掌樂院)

구리개에는 장악원(掌樂院)이 자리 잡고 있었다. 즉, 현재 외환은행 본점이 자리한 곳에 조선 5백 년간 음악을 가르쳐 악공(樂工)을 길러 내는 관공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이 부근을 얼마 전까지 장악원동이라 불러 왔다.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에 보면 임진왜란으로 국난을 치른 선조(宣祖) 때, 셋째 딸 정숙옹주(貞淑翁主)가 이 장악원 부근에 시집을 와서 살았다고 써어 있다. 그런데 그 집이 좁고 이웃집과 가까이 붙어 있어 살기에 불편하였다. 이에 정숙옹주는 어느 날 선조 임금을 찾아 이 고충

을 호소한 뒤 집터를 늘려 줄 것을 청하였다.

이 말을 들은 선조는 정숙옹주에게, “음성이 낮으면 이웃집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처마를 가리면 서로 보이지 않을 것이니 구태여 마당을 넓힐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였다. 정숙옹주는 이 말에 기가 막혔지만 어찌할 수 없이 궁궐을 나왔는데 곧이어 선조는 해당 관서에 명하여 정숙옹주 집의 처마를 가릴 발 두 장을 하사했다⁴⁾는 일화가 남아 있다.

장악원은 조선 말 고종 때 갑오개혁으로 폐지하였지만 한때 일본군이 악생(樂生)을 내쫓고 주둔하였다. 일제의 침략으로 건물마저 헐리고 말았는데, 일제는 이 자리에 동양척식회사(東洋拓植會社)를 세웠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 경제 침략의 총본산으로 악명 높은 기관이었다. 선량한 농민들의 토지를 하루아침에 빼앗아 갔으므로 토지를 잃은 국민들은 동양척식회사야말로 원한의 표적이었다.

1926년 12월 28일, 의열단에 가입한 나석주(羅錫疇) 의사는 중국에서 몰래 입국하여 동양척식회사로 들어가 권총으로 일본인 몇 명을 사살하고 폭탄을 던졌으나 불발(不發)하였다. 동양척식회사를 나온 나석주 의사는 을지로 큰길에 나와 일본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면서 을지로 2가까지 오게 되었다. 탄환은 떨어지고 사망에서 경찰이 물러들자 그는 최후의 1발로 장렬하게 자결하였다.

○ 도화서(圖畫署)

중구 수하동 64번지에는 조선 시대에 그림을 가르치고, 고시(考試)·제조·보관 등에 관한 일체의 일을 맡은 관아인 도화서(圖畫署)가 있었다. 원래 중부 건평방에 있었다가 이곳으로 옮긴 도화서는 역대 왕들의 초상화도 많이 그렸다.

예조(禮曹)에 소속된 종 6품 아문(衙門)인 도화서는 조선 초에는 5품 아문으로 도화원으로 불렸으나 성종 2년(1471) 도화서로 개칭되면서 격

하되었다. 『경국대전』에는 도화서에 화학(畵學) 15명을 배치하여 화원(畵員)을 양성함은 물론, 국가의 각종 의식이나 행사 및 초상화 등을 그리는 일을 담당하였다고 하였다. 이후 영조 22년(1746)에는 화원의 임무가 증대되면서 화원생도가 15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되었다. 또한 조선 후기에 화학교수(畵學敎授)가 배치되면서 별제(別提) 자리가 폐지되는 등 화원 가운데 그림이 뛰어난 사람이 교수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물론 별제나 교수 자리는 사대부 가운데서 그림에 뛰어난 자를 앉히는 사례가 많았다.

화원을 선발할 때는 죽(竹)·산수·인물·화초·영모(翎毛) 가운데 두 가지를 시험하여 선발하였으며, 중인 계급으로 세습되는 경우가 많았다. 18세기의 김홍도(金弘道) 등도 도화서를 통해 배출된 인물이다. 조선의 화풍을 형성하고 그 업적을 이어 나가는 데에 중심적인 구실을 한 도화서가 국가와 궁중의 의식이나 행사를 그린 의궤(儀軌)는 당시의 문물과 의식 형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사자청(寫字廳)

삼각동과 남대문로 1가에 걸친 신한은행 본점 뒤편은 조선 시대 사자청(寫字廳)이 있어서 사자청동이라고 했다. 사자청은 규장각과 승문원(承文院)에 속한 관아로 외교 문서와 지문(咨文) 등의 문서를 정서(正書)하던 사자관(寫字官)들이 근무하였다. 이들은 대개 중인 중에서 품행이 바르고 사학(寫學)에 능한 사람들로 규장각에 8명, 승문원에 40명이 소속되었는데, 외국 사신 사행(使行)에도 수행하였고 외교 문서를 관장하였다.

○ 주교사(舟橋司)

주교동 126번지 북쪽에는 주교사(舟橋司)가 위치하여 이 부근의 청계천 다리를 주교(舟橋)라고 불렀다. 주교사는 조선 후기 정조 13년(1789)에 설치된 관아였다. 정조는 사도세자로 불리는 장조(莊祖)가 묻혀 있는 수원의

용릉에 자주 참배하기 위해 한강을 건너게 될 때 어가(御駕)의 안전을 위해 한강에 주교 가설을 전담하는 주교사를 설치하였다.

정조가 1790년 친히 제정한 『주교지남(舟橋指南)』과 1793년에 정해진 『주교사 절목(舟橋司節目)』에는 주교를 가설할 때 배 290척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주교는 봄·가을 행차에 따라 연초인 1~2월 혹은 8월에 가설되었으나, 대개 봄철에 어가가 행차하므로 주교 가설에 동원되는 주교선들은 겨울을 한강에서 지내고 1~2월에 주교의 역(役)을 마친 후 각자 조운(漕運)에 종사하게 되어 있었다. 동원된 선박은 충청도의 조운선과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강화도에 비치한 훈련도감 대변선 등 관선(官船)이었지만 점차 인근의 사선(私船)도 징발하였다.⁵⁾

○ 훈련원(訓練院)

중구 을지로 6가와 방산동에 걸쳐 있던 훈련원(訓練院)은 조선



노랑진에 설치된 배다리 그림 <한강주교환어도(漢江舟橋御圖)>

시대 군사의 시재(試才), 무예의 훈련 및 병서(兵書)·전진(戰陣)의 강습을 맡았던 관아였다. 1392년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 처음에는 훈련관(訓練觀)이라 하다가 세조 13년(1467)에 훈련원으로 개칭하였다.

훈련원에는 습독관(習讀官) 30명을 두어 『병요(兵要)』, 『무경칠서(武經七書)』, 『통감(通鑑)』, 『장감(將鑑)』, 『박의(博議)』, 『진법(陣法)』, 『병장설(兵將說)』을 습독하고, 활쏘기와 말 타는 법을 연습하게 하였다.

훈련원은 조선 말 1907년 한일신협약 체결에 따라 군대 해산이 이루어짐으로써 일본에 의해 강제로 폐지되었다.

2) 청계천의 세시 풍속

청계천 다리를 밟는 답교놀이

정월 대보름날 밤에 청계천의 다리를 밟는 민속놀이로 답교(踏橋)놀이가 있었다.

이 풍속은 고려 시대부터 매우 성행하여 조선 시대에도 정월 대보름날 밤에는 도성 안의 통행금지가 해제되었으므로 사람들이 종각으로 모여들었다. 조선 후기의 김정호가 쓴 『대동지지(大東地志)』에 보면 인정(人定) 소리를 들은 다음, 각각 흩어져서 광통교, 수표교, 소광교 등에서 밤새도록 다리 위를 왔다 갔다 하였다는 것이다. 유득공(柳得恭)이 쓴 『경도잡지(京都雜誌)』를 보면 답교놀이는 서울 지방, 특히 광교와 수표교에서 남녀노소 귀천을 가리지 않고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답교의 풍습은 중국의 한나라, 당나라 때에도 있었는데, 우리말의 다리(橋)와 사람의 다리(脚)가 발음이 같으므로 답교를 하면 다릿병(脚病)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주술적(呪術的)인 신앙이 이 민속놀이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날 12개의 다리를 건넌다는 것은 '주백병(走百病)'이라는 말과 같이 100가지 병을 물리치고 건강하게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

이었다.

이날 남자들은 날라리와 장구를 울리고, 시를 읊기도 하며, 농악대를 앞세워 무동(舞童)을 서게 하기도 하지만 다리 위에서나 다리 근처에서 술자리를 베풀어 즐겁게 지냈다. 이처럼 답교놀이는 무의미하게 다리밟기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흥겨운 놀이의 성격을 지녔다.

부녀자들은 물에 비친 달을 보며 음식을 냇물에 던져 1년 동안에 좋은 일이 있기를 빌기도 하고, 처녀들은 저고리의 옷고름을 몰래 떼어서 청계천에 내버렸다. 이는 자기 몸에 있는 액(厄)을 옷고름에 담아 없애겠다는 액막이 행위였다.

조선 선조 때 이수광(李睟光)이 쓴 『지봉유설(芝峯類說)』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보름날 밤 답교놀이는 고려조로부터 시작하였다고 되어 있다. 태평할 때에는 매우 성하여 남녀들이 줄을 이어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으므로 법관들이 금해서 체포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풍속에는 부녀자들이 다시 다리를 밟는 일이 없다.

조선 시대에는 한때 부녀자의 문밖 출입을 심하게 단속하여 답교놀이를 즐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놀이가 한창 성행했을 때의 모습은 최남선(崔南善)의 『조선상식』 풍속편 답교조(踏橋條)에서 엿볼 수 있다.



임득명, <가교보월(街橋步月)>, 1786년, 삼성출판박물관. 정월 대보름에 청계천 광통교에서 행해진 다리밟기 장면을 담은 그림이다.

정월 대보름날 밤의 놀이 중 성행되었던 것은 연등놀이이다. 그러나 조선 왕조, 특히 태종 이후에는 연등놀이 대신 다리밟기가 이날 밤에 성행하였는데 특히 서울에서 더했다. 장안의 남녀들이 종가(鐘街)로 모여들어 보신각의 저녁 종소리를 듣고 나서 각 곳에 있는 다리로 흩어져 가서 밤새도록 다리 위를 왔다 갔다 하였다. 서로들 어깨와 허리가 부딪힐 정도로 붐비면서 날라리와 장구를 울리고 시를 읊기도 하며 물에 비친 달을 보며 1년 동안에 좋은 일이 있길 빌었다.

상류층 사람들은 서민들이 붐비는 15일 밤을 피하여 그 전날인 14일 밤에 다리밟기를 하였다. 이를 가리켜 ‘양반답교’라 하였다. 부녀자들은 14·15일을 피하여 16일 밤에 행하였다. 조선 중엽 이후에는 부녀자의 문밖 출입을 심하게 단속했으므로 부녀자들의 다리밟기는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답교놀이가 한창 성행했을 때 양반들은 사람들이 붐비는 15일 밤을 피하여 그 전날인 14일 밤에 다리밟기를 하였는데 이를 가리켜 ‘양반답교’라고 하였고, 부녀자들은 14·15일을 피하여 16일 밤에 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정월 14일 밤에는 그해의 신수가 나쁜 사람은 적선(積善)을 해야만 액을 면할 수 있다 하여 개천에 다리를 가설하거나 ‘유두 돌’을 놓는 일이 있었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착한 일을 하면 액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의 왕래가 많으나 다리가 없어 불편한 곳을 찾아 남몰래 다리를 놓았다.

다리를 놓을 형편이 못 되면 가마나나 섬·오쟁이에 돌을 가득 담아 띄엄띄엄 놓아 사람들이 밟고 가기에 좋게 하였다. 이렇게 하면 다리를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해의 액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 ‘유두 돌’을 놓을 때에는 섬 속에 돈을 넣어 두는 일도 있었다.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

이나 아이들이 주워 가기 마련이니 이것도 적선의 하나로 여겨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을 ‘월강공덕(越江功德)’이라 하였다.

14일 밤에 직성(直星)이 든 사람이 있는 가정에서는 제용을 만들어 거리나 개천에 버린다. 직성이란 액년이 든 것을 말하는데 남자는 11, 20, 29, 38, 47, 56세이고, 여자는 10, 19, 28, 37, 46, 55세에 해당한다.

청계천 위에 놓인 다리들은 여가 공간으로도 쓰였다. 조선 후기에 전기수(傳奇叟, 기이한 이야기를 전해 주는 노인)는 청계천 다리 위에 자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모아 놓고 소설책을 읽어 주는 이야기꾼이었다.⁶⁾ 전기수는 동대문에서 종루 사이를 6일 간격으로 오르내리면서 청중에 둘러싸여 매일 소설을 구연(口演)하였다. 조선 후기에 전기수들의 출현으로 청계천 일대는 새로운 문화의 한마당이 창출되었다. 이들은 소설의 보급, 독자층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국문 통속 소설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 내어 읽기에 알맞은 낭독 소설로 씌어졌다.

다른 한편 역관 임희지(林熙之)는 눈 내리는 날이면 청계천 다리에서 생(笙)이란 악기를 불기도 하였다고 전한다.⁷⁾

청계천변에서 벌어진 민속놀이

조선 시대에 청계천은 도성 사람들의 음용수, 빨래터, 물놀이 장소로 이용되었지만 청계천변에서는 민속놀이가 행해졌다. 우선 정월 대보름에 행했던 편싸움, 6월 유두의 머리감기, 쥐불놀이 외에 4월 초파일 연등놀이가 성행하였다.

○ 연날리기

조선 초부터 음력 1월 14일 저녁때가 되면 청계천에서 연을 날렸다. 이른바 ‘액막이 연’이다. 명종 때 ‘액막이 연’이 궁중 안으로 떨어져 궁중에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나자 연날리기를 금지시켰고, 그 후 임진왜란,



돌을 던져 싸우는 놀이 '편싸움', 조선 후기

병자호란으로 연날리기도 거의 없어졌다.

이것이 영조·정조 때에 다시 부활되어 지연(紙鳶)을 날리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때는 남산 아래에서 날리지 않고, 청계천의 양쪽 언덕에서 날렸다고 한다. 또한 그저 연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연과 연이 서로 어울려 가며 싸우기도 했다.

○ 편싸움, 석전

두 편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돌을 던져 가며 편싸움을 하는 놀이로 석전(石戰), 또는 편전(便戰)이라고 하는데 그 기원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전은 삼국 시대부터 시작되어 고려와 조선 초기에는 더욱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석전은 전쟁에 대비한 연무(鍊武)의 큰 뜻을 가지는 전투적 놀이 또는 실전 연습의 놀이라는 설과, 옛날에 마을마다 입영할 장정을 고르는데 어느 마을이 가장 힘세고 용감한 장정들을 배출시키는가를 경쟁하던 습속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다.

특히, 고려 시대에는 중요한 전투 기술의 하나로서 석투반(石投班)·석투군(石投軍) 등의 군대 조직이 편성되었을 정도였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삼포왜변 때 안동·김해 등지의 석전 선수들을 모집하여 왜인의 난동을 막기도 하였다.

석전의 도구로는 망괘·망팔매·줄팔매 등으로 불리는 끈이 사용되었다. 한쪽 고리를 집게손가락에 끼고, 중간 부분은 돌맹이가 잘 없게 여러 가닥으로 펴고, 또 한쪽 끝의 너스레를 단 부분을 쥔다. 이것을 빙빙 돌리다가 한쪽 끝을 놓으면 돌이 쏠살같이 앞으로 날아간다.

석전은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하던 마을 대항 민속놀이로, 마을과 마을 사이의 공터가 해마다 석전을 벌이는 장소가 되었다. 가장 남성적이고 전투적인 놀이의 하나였으며 주로 개천이나 강을 경계선으로 하여 두 편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돌맹이를 던지며 싸우다가 맞붙어 이른바 백병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 석전은 대개 좋은 날으로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간혹 피를 흘리게 되고 생명을 잃는 일도 있어 마을 사이에 감정적인 대립을 초래할 때도 있다. 석전은 낮에 아이들로부터 시작되다가 어른들이 참가함으로써 더욱 격렬해지는데 해가 저서 어두워지면 그치는 게 상례이다. 즉 마을 사이의 공터에서 양측의 몇 사람씩 모여서 돌을 던지고 싸움하는 소리를 지른다. 서로 농담과 조롱으로 “지금 몸이 성할 때 어서 돌아가라.”고 권하다가 차츰 격렬해져 투석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석전은 돌을 손으로 던지거나 새끼로 만든 투석기(投石機)를 사용하지만 때로는 몽둥이까지 동원하여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석전에 참가하는 사람은 마을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한쪽이 800명 내지 1,000명이 되었다고 한다.

『경도잡지(京都雜誌)』에는 석전에 대해서 “서소문 밖의 만리재 위에서는 정월 대보름이면 아현 사람들과 맞서 석전이 행해졌다.”고 소개하고 있다. 조선 말 순조 때 홍석모가 쓴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석전을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매년 정월 대보름날 3문(三門) 밖과 아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대(隊)를 나눈 다음 몽둥이를 들고 혹은 돌을 던져 함성을 지르며 서로 쫓고 쫓기며 만리재 위에서 접전을 하는 형상을 하는데 두 패로 나뉘어 싸운다 해서 편전(便戰), 변전(邊戰)이라 칭하였다. 이때 퇴각해 달아나는 편은 패전한 것으로 했다.

이날을 전후해서 서울 장안 청소년들의 석전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던 것 같다. 전설에 의하면 삼문 밖이 이기면 서울 부근에 풍년이 들고, 아현이 이기면 8도가 풍년이 든다고 한다. 따라서 아현이 8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창 석전이 벌어지면 함성이 땅에 진동하였는데 서로 머리를 싸매고 공격하여 이마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며 피가 흘러도 그치지 않는다. 다치고 죽어도 뉘우치는 법이 없고 또 목숨을 대신 갚는 법도 없으니 행인들이 모두 편싸움을 무서워하여 서로 피해 갔다고 한다. 조선 시대 치안을 담당하던 한성부 등 관아에서 특별히 금지했지만 고질이 된 풍습을 없애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였다.

『동국세시기』에도 석전을 소개하면서 서울에는 관수동의 비파정(琵琶亭) 부근, 도동의 우수현(牛首峴)이 석전하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했다.

청계천 하류의 양쪽 가산(假山) 일대도 정월이면 어린이들의 석전이 벌어졌다. 그 밖에도 동대문 밖의 안감내, 신당동의 무당내도 석전하던 곳이었다.

조선 말에 서울에 왔던 미국 선교사 길모어는 “한국에 왔다가 이 석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특이한 국민에게서 보는 가장 특징 있는 구경을 못한 것이 된다.”고 하였다. 길모어는 그의 저서 『수도에서 본 한국』의 ‘오락과 의전편’에서 석전 모습을 상세히 써 놓았다.

진격을 할 때에 일제히 큰 소리로 “가—” 하고 외치는데 까마귀 떼 소리 같은 이 소리가 들리면 상대방은 일제히 뒤로 물러난다. 그러다가 자기 편 앞줄에 용감한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면 이쪽에서 다시 호응하여 “가—” 소리를 지르고 반격한다. 내가 본 가장 큰 석전은 2,000명의 어른과 아이들이 참가한 편싸움인데 먼저 한편이 공격해서 상대방을 그들의 마을에서 반이나 몰아냈다.

그러자 별안간 사람들이 모이고 신호에 따라 진격해 나와 단번에 빼앗긴 지역을 탈환하였다. 조금 휴식을 취하더니 돌격은 다시

시작되어 처음에 공격해 오던 편은 집 안으로 도망쳐 들어가서 분을 참고 내다볼 뿐이었다.

그동안에 반격해 간 편은 상대방에 표지를 해 놓기 위해서 돌을 던져 바깥채 한 채를 부숴 버린다. 이렇게 되면 감정이 상하여 어떤 사람은 이튿날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못된 짓을 한 자를 때리겠다고 하기도 한다.

석전이 벌어지면 여러 곳에서 모인 구경꾼들은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간다. 그러나 잘못 던진 돌이 구경꾼 쪽으로 날아오는 수가 있다. 석전에서 부상자가 없는 것은 숨을 둔 겨울옷을 입은 때문인 것 같다.

○ 4월 초파일 연등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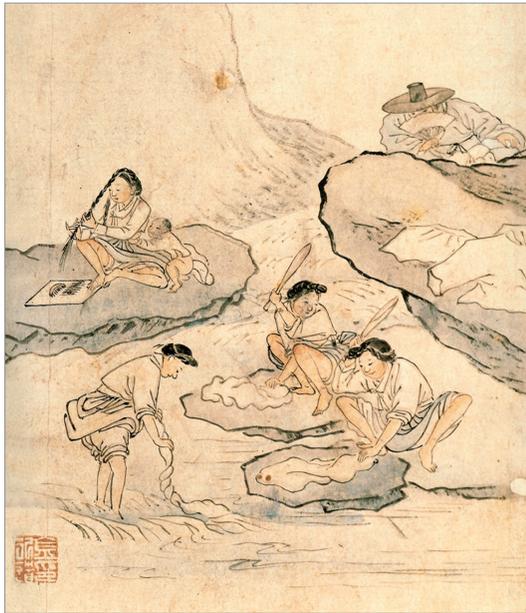
정월 대보름날 밤의 놀이 중 성행했던 것은 연등놀이이다. 그러나 조선 초, 특히 태종 이후에는 연등놀이 대신 다리밟기가 이날 밤에 성행하였다. 4월 초파일에 연등놀이의 하나로 무언 인형극인 만석중놀이를 놀았는데 만석중과 노루·시슴·잉어·용 등이 사용되었다고 전한다.

조선 시대 무과(武科)에 합격한 사람에게선 임자가 얼굴에 그림뿐 아니라 온갖 욕을 다 썼으며, 다리가 부러진 예도 있었다. 그 밖에도 개천에 밀어 넣어 옷을 모두 젖게 만드는 등의 갖가지 횡포는 신랑을 매달아 놓고 발바닥을 때리거나 그 밖에 기합을 주는 악습과 더불어 없어져야 할 폐습이라고 개탄하였다.

수표교 남쪽에는 조선 역대 국왕의 어진(御眞)을 모신 영희전(永禧殿)이 있으므로 국왕이 참배하는 일이 자주 있어서 청계천 양안(兩岸)의 주민들은 국왕의 거동을 구경할 수 있었다.

○ 유두(流頭)의 머리감기

음력 6월 15일 유두날은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빗는다. 이 풍



김홍도, <빨래터>, 18세기 후반, 국립중앙박물관, 유두날 풍속으로 우리 조상들은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았다.

속은 신라 때부터 시작되어 고려 때에도 성행하여 이날이 되면 궁중의 환관들이 짝을 지어 동천(東川)으로 나가 피서도 하며, 머리의 때를 씻었다.

조선 시대 도성 안 사람들은 이날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찾아 나갔다. 서울의 청계천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유두의 머리 감기 장소로서는 적당하였기 때문이다.

○ 쥐불놀이

원래 농촌에서 정월 첫 쥐날(上子日)에 쥐를 쫓기 위하여 논과 밭의 독에 불을 놓는 놀이인데, 짚을 놓았다가 해가 지면 일제

히 불을 놓아 잡초를 태웠다. 이 쥐불의 크고 작음에 따라 그 해의 풍흉(豊凶), 또는 그 마을의 길흉을 점쳤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밤에 횃불놀이를 겸하여 쥐불놀이로 청계천 양안의 밤을 아름답게 밝혔다.

3) 청계천의 범람과 치수 사업

맑은 물이나, 하수물을 흐르게 하느냐

조선 초 세종 26년(1444) 11월 19일, 집현전 수찬 이선로(李善老)가 어전 회의에서 “청계천 물에는 더럽고 냄새나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명당수(明堂水)가 늘 깨끗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건의하자, 세종이 중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이에 영의정 황희 등이 논의한 끝에 이선로의 계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론지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서울의 각 부(部)와 한성부·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 낭청으로 하여금 성내의 각 집을 나누어 맡아 더럽고 냄새나는 물건을 개천에 버리지 못하게 하여 청계천 물을 깨끗하게 하도록 힘쓰게 하고, 한성부의 당상(堂上)과 금화도감 제조가 항상 살피도록 하며, 또 사헌부로 하여금 수시로 규찰(糾察) 검거하게 하소서.

이에 좌참찬 권제(權躋)가 상소문을 올려, “풍수설은 의논하는 자가 한 둘이 아니니, 이치에 거슬리고 어긋나는 것이 없지 아니하므로, 실행하기 어려운 금령(禁令)을 얼른 청할 수가 없다.”고 하자, 세종은 이를 풍수학(風水學)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1개월 후인 세종 26년(1444) 12월 21일에 집현전 교리(校理) 어효침(魚孝瞻)이 청계천을 맑게 하자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명당이 냄새나고 더러우며 물이 불결함을 패역흉간지상(悖逆凶殘之象)이라고 한 것은 흉기편(凶氣編)에 있는 말인데 이것은 묘지의 길흉을 따질 때의 이론이지 결코 도읍지의 형세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도읍하는 곳은 인가가 번성한즉 자연히 냄새가 나고 더러워지는 것이며, 여기에는 반드시 소통시키는 개천과 넓은 내(廣川)가 있



세종대왕 어진

어서 거리를 중횡으로 흘러, 그 나쁜 물질을 떠나려 보낸 후에라야 맑게 할 수 있으니 도성 내의 물은 그 성질상 맑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약에 도읍지의 물을 산간의 청정수(淸淨水)와 같이 하려 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이치로 따지더라도 사생(死生)의 길이 다르고 신(神)과 사람은 처지가 다른데 묘지에 대한 일을 어찌 국도(國都)에 해당시킬 수 있습니까?⁸⁾

세종이 이 상소를 보고, 승정원에 분부하였다.

어효침의 논설이 정직하다. 내 그 글을 보고 마음으로 감동하였노라. 풍수서(風水書)라는 것이 믿을 것이 못 되는 것 같으나, 옛 사람들이 다 그것을 썼고, 재상으로 하륜·정초(鄭摺)·정인지가 모두 풍수서를 알고 있으니, 이 사람들에게 풍수술을 자문(咨問)할 것이고, 어효침 같은 자는 마음으로 풍수술을 그르게 여기니, 비록 풍수학에 일을 시켜도 필시 힘쓰지 않을 것이므로, 그것에는 일하지 말게 하라. 그러나 풍수학의 옳고 그름은 내가 독단할 것이 아니니 마땅히 제조(提調)들에게 의논하리라.⁹⁾

이 글은 곧 풍수학에 내려졌다. 세종이 어효침의 견해에 찬동하였으므로 이로써 청계천 물을 맑게 하자는 논의는 끝을 맺었다. 이는 세종대의 위민정치(爲民政治) 사상에 따른 것이었다.

어효침이 이에 앞서 왕명을 받들어 지리서를 참고하여 수릉(壽陵)의 정혈(正穴)을 정하였더니, 이선로(李善老)의 무리가 요사한 말을 다투어 만들어 아침을 하여 궁성 북쪽의 길을 막고, 가산(假山)을 쌓아 청계천의 물을 맑게 하기를 청함으로써 논설이 분분하였으므로, 어효침이 상소하여 이를 배척한 것인데, 이 당시 이 말이 극히 정당하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로써 청계천의 오염에 대한 논쟁은 판정이 났으므로 서울의 명당

수 역할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고사(故事)를 통해서 볼 때 당시의 이선로가 청계천이 오염되어 수도 장안의 면모를 잃어 가고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풍수설을 원용(援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정면으로 반대한 어효침의 주장이 우매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¹⁰⁾

조선 시대의 청계천은 서울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대상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홍수 시의 청계천 범람이 큰 문제였다. 매년 큰비가 내리면 교량이 떠나려갔고, 도성 안에 물이 넘쳐 가옥들이 침수되는 등 물난리를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연례행사인 청계천의 홍수와 범람

한성부는 재천도한 후 1년 반이 지난 태종 7년(1407) 5월부터 수해를 입기 시작하여 거의 매년 홍수를 겪었다.

『태종실록』의 기록을 보자.

○ 큰비가 와서 서울의 모든 하천과 도랑이 넘쳤다.¹¹⁾ 큰비로 물이 넘쳐 교량이 모두 파괴되고 도성 내에 2명의 익사자가 났으며, 소격서동(昭格署洞)에 산사태가 있었다.¹²⁾

○ 밤중에 크게 비바람이 불고 벼락이 떨어지고 번개가 치더니 성중(城中)에 물이 넘치고 교량은 떠나려갔거나 물속에 잠겼다.¹³⁾

○ 지난달까지 오래 가물다가 이달에 들어와 연일 장마를 이루더니 오늘은 폭풍이 불고 큰비가 내려 도성 안에 물이 넘치고 종루 동쪽에서 홍인문까지는 사람의 통행이 막혔다.……¹⁴⁾

○ 큰비로 물이 넘쳐 백성들 중에 익사한 자가 있었으며, 광통토교(廣通土橋)가 비로 파괴되었다.¹⁵⁾

태종 10년(1410) 한 해 동안 5월·7월·8월의 세 차례에 걸쳐 청계천 범람으로 큰 홍수 피해를 겪었으므로 청계천 준천(濬川) 사업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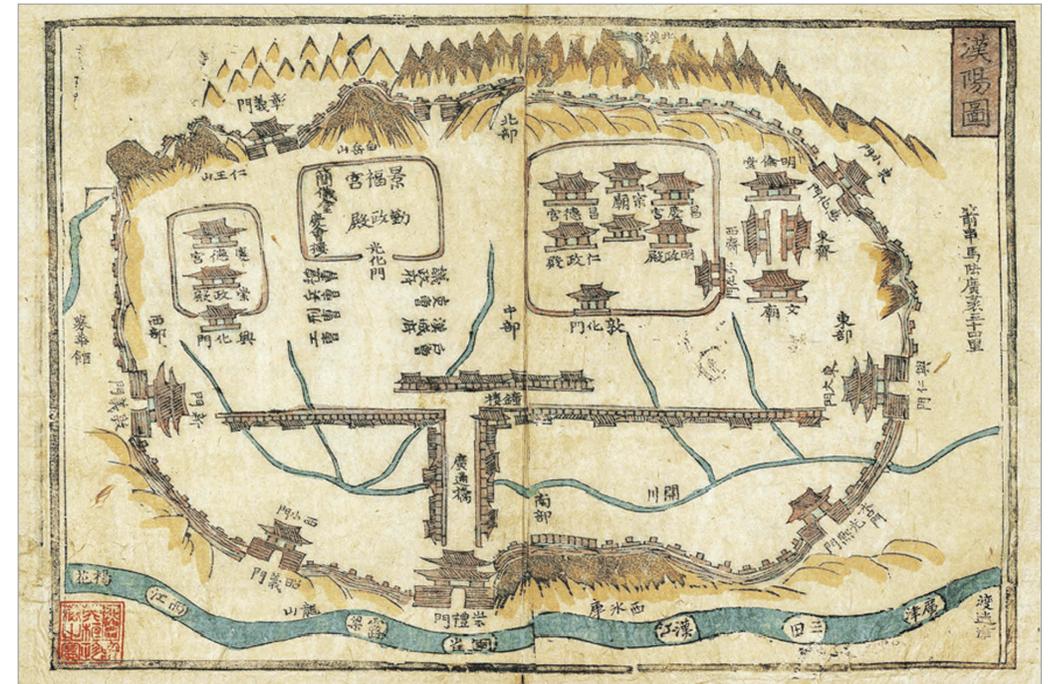
태종은 개천도감(開川都監)을 설치한 이듬해인 태종 12년(1412) 1월에 경상도·전라도·충청도 3도의 군인 5만 2,800명을 동원, 청계천 준천 공사를 기공하여 1개월 후인 2월 15일에 청계천 본류의 준천이 마무리됨으로써 자연 하천이 개천(開川)이 되었다.

이 당시 청계천 공사에 동원된 지방의 군인들이 공사를 마친 후에 병들어 죽은 자가 64인이라고 개천도감에서 보고하였다.

태종 때의 청계천 대공사가 있는 지 10년 만인 세종 3년(1421) 6월 7~9일 서울에 물을 퍼붓는 것 같은 큰비가 계속 내려 많은 익사자를 내었다.¹⁶⁾ 이어서 며칠 되지 않은 6월 12일에도 또 큰비가 내려 청계천에 물이 넘쳤다. 특히 청계천 하류 쪽이 막혀 물이 잘 빠지지 못하여 75동(棟)의 인가가 침수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붕 위나 나무 위에 올라가 난을 피했지만 적지 않은 수의 익사자가 발생하여 거리에 울부짖는 곡성(哭聲)이 자자하는 등 참변이 있었다.¹⁷⁾

이처럼 청계천 홍수가 지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세종 3년(1421) 7월 3일에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정진(鄭津) 등이 다음과 같은 긴 상소를 올렸다.

- 태종 12년(1412)에 있었던 개천 공사 때는 천거(川渠)의 본류에 대해서만 굴착하여 배수 공사만 하였을 뿐이고, 지류(支流)와 세천(細川)은 굴착 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 미처 굴착하지 못한 지류·세천에 대해서 태종 12년의 공사 이후에도 계속해야 한다고 여러 번 헌의(獻議)한 바 있으나 태종은 이를 듣지 않았으며,
- 수문(水門)이 두 군데밖에 없고, 좌우의 웅성(甕城)이 좁아서



〈한양도〉, 1770년경, 서울역사박물관. 도성의 주변 산천이 간결하게 묘사되어 있다.

도성 내에서 모인 물이 합류해서 잘 빠지지 않아 번번이 피해를 보며, 특히 동부 창선방(彰善坊)의 재해가 극심하니 별도로 수문 한 개를 더 만들어 큰물이 잘 빠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

○ 종루(鐘樓) 이하의 지면은 모두 낮아 도성 안의 물이 폭주하게 되면 주택이 물에 잠기는데 개천을 더 깊고 넓게 파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좌우행랑(左右行廊) 뒤에 또 하나의 큰천거(川渠)를 파게 되면 그 효과는 더 클 것이며,

○ 진장방(鎭長坊)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빠르고 격(激)하기 때문에 경복궁 동면 내성(東面內城)까지 수해를 입고 있다. 만약에 이것이 되풀이되면 내성(內城) 안까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궁성 동면의 개천은 들로 축대를 쌓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경복궁의 서성 밖에도 개천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것.

○ 정선방(貞善坊)에 있는 1개의 다리, 연화방(蓮花坊)에 있는 2

개의 다리, 창선방에 있는 3개의 다리, 덕성방(德成坊)에 있는 한 개의 다리 등 7개의 다리는 거가(車駕)가 항상 행차하는 곳이다. 그리하여 견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두 나무다리(木橋)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번 비가 오면 떠내려가므로 재목 낭비와 민간의 노력 동원이 되풀이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나무다리기 때문에 빗물에 썩기 쉬워서 견고하지 못하니 돌다리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 같은 상소를 받고 세종은 이를 모두 허락하였으나 공조(工曹)에 명령을 내려 농한기를 틈타서 이를 시행하도록 명하였다.¹⁸⁾ 이에 따라 세종 4년(1422) 1월부터 세종 16년(1434) 2월까지 12년간 매년 농한기를 이용하여 청계천의 본류보다 지천·세천(細川)을 정비하고, 소규모의 보수·확장을 계속하여 청계천은 서울 사람들의 생활 하수의 배수(排水) 역할을 하도록 정비하였다.

그러나 서울의 홍수는 연례행사로 일어났고, 세조 5년(1459) 6월 18일에는 큰비가 내려 도성 안에 물이 불어 넘쳐서 평지도 수심(水深)이 4, 5척(尺)이나 되고, 강물도 또한 불어 사람이 많이 떠내려갔으므로 우의정 신숙주(申叔舟)가 자신의 허물로 일어난 일이라고 과면을 청했으나 세조가 윤허하지 않았다.¹⁹⁾

태종 11년(1410)에서 세종 16년(1430)까지 완공된 청계천은 사산(四山)에서 흘러내리는 모래흙이 쌓이고 쌓여 20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자 청계천의 바닥은 높아졌고, 수구(水口)는 막혀 청계천의 역할에 큰 지장을 일으키게 되었다.

특히 임진왜란을 겪고 난 뒤로부터는 큰비가 오면 으레 청계천이 범람하고, 도성 안이 자주 홍수 피해를 입어야 했다.

17~18세기에 서울의 인구는 점차 증가하여 생활 하수가 늘어난 데다가 특히 17세기의 전 세계적인 기온 하락은 서울 사람들의 땀감 소비를 부채질하였다. 이에 백악과 남산 일대의 수목이 땀감용으로 베어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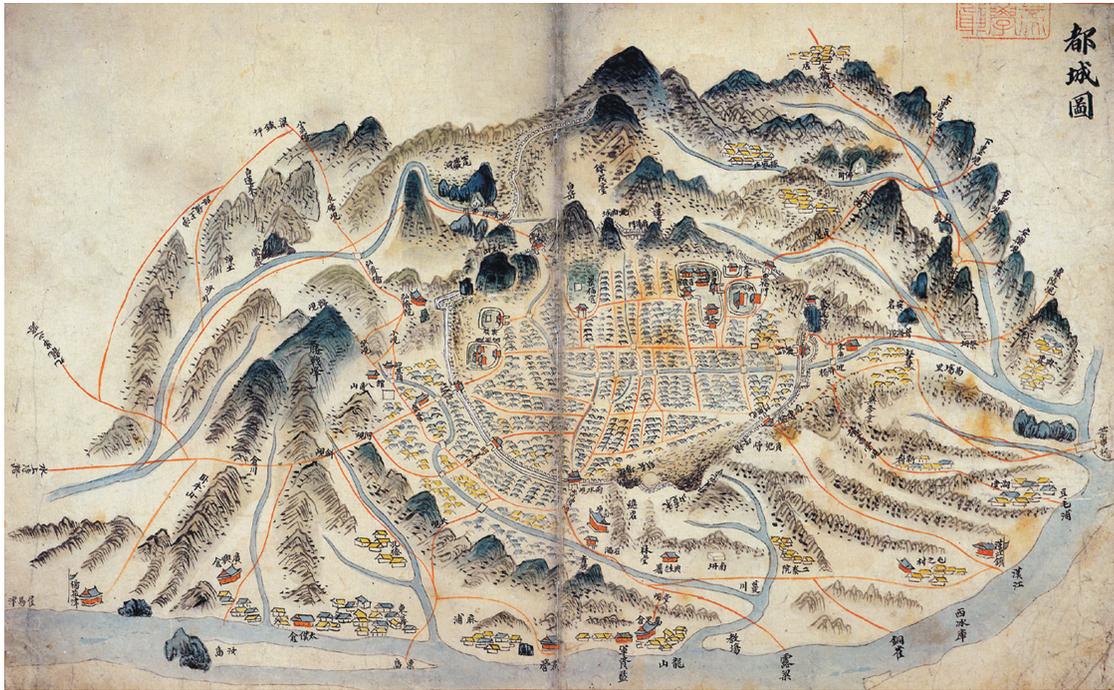
일부가 경작지로 개간되어 청계천의 모래흙 유입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하상이 높아짐으로써 홍수 피해가 심하였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청계천 바닥이 높아지고, 수구가 막혀 자주 문제가 된 데에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었다. 그 한 요인은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사산의 황폐였다. 조선 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도성을 둘러싼 사산의 산림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소나무 숲이 울창하여 모래흙이 흘러내리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²⁰⁾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부터 국법(國法)이 해이해진 데다가 송충이까지 번져서 사산의 산림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큰비만 오면 많은 모래흙이 흘러내려 청계천 바닥을 메워 간 것이다.

이수광(李睟光)은 『지봉유설(芝峰類說)』에서 임진왜란 이후의 사산의 황폐 상을 설명하면서 “수십 리 내로 어린 소나무도 남은 것이 없고, 사방의 산이 모두 붉게 되어 보기에 참담하다.”고 표현하고 있다.²¹⁾

청계천 바닥이 높아진 또 다른 원인은 청계천 유지 관리의 잘못이었다. 이 당시 청계천과 같은 도성 내 인공 하수도의 경우 주민이 갈래·나무·개진 항아리 등을 길옆 도랑이나 개천에 마구 버리는 것을 묵인하고 방치하는 관리 부재 상태가 100~200년 이상이나 계속되어 왔으므로 청계천에는 생활 폐기물이 쌓이기 마련이었다. 이리하여 사산에서 흘러내린 모래흙이 하류로 내려가지 못하고 퇴적되어 버릴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주민들 중에는 청계천에 사체(死體)까지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그 정도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의 한문 소설인 『광문자전(廣文者傳)』에도 “뭇 비렁뱅이들이 시체 한 구를 끌고 가다가 수표교에 이르러 다리 밑으로 던져 버리고 가는” 것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면,²²⁾ 언제부터인지는 모를 일이나 하층민들 중에는 시체를 몰래 개천에 버리는 일이 흔히 있었던 것 같다. 물론 극히 예외에 속하겠지만 시체까지 버릴 정도였다면 청



동국여도 중 <도성도>, 19세기 전반, 서울대학교 규장각

계천 관리는 사실상 방치 상태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²³⁾

『효종실록』에 의하면 효종 5년(1654) 6월에 폭우가 내려서 천거(川渠)가 넘쳐 흘러나와 교량이 무너지고 주택이 떠내려가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생겼으므로 구휼(救恤)을 하도록 하명(下命)하였다.²⁴⁾ 그로부터 10여 일 후에도 “오늘의 수재(水災)는 옛날에 없었던 큰 규모로 도성 안팎에 죽은 자가 수십 명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관 관리들이 이를 겨우 4명밖에 사망자가 없었다고 부실하게 보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²⁵⁾

그 후에도 조금만 큰비가 오면 적지 않은 홍수 피해가 되풀이된 것 같다. 숙종 36년(1710) 9월에 한성부 5부(五部)에 하명하여 방민(坊民)을 동원해서 자기 집 앞 도랑을 넓혀 물이 잘 흐르도록 하고, 부근에 인가가 드문 곳은 근처에 거주하는 방민을 동원해서 개천을 일제히 준천하였다.

이때 기록에는 개천의 당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사산

에서 흘러내린 모래흙 때문에 구거(溝渠)가 메이고, 수구가 막혀서 기물면 물이 고여 흐르지 않아 악취가 풍기는가 하면 반대로 큰비가 내리면 평지까지 물이 넘쳐 부근 인가가 해를 입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²⁶⁾

숙종 36년(1710)의 개천 준설 작업이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2~3일간 작업 정도의 소규모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이 당시 청계천 바닥에 모래흙이 쌓인 것과 수구의 막힘은 이 정도의 미봉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에 영조 때에도 준천(濬川)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영조 36년(1760) 2월, 20만 명을 동원한 57일간의 대역사를 시작하였다. 준천 사업은 하천을 준설하는 동시에 수로를 직선으로 변경하고, 양안(兩岸)에 돌로 축대를 쌓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후 준천은 정부의 재정 곤란 속에서도 2~3년마다 한 번씩 정례적으로 실시되어 조선 말 1908년까지 지속되었다.

영조 때 청계천 준천이 끝나자마자 서울 사람들은 생활 하수 외에도 쓰레기·분뇨 등의 오물을 개천에 버리거나 쥐·고양이·강아지의 시체를 비롯하여 심지어 전염병으로 죽은 유아의 시체까지도 밤중에 몰래 개천에 버렸다.

조선 말 고종 때 병인사옥 때는 천주교인들을 처형한 후 그 시신을 청계천에 내다 버린 관계로 청계천 4가의 효경교(孝經橋)~오간수문까지 피로 붉게 물들기도 하였다.

일제 때에는 농촌을 떠난 농민들이 서울로 몰려들면서 청계천 제방에 무허가 임시 건물이 빼곡하게 들어찼다. 청계천변에서 특히 심각했던 것은 위생 문제였다. 장마가 지면 전염병이 돌아 바로 전 시기를 휩쓸었다. 집중 호우라도 내리면 청계천 하수가 주거 밀집 지역으로 바로 역류하였다. 일제 때 서울 주민의 사망률은 청계천 가까운 곳에 거주할수록 높았다고 한다.



영조의 어진

준천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듣다

영조 19년(1743) 윤4월에 청계천을 준천하였지만, 9년이 지난 영조 28년(1752) 정월에 왕은 광통교에 이르러 청계천변에 사는 주민을 불러 청계천 준천의 필요성을 물었다. 그러자 주민들이 “소인 등이 어렸을 적에는 말을 탄 사람이 다리 아래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지금은 다리와 모래가 서로 맞닿게 되었습니다. 연전에 일꾼을 동원하여 준천하였는데, 해가 지나자 막힌 것이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이에 영조가 말하기를, “큰 다리가 이러하니, 작은 다리가 어떠한 지는 미루어 알 수 있다…… 이제 보건대, 다리가 막힌 것이 이와 같으니, 준설하고 싶다. 그대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니,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하기를, “이는 모두 백성을 위하는 일이니,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²⁷⁾라고 대답하여 왕이 하명하는 대로 따를

뜻을 아뢰고 있다. 이때 소규모의 준천 작업이 실시되었는지 혹은 민폐가 두려워 그대로 방치했는지는 알 수 없다. 며칠 후 영조는 어영대장 홍봉한(洪鳳漢) 등과 청계천의 준천 작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서 영조 30년(1754) 3월에는 창경궁 명정문에서 한성부 5부의 주민들을 불러 청계천 준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다. 이때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자, 영조가 위사(衛士)·악공(樂工)에게 이르기를, “개천을 파는 것을 옳게 여기는 자는 앉고, 옳지 않게 여기는 자는 서라.” 하자 못사람이 모두 한꺼번에 앉았으나, 악공 가운데서 장구를 맨 한 사람만이 서 있었다. 영조가 앞으로 나오게 하여 묻기를, “너는 개천을 파지 않는

것을 옳게 여기는가?” 하자, 악공이 대답하기를, “신은 개천을 파고 안 파는 것은 모두 이롭고 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천가의 인가가 떠나려가고 묻히는 것을 염려하기는 하나, 이것은 집주인이 어떻게 수호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이에 영조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모두 못사람을 좇는데, 이 사람만은 제 소견을 지키니, 매우 귀하게 여길 만하다.” 하고, 그에게 상을 주었다.²⁸⁾

역대 왕들의 치수 사업

청계천은 도성민 생활에 위험과 해로움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컸는데, 무엇보다 홍수 때의 범람이 문제였다. 임진·병자의 양난을 겪은 후부터 사산(四山)이 황폐해지고, 또 청계천 관리도 소홀해져 모래흙과 쓰레기 등의 퇴적이 심하여 바다가 높아졌다. 결국 서울 성곽의 수문(水門)이 막혀 한번 큰비만 내리면 교량이 떠나려갔고, 도성 안에 물이 넘쳐 집들이 물속에 잠기는 등 물난리를 겪는 일이 상례(常例)처럼 되었다.

그리하여 수재 예방 혹은 수재를 당한 후의 사후 대책으로 청계천의 준설 작업, 즉 준천(濬川)을 실시하였다. 영조 36년, 즉 경진년(庚辰年) 역사 때 수표교에 새겨 놓은 ‘경진지평’의 네 글자는 그 후 준천 역사의 기준이 되었다. 또한 이때 이후로 준천사(濬川司)라는 청계천 준설 기관을 설치하여 청계천 관리와 준천 역사의 기획 및 집행 시의 감독을 전담케 했다.

영조 때 경진년 역사의 시말(始末)을 기록하여 『준천사목(濬川司目)』이란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후일의 준천 시에 항상 참고하는 공사 기준이 되었다. 조선 후기에 준천은 격년 또는 2~3년에 한 번씩 실시하였는데 이때는 군영(軍營)의 병사들이 분담한 소규모의 준천 역사를 행하였고, 10여 년에 한 번씩 혹은 5~6년에 한 번씩은 대규모 준천 역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대규모의 준천 시에는 종친(宗親)·조신(朝臣)들이 솔선하고, 청계천 변 주민 다수도 동원한 대대적인 공사를 벌였으며, 이 역사로 인한 국고의 지출 또한 막대한 액수에 달했다. 준천의 역사는 조선 말기에 이를수록 소홀해져 준천의 필요성은 그 빈도에 더해서 대규모 역사의 연도 간격도 좁히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 시대 500년간 수해를 막기 위해 역대 왕들이 청계천의 준천을 시행하였지만, 특히 태종 12년(1412)의 '임진년의 준천'과 영조 36년(1760)의 '경진년의 준천', 영조 49년(1773)의 '계사년의 준천' 그리고 순조 33년(1833)의 '계사년의 준천', 고종 2년(1865)의 '을축년의 준천' 등이 규모가 가장 큰 준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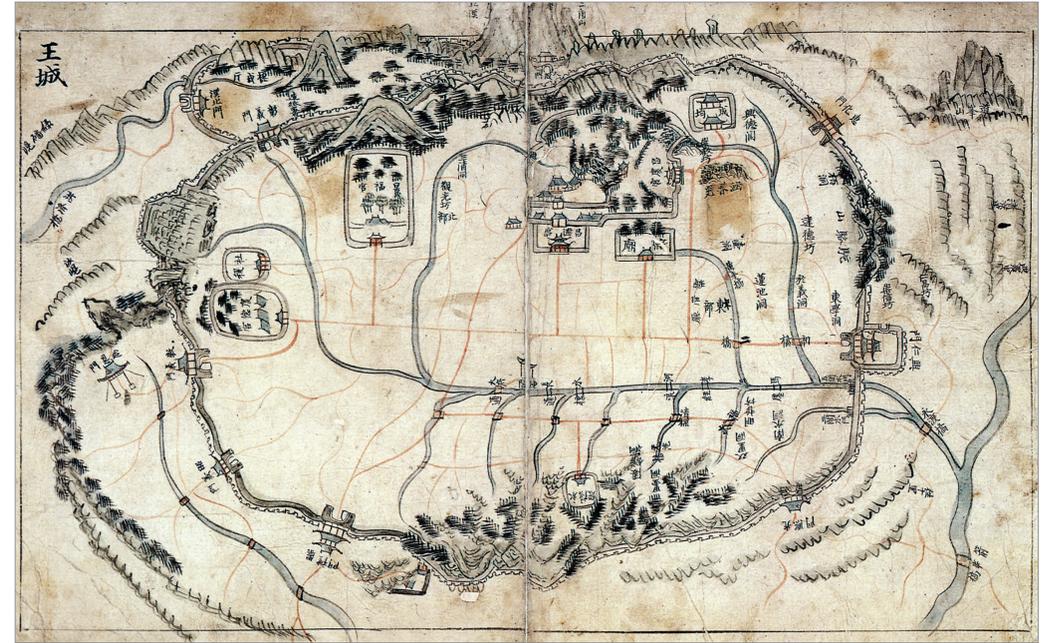
○ 조선 전기의 준천

태종 재위 임진년(1412)의 준천

태종 10년(1410) 5월·7월·8월 세 차례에 걸쳐 홍수를 겪어 청계천이 큰 피해를 입었다. 더구나 이해 8월에 토교(土橋)였던 광통교가 떠나려가자 의정부에서 “광통교는 비가 오면 무너지니 청컨대 신덕왕후 정릉(貞陵)의 옛 석물을 이용하여 돌다리(石橋)를 만들고자 합니다.”라고 건의하였고 태종이 그대로 따랐다²⁹⁾고 한 기록이 있으므로 청계천의 범람은 큰 피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인 태종 11년(1411) 9월경부터 준천 계획을 세워³⁰⁾ 그해 윤 12월 14일까지 마무리 지었다. 그리하여 ① 다음 해인 정월 15일에 공사를 착수할 것, ② 전라·경상·충청의 역군(役軍) 5만여 명으로 공역(工役)을 담당하게 할 것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되었다.

이리하여 개천도감(開川都監)이 설치됨과 함께 성산군(星山君) 이직(李稷)·공조판서 박자청(朴子靑)·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이응(李膺)을 제조로 임명하였으며, 천거개착(川渠開鑿)의 장소와 방법 등도 결



해동제국지도(海東諸國地圖) 중 <왕성도(王城圖)>, 179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정하였다.³¹⁾

태종 11년(1411) 윤 12월, 왕은 한양 재건도 후 해마다 장맛비에 개울이 불어나면서 물이 넘쳐 민가가 침수되므로 밤낮으로 근심이 되어 개천 길을 열고자 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밝힌 뒤 준천 공사가 백성에게 폐해가 없겠는지에 대해 영의정 하륜(河崙) 등에게 하문하였다.³²⁾ 이리하여 태종 12년(1412) 1월에 대신을 보내어 준천하는 일을 종묘·사직·산천신에 고하였다.

태종은 한편으로 공사에 동원되는 역군(役軍)들의 처우에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도록 했다.

- 작업 시간은 반드시 파루(罷漏) 후 인정(人定) 전으로 할 것.
- 만약 명을 어겨 역군을 과도하게 노역시키는 자는 엄벌할 것.(인정 후나 파루 전에 일을 시키는 자가 있으면 그 공사 감독관을 치죄(治罪)할 것)

○ 역군들이 휴대해 온 식량이 넉넉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군자감(軍資監)이 보유하는 쌀 10,400석을 풀어 한 사람에 3두(斗)씩 배급할 것.³³⁾

○ 전의(典醫)·혜민서·제생원 등 관서에 분부하여 미리 약제(藥劑)를 준비해서 천막을 치고 대기해 있다가 역군 중에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치료하도록 할 것.

○ 역군 중에 부모가 죽어 그 복(服)을 입고 있는 자를 조사하여 해당자 300명을 골라 환향(還鄉)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³⁴⁾

이러한 조치들은 역군들의 불평이 쌓여 혹 태업(怠業)이나 시위 등의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나온 무마책이자 민심 수습책이었다. 이는 다수의 민정을 동원하여 수도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배수 시설의 대간선(大幹線)을 새로 개착하다시피 하는 공사 자체의 규모가 크고 중요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월에 청계천 준천 공사를 기공한 지 꼭 1개월 후인 태종 12년 2월 15일에 청계천 본류의 준천이 마무리됨으로써 자연 하천이 개천(開川)이 되었다. 이 당시 장의동 어귀에서 종묘동 어귀까지 문소전과 창덕궁의 문 앞을 모두 돌로 쌓고, 종묘동 어귀부터 수구문까지는 나무로 방축(防築)을 만들고, 대·소광통교와 혜정교 및 정선방(貞善坊) 동구·신화방(神化坊) 동구 등의 다리를 놓는 데 모두 돌을 썼다.

청계천을 준천한 역군을 놓아주라고 명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전번에 성곽을 쌓을 때에는 밤에 편히 잠을 못 자서 사람이 많이 병들어 죽었는데, 금년의 역사에는 오로지 주상의 은혜를 입어 낮에는 역사하고 밤에는 잤기 때문에 병들어 죽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하였다.

개천도감에서 “역사에 나와서 병들어 죽은 자가 64명입니다.”라고 보고하자, 태종은 “일에 시달려서 죽은 자는 심히 불쌍하다. 마땅히 그 집

의 요역(徭役)을 면제하고, 또 콩과 쌀을 주라.”고 하였다. 태종은 “개천을 파는 것이 끝났으니, 내 마음이 곧 편안하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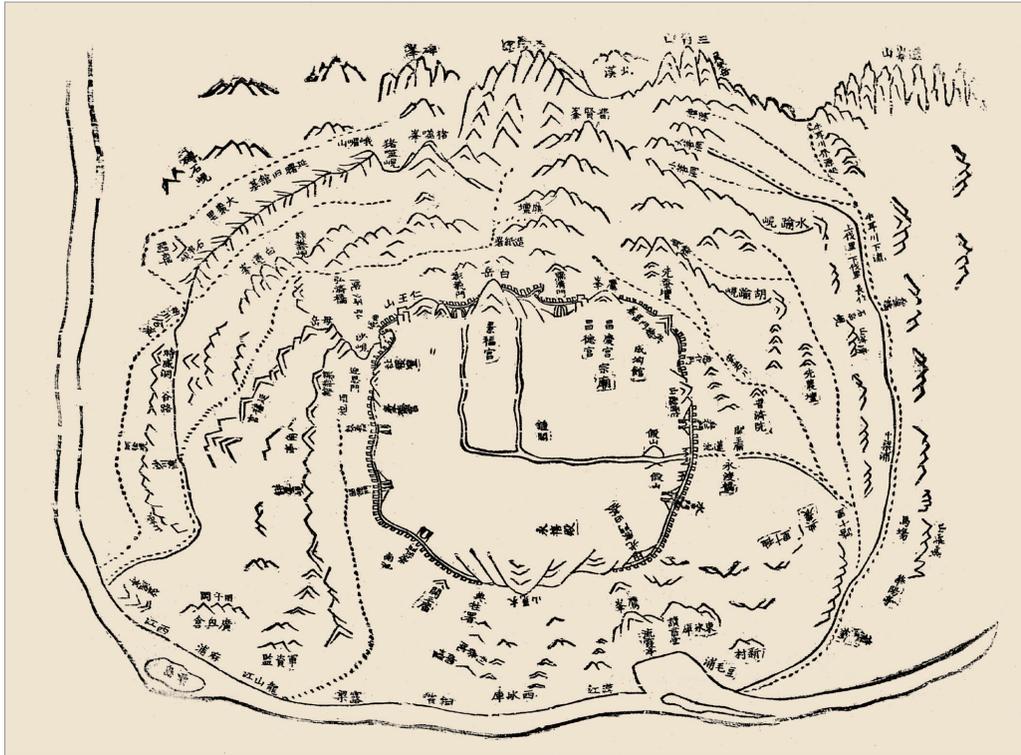
이어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집을 생각하여 다투어 한강을 건너다가 생명을 상할까 염려한다.”고 말한 뒤 각 도의 차사원(差使員)·총패(摠牌) 등으로 하여금 운(運)을 나누어 질서 있게 하고, 또 순금사(巡禁司) 대호군(大護軍) 박미(朴楣), 사직(司直) 하형(河迺) 등에게 명하여 차례를 무시하고 한강을 건너는 자를 금하게 하였다. 박미 등이 복명하여 아뢰기를 “모두 잘 건넵니다.” 하니, 태종이 기뻐하였다.³⁵⁾

이 당시 청계천 공사는 종래의 자연 하천인 청계천 구간은 종전 그대로 하고, 어떤 구간은 바닥을 파내고 하폭(河幅)을 넓히는 한편, 제방을 쌓아 상류 부분의 제방은 석축으로, 지금의 청계천 3·4가에서부터 광희문(수구문)까지의 제방은 나무로 쌓았다. 또한 대·소광통교, 혜정교(惠政橋) 등 중요한 곳은 목교(木橋)나 토교(土橋)를 석교(石橋)로 바꾸었다.³⁶⁾

청계천 준천 후 개천도감은 그대로 행랑조성도감이 되었으므로 개천 공사는 바로 종로의 시전(市廛) 행랑 조성을 위한 사전 공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계천의 완벽한 준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의 준천 사업을 벌인 지 3년 후인 태종 15년(1415) 5월에도 개천(開川) 물이 넘쳐 서울의 교량이 물에 잠겼다는 기록이 보이므로 청계천 지천과 세천은 수시로 범람한 것을 알 수 있다. 태종 12년(1412)에 대대적으로 벌인 청계천 공사로 6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시내의 모든 우수(雨水)와 하수가 한데 모여 시내 중심부를 흐르고 있다.

세종 때의 준천

세종 3년(1421) 6월에 큰비가 와서 서울에 냇물이 넘치고 하류가 막혀 인가 75호가 떠내려가고 통곡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어떤 사람은 지붕에 올라가고, 나무를 잡아 죽음을 면한 사람도 있으나, 물에 빠져 죽



〈사산금표도(四山禁標圖)〉, 1765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은 사람이 자못 많았다. 세종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여, 죽은 사람의 부모와 처자에게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내리도록 명하였다.³⁷⁾

세종 3년 7월에 오늘날의 서울시장 격인 관한성부사 정진(鄭津) 등이 세종에게 글을 올리기를, “지난달 12일 밤에 큰비가 와서 물이 넘쳐 하류가 막혔으니, 도성(都城) 안이 다시 침몰될 근심이 있습니다. 전하께서 백성의 부모 되신 마음과 자애심이 많은 덕으로써 근심하고 조심하십시오. 말로 비유하기 어렵습니다.…… 재해(災害)를 구하고, 환난(患難)을 방지하는 일은 실로 왕정(王政)의 먼저 할 바이니,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특히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매년 농한기를 당하여 백성을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고, 그 힘을 다 쓰지 않게 하였습니다.”고 하였다.

세조 때의 청계천 관리

세조 2년(1457) 1월에 공조(工曹)에서 세조에게 아뢰기를, “대소의 내와 개천(開川)은 모름지기 언덕의 풀이 무성한 뒤에야 무너지지 않는 것인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한 치의 밭이라도 개간하고자 내와 개천 양쪽 가의 초목을 베어 버리는 까닭에 조금만 비가 오면 곳곳에서 무너지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사냥으로 인하여 불을 놓는 자와 냇가의 초목을 베어 버리는 자를 모조리 금단(禁斷)하고, 그 경작하고 밭을 치기 위하여 불을 놓는 자도 또한 한계를 세워 불사르지 못하게 하되, 위반하는 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 알맞게 형벌을 받게 하소서.” 하니, 국왕이 그대로 따랐다.³⁸⁾

세조 9년(1464) 7월, 밤에 폭우(暴雨)가 내렸으므로 병조(兵曹)·한성부에 명하여 개천(開川)과 동서(東西)의 강(江)을 순시하면서 범람한 곳을 수축하게 하였다.³⁹⁾

○ 조선 후기 영조 때의 준천

경진년(1760)의 준천

청계천의 막힘이 절정에 달한 것은 조선 후기 영조 때로 보인다. 이에 영조는 대대적인 청계천 준천 작업인 ‘경진준천(庚辰濬川)’을 벌였다. 영조는 광통교와 창경궁 명정문에서 한성부 5부의 주민들과 만나는 등 여러 번 임문(臨門)하여 청계천 준천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 본 지 8년이 지난 영조 36년(1760) 2월 8일, 한성판윤 홍계희(洪啓禧)와 호조판서 홍봉한의 주장으로 57일간 청계천 준천을 대대적으로 벌였다.⁴⁰⁾ 영조는 “이것이 백성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어찌 백성의 힘을 괴롭힐 수 있겠는가?” 하고, 수만 냥을 내어 일꾼을 사서 처내게 하되 재촉하지 말도록 경계하였다.

이에 앞서 준천에 필요한 인원은 100만 명과 300만 명이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준천사실(濬川事實)』에 기록된 것을 보면 동원된

인원은 한성부민 15만 명, 고용 인부 5만 명 등 모두 20만 명이고, 소요 비용은 돈 3만 5천여 냥과 쌀 2,300여 석이 지급되었다.

한성부민들은 자원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였다. 한성부 인구가 17만 2,000명이었을 때 이 공사야말로 조선 개국 초의 도성 축조, 궁궐 영건, 시전(市廛) 행랑 건설 이후 최대 규모의 사업이었고, 영조가 후일 탕평책·균역법 시행과 함께 자신의 3대 치적이라고 평가했을 정도의 사업 규모였다. 영조 36년(1760) 당시 공사 구간은 송기교(松杞橋)⁴¹⁾에서 영도교(永渡橋)까지 총 3,000여 보(步)였다.⁴²⁾

영조는 청계천 준천 역사가 진행되기 전날에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원하기 위해 영희전(永禧殿)에서 친히 제사를 올렸다. 이어서 백미 20석과 미역 600근을 역군들에게 지급할 것을 하명하였으며,⁴³⁾ 2월 20일에는 궁궐로 돌아오는 길에 흥인문(동대문)에 나아가 준천 역사를 직접 시찰하고 다음과 같이 하명하였다.

탐라인(耽羅人)과 공인(貢人)이 또한 모두 몸소 앞장서 부역에 나왔다. 제작년 능역(陵役)에 몸소 그 성의를 보았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힘쓰고 있으니, 이는 바로 임금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식처럼 찾아와 일하던 옛날의 성의에서 나온 것이다. 이미 눈으로 직접 본 이상 어떻게 한 그릇 밥만 먹여서 돌려보내랴? 도청·낭청·패장(牌將)에게는 각기 궁시(弓矢)를 내려 주고, 내하미(內下米) 15석을 나누어 주라. 오늘날 부역을 자원한 제주(濟州) 사람 6명에게는 회량(回糧)을 넉넉히 주고, 갑주미(甲冑米) 6백 석을 본소(本所)에 더 내려 주어서 부역에 온 도민(都民)들에게 더 나누어 주며, 집이 헐린 냇가의 인민은 진흙청에서 돌보아 주도록 하라.⁴⁴⁾

또 3월 10일에는 육상궁에 전배(展拜)한 후 광통교에서 수구문까지 나아가 공사를 시찰하고, 준천 당상에게 음식을 내렸다.⁴⁵⁾ 4월 9일에도

오간수문에 나아가 공사를 시찰하였는데 마침 풍우가 심하게 몰아치자 악원(樂院)·정원(政院)·옥당(玉堂)이 환궁할 것을 간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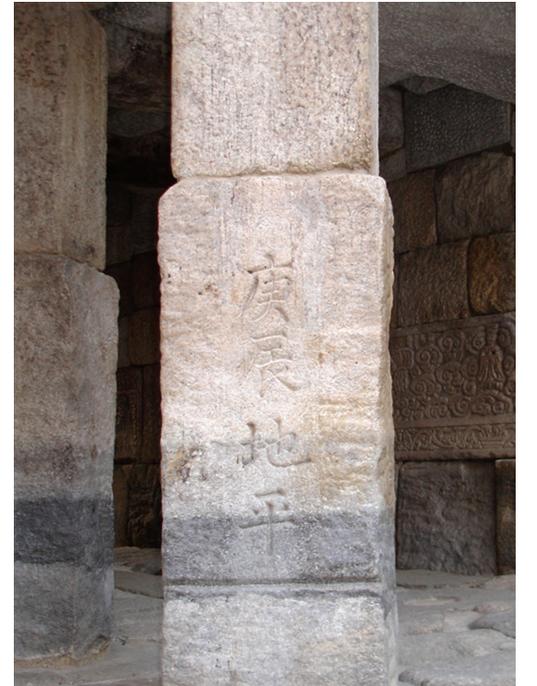
준천 작업이 진행 중인 영조 36년(1760) 2월에 청계천 바닥에서 유골이 나왔으므로 영조는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준천할 때에 오래된 유골이 더러 흙에 섞여 나오는 것이 있거든 베로 싸서 지대가 높고 깨끗한 곳에 묻어 주고, 준천을 마친 뒤에 수문(水門) 밖에 제단을 설치하여 제사를 하도록 하라. 만약 노출된 유골이 있거든 즉시 베로 싸서 묻을 것을 비변사에서 5부와 각도에 신칙 하도록 하라.⁴⁷⁾

그다음 달인 3월에 영조는 군신(群臣)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준천의 공사 내용을 후세에 알리기 위하여 준천의 시말을 기록한 『준천사실(濬川事實)』을 편찬하게 하고, 준천을 담당하는 관아인 준천사(濬川司)를 설치하도록 명하였다.⁴⁸⁾ 이날 영조가 어영대장 홍계희에게 청계천 준천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느냐고 묻자, “그 효과가 100년을 갈 것입니다.”라고 아첨하는 답변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영조 36년(1760) 4월 7일, 57일간의 청계천 준천 사업이 종료됨⁴⁹⁾과 동시에 준천사(濬川司)를 수표교의 북쪽에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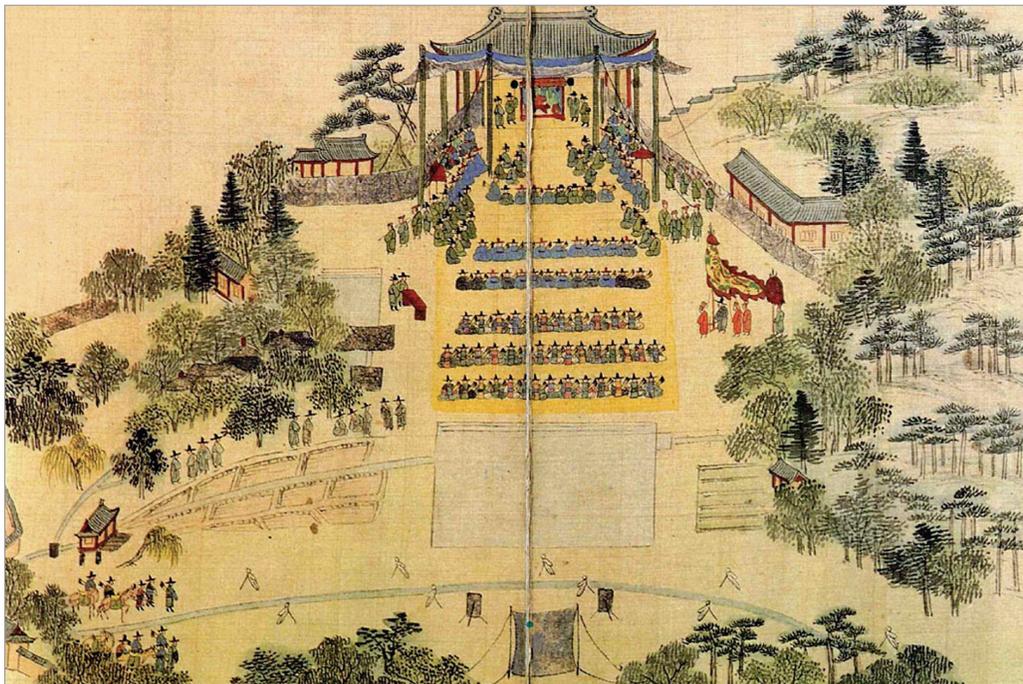
준천사는 도제조(都提調)로 정1품인 세 정승을 추대하고, 그 밑에 병



‘경진지평(庚辰地坪)’이란 글자가 새겨진 수표교



〈준천시사 열무도(瀋川市肆閱武圖)〉, 1760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조가 친히 오간수문에 나아가 준천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담은 그림이다.



〈영화당 친림 사선도(映華堂親臨賜饋圖)〉, 호암미술관. 1760년 경진준천을 마친 후 영조는 창덕궁 영화당에서 연회를 열어 준천당상을 비롯한 관리들을 치하하였다.

조판서·한성부관윤·3군대장과 비변사 당상 1명 등 6명의 고위 관리를 제조(提調)로, 3군문 금송군(禁松軍)을 낭청(郎廳)으로 조직한 막강한 정부 조직이었다. 그리고 광통교·오간수문·영도교·수표교 다리에 수위를 표시한 '경진지평(庚辰地平)' 네 글자를 새겨서 앞으로 청계천을 준설할 때에 기준을 삼도록 하고, 이 글씨가 묻혀 보이지 않으면 준천사 등 해당 관아의 관리를 문책하게 하였다.

이 당시 영조가 청계천 오간수문에 임하여 준천 공사를 살펴보는 모습을 그린 「준천시사 열무도(瀋川市肆閱武圖)」가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 이 그림에는 소를 이용하여 흙을 나르고, 가래질을 하는 공사 과정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영조는 준천이 끝나자 청계천변 곳곳을 택지로 조성하였다. 이곳에 주민들을 집결시키는 것은 준천할 때 방역(坊役)에 동원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였다. 청계천변에 새로 거주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금난전권(禁亂塵權)을 적용하지 않고, 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⁵⁰⁾

‘경진준천’에서 나온 모래흙은 한두 군데에 모아 쌓아 둘 수 없어서 오간수문 부근의 청계천 양쪽에 쌓아 놓았으므로 이를 가산(假山), 또는 조산(造山)이라고 불렀다.

계사년(1773)의 준천

청계천 여러 다리의 양쪽 벽은 흙으로 제방을 다진 후에 버드나무로 엮은 것을 사용하여 1년에 한 번씩 보수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었으므로 ‘경진준천’으로부터 13년 후인 영조 49년(1773) 5월, 조정에서 돌로 쌓아야 한다는 주장이 논의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이 당시에는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3군문(軍門)에 명하여 분담해서 쌓게 하였다. 단순한 개천이나 준천은 노역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제방을 보호하는 축대를 쌓기 위해서는 돌이 필요하였으므로 이 석재 비용은 관서 지방의 무역대전(貿易代錢)에서 비축해 둔 좁쌀 1만 석으로 충당하였다.⁵¹⁾

이 공사는 영조 49년(1773) 6월 10일부터 8월 6일까지 2개월간 계속된 큰 공사였다. 돌로 청계천 제방을 쌓게 하니, 튼튼하고 정밀하여 도읍의 개천 모습을 갖추었다. 영조는 영명한 군왕 중의 한 사람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 비교적 소홀함이 없었는데 특히 청계천 준천과 개천 관리는 자신의 재임 중에 완공하겠다는 집념을 보였다.

영조 49년, 영조의 나이가 만 79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제방을 쌓는 공사가 시작된 6월 10일에 이를 살피기 위해 수표교로 거동하였다.⁵²⁾ 이어서 2개월 후인 8월 6일에도 세손정조와 함께 광통교에 거동하여 석축을 살피보고, 준천사 당상관과 금위·어영청 두 대장에게 가자(加資)를 명한 뒤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모두 말(馬)을 하사하였다. 이어서 영조가 오언(五言)·칠언(七言) 시(詩) 각 1구를 지어 내리고, 여러 신하들에게 화답(和答)해 올리라고 명하였다.

영조는 이 공사를 후세에 남기기 위하여 수표(水標) 뒷면에 ‘계사갱준(癸巳更濬)’이라고 각자(刻字)하였는데 현재도 볼 수 있다. 영조 49년(1773) 8월 6일, 영조는 액정서(掖庭署)의 관리에게 명하여 돈 20관(貫)을 다리 밑에 뿌려서 어린이들이 줍도록 하였다.⁵³⁾ 이날 광통교에서 영조는 세손정조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뜻이 있으면 일은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무릇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뜻을 세우고 힘써야 할 것이다.(有志者 事竟成 凡欲有爲 當先立志勉之哉)”라 하면서 기뻐하였다.⁵⁴⁾

특히 영조 49년(1773) 8월에 청계천 석축을 쌓는 데 상돌(床石)을 사용한 것은 1923년 일제가 석축을 개수할 때 발견된 것으로 조선 초의 서울 성곽을 쌓은 것과 비슷한 대공사였다. 이 당시 청계천의 흐름을 변경하는 공사(流路變更工事)를 벌인 것은 오늘날 도시 계획 측면에서 보아도 나무랄 데가 없는 공사였다. 이 공사로 구불구불하게 흐르던 청계천은 서울의 동서쪽으로 직선이 되어 흐르게 되었다.

후일 정조 원년(1777) 7월에 국왕이 준천당상 구선복(具善復)에게 도



일제 강점기의 수표와 수표교. 영조는 계사년 준천을 마치고 수표 뒷면 하단에 ‘계사갱준(癸巳更濬)’이란 글자를 새겨 넣게 했다.

청(都廳) 윤수인(尹守仁)을 엄중히 추고(推考)하라고 하명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금년 들어서 가뭄이 계속되어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해도 좋은 형편인데 듣는 바에 의하면 이미 개천이 막혀 ‘경진지평(庚辰地平)’의 4자 중에 그 1자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니 선조(先祖)가 수비(豎碑)하신 높은 뜻을 이렇게 저버릴 수가 없으므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⁵⁵⁾

오랫동안 가뭄이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진지평’의 글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청계천의 바닥이 높아진 것은 준천사의 청계천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조선 후기 순조·철종 대의 준천

순조 재위 계사년(1833)의 준천

순조 18년(1818)과 순조 33년(1833)에 준천사에서 청계천 준천을 하였다.

준천은 대체로 2~3년에 한 번씩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청계천 준천은 순조 33년(1833) 2월부터 4월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그 준비는 전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당시 순조는 도성 안의 청계천 하류가 막혀 장마가 지면 번번이 물이 범람하고 가옥이 잠겨 주민들이 고통스럽게 여기므로 모래흙을 쳐내고 물길을 트도록 명하였다.

순조 32년(1832) 8월의 『순조실록』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준천사목(濬川事目)을 보고하였는데 준천에 관한 일은 묘당(廟堂)과 준천사 당상들이 깊이 숙의해서 거행하였다고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준천의 역사는 영조대(英祖代)의 대준천(大濬川) 이후 한 해 걸러 한 번씩 혹은 2~3년에 한 번씩 개천의 소척(疏濬)을 해 왔으나 이제 와서는 (개천이 완전히 막혀) 그 피해가 자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대역사를 일으켜 먼 훗날까지를 대비해야 한다.

준천의 구체적인 목표는 불가불 경진지평(庚辰地平)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고 인부 임용이나 도구류, 어디서부터 시역(始役)할 것인가 등등의 시공 방법 또한 경진사목(庚辰事目)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편의할 것이다. 이 일은 주민들이 모두 동조하여 협력해야 할 성질의 것이니즉 비록 지난날의 전례가 있기는 하나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할 것이다.

각 군문(軍門)의 장교(將校)·각사(各司)의 원역(員役)·시인(市人)·공인(貢人)·액예(掖隸)에 이르기까지 경진년(庚辰年)의 예에 따라 3일간씩 부역(赴役)케 하고, 제사(諸司)의 관원(官員)·생원(生員)들과 각도 출신의 저인(邸人)들도 역시 같이 다루도록 하겠다. 각 영군(營軍)의 사병(士兵)들은 그 대부분이 빈천(貧賤)하므로 각사의 도예(徒隸)나 공장배(工匠輩)들과 더불어 2일간만 부역토록 한다. 이

공역(工役)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 무릇 조정에 벼슬하는 사람이나 사대부 집에서는 범민(凡民)들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 종친(宗親)이나 문무(文武)의 경재(卿宰) 등을 비롯하여 모두 좌경(坐更)의 예에 따라 가정(家丁)들을 출역(出役)시키되 2품 이상은 5일간씩, 3품 이하는 3일간씩 부역케 한다. 주민으로서 대천(大川)과 중천(中川) 양쪽에 거주하는 자는 집 앞의 길을 닦는 예에 따라 역시 3일간씩 부역시키도록 하되 그 밖의 빈궁한 백성들은 부역시키지 않음으로서 조정이나 사대부들이 진휼(賑恤)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겠다.

그 밖에 많은 물력(物力)이 소용될 것인데 듣는 바에 의하면 준천사에서는 그 비용으로서 불과 7,900냥밖에 준비된 것이 없다고 한즉, 혜국(惠局, 宣惠廳)에서 명년 이송조(移送條)로 2,400냥만 충용(充用)하도록 하면 1만 냥 정도가 된다. 여기에 다시 동궐(東闕) 정역전(停役錢)으로 비치된 돈 중에서 만 냥만 돌려서 이에 충용토록 해야 하겠다.

또 경진년 준천 시에 시행한 것처럼 백악산신(白岳山神)·목역산신(木覓山神) 및 천거지신(川渠之神)들에게도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등 빠짐이 없도록 하겠다.⁵⁶⁾

이상의 기록을 통하여 ① 영조 36년에 대준천(大濬川)이 있는 후로 혹은 격년으로 혹은 2~3년에 한 번씩 소규모의 청계천 준천이 있었고, ② 순조 32년에 이르러서는 청계천의 메어져 막힘이 극에 달하여 피해가 자심한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영조 때 경진년(1760)에 못지않은 대역사가 필요했으며, ③ 역사의 규모나 공법(工法), 노력 동원, 시공 관리 등은 모두 경진년의 예를 따르기로 하고, 모든 준비에 착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보고가 있는 지 3개월 후인 순조 32년(1832) 12월에 순조는 준천 역사에 관한 관심과 준천 때에 모든 관리·군민(軍民)·공장(工

匠) 등이 부역에 정념(精念)할 것을 촉구하고, 내하은(內下銀) 2,000냥을 하사하여 부족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의정부에 하명하였다.⁵⁷⁾

이 준천 역사에는 으레 백관·군민(軍民)·생도·원역(員役)·공장(工匠)이 동원되어 부역하게 되어 있었으나, 순조는 흉년이 들었으므로 백성들을 부릴 수 없다는 특명을 내려 면제시키고, 내탕(內帑)의 은전(銀錢)을 나눠 주어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였다.

이어 의정부에 명하여 다시 구획하여 살펴서 단단히 이르되, 영조 때 경진년(1760)에 ‘지평(地平)’이 된 것을 기준으로 삼게 하였다.

청계천을 준천하는 공사는 순조 33년(1833) 2월 22일(癸亥)에 시작하여 약 2개월 후인 4월에 끝났다.⁵⁸⁾ 준천사는 4월 19일(乙未)에 종로 네거리의 송기교(松杞橋)에서 영도교(永渡橋)까지 ‘경진지평’의 기준에 맞춰 준천의 역사가 끝난 것을 보고하고, 정3품 당상관 이하에게 시상(施賞)하기를 건의하고 있다.⁵⁹⁾

이 당시 준천 역사에 얼마나 많은 연인력(延人力)이 동원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으나 물력(物力)에 든 총 비용은 37,300냥이었다. 그 비용 내역은 관동물력(關東物力) 중에서 우선 2만 냥을 충용했고, 이에 선혜청전(宣惠廳錢) 1만 냥을 가산했는데도 또 부족하여 균역청(均役廳)이 보유하고 있던 각 영문전(營門錢) 8천 냥을 다시 충용했다. 또한 준천에 동원된 군인·민간인의 식사도 문제가 되었으나 군인들은 각각 소속 군영(軍營)에서 식사를 제공했으며, 민간인은 각자가 가지고 오도록 했다.⁶⁰⁾

부실 공사로 끝난 철종 때의 준천

철종 9년(1858) 5월에도 준천이 있었다. 그런데 이때의 준천에서는 역사(役事)를 부실하게 하여 준천한 모래와 돌을 제대로 운반하지 않아 비가 오면 곧 수로(水路)가 막혀 버리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허물어진 성첩(城堞)도 제대로 수리하지 않아 성곽을 넘어 다닐 수 있는 상태로 놓아둔

채 준천의 역사가 모두 끝났다고 보고한 것이 며칠 안 가서 왕의 귀에까지 들렸다. 이것은 국가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죄로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하여 그 부분의 공사를 담당한 책임자인 어영대장(御營大將) 심낙신(沈樂臣)을 파직시켰다.⁶¹⁾

○ 조선 후기 고종 대의 준천

을축년(1865)의 준천

이전까지 청계천의 준천은 준천사에서 관할하였는데 고종 2년(1865) 3월 2일에 비변사(備邊司)에서 준천을 건의하였다.

도성 안에서 준천한 지가 8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되니 모래와 흙이 메어 개천가의 민가들이 걸핏하면 물속에 잠기는 화를 당합니다. 장마철에 앞서 다시 더 파내라고 준천사와 각 군영의 대장들에게 명하여 근일 중에 공사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종이 이를 승인하였고 그에 따라⁶²⁾ 청계천 준천 공사가 시작되었다. 열흘 후에 의정부에서 건의하였다.

준천 공사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각 군영의 장교, 각 관청의 아전, 시공인(市貢人), 액정서 하인, 여러 관청의 관생(官生), 각 도의 경저리(京邸吏)는 일체 영조 때 경진년(1760)의 전례대로 3일간씩 공사에 동원하게 하고, 각 군영의 군사, 각 관청의 하인, 공장(工匠)들은 2일간씩 공사에 동원할 것입니다. 사대부가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공사를 도와야 할 것이니 문관, 음관, 무관인 높은 관리 이하는 일체 밤 경비를 서는 규례대로 하되 1품~2품까지는 5일간, 3품 이하는 3일간 공사에 동원하며 개천가에 거주하는 백성들도 3일간 나가

서 공사를 돕게 할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양반, 상민은 물론하고 일체 침해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해청의 돈 8,900냥을 우선 세 군영에 나누어 주게 하되 지출한 다음에 되처리를 하게 할 것입니다. 이번의 이 큰 공사를 또 대충 유명무실하게 하면 몇 해 안 가서 그저 시끄럽게 굴면서 비용만 허비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 물줄기를 어디로 돌리고 모래와 흙을 어디로 치워야 하겠는가를 각별히 강구하여 기어코 보람이 있게 하라는 뜻으로 지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⁶³⁾

고종이 승인함에 따라 관원들과 장교 등이 품계에 따라 3일~5일간, 청계천변 주민들은 3일간 준천 공사에 동원되었다.

이로부터 2개월 후인 고종 2년 5월, 준천 공사를 진행한 도제조(都提調) 이하 관리들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고, 모두 품계를 올려 주었다.⁶⁴⁾

기사년(1869)의 준천

고종 6년(1869)과 고종 7년에도 준천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종 6년 3월에 동대문 중건 공사가 있었는데 그 공역을 마친 후에 물길(水道)이 막힌 것을 알았다. 청계천 물이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수문(水門) 하나를 굴착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보고하자 고종이 이를 윤허하였다.

그로부터 약 한 달 10일 후에 준천 공사의 시작을 하명하고, 지형의 편부(便否)에 따라 3군영의 장신(將臣)들이 충분히 상의하라는 하교가 있었다. 그런데 고종 6년의 준천에 관해서는 이 역사의 시작을 하명하였다는 기사가 있을 뿐이고, 그 경과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므로 준천의 상세한 것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다음 해인 고종 7년 3월 1일자 기록에 “준천사에서 청계천 석축을 시작할 것과 이 석축 공사가 시작된 후에 준천도 역시 작년의 예

에 따라 시행할 것을 보고하였다.”⁶⁵⁾ 고 되어 있으므로 이 기사를 통해 고종 6년에 준천이 있었고, 이어 고종 7년에도 준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진년(1880)의 준천

고종 16년(1879) 7월에 큰비가 내려 한성부 내의 경우 가옥이 모두 무너진 것이 933호, 전 가옥 표류(漂流)가 30호, 가옥이 반쯤 무너진 것이 148호, 꽤 많이 무너진 것이 200호, 어느 정도 무너진 것이 77호나 되는 큰 수해를 입었다.⁶⁶⁾ 이는 일찍이 볼 수 없는 대수재(大水災)였으므로 그 혼란과 피해의 정도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리하여 이듬해인 고종 17년(1880) 2월 15일, 영의정 이최응(李最應)은 고종과의 차대(次對)에서 아래와 같이 품의하였다.

장안에 준천의 역사를 실시한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지난해 여름의 장마 이후 대소의 구거(溝渠)로 막히지 않은 데가 없어서 개천이웃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홍수로 개천이 넘쳐흐를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서둘러 소척 작업(疎濬作業)을 벌여야 하겠습니다. 준천사와 경조부(京兆府)에 하명하여 을축년(고종 2년)의 예에 따라 이를 실시하되 그 거행하는 것이 부지런한가 태만한가를 살펴서 논책(論責)하고, 경계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각 해영(該營)에 일체 엄하게 신칙(申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고종이 윤허하였다.⁶⁷⁾ 이처럼 2월에 왕의 재가(裁可)가 있었으니 3월경에는 준천 공사가 착공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그 후의 기록은 없으며, 다만 6월 10일에 준천사의 당상 이하 관원들에게 시상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렇다면 음력 5~6월에 걸쳐 장마가 시작되므로 3월 초순경부터 준천 공사를 시작하여 4월 말경에 끝내고, 시상은 6월에 실시한 것

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고종 17년에 청계천 준천 공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6년 후인 고종 22년(1885) 7월에 또 홍수가 나서 한성부의 가옥이 부서진 것이 520호, 가옥 표류 약간과 가옥 반파 42호, 많이 무너진 것이 56호, 어느 정도 무너진 것이 94호로 대규모 수해를 입었다.⁶⁸⁾ 이를 미루어 볼 때 고종 17년의 준천 공사는 당시의 국고(國庫) 사정 등으로 대규모 역사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

수해를 입은 그 이듬해인 고종 23년(1886) 정월에 영의정 심순택(沈舜澤)이 고종에게 아뢰었다.

준천(濬川)은 바로 나라의 법전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옛날 영묘조(英廟條)에 5칸 수문(水門)과 영도교(永渡橋)의 돌에 모두 땅을 파내는 한도를 새기고 또 '경진지평(庚辰地平)' 네 글자를 새겨 뒷날에 개천을 쳐내어 물을 띄우는 기준을 표시했습니다. 이 훌륭한 공적으로 만세토록 영원히 그 덕을 입게 되었는데, 근년에 와서 강바닥을 자주 쳐내지 않은 관계로 모래와 진흙이 쌓였으니, 장마가 지면 물이 범람하여 백성이 입는 피해가 해마다 더욱 심해지고 있고 침수될 위험이 또한 가까워왔다고 합니다. 돌아보건대, 지금 경비가 매우 부족해서 큰 공사를 벌이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백성들의 고통과 관련되는 일인 만큼 그만둘 수 없습니다. 경조윤(京兆尹)과 별영사(別營使)로 하여금 전적으로 맡아서 거행하여 빨리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종이 하교하기를, “깊이 더 쳐내서 기어이 실효가 있게 하라.”⁶⁹⁾ 하였다.

고종 30년(1893) 3월에 중앙과 지방에 배정한 수량이 아직 한정대로 들어오지 않았으나 의정부의 제의로 우선 선혜청(宣惠廳)에서 8,000냥,

호조(戶曹)에서 4,000냥, 친군영(親軍營)에서 5,000냥, 병조(兵曹)에서 1,000냥, 친군(親軍) 총어영(總禦營)에서 5,000냥을 내어 청계천을 준천하도록 고종의 내락을 받았다. 이해 3월에 5군영의 군인을 동원하여 청계천의 송기교에서 영도교까지 준천 공사를 실시하여 5월에 마쳤다.⁷⁰⁾

갑오개혁(1894) 이후에는 준천 업무가 한성부로 이관되었는데 1897년에 마차회사(馬車會社)가 설립되자 한성부는 이 회사에 준천 업무를 맡기기도 하였다.

청계천을 관리하던 관아, 준천사(濬川司)

준천사는 중부 장통방(長通坊), 현재 종로구 관수동 152, 153번지에 있었다. 이에 따라서 이 일대를 준천사동이라고 칭했다.

준천사는 영조 36년(1760) 4월에 대대적인 청계천의 준설을 마친 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관아였다. 이 관아는 개천의 준설뿐만 아니라 서울의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 사산(四山)에 몰래 묘지를 쓰는 것과 지형을 파괴하는 것을 감시하고, 사산의 자연 보호를 담당하는 '사산금표(四山禁標)'까지도 겸하여 관장하였다.

한편 청계천 본류의 준설은 훈련도감(訓局), 금위영(禁營), 어영청(御營)의 3군문에서 분담하고, 지류는 각 군문(軍門) 관내에서 담당하였다.

청계천 준설의 실무를 맡은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삼군문의 분담 구역은 다음과 같다.

- 훈련도감 : 송기교(松杞橋, 현 광화문 네거리 서편에 있었다)에서 장통교(長通橋)까지(연장 768보, 폭 10여 보)
- 금위영 : 장통교에서 태평교(太平橋, 현 청계천 5~6가에 있었던 다리)까지(연장 1,181보, 폭 20여 보)
- 어영청 : 태평교에서 영도교(永度橋, 현 송인동·황학동)까지 (연장 1,173보, 폭 30여 보)



1880년대 경복궁과 육조거리(모형), 한국전통문화학교

이상은 개천의 본류(本流)에 관한 분담의 내용이고 지류(支流)·세천(細川)은 각 군문의 도성 내 경비 분담 구역별로 담당케 하였다.⁷¹⁾

그리고 매년 2월과 8월에 제조(提調)가 참군(參軍)을 인솔하여 도성 안의 사산(四山)과 크고 작은 개울을 정기적으로 순시하게 하였다. 혹 산림이 황폐해졌거나 천거가 퇴락한 곳이 발견되면 삼군 중 해당 군관(軍官)을 즉석에서 처벌하고, 또 한성부 5부(五部)의 관리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이 있으면 그도 처벌하였다. 하천의 준설·정비에 필요한 기구류는 삼군이 보관하고 인부를 고용해야 할 경우의 인건비와 하천 수리를 위한 물자 구입 등의 비용은 모두 준천사에서 지급하였다.⁷²⁾

준천사의 관원은 초기에 의정(議政)이 도제조(都提調)를 겸하고, 병조판서·한성판윤·3군대장과 비변사 당상 1명으로 제조를 겸하게 하였으며, 각 관서로부터 파견하였던 당하관인 삼군문 금송군(三軍門禁松軍)에게 실무를 맡겼다.

그 후 준천사는 고종 19년(1882)에 폐지되어 그 업무는 한성부로 이관되었다. 대한제국기에는 '마차회사'라는 민영 회사가 준천 공사를 청부받기도 하였다.

영조 때 청계천 준천을 기록한 『준천사실』

대규모의 준천이 한창 진행 중에 있던 영조 36년(1760) 3월 16일에 국왕은 군신(群臣)이 모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하명하였다.

준천의 방책은 모착(模捉)하기 어려운 것이니 훗날에 그것을 쉽게 알게 하기 위하여 이번 준천의 두서(頭緒)를 기록한 책을 만들게 하였는데 책 이름은 『준천사실(濬川事實)』이라고 붙이기로 했다. 또 이 준천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척(繼飭)되지 않으면 이번에 고생한 경과가 헛되이 될까 두렵다. 제언사(堤堰司)를 두는 예에 따라 병조판서·한성부판윤·3군대장 등으로 준천사 제조(濬川司提調)를 겸



영조는 <준천사실>을 편찬케 하여 후대의 준천에 참고가 되게 하였다.

하게 하고, 3군문(三軍門)의 참군(參軍)으로 준천랑(濟川郎)을 겸하게 하는 상설 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라.⁷³⁾

이 명에 따라 4월에 청계천 준설이 마무리되면서 준설 상설 기관인 준천사(濟川司)가 설치되고, 준천 사업을 후세에 준거(準據)하기 위해 한성판윤

홍계희(洪啓禧)에게 명하여 정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영조 40년(1764)에 『준천사실(濟川事實)』이 편찬되었다. 이 책은 준천사의 사업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책머리에 임금의 서문, 한성부 판윤에게 내리는 교서(敎書)가 있으며, 그다음에 「준천사실」과 「준천사절목(濟川事節目)」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에는 준천사를 설치하여 도성 내의 하천을 준천하는 준설 사업에 대한 경위 등을 기록하였고, 끝 부분의 「준천사절목」은 모두 전문 26조로 준천사의 구성·임무·소관 구획, 하천의 막힘 원인과 대책, 처벌 규정 및 보수·개천 문제 등을 총괄하고 있다. 그리고 준천 사업의 지시와 사업의 내용, 결과 보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절목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영조는 이후로도 청계천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년 준천 비용을 마련토록 규정하였다. 원래 하천의 막힘 원인으로서는 자연적인 홍수 등으로 모래와 자갈이 밀려드는 것도 있지만, 궁성 내에서는 하천을 개간하여 수로를 막히게 하고, 민간인에게 하천 사용이 법으로 금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을 쌓아 민호(民戶)가 거주하여 매매하는 등 창고로 사용하

며, 다리 대신 길을 만듦으로 막히는 예가 많았다.

준천은 영조 재위 간에 이르러서야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도성은 물론 지방의 준천 작업은 거의 기록되지 않아 하거(河渠) 수리에 관한 기록은 별로 없다. 이 책의 내용은 비록 도성 내의 준천에 그치고 있으나 당시 준천 사업의 경비, 부역과 결부된 대토목공사의 기록이므로 수리(水利) 관계 기록이 저조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느 정도 시사(示唆)를 준다. 아울러 영조 30년대, 18세기의 한성부 내의 하거(河渠)와 교량을 통해 당시 행정 구역·지명·위치 등을 고증하는 데도 유용한 자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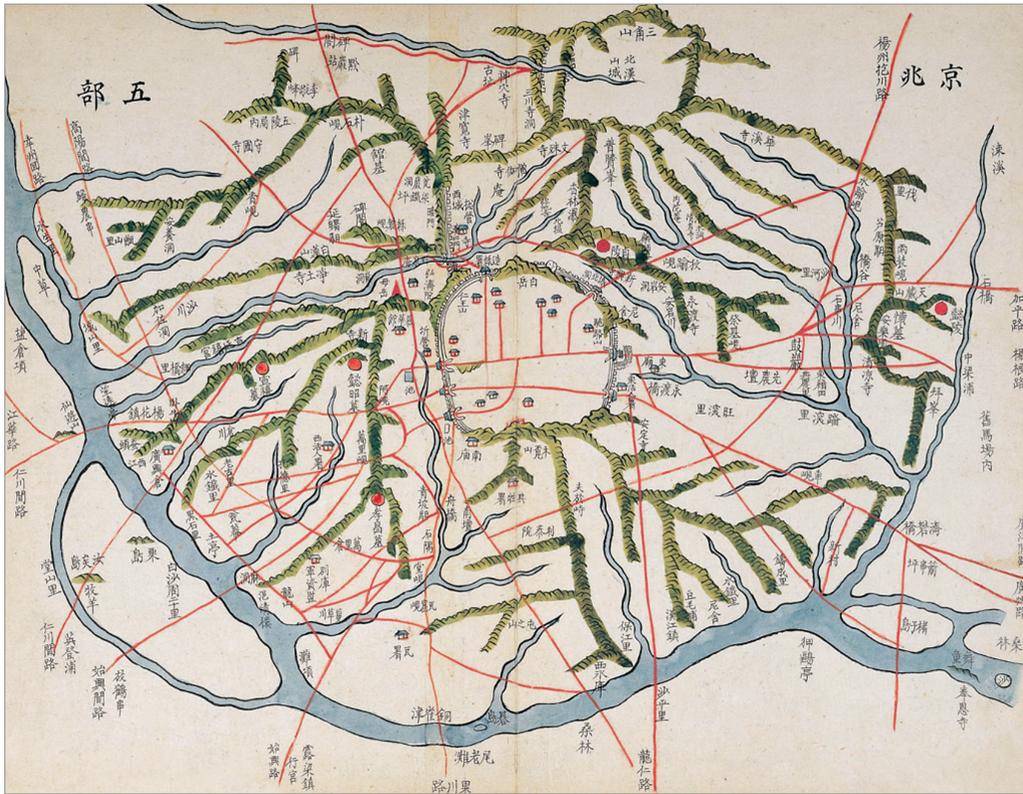
청계천의 흐름을 바꾸자!

조선 시대의 한강은 수도 서울의 남쪽 방어선으로서 요새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당시에는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즉, 각 지방에서 세금으로 바치는 곡식과 생활필수품이 선박에 실려 서울로 들어오는 보급로였던 것이다. 이 당시 세곡을 실어 나르는 배를 조운선(漕運船)이라 했는데, 만약 한강 어귀가 막혀 조운선이 도성에 닿지 못하면 서울 장안에는 식량난이 심각했다.

‘오강(五江) 뱃사람’이란 말도 있지만 서울을 지나는 한강 80리를 대개 다섯 구역으로 나누어 뚝섬강, 노량진강, 용산강, 마포강, 서강을 오강(五江)으로 칭했다. 그중 용산강을 용호(龍湖)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고려 시대에는 강물이 괴어 호수와 같았다. 연꽃이 만발한 명승지였지만 물길 이 바뀌면서 이곳은 각 지방의 조운선이 양곡을 풀어 내리고 강원도 등지에서 재목이 되는 것을 뗏목으로 띄워 싣는 등, 각종 산물의 집결지로서 조선 시대에는 항구로 번성하였다.

이와 같이 용산항(龍山港)이 붐비자 조선 초 태종 때 대신들 간에 용산에 들어오는 선박을 남대문 밖까지 닿을 수 있도록 운하를 파자는 의견이 있었다.

태종 13년(1413) 7월 19일, 좌의정 하륜(河崙)은 국왕에게 아뢰었다.



〈경조오부도(京兆五部圖)〉, 19세기 말, 서울대학교 규장각, 용산강을 비롯한 한강의 지천들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신이 생각하건대 용산항이 서울 도성과 떨어져 있는 관계로 물자 반입이 불편합니다. 따라서 용산항에 들어오는 선박을 직접 남대문 밖까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아뢰입니다.”

“그렇다면 운하를 파야 할 것 같은데 경의 계획과 생각을 말해 보시오.”

“운하를 파는 공사를 계획해 보았는데 우선 경기도 내 군사 1만 명을 동원하고, 도성 안의 중대장 부대장(副隊長) 4백 명과 군기감 별군(軍器鑑別軍) 6백 명을 합한 1만 1천 명으로 용산에 양어지(養魚池)를 파고, 남대문 밖까지 물길이 들어오도록 운하를 파는 데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을 듣고 있던 왕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사업의 중대성을 고려

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나라의 땅은 모두 모래땅이므로 물이 머물러 있지 않으니, 중국의 운하를 판 것을 본받을 수는 없소. 이 계획은 큰 공사이니만치 명일 경희루에 자리를 만들어 중신들이 모인 가운데 의논하는 게 타당할 것 같소.”

이에 하륜 등은 물러갔다.

다음 날 경희루에 많은 신하들이 모인 가운데 태종이 자리를 잡았다. 왕이 먼저 운하 굴착 계획을 밝히게 한 뒤 말하였다.

“남대문까지 운하를 파서 배가 통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되는 것은 우리나라 땅이 모두 모래땅이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을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경들의 의견은 어떠하오?”

이에 찬성(贊成)으로 있는 유량(柳亮)은 이 계획에 반대하며 말하였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용산이 도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데 구태여 백성들을 동원하여 괴롭히면서 운하를 판다는 것은 온당치 않은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대신들은 모두 운하를 파는 것이 필요하다고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 특히 한양 도읍 건설에 공이 많은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박자청(朴子靑)은 이렇게 말하였다.

“신의 생각으로는 전하의 의문되는 점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하를 파는 부근이 모두 논이므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며, 불과 1만 명의 작업으로 1개월이면 완공될 수 있으니 이 계획을 강행하심이 타당한 줄로 아뢰입니다.”

이에 태종은 심사숙고 끝에 단안을 내렸다. 즉, 운하 계획은 좋지만 백성들 동원이 어렵다는 배려에서 그 계획의 실천을 보류하였다.⁷⁴⁾

이 당시 용산과 남대문 사이에 운하가 개통되었다면 서울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조선 시대 상공업이 크게 발달했을 것이며, 서

울의 도시 계획도 오늘날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 시대 어느 때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홍수로 인해 용산강 북쪽으로 흐르던 물줄기가 현재처럼 노량진강 안으로 바뀌어 흐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용산강보다 마포강과 서강 쪽으로 배가 많이 드나들게 되었으니 결국 운하 굴착을 보류한 태종의 판단이 옳았던 것이 아닐까.

조선 말부터 일제 때까지 활약한 유학자인 정만조(鄭萬朝, 1859~1932)⁷⁵⁾는 경성부의 청계천 전면 복개 계획에 반대하고, 황토현(黃土峴, 현 세종로 네거리)에서 봉래동 방향으로 운하를 만들어 청계천을 흐르게 하고 뚝섬에서 한강 물을 도입시켜 저지대인 용산 쪽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용이하고 복개 비용도 절감된다고 주장하였다.⁷⁶⁾ 이 주장에 독일 유학생인 윤시형, 김필수 등도 동조하여 프랑스 파리의 센 강처럼 청계천을 조정해야 한다고 청계천 복개 계획에 반대하였다.

광복 직후인 1945년 주윤(朱潤, 전 건설부장관) 등 여섯 명의 정만조의 제자들은 스승의 뜻을 받들어 연서(連署)로 건의문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미군정청과 이범승 당시 서울시장을 방문하여 청계천 운하 계획에 관한 건의문을 제출하였다.

왕십리에서 전관평(箭串坪)과 뚝섬에 이르는 하천은 역대 홍수에 하상(河床)이 토사 퇴적으로 높아져 성내(城內)의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수해를 면치 못하였다. 이 원인을 성벽(城壁) 하의 '오간수문'에 있다 하여, 1907년 한성부 토목국(국장 유맹(劉猛)에서 도민(都民)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간수문'을 파손하였다. 하나 평균 3년마다 다가오는 대우홍수(大雨洪水)는 청계천의 수일(水溢)로 성내의 피해는 여전하였다. 이것은 청계천 하류의 하상과 상류 지점인 황토현의 높이가 팽팽(均)한 데에 원인이 있으니, 소광통교에서 다동~남대문로~봉래로~원정(원효로)으로 운하를 개설하고, 뚝섬

방면에서 한강수를 도입, 저지대로 서향(西向) 상류(常流)하게 하고, 청계천 연변을 시민의 공원으로 미화(美化)시켜, 소유람선이 도심에 왕래할 수 있도록 이에 건의한다.⁷⁷⁾



청계천의 발원지. 2005년에 종로구청은 문헌, 고지도, 항공 지도 등을 이용하여 백운동천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광복된 감격에 들떠 있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 이 제안은 일종의 꿈같은 동경(憧憬)에 지나지 않았고, 서울시로서는 이 건의를 집행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계천의 발원지

청계천 발원지(發源地)에 관해서는 조선 후기 영조 36년(1760)에 나온 청계천과 교량의 준설 및 보수 기록을 담은 『준천사실(濬川事實)』에 청계천의 “백악산(북악산) 서쪽과 인왕산 동쪽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은 백운동으로 흘러 오다가 원 줄기는 구불구불 남쪽으로 흐르면서……”라고 기록되어 있다. 1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성대지도(都城大地圖)’ 등 서울의 옛 지도에도 북악산 서쪽 기슭인 창의문 부근이 청계천의 발원지로 나타나고 있다.

청계천 발원지는 그동안 인왕산, 북악산, 남산으로 알려져 왔으나 2005년에 문헌, 고지도, 항공 지도 등을 이용하여 백운동천을 청계천의 발원지로 추정하였다.

청계천 발원지를 오르는 길은 1968년 1월 21일 무장 공비 침투 이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약수터를 찾아 오르내렸던 코스다. 현재 최규식 경

무관 동상(1968년 무장 공비 침투 때 순직)이 세워진 곳에서 북악산 정상 쪽으로 약 150m 지점의 약수터는 갈수기에도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 약수터를 청계천 발원지로 결정하였다.

현재 이 청계천 발원지 일대는 청와대 경비 구역인 데다가 군 작전 지역이어서 시민들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종로구는 약수터 아래의 최규식 경무관 동상 부근에 ‘청계천의 발원지’라는 내용을 담은 표석(標石)을 설치하였다.

청계천 발원 지점에서 정상을 향해 오르다가 약수터에서 약 100m 위쪽 지점에서 고려 시대 후기와 조선 시대에 바위에 조각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불(높이 1.95m, 폭 0.7m) 두 개가 발견되었는데, 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작품이다.

4) 청계천에 얽힌 이야기

기생 웃음소리가 요란했던 다방 골

현재 청계천로와 남대문로 변에 위치한 중구 다동(茶洞)을 예전에는 다방 골이라 불렀다. 이곳에는 조선 시대에 궁중의 차례(茶禮)를 주관하던 사옹원에 속한 다방(茶房)이란 관아가 있어서 다방 골이라 하던 것이 다동이라고 한자로 표기된 것이다. 일제는 1914년 고유의 이름이던 다방 골을 일제식 이름인 다옥정(茶屋町)으로 고쳤다.

조선 초 태종 때 기록에 다방동(茶房洞)이란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매우 오래된 마을 이름임에 틀림없다. 지금도 이곳에는 커피숍 등 많은 유흥 음식점이 있지만 예전의 다방과는 큰 격차가 있다.

다방 골의 땅 모양은 거북이의 형상이므로, 예부터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거나 재난을 겪을 때에도 이곳은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는 전설이 남아 있는 길지(吉地)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방을 설치하고 차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신라 때로서 승려들이 차를 마시던 풍습이 있었다. 그 후 고려 시대에는 무역이나 외국 사신 접대로 차를 마시는 음차(飲茶) 풍습이 있었다.⁷⁸⁾ 조선 시대에는 다방(茶房)이란 관청을 두고, 국가의 행사 시나 외국 사신을 맞이할 때에 차례란 명목으로 차를 대접하였다.



일제 강점기의 '기생 학교'

국왕이 중국 사신을 창덕궁 인정전에서 접견할 때 인사말이 있는 후에 곧 차례가 있었다. 그 절차는 먼저 사옹원에서 다정(茶亭)을 전내에 설치한 뒤 제조(提調)는 인삼차를 넣은 은병을, 부제조 3명은 과일 쟁반을 받들고 국왕 및 정사(正使)·부사(副使) 곁에 대기했다. 찻잔을 든 3명이 사신들에게 차를 접대하며, 마지막으로 과일 쟁반을 돌리는 순서로 끝났다.⁷⁹⁾

조선 시대 궁중의 차에 관계된 풍습으로 ‘차시(茶時)’라는 것이 있었다. 차시란 사헌부의 관원들이 매일 한 차례씩 만나 차를 마시며 토론하는 것을 말한다. 차시에 관한 기사들은⁸⁰⁾ 이궁익(李肯翊)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6권 사헌부조에도 보이며, 기타 개인적인 문헌에도 단편적으로 등장한다.

차시의 풍습은 갑오개혁 전까지 계속되어 내려왔다. 특별히 사법 기관인 사헌부에서만 차시의 풍습이 있었음은 차의 중정(中正)의 도(道)와 관련지을 수 있다. 즉 한 잔의 차를 마시며 공무를 올바르게 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니 흥미로운 일이라 하겠다.

지금도 조상이나 돌아간 사람에게 제사를 모시는 것을 '차례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모두 까닭이 있다. 조선 시대 광해군 이전까지도 제사에 는 술 대신 차(茶)를 썼다. 예로부터 우리의 차 마시는 풍속은 일본에까지 전해져 일본의 차 문화(茶文化)를 일으켰지만 불교가 조선 시대에 와서 쇠퇴하면서 불교와 관련이 깊은 차 마시는 풍습은 차츰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차와 관계있는 일화로서 임진왜란 때 선조(宣祖)와 조선의 구원군으로 온 명나라의 양호(楊鎬) 장군과의 대담(對談)이 전해 온다.

전라도 남원에서 서울에 올라온 양호가 선조에게 남원에서 가져온 차 2포(包)를 바치면서 말하였다.

“이 차는 남원에서 생산된 것으로 품질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왜 조선인은 이 차를 채취해서 마시지 않습니까?”

이에 선조가 답하였다.

“조선의 습속은 차를 마시지 않소.”

“이 차를 요동에 갖다 팔면 10근에 은 1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여진인들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므로 하루도 차를 마시지 않으면 아니 되어 우리 중국에서는 이들에게 차를 팔아 매년 1만 필의 군마를 삽니다.”

“그러나 이 차는 고급차가 아니고 품질이 떨어지는 차요.”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인은 인삼차를 많이 마시는데 오히려 차를 마시면 마음이 열리고 기운이 나서 매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양호가 물러난 후 선조가 이 이야기를 신하들에게 들려주자 대신 정탁(鄭琢)이 말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를 놀리려는 것입니다. 차를 마신다고 게으름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선조 30년 5월, 명나라 장군 양원(楊元)이 그의 주둔지인 남원으로 내려갈 때 선조가 남대문에 나가 송별연, 즉 전위례(餞慰禮)를 행하는데 양원(楊元)이 이르기를 더워지기 전에 길을 떠나고자 하니 청컨대 간단히 '차례'만 행하기를 청하자 이에 선조가 이르기를 대인이 먼 길을 기는데 술을 한 잔하고 가라고 권한다. 그러나 양원이 한사코 사양하기에 그냥 차례만 행하였다는 기사⁸¹⁾도 보인다.

조선 말 고종 때 국가 행사로 진연(進宴)이 행해질 때 평양·진주·대구·해주에서 기생들이 서울로 뽑혀 와서 다동에 모여 살았다. 1909년에 관기(官妓) 제도가 폐지되자 남도와 서도 기생들도 대거 상경하여 1913년에는 모 백작이 서도 출신 기생을 모아 다동조합(茶洞組合)을 구성했는데 약 30명 정도의 기생들이 모였다. 이 무렵 서울과 남도 출신 기생들도 모여 광고기생조합을 구성하였다.

다동조합에는 소흥을 비롯하여 춘도·명옥·진홍·영월·운선·화희·섬홍·산월 등 명기들이 모였는데 포주(抱主)가 없는 무부기(無夫妓) 조합이었고, 광고조합은 유부기(有夫妓) 조합으로 불렸다. 다동조합은 1914년부터는 다동권번(茶洞卷番)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다동조합의 기생들은 「수심가」, 「놀량사거리」, 「난봉가」 등의 시조와 가사(歌辭)에도 능해 장안에서도 이름을 날렸으므로 '다방 골 기생'이라는 애칭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 당시 기생들은 밤늦도록 술 시중을 하며 주연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튿날 아침 늦게까지 실컷 잠을 잤고, 종로 육의전에 가게를 가진 상인들도 밤늦도록 장사를 하고 돌아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을 잤기 때문에 아침 늦게까지 지는 것을 '다방 골'이라 불렀다.

다방 골은 본래 부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으나 점차 기생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 1920년대에는 서울 안에 약 300명의 기생이 있었는데 다방

골에만 60여 명이 있었으며, 평양 기생이 제일 많았다고 전한다. 달 밝은 밤에 들창문으로 새어 나오는 은방울 소리를 찾아 꽃을 탐하고, 버들을 꺾으며 풍류를 즐기는 남자들이 이곳을 드나들었다.

이 당시 기생들은 시간당 술 시중을 들고 웃음을 팔았으며 한숨을 시는 신세였다. 이곳은 고위 관리나 시전 상인들이 드나들고, 기생들 뒤에는 오라비·뚜쟁이·난봉꾼·시정 건달·오입쟁이 등 이른바 시정잡배들도 활동하였다. 흥선 대원군이 ‘천하장안’이라고 불리는 시정잡배 출신의 건달들과 어울려 출입한 곳이 이 다방 골이다.

조선 시대 청계천변 상인들은 손님을 보낼 때 “안녕히 건너갑쇼”라고 인사하였다. 이는 광통교 좌우에 가게를 차렸던 상인들이 돌아가는 손님들에게 광고를 “안녕히 건너갑쇼”라고 인사한 데에서 생긴 풍습이라고 전한다.⁸²⁾

술집이 몰려 있던 무교동과 접해 있는 다동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름을 날렸던 ‘낙지 골목’이 있었으나 재개발 사업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1980년대에는 이른바 극장식 술집을 비롯하여 갖가지 오락장과 대중음식점, 맥주홀, 나이트클럽들이 내로라하는 미인들을 앞세워 영업을 했으나 강남 지역이 개발되면서 옮겨 갔다.

종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만든 ‘피맛길’

예이, 예이, 물렀거라 여봐라, 길 비켜라
예이, 예이, 물렀거라 벽제의 호통 소리.
구름 같은 저 말을 잡아타고 집채보다 큰 높은 가마 타고
하늘에 닿을 감투 눌러쓰고 나리님 오기 전에
예이, 예이, 물렀거라! 여봐라, 길 비켜라!
예이, 예이, 물렀거라! 벽제의 호통 소리.
한 걸음을 물러난 피맛골엔

호통도 닿지 않아.

가마도 마차도 좁아서 못 지난다

나리님 높은 감투도 처마에 걸리신다. ……

- 일제 강점기 대중가요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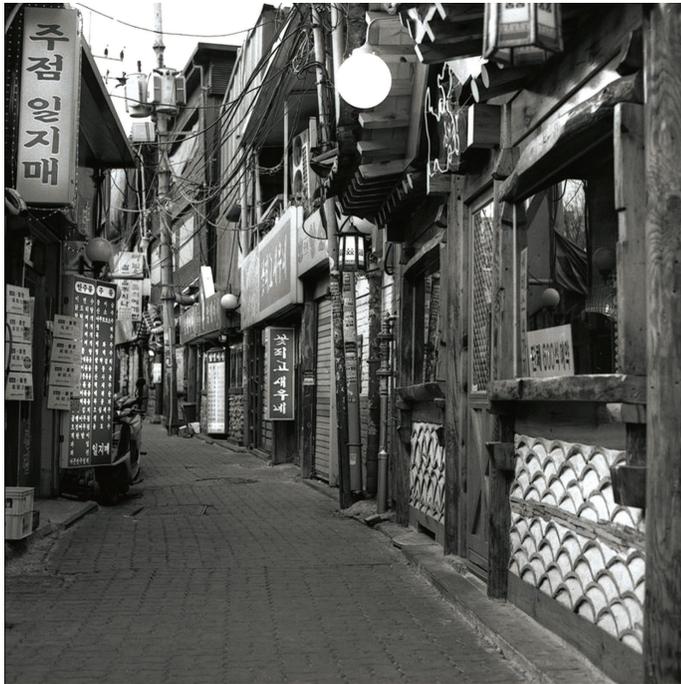
서울 종로 북쪽에는 조선 시대의 골목길이 있다. 이 뒷골목은 ‘피맛 [避馬]길’로 불린다. 전일에는 청진동 종로 1가에서 6가까지 이어졌으나, 지금은 종로 2가 뒤쪽에서 종로 6가 사이에 일부가 남아 피맛길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피마(避馬)’라는 말은 조선 시대에 말을 타고 종로 대로를 지나던 높은 벼슬아치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기 싫어 평민들이 피해 다니던 길이란 뜻에서 유래했다고 전한다. 당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종로를 지나다가 말을 탄 고관들을 만나면, 행차가 끝날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서민들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한길 양쪽에 나 있는 좁은 골목길로 다니는 습속이 생겼는데, 피맛길은 이때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다.

이 길은 조선 초 세종 때 청계천 지천 공사 당시 종로 시전 행랑(行廊) 양편에 종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청계천 방향과 평행하게 작은 냇물을 굴착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수로(水路)였다. 이 수로변은 골목길이 되면서 피맛길로 불리게 되었다.

조선 시대에 이곳을 지나던 서민들은 출출할 때에는 허름한 국밥집에 들러 배를 채우고, 목이 킁킁할 때에는 막걸리를 들기도 했다. 자연스레 이곳에는 가벼운 주머니로도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선술집·국밥집·색주가 등 술집과 음식점이 많아졌고, 늘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당시 ‘목룻집’이라 불리는 주점에서는 산적, 돼지고기, 생선 등을 담은 목판이 진열되어 있어 손님이 들어올 때 미리 안주거리를 고르면 즉석에서 구워 냈다고 한다.



점차 사라지고 있는 종로 피맛길의 풍경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이 좁은 골목길은 지금도 길 양쪽에 해장국·생선구이·낙지볶음·빈대떡 등을 파는 식당과 술집·찻집이 밀집한 종로의 명소 중의 하나이다. 요즘은 현대적인 주점들에게 자리를 모두 내주고 예스러운 분위기는 많이 사라졌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안주가 푸짐한 술집 분위기는 예전 그대로이다. 이리하여 젊은 층이 피맛골

을 많이 찾고 있으며, 막걸리와 고갈비[고등어 구이]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1970년대의 종로 노퍽 확장으로 남쪽의 피맛길은 종로에 포함되었다. 1980년대 초에 종로 북쪽의 청진동, 수송동 등이 도심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뒤, 2003년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허가함에 따라 청진동 166번지 일대부터 피맛길을 없애고 대형 건물이 신축되기 시작하였다. 600년간 서민의 애환이 서린 피맛길은 2009년에 재개발로 사라질 예정이었으나, 시민들의 반대가 심하자 서울시는 기존 개발된 지역을 제외하고 종로 2가~종로 6가에 걸쳐 있는 피맛골은 수복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여 예전 피맛길의 모습을 다시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하루하루 슬럼화의 길을 걷고 있는 피맛길이 600년 조선 역사의 맥

을 이어 가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 누구나 걷고 싶은 골목길로 만들어져 인사동과 함께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이 꼭 가 보고 싶은 골목으로 꾸며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깍쟁이의 유래

쌀가게에서 쌀을 사 오는 것을 서울말에서는 ‘쌀 팔아 온다’라고 표현한다. 거꾸로 돈이 필요해서 쌀을 내다 파는 경우에는 ‘쌀을 내다’라고 표현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쌀 좀 사 놓았으면 좋겠다”고 하면 쌀을 추수해 먹을 처지가 못 되어 싸전에서 구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몹시 부끄러워하여 허세로 쌀 사는 것을 쌀 파는 것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라는 설도 있다.

서울 사람들은 식초를 ‘단것’이라고 하였다. 누룩으로 술을 담가 술이 시어지면 초가 되는데 왜 그것이 달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발에 신는 신을 신발이라고 사족(蛇足)을 붙이는 것은 신이 신체 기관 중 콩팥[腎臟]과 발음이 같아서 함부로 입에 올리기가 어려워 신발이라고 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손아래 손님을 대접할 때 “나쁜 듯하거든 더 들게”라고 흔히 말한다. 즉 “더 먹고 싶으면 더 먹게”라는 뜻인데 나쁘면 더 먹을 수는 없지 않을까.

흔히 서울 사람을 일컬어 ‘깍쟁이’라고 지방 사람들이 말한다. 그러나 원래 깍쟁이는 거지 중에 뱀을 잡으러 다니는 ‘똥꾼’을 뜻하는 말인데, 이 말이 서울 사람을 지칭하게 되었다. 서울 집집을 돌아다니며 구걸하는 자를 거지, 비렁뱅이, 동냥아치, 걸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우두머리가 ‘꼭지만[丐帥], 깍쟁이다.

청계천을 준설할 때 나온 흙은 한두 군데에 모아 놓을 수가 없어서 청계천변에 쌓았으므로 이를 가산(假山)이라고 불렀다. 이 가산은 조선

초부터 한양의 거지들이 굴을 파고 거주하는 곳이 되었다.

인색하고 말쑥 부리고 남을 괴롭히는 ‘안달뱅이’를 비유하여 ‘요 깍쟁이! 라고 욕을 하였다. 땅꾼 중에 나이 어린 자를 ‘재리’라고 하는데 이 말도 매우 인색한 사람을 욕할 때 쓰는 말이며 ‘재리 깍쟁이’라고 하면 욕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욕이었다.

거지들의 소굴, 청계천변의 가산(假山)

조선 초 문종 때 기록을 보면 청계천 수구(水口) 안에는 전일에 만든 3개의 산이 있는데 소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하였다. 그 뒤 성종 때 편찬된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가산은 조선 전기 도성 수구 내(水口內) 혼련원 동북쪽에 위치하고, 수북(水北)·수남(水南)에 각 한 개씩 있었다. 흙으로 만든 산으로 지기(地氣)를 모아두는 것과 같다.”⁸³⁾고 소개하였다.

이는 풍수지리설의 이른바 비보(裨補)인 듯하며, 조산(造山)된 흙은 개천 공사 때 나온 흙이었을 것이다. 청계천을 준설할 때에 나온 흙은 한두 군데에 모아 쌓아 둘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를 가산(假山)이라고 불렀다.

이 가산은 조선 초부터 한양 걸인들의 집회소가 되었다. 걸인들의 수가 수백 명이나 되어 두목은 세도가에 붙어 다른 당파나 정적(政敵)의 행태와 드나드는 사람들을 염탐하기도 하고, 부잣집의 혼사나 상사(喪事) 때에는 잡배의 출입을 막아 주기도 하며, 상여가 나갈 때에는 요령을 흔들고 만장을 들어 주는 등 굵은일을 도맡으면서 응분의 대가를 받았다.

조선 초 성종 때 한성관윤이 “가산 일대에 거지 수백 명이 모여 삽니다. 그들은 법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소란만 피운다 하니 좌우 포도청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소서.”라고 상언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포졸이 다스리기에는 너무 많은 데다가 세력도 커져 있고, 세도가와도 야합되어 있어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차라리 조직화하여 생계를 보장해 주고, 행

패를 자제시키는 쪽으로 걸인 정책을 바꾸었다. 이에 따라 포도청에서는 이 거지들에게 뱀을 잡아 파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뱀잡이를 땅꾼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들이 가산에 땅 굴을 파고 살았기 때문이다.⁸⁴⁾

또한 거지들을 단속하기 위해 두목인 ‘꼭지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매년 덕망 있고 깡이 세며 통이 큰 두목인 ‘꼭지땅’은 명절에 고관이나 세도가에 찾아다니면서 세배도 했다고 한다. ‘꼭지땅’은 걸인들의 생활권을 쥐고 있었으므로 이합집산(離合集散) 등 모든 행동은 그의 지시를 따라 조금도 어기는 일이 없었다.

청계천변의 가산은 영조 36년(1760) 경진년 때 조성된 것이 규모도 크고, 그 수효도 여러 개가 되어 주민들이 가산 또는 조산이라 불렀다. 현재 을지로 6가 18번지 동쪽 끝부터 방산동 4번지 서북쪽 끝의 청계천 양쪽으로 이어진 언덕이 가산이었다.

영조 36년 4월 10일, 청계천 준천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영조가 봉조하(奉朝賀) 유척기(兪拓基)에게 이 공사의 성과를 묻자, 유척기가 답하였다.

준설로 생긴 흙을 지금과 같이 개천의 양안(兩岸)에 방치해 두었다가 비가 내리게 되면 이것이 무너져 천거(川渠)와 도로에 흘러



서울시에서 설치한 '가산터' 문화유적 표석

들어가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되면 모처럼 실시한 역사(役事)도 헛되
이 되어 버리므로 거액을 들여서라도 이 토사를 다른 곳으로 운반해
야 합니다.⁸⁵⁾

영조가 이를 듣고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전한다. 이처럼 경
진년의 준천 때에 준설로 인한 흙을 처리할 계획은 세우지 못하여 청계천
의 양편에 무질서하게 쌓아 모아 둔 것 같다. 유척기의 지적에 대하여 영
조는 거액을 들여서 원거리로 흙을 운반해 갈 수도 없었으므로 이 흙을
동대문 부근 오간수문 근처에 두 군데로 집중시키도록 함으로써 가산(假
山)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 가산은 특별히 축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
자 풍우(風雨)로 흙이 흘러내려 허물어지면서 낮아졌을 것이며, 그다음 준
천 때 다시 그곳에 토사를 모아 종전보다 더 큰 산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순조 32년(1832) 9월 기록에 비변사(備邊司)에서 다음 해 봄에 실시
할 준천 계획을 보고 받고, 순조는 모든 것을 경진년의 「준천사절목」을
참고하여 “어디에 조산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 ‘경진사목(庚辰事目)’을
참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이 조산을 나지(裸地)로 두면 보기가 흉
하기 때문에 나무와 화초를 심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 서울이 상업 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몰
려들었는데, 그중 상당수는 일거리를 찾지 못하여 걸인으로 연명해야 하
였다. 수백 명의 걸인들의 근거지는 주로 청계천 다리 밑과 청계천 준천
이후 생긴 가산의 토굴이었다. 서울에서 거지를 땅꾼이라 부른 것은 가산
에 땅굴을 파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 가산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무너지거나 일제 때 종로를
돌우거나 건물을 지으면서 평지로 변했다.

현재 동대문종합상가 부근의 북쪽 조산은 광무 2년(1898)에 전차
차고(車庫)를 세우면서 대부분 헐렸다. 평화시장 뒷골목에서 국립의료원
을 거쳐 방산동 일대 청계천 남안(南岸)의 조산은 1917년에 동대문초등
학교를 세울 때 사용하였다. 그 이듬해인 1918년에 현 국립의료원 자리
에 조선약학교(朝鮮藥學校)를 짓고, 1921년에는 그 서편에 경성사범학
교를 세울 때에 모두 파서 쓰고, 나머지 흙은 종로의 도로를 높일 때 사
용하였다.⁸⁶⁾

현재 중구 방산동은 1914년 일제가 경성부의 행정 구역명을 새로 정
할 때 속칭 조산동(造山洞)이라고 불리던 이곳에 심은 꽃향기가 좋아서
방산동(芳山洞)이라고 이름 하였다고 전한다.

청계천에 시신을 버린 살인자 체포에 현상금

성종 19년(1488) 6월에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서 개천 가운데에 버린 일
이 발생하였다. 이에 범인을 체포하도록 엄명을 내렸으나 10일이 지나도
록 체포되지 않자 성종이 말하였다.

범인을 끝까지 찾아내어 엄하게 다스려서 전형(典刑)을 바로잡
고 죄인을 심문하고 밝혀내려 하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수
고(首告)의 법을 세우고, 또 현상(懸賞)하여 체포하도록 하였다. 지금
열흘이 지나도록 고하는 자가 없으니, 국가에 기강이 있다고 일컬을
수 있겠는가? 이제 고발하여 체포하기 위해서는 상금을 올리고, 자
수(自首)하지 아니하는 죄를 무겁게 하여 반드시 잡기를 기약하되,
만약 고하는 자가 있으면 전에 반포(頒布)한 상전(賞典) 외에 면포
(綿布) 5백 필을 더 주고, 또 범인의 6촌 이내의 친족은 모두 중죄(重
罪)로 다루어 죄에 경중에 따라 형벌을 내리도록 하라. 마땅히 신속
하게 방시(榜示)하여 궁벽한 동리의 후미진 집까지 널리 알지 못
함이 없게 하라.⁸⁷⁾

중종 17년(1522) 1월에도 청계천에 목을 매어 죽인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에 국왕의 고문역인 특진관(特進官) 조계상(曹繼商)이 아뢰었다.

전번에는 면포(綿布)로 목을 매어 개천에다 버린 시체가 있기에 검률(檢律)로 하여금 검시해 보니, 스스로 목을 매었다면 베로 맨 자국이 마땅히 목 뒤에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람은 목 아래에 있어 형적(形跡)이 황당한 것 같기에 바야흐로 철저하게 심문하고 있으나 아직 실정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경연청(經筵廳)의 참찬관(參贊官) 윤희인(尹希仁)이 아뢰었다.

신이 왕래하는 송침교(松針橋) 밑에 유기한 시체가 베로 목을 맺다고 했는데 그 이튿날에도 시체를 검사하지 않았기에, 신이 정원(政院)에 와서 서부(西部)의 관원을 불러 즉각 검사하지 않은 것을 힐책하여 알아본 결과 곧 내수사(內需司)의 이문(里門)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⁸⁸⁾

청계천에 들어온 표범

조선 초 태종 18년(1418) 5월에 표범이 청계천에 들어오니, 시전 사람들이 모여서 이를 잡아 병조(兵曹)에 바쳤다. 세종 17년(1435) 4월에도 한낮에 표범이 도성에 들어와 청계천으로부터 달아나 안국방(安國坊)의 평양군 조대립(趙大臨)의 집 원림(園林)에 이르자 원금(元金) 등 네 사람이 잡아 바치니 시상을 차등 있게 내리고, 담당 관아에게 명하여 해괴제(解怪祭)를 행하게 하였다.

단종과 정순왕후가 이별한 영미교

조선 초에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내쫓고 왕위에 오르기 위해 유혈극

을 벌인 해가 계유년(단종 1년)이었으므로 흔히 '계유정난(癸酉靖難)'이라고 부른다.

이 당시 실권을 장악한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단종의 복위를 꾀하던 사육신 등이 오히려 체포되어 처형된 일은 오늘날까지도 파문을 남기고 있지만, 불운한 단종비 정순왕후(定順王后) 송씨(宋氏)의 애달픈 일화는 두고두고 세상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 왔다.

정순왕후 송씨는 14세의 어린 나이로 왕비에 책봉되었으나 그 이듬해 단종이 왕위를 내놓자 1년 만에 왕대비가 되었다. 그러나 2년 후 세조 4년(1458)에 단종이 영월로 귀양 가면서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되자 정순왕후도 송씨 부인으로 격하되었다. 16세의 단종과 17세의 송씨는 동대문 밖에서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되었다.

전해 오는 이야기로는 영월로 귀양 가던 단종과 정순왕후 송씨가 이별하던 곳은 청계천에 놓인 영미교(永尾橋)였다고 한다. 이 영미교는 종로구 송인동과 중구 황학동 사이 청계천에 놓였던 다리로 지금은 청계천 복개로 그 모습이 사라졌지만 전에는 뚝섬과 광나루로 통하는 중요한 다리였다. 원래 이 다리 이름은 단종과 송씨가 이곳에서 생이별을 했다 하여 영이별교(永離別橋)라고 일컬었던 것이 변하여 영미교가 되었다 전한다.

일명 영미다리, 영미교(穎眉橋)로 불린 이 다리는 성종 때 돌다리(石橋)로 만들어 영도교(永渡橋)라고 명명되었으며, 조선 말 흥선 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하면서 석재를 빼어 가 목교(木橋)로 바뀌었다. 일제 때 1933년에는 콘크리트로 놓였다가 1967년 청계천 복개 공사로 사라졌다.



정순왕후 송씨가 거처하던 곳에 세운 정업원 구기비

단종과 눈물의 이별을 한 정순왕후는 영월 쪽을 바라볼 수 있는 현재 청룡사 부근(종로구 송인동 17번지)에 작은 초가를 짓고 정업원(淨業院)이라 하였다. 그리고 머리를 깎은 뒤 희안(希安)·지심(智心)·계지(戒智)의 세 시녀를 데리고 정업원 암자에서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지냈다. 조정에서는 근방에 집을 지어 주고 이곳을 영빈정동(英嬪貞洞)이라 부르게 하였으나 정순왕후 송씨는 끝내 그 집에 들지 않고 정업원에 머물렀다.

정순왕후 송씨는 조석으로 동망봉(東望峰)에 올라 영월 쪽을 바라보며 단종의 평안을 빌었으나 헤어진 지 4개월 뒤인 세조 3년(1457) 10월 4일, 영월에서 노산군이 사약을 받고 숨을 거두자 이후부터는 동망봉에 올라 단종의 고훈(孤魂)이 헤매는 영월을 바라보며 명복을 빌었다. 이에 따라 송인동 일대에는 정순왕후와 관련된 유적과 일화가 많이 남아 있다.

조선 말에 쓴 『한경지략(漢京識略)』 궁실조에 보면 송인동, 즉 동묘 남서쪽 마을은 싸전굴(米塵洞) 또는 장거리(場巨里)로 불리었고, 이곳에는 학교가 있었는데 전에는 여인들만 모이는 채소 시장이 있었다고 써어 있다.

정순왕후 송씨가 시녀들과 정업원에 살면서 초근목피로 연명한다고 하자 근방의 부인들이 정업원 앞에 장을 서게 하여 누가 정순왕후 송씨에게 푸성귀를 제공했는지 알 수 없도록 송씨에게 채소라도 공급하려고 하였다.

정업원에서 빈궁한 살림으로 거처하던 정순왕후 송씨는 82세까지 장수하다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사릉리 산 65번지의 사릉(思陵)에 안장되었다.

광고의 인연

청계천에 놓인 광고에는 조선 초 성종과 경상도에서 상경한 김희동과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

어느 가을 달 밝은 밤, 이날도 미행(微行)을 하기 위해 평복 차림으로



청계천 복원 후의 광고 모습

대궐을 나온 성종은 무예별감 몇 사람을 멀찌감치 뒤따르게 하고, 어둠에 잠긴 서울 거리를 이곳저곳 살피고 다녔다. 마침 광고 위를 지나던 성종은 다리 밑에서 인기척이 나므로 내려다보았다.

아직 춥지는 않았으나 밤이 깊은 때에 다리 밑에 어떤 흰옷 차림의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이상하게 여긴 성종은 다리 아래로 내려가 보았다.

가까이 가 보니 행색이 초라한 시골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등에 보통이를 짊어지고 나이는 사십여 세 되어 보였다.

성종이 그에게 “누구시오?” 하고 묻자, 그는 몹시 반가운 듯이 바짝 다가오며 “나는 경상도 홍해 땅에서 온 김희동이올시다. 마흔 살이 넘도록 임금님이 사시는 서울 구경을 못했기에 버르다가 간신히 노자를 변통해서 길을 떠났지요. 수십 일 만에 겨우 서울에 당도하여 방금 저녁은 사 먹었지만 하룻밤 잘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 여기 앉아 밤이 새기를 기다리는 중이요.”라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그는 성종에게 “택은 뉘시기에 이 밤중에 다니시오? 혹시 임금님이 계신 집을 아시거든 좀 가르쳐 주시오. 어차피 서울에 올라왔으니 어질고 착하신 우리 임금님을 찾아뵙고 가야겠소.” 하였다. 성종은 그가 너무나 순박하고 어수룩하여 도리어 기특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시치미를 떼고 말하기를, “나는 동관 사는 이침지란 사람이요. 임금 계신 곳을 알긴 하오만, 그대 가르쳐 주면 임금님을 뵙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오?” 하고 물었다.

시골 사람은 히죽 웃으며 “우리 고을에서는 사람마다 임금님이 어질고 착하여 백성들이 편하게 잘 산다고 합니다. 내 기왕 상경했으니 어지신 임금님께 인사나 여쭙지는 거지요. 그러나 빈손으로 뵈올 수가 없어 우리 고장에서 나는 해삼과 전복을 조금 짚어지고 왔지요. 이걸 임금님께 드려서 한때 반찬이나 하시게 하지는 것이요. 그대 택이 임금님 계신 곳을 아신다니 좀 가르쳐 주시오.” 하였다.

그때 무예별감이가 가까이 오자 성종은 가만히 귓속말을 한 다음 “당신이 이 사람을 따라가 머물고 있으면 내가 임금님을 뵙도록 해 드리리다.” 하며, 무예별감을 따라가게 하였다. 김희동은 “서울 양반은 참 인심도 좋구먼.” 하면서 무예별감 뒤를 따라갔다.

그 이튿날 성종은 또 미행으로 무예별감 집에 행차하였다. 성종을 본 김희동은 매우 반가워하면서 “이침지는 참말 무던한 사람이외다. 처음 보는 시골 사람을 잊지 않고 또 찾아주시니…… 그런데 임금님은 뵙게 될 수 있는지요?” 하고 물었다.

이 무엄한 언사에 무예별감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으나 왕의 분부가 있었던 만큼 참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성종은 웃으면서 “당신의 정성은 무던하오만, 벼슬이 없는 사람은 임금님을 뵈옵지 못하는 법이요. 그러니 임금님을 꼭 뵈려면 먼저 벼슬 한 자리를 원하시구려. 내가 되도록 힘써 볼 것이요.” 하였다. 김희동은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동네 박충의란 사람이 있는데 그 충의(忠義: 양반 숙위군)란 벼슬 좋습디다. 그렇지만 당신이 무슨 수로 그런 벼슬을 시켜 주실 수 있겠소. 아무래도 임금님을 뵈 수 없다면 그냥 돌아가야 하는데, 수고롭지만 어떻게 연줄이 있거든 이거나 임금님께 전해 드려 주시오.” 하고 해삼과 전복 썩 보통이를 내놓았다.

왕은 터져 나오는 웃음을 가까스로 참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충의 벼슬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볼 터이니 하루만 더 기다려 보오.” 하였다. 궁궐로 돌아간 성종은 이조(吏曹)에 명해서 김희동을 충의초사(忠義初仕)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한편 무예별감 집에서 기다리던 김희동은 무예별감이 갖다 주는 영문 모를 사모와 관복을 받았다. 이윽고 김희동은 무예별감에게 안내되어 해삼과 전복을 챙겨 들고 대궐로 들어갔다. 그리고 전도관을 따라 성종 앞에 두 번 절하고 꿇어 엎드렸다.

“내가 임금을 배알하고자 한다니 내가 바로 임금이다. 고개를 들고 나를 보아라.” 하는 명이 내리자, 김희동이 간신히 머리를 들어 보니 어찌된 영문일까, 용상에 높이 앉아 있는 이는 바로 이침지가 아닌가. 김희동은 모르는 사이에 “아니, 이침지가 어떻게 여기 있소!”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내시와 승지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취잇!” 하고 주의를 주었다. 그제야 김희동은 이틀 밤이나 이야기를 나누던 이침지가 바로 국왕이었던 것을 깨달았다. 그는 너무나 황공하여 몸 둘 바를 모르고 당황하다가 해삼과 전복 보따리를 떨어뜨리고 나갔다. 성종은 웃으면서 “저 물건은 고맙게 받아먹을 수밖에 없다.” 하였다.

성종은 이어서 김희동에게 상금을 많이 내려 금의환향(錦衣還鄉)하게 하였다.⁸⁹⁾

광통교 선사의 점(占)

조선 초에 성현이 쓴 『용재총화(慵齋叢話)』에 「광통교 선사의 점」 이야기

가 소개되어 있다. 조선 시대에 경을 읽는 소경은 모두 머리를 깎으므로 세상에서는 그들을 선사(禪師)라고 불렀다. 늙은 소경 김을부(金乙富)는 광통교 다릿목에서 점을 치고 시는데 점치러 가는 사람들은 많으나 그 점이 맞는 일은 없으므로 부인네들은 “광통교 선사가 언짢다면 좋은 법이야.”하고 말했다.

참관 김현보(金賢甫)의 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김현보가 자기 아들의 시험 답안을 보고 말하기를 “네 글이 아주 변변치 못하구나. 과거에 붙을 리가 만무하다 하였다.” 그런데 과거 급제한 사람을 발표하였는데 그 아들이 높다랗게 붙어 있는 것이었다. 김현보의 친구들이 “광통교 선사가 언짢다면 좋은 법이라니까.” 하고들 웃었다.⁹⁰⁾

범죄인들이 드나들던 오간수문

오간수문은 서울 성곽을 쌓으면서 청계천 물이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세 개의 아치형 수문(水門)을 만들고 그 위에 성곽을 쌓아 올렸다가, 홍수 때 이 부근이 침수되자 두 개의 수문을 더 만들어 5개의 수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세종 3년(1421) 7월에 관한성부사 정진(鄭津) 등이 소를 올리기를 “두 곳의 수문(水門)은 좌우의 웅성(壘城)이 좁아서, 도성 안의 여러 곳의 물이 합쳐 흘러서 막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부(東部)의 창선방(彰善坊)이 재해를 입은 것이 더욱 심하였습니다. 원컨대 유사(有司)로 하여금 적당한 곳을 가려서 별도로 수문 하나를 더 만들어 물길을 통하게 하면, 물이 넘치는 것이 감해될 것입니다.”⁹¹⁾라고 하였으니 조선 초에는 세 개의 수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간수문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들면, 중종반정 때 3대장이 의논하여 먼저 오간수문을 부수고 형세를 관망하여 그곳으로 나가고 물러가며 필승(必勝)의 계책을 삼았었다.



조선 말기의 오간수문

명종 15년(1560) 11월에는 황해도의 도적 임격정(林巨正)이 밤을 틈타 성안에 들어가 전옥서(典獄署)의 옥문을 부수고 임격정의 처를 꺼낸 다음 오간수문을 통해 도성 밖으로 나오려 하였다고 체포된 임격정의 부하 서림이 진술하였다.⁹²⁾ 홍명희의 소설 『임격정전』에는 임격정이 체포된 부하 서림을 구출하여 오간수문을 빠져나온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영조 36년의 ‘경진준천(庚辰濬川)’ 때 영조는 세손(후일 정조)과 함께 오간수문 위에서 준설 공사를 관찰하였다. 이 당시 준천에서 나온 모래흙은 한두 군데에 모아 쌓아 둘 수 없어서 오간수문 부근의 청계천 양쪽에 쌓아 놓았다.

한편 오간수문은 광무 11년(1908) 당시 한성부 토목국장 유맹(劉猛)이 청계천 물이 잘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명분을 세워 헐어 버리고 말았다.⁹³⁾

청계천 오염의 주범, 가축의 오물

쓰레기·분뇨(糞尿) 처리는 조선 시대 서울의 큰 사회 문제였다. 서울에서 쓰레기를 처리했던 방법은 대개 저지대에 묻거나 개천, 청계천 등에 버리고, 분뇨는 서울 근교 농민들이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거해 가기도 하였다. 청계천 준천을 하게 된 것은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하천 바닥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성민들이 청계천에 함부로 쓰레기와 분뇨를 버린 것도 그 원인이 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한성부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 수차례 청계천을 준설했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다.

현재 종로구청이 자리한 수송동에는 궁중에 필요한 말을 기르는 사복시(司僕寺)가 위치하고, 청계천 마전교(馬廐橋)에는 말과 소를 빌려 주거나 매매하는 세마장(貫馬場)이 위치하여 말의 분뇨 등 배설물 때문에 청계천의 오염이 심하였다. 이에 「준천사절목」에는 말의 배설물을 청계천의 흐름을 막는 원인의 하나로 꼽고, 청계천변에서의 돼지 사육도 금하였다.⁹⁴⁾

그러나 도성 안 주민들은 분뇨 등의 오물을 청계천에 버리는 것 외에도 쥐나 고양이 등의 동물 시체를 비롯하여 심지어 전염병으로 죽은 유아의 시체까지도 밤중에 몰래 청계천에 버렸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 후기 숙종 36년(1710)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했다.⁹⁵⁾ 그리하여 청계천을 메운 오물은 주변을 악취로 뒤덮었다. 불결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는 없었으므로 전염병은 언제나 청계천 주변을 먼저 위협하였다.

조선 후기의 직업적인 낭독가, 전기수

조선 후기에는 소설이 수적으로 증가하였다. 독서층이 확대되어 소설은 점차 대중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소설을 읽어 주고 일정한 보수를 받던 직업적인 낭독가가 등장하였다.

낭독가 중에는 부유한 가정을 찾아다니며 소설을 읽어 주고 보수를

받았던 부류가 있었고, 도시를 중심으로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을 택하여 자리를 잡고 앉아 소설을 읽어 주고 일정한 보수를 받던 전기수(傳奇叟)와 같은 부류가 있었다.

조수삼의 『추재집(秋齋集)』 기이편(紀異篇)에는 이렇게 전한다.

전기수는 동문 밖에 살았다. 언과괘설(諺課稗說)인 「숙향전」·「소대성전」·「심청전」·「설인귀전」 등과 같은 전기(傳記)를 읽었다. 매월 초하루는 청계천 제1교 아래에 앉고, 2일은 제2교 아래에 앉고, 3일은 진고개(泥岬)에 앉고, 4일은 교동 입구에 앉고, 5일은 대사동(大寺洞, 현 인사동) 입구에 앉고, 6일은 종루(鐘樓) 앞에 앉았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갔다가 7일째부터는 다시 내려오고, 내려왔다가는 다시 오르고 하여 한 달이 차면 다음 달에 또다시 반복하였다.

전기수의 책을 읽는 솜씨가 뛰어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읽어 가다가 아주 긴요하여 꼭 들어야 할 대목에 이르러 문득 읽기를 그치면 사람들은 그 다음 대목을 듣고 싶어서 다투어 돈을 던져 주었다. 이것이 이른바 요전법(邀錢法)이다.⁹⁶⁾

전기수는 소설의 상업화 가능성과 독서층의 저변을 확대시킴으로써 소설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전기수를 계승한 것으로 일제 때 무성영화 상영 때에 변사(辯士)가 있었는데 요즈음에는 청계천 광통교 아래 등에 전기수가 배치되어 있다.

5) 조선 말 개화의 메카, 청계천변

개화사상의 싹이 트다

조선 말 개화사상의 선구적 인물인 오경석은 현재 수하동 11번지(중소기



젊은 시절의 김옥균은 오경석, 유흥기 등으로부터 개화사상을 받아들였다.

업은행 본점 뒤편)에서 살았다. 오경석은 3·1운동 때 33인의 한 사람인 오세창의 부친이다. 1877년 승록대부의 직함을 받았으나 4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서화(書畵) 수집에 취미를 가져 중국과 국내에서 희귀한 서화를 수집하였으며, 그의 매화 그림은 뛰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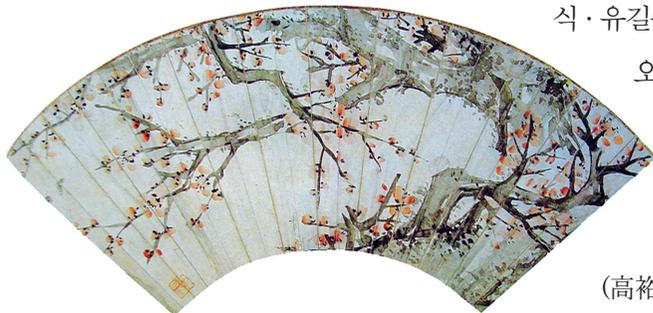
그는 중국어와 서화 및 박제가(朴齊家)의 실학을 공부하고, 13차례에 걸쳐 중국을 내왕하면서 『해국도지(海國圖志)』 등을 구해 와서 청계천변의 장차골에 사는 중인 출신 의원인 봉면(蓬面)의 거사, 대치(大致) 유흥기(劉洪基)에게 전했다.

오경석은 재동의 박규수 집 사랑방(현 헌법재판소)에서 1870년 초부터 김옥균·박영효·홍영식·유길준·서광범 등 양반 자제들에게 개화

사상을 가르쳐 1874년경에는 이들을 중심으로 개화파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무관(無冠)의 정승’이라고 불리는 유흥기는 봉원사의 개화 승려 이동인(李東仁)과 친교를 맺었다. 이동인은 밀항(密航)으로 일본에 건너가서 많은 문물을 가져왔고, 유흥기에게 이를 전했다. 이동인의 도움으로 개화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유흥기는 김옥균·박영효·홍영식·유길준·서광범 등 양반 자제들이 찾아오자 이들에게 개화사상을 가르쳤다.



오경석이 그린 <선면홍매(扇面紅梅)>

광고가 놓였던 신한은행 본점 남쪽에는 1897년에 고유상(高裕相)이 자본금 15만 원을 들여 설립

한 회동서관(滙東書館)이 있었다. 회동서관은 신소설, 사전, 실용서 등의 출판과 판매를 겸하였으며, 서적 외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용품 등도 함께 취급하였다.

현재 재개발된 중구 삼각동 7-1번지(센터-1빌딩) 부근에는 1910년에 한국 고문헌의 보존과 보급, 고전 문화의 선양(宣揚)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가 있었다.

개화기의 나무 장사들이 마신 커피

조선 시대에 나무 시장, 즉 시목전(柴木塵)은 다른 시전과 달리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는 서울 근교에 사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 소나 지게에 나무를 잔뜩 짊어지고 도성 안에 들어와 팔았으므로 큰 상점은 되지 못했던 까닭이다.

서울 근교의 고양, 양주, 광주, 과천, 양천, 부천 등은 나무 집산지였다. 그중에도 광주(廣州)는 나무 시장으로 유명하여 근래까지 많은 장작이 서울에 들어왔다.

서울에 나무 시장이 섰던 곳은 청계천 양편 공터와 종로 네거리, 애오개(阿峴), 마포, 동막(東幕), 서대문 네거리 골목 등 사람이 붐비는 곳에 있었다. 조선 후기에 서울의 인구가 늘면서 여러 가지 나무장이 생겼다. 특히 청계천 공터에는 소바리·등짐 등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사고파는 나무장이 많이 섰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배오개[梨峴]와 동대문 밖에도 나무 시장이 섰었다. 배오개는 각종 가게가 많아 음식점이 생겼고, 동대문 밖에는 큰 술집이 있었으므로 이들 음식점과 술집에서 많은 나무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 밖에도 무악재 아래 모화관 근처에는 곡식과 딸나무가 대량으로 매매되어 모화관의 나무 장사는 유명했다.

그런데 서울의 큰 나무 시장은 용산과 뚝섬 강변에 섰던 것을 손꼽지 않을 수 없다. 용산과 뚝섬의 나무 시장은 강원도 등지에서 한강을 이



개화기의 나무 시장. 소와 나무를 나르는 지게가 주요 운송수단이었다.

용해 뗏목이나 배를 타고 땀나무를 싣고 와서 부렸기 때문이다.

커피는 개항 이후 외국 사신의 내왕과 함께 들어와 왕실의 기호품이 되었으므로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당시 커피는 한자명으로 가배차(珈琲茶)라고도 하고, 민간에서는 양탕(洋湯)이라고 칭했다.

커피가 민간에 퍼지게 된 것은 일제가 우리의 주권을 빼앗은 무렵에 외국 선교사나 상인들에 의해서였다. 한국명으로 부래상(富來祥)이라 불린 ‘프랑스인 나무 장수’ 이야기는 커피의 보급과 관계가 있다.

부래상은 청계천변의 전일 중부 소방서(서울파이낸스센터) 뒤편에서 나무 장사를 하였다. 화살통만 한 보온병에 커피를 넣어 기다리고 있다가 창의문과 무악재를 넘어오는 나무장수들이 황토현(세종로 네거리)을 지날 때 다가, “고양 부씨(高陽富氏)입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고는 커피 1잔을 따라 주며 흥정을 했다. 처음 맛보는 서양 차에 사람들의 호기심이

쏟릴 것은 정한 이치이니 부래상은 자신의 장사에 크게 이득을 보는 동시에 커피를 우리나라에 보급하는데 한몫을 했다.

서울에 지금과 같은 형태와 기능을 갖춘 다방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3·1운동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생겨난 말이 ‘신식’이란 말인데 개화의 물결과 함께 서양의 문명이 고루 침투되어 어느덧 이 땅의 젊은이들도 차를 마시며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였다. 1923년 명치정에는 이견(二見, 후타미)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다방이 문을 열었고, 이어서 충무로 진고개 2정목에서 식료품점 귀옥(龜, 가메야) 안에 금강산이란 이름으로 다방 문을 열었다. 이 두 다방은 일본인에 의해 문을 열었지만 서울의 다방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당시의 다방은 영리 위주의 상업 다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유행을 따른 멋이었다. 다방 주인 자체가 문화인으로서 주로 영화감독, 배우, 화가, 음악가, 극작가, 언론인, 시인 등이고, 손님 또한 이와 같은 계층이어서 이러한 풍토가 가능하였는지 모른다. 1940년대를 전후해서 다방의 규모가 조금 커지기는 했지만, 이때는 일제의 태평양 전쟁의 말기에 해당하였으므로 다방의 수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광복과 6·25전쟁으로 이어지는 혼란기에 전환점을 이루었고, 이때까지 다방은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다방은 본래의 기능, 즉 차를 마시고 쉬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종합 예술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대행하게 된다. 즉 광범한 분야에 걸친 문화 활동이 다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주로 그림·영화의 밤·문학의 밤·출판기념회 등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 외에도 독립투사추모회·환영회·송별회·동창회·요리 강습회 등이 열렸다. 다방이 본래 기능 이외에 문화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은 어찌 보면 시대적인 과도기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⁹⁷⁾

일제의 한국 침략의 본거지, 남촌(南村)

조선 시대 남산 기슭과 그 밑의 일대는 남촌이라 불렀고, 이는 모두 가난하거나 벼슬 못한 샌님들이 살던 지역이라 하였다.

일본인들에게 서울 거주가 허용된 것은 갑신정변 다음 해인 고종 22년(1885) 2월부터의 일이다. 이들은 진고개 일대, 즉 오늘날의 중구 예장동·주자동~충무로 1·2·3가, 명동에 이르는 지역에 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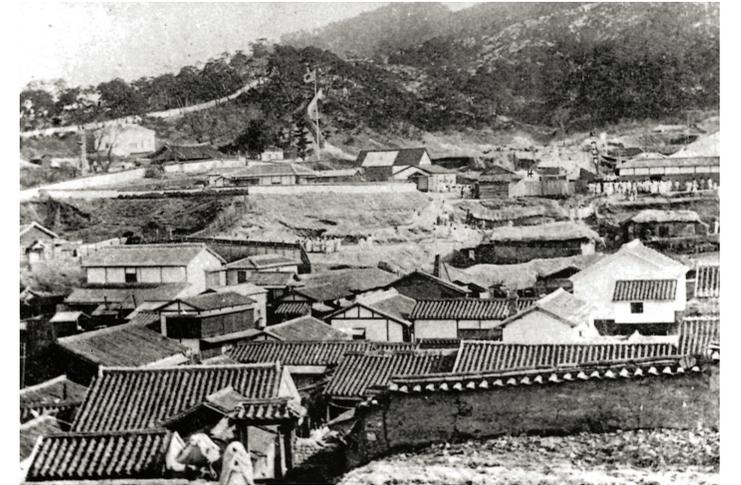
서울에 들어온 일본 거류민들은 초기에 이들 지역에 있던 한옥을 임차(賃借) 또는 매수하여 간신히 하나둘씩 정착할 수 있었다. 점차 그들의 수가 늘어나고 경제력이 증가하자, 토지와 가옥의 매각 기피 등 원주민들의 크고 작은 항거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1885년 2월에 결성한 거류민회와 1887년 2월에 발족한 일본인 상업회의를 중심으로 식민 사업을 펼쳤다. 이에 따라 주자동·진고개·명동 일대의 일본인 시가지는 점차 그 모습을 달리해 갔으며, 진고개와 명동은 서울의 새로운 상거래의 핵 기능을 하게 되었다.

도성 내의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에 의해 성 밖으로 밀려나가거나 낙향해 버렸고, 이 과정에서 한·일인 주민들의 교체가 일어남으로써 도심부는 일본인의 거주지가 되어 갔다. 이 결과로 청계천변을 중심으로 마침내 일본인의 거주 구역은 남촌, 한인 거주 구역은 북촌으로 구분된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 시대 도성 내의 남촌·북촌과는 그 낱안스도 내용도 다른 새로운 남·북촌이 형성되었다.

1904년 2월에 러일전쟁이 일어난 후 서울은 도성 안팎을 막론하고 거의 일본이 지배하는 도시로 변하였다. 일본군이 서울의 거리를 메운 상태에서 2월 23일에 한일의정서가 조인되고, 2월 2일에는 주한일본군사령부가 설치되었으며, 8월 22일의 제1차 한일협약으로 고문정치가 실시되면서 일본 거류민의 태도는 방약무인해져 한국인 대하기를 자기 집 하인

을 대하듯 하였다.

일본인의 입국이 격증함에 따라 일본인 거류 지역도 넓어져 남대문 안팎·회현동·남산동·명동·동현(을지로) 일대에 퍼졌고, 진고개는 충무로 5가까지 일본인들이 점유하였다.⁹⁸⁾ 이른바 남촌이 이루어진 것이다.



1920년대의 예장동 일본인촌

마을 이름도 거류민회의 뜻대로 바꾸어 종전의 낙동(駱洞)을 옥정(旭町)으로, 주자동·남학동은 일지출정(日之出町)·수정(壽町)으로, 필동은 대화정(大和町)으로, 쌍림동은 신정(新町)으로, 그리고 진고개는 본정(本町) 1정목~6정목으로 바꾸어 불렀다. 이때부터 모든 동리명이 일제 식으로 바뀌는 1914년까지 두 개의 동리명이 사용되었다.⁹⁹⁾

일본인 거류민회는 이 밖에도 쌍림동에 7,000평의 땅을 매입하여 공창(公娼)인 유곽(遊廓)을 설치하고, 진고개 끝에서 광희동을 거쳐 왕십리로 나가는 동부 도로의 개수를 시작했으며, 9월 1일부터는 일본 중앙표준 시간을 도입하여 영사관경찰서와 종루에서 종을 쳐서 시각을 알렸고, 청결법을 시행하여 도성 안팎에 걸친 대청소를 실시하였다.¹⁰⁰⁾

경술국치 당시(1910년 9월 말 현재)에 한성부 내 일본인 거류민 수는 8,794호 34,468명이 되었으며, 용산·영등포까지 합하면(군인을 제외한) 민간인만 4만을 넘었다. 또 1910년 말 현재 일본인들이 점유한 토지면적은(용산 포함, 경성부 일대) 택지·전답·산림을 합하여 148만 평에 달하였고, 건물은 5,830동, 125만 432평에 달하였다.¹⁰¹⁾

3·1운동 후 일제는 식민 정책을 무단 정치에서 이른바 문화 정치로 바꾼 뒤 행정 및 지방 제도를 개혁하였으며, 공업 및 상업의 발달을 꾀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강력한 식민 정치를 펼치고 경제적 이득을 얻는 데 경제적 도움을 주고 대륙 침략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도시 내의 공간 분포에 변화를 일으켰으며 특히 상업권의 형성 및 주거 지역의 공간 변화를 초래하였다.

일본인들의 끊임없는 증가는 도시 내 거주 지역의 분포 및 기존 상업 지역의 공간 이동을 유도하였다. 따라서 종로 1·2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던 서울의 상업 지역은 남대문동을 비롯한 그 일대와 충무로·명동·을지로 등지까지 확대되었으며, 남쪽 특히 일본인들의 상업 지역이 분포하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이 지역에는 또한 일본인들에 의해 설립된 은행·백화점 등도 분포하였다. 일본인들의 거주지는 대체로 신흥 상업 지역 주변과 남부에 위치하였으며, 기존의 한국인 거주 지역에는 일부만 위치하였다.¹⁰²⁾

박영효 부마가 찾아다니던 중인(中人) 집

서울의 수표교, 광교와 장교 중간쯤에는 가느다란 나무다리가 있었다. 그 다리를 건너면 지금의 보신각 부근 관철동에 이르는 좁은 길이 나온다. 그 길옆에는 허술한 초막집들이 많았다.

현재 광교 부근의 광통방(廣通坊)에는 청포(靑布)·갓·신발·철물 등을 파는 시전(市塵)들이 많았는데 개화기에 이곳에는 귀인(貴人)인 국왕의 사위, 부마(駙馬)의 행차가 잦았다. 그야말로 요란스러운 행차였다. 게다가 사람들의 이목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부마가 말을 내려 공손한 몸가짐으로 한 초막집 문턱을 넘나드는 일이었다. 광통방의 시전 거리에 귀인이 나타나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일개 중인(中人) 집 문 앞에서 말을 내린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귀인

은 철종의 부마 박영효(朴泳孝)였다.

뿐만 아니라 고종이 믿는 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난 참의(參議) 김옥균 역시 말을 내려 예를 갖추어 이 초막집을 자주 드나들었다. 승지(承旨) 서광범, 청나라 원세개의 역관 오경석 등도 역시 3일이 멀 정도로 다투다시피 출입하였다.

이 집에는 봉면(蓬面)의 거사, 대치(大致) 유흥기(劉洪基)가 살고 있었다. 유흥기는 개화사상의 선구자로 갑신정변의 정신적 지주였다. 그는 선도(禪道)에서 불심(佛心)의 현대화를 시도하여 사회 개혁론으로까지 그 이론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 사회 개혁론을 구체화하기로 뜻을 모은 사람들이 바로 김옥균·박영효 등이었다.

그들은 갑신정변(1884년) 거사 전날인 12월 3일 밤에 광통방의 유흥기를 찾아갔다. 이미 노경(老境)에 들어선 유흥기는 “군(君) 등은 과연 일본 정략을 아는가?” 하고 고개를 저었다. 김옥균과 박영효 등은 서로 얼굴만 마주 볼 뿐이었다. 유흥기는 다시 “일본군 100명이 3,000명의 청나라 군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면서 그들의 거사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김옥균이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직 인사를 고하자, 유흥기는 눈 밑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그리고는 “불교숭신(佛敎崇信)으로 일하라”고 타이른 뒤 자리를 고쳐 돌아앉았다.

갑신정변이 일어나 ‘3일 천하’가 되자 유흥기는 그 귀추를 지레짐작했는지 표연히 집을 나가 자취를 감추었고, 사람들이 행방을 찾았으나 알



미국 방문에서 돌아온 직후의 개화파 관리들

길이 없었다.

오대산 상원암 인근에서 토와생식(土臥生食)하고 살았다는 한 노선사(老禪師)가 바로 그 유흥기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용문산 중턱의 암굴에 좌선(坐禪) 자세로 죽은 노선사가 바로 유흥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구구한 소문만 나돌았다.¹⁰³⁾

개화기 청계천변에 자리한 청나라 상인들

임오군란(1882) 발발 이후인 고종 19년(1882) 6월에 3천 명의 북양육군(北洋陸軍)을 수행해 온 40명의 청나라 상인들이 서울에 들어와 체류하였다. 청나라 군대의 주둔과 원세개(袁世凱)의 조선 내정 간섭을 기회로 삼아 서울에는 청나라 상인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들은 서울의 수표교, 남대문 부근과 종로 일대에까지 점포를 내어 종로 상인들을 위협하였다. 1883년 2월에는 서울(마포 포함)에 22호 82명이 거주하였다. 이들은 고종 22년(1885)에 친진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해 7월에 청군과 함께 대부분 퇴거하였다.

이들은 남대문 일대와 수표교 부근에 자리 잡고, 일부는 서울의 전통적인 상가인 광교에까지 진출하였다. 또한 서울 도성 밖의 마포에도 자리를 잡아 이곳에 3개 점포, 23명의 상인들이 무역·선박업에 종사하였다.¹⁰⁴⁾

이어서 1884년에는 48개 점포에 352명의 청국 상인이 서울에 들어와 상업 활동을 벌여 일본 상인을 압도하였다. 이들은 상해·홍콩·북경 등지에서 들여 온 서양 견직물 및 잡화와 중국산 비단 및 한약재 등을 팔고, 조선으로부터는 인삼·곡물·쇠가죽·해산물 등을 사 갔다. 청나라 상인들은 1884년 5월에 현재 회현동의 이범조 형제의 집을 구입하고, 이곳에 그들의 상업회의소를 만들었다.¹⁰⁵⁾

조선 말에 원세개를 따라 들어온 청나라 상인들 가운데 광동 지방 출신을 광동방(廣東幫)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소공동 일대에 터전을 잡고

차이나타운을 형성하였다. 이들이 일본 상인들보다 급격히 확장되어 간 이유는 원세개가 청나라 상인들을 지원한 데다가 일본 사람보다 신의가 있었고, 중국 특유의 느긋하게 장사하는 습성이 한국인들의 호감을 샀기 때문이었다.

고종 22년(1885) 10월 11일에 원세개가 총리교섭통상사의로 부임하여 조선의 정치·경제·인사 문제 등을 간섭함에 따라 청나라 상인들과 거류민들이 크게 늘어났다. 원세개는 청나라 상인의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성공했고, 한편으로 밀수 정책을 통하여 서울의 수입상품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다. 이처럼 청나라 상인들이 원세개의 위력을 업고 도성 안팎의 중요한 곳을 잠식(蠶食)하면서 상권을 확장해 나갔으므로 한국인들과 다시 분규가 일어났다.

1894년 9월에 발행한 「내외회보(內外彙報)」에는 일본인이 본 청나라 상인들의 횡포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경성 남대문의 조시(朝市)는 문의 내외 겨우 2, 3정(町) 사이에 열리는 것으로 노점을 내는 데는 일·청·한(日·淸·韓)의 각상(各商)이 있다. 청일 전쟁 전에는 새벽부터 인마의 출입이 빈번하여 그 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일·청·한의 친목론도 이에 이르러서는 호말(毫末)도 그 효(效)가 없이 피아간에 항상 자리다툼이 그칠 때가 없다. 더욱이 근래 한상(韓商)과의 싸움은 조금 감소되었지만, 일·청 양상인의 항쟁은 날로 더 심해졌다. 원래 대로상의 노점이기 때문에 미리 장소를 지정할 수가 없다. 다만 빨리 점취한 것이 이기는 셈인데, 청상 등은 일본 상인이 이미 점취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터 그 노점 앞에 점포를 펴고, 일본 상인의 점포를 막아서 매객(買客)이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들며, 만약에 그 부당성을 힐난하는 자가 있으면 완력을 휘두르려 하는 기세이다.¹⁰⁶⁾

청나라는 그들의 큰 상인들이 조선에 진출·투자하도록 주선하고, 각 개항장에는 상무관(商務官)을 배치하여 청나라 상인을 지원하였다. 또한 한강 연안 일대의 상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은밀한 상거래와 밀수까지 묵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도 하면서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 당시 서울에 진출한 청나라 상인들 중에는 동순태, 광대호, 금성동기, 쌍화동기, 공화순 등 큰 상인들이 있었으며, 수표교와 남대문 이북 일대에는 30여 개의 상사가 즐비하게 들어섰고, 그 일부는 서울의 중심가인 종로에까지 진출하였다.¹⁰⁷⁾

청나라 상인들이 서울에서 활발한 상업 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83년 9월 16일에 진수당(陳樹棠)이 총관 상무위원으로 부임하여 남별궁(南別宮)에 자리 잡으면서 서울에는 총관 상무위원 공서, 지방에는 분서를 설치함으로써 청국 상인들을 도왔다.

둘째, 도성 안팎에 주둔하고 있던 2천 명의 청나라 군대의 보호를 받아 거주, 여행, 영업 등에 별로 구속을 받지 않았다.

셋째, 청나라 상인들은 상거래에 신용이 있고 오만불손하지 않아 호감을 샀다.

넷째 서울과 인천 간을 왕래하는 마차회사(馬車會社)와 한강을 운항하는 기선회사를 설립하여 교통 장애가 해소되었다.

청나라는 일본과의 경쟁적 관계에 있었으므로 재한 청국 관민의 출자로 경인 간의 육로를 왕래하는 마차회사를 설립하였다. 여기에 사역된 말과 수레는 북경 및 심양에서 흔히 사용되는 견고한 것을 수입했는데 그 수는 40여 대에 달하였다.¹⁰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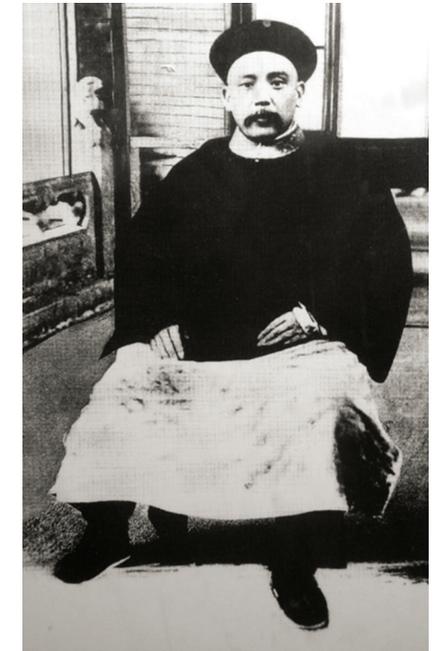
청나라는 개항 초기부터 조선 연해 항로에서 일본 선박의 우세로 청나라 상인들이 푸대접을 받자, 인천~상해 간의 정기 항로를 개설했다. 그

러나 인천~서울을 잇는 한강 수로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었다. 이때 일본은 선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성 개시(漢城開市) 직후, 한국인 조의연(趙義淵)의 명의로 고종 25년(1888) 8월에 삼산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한강에 소형 기선인 '용산호' (16톤), '삼호호' (13톤) 등 2척을 인천~마포 간에 처음 취항시켰다. 이듬해에는 인천에 있던 독일계 상사인 세창양행의 '제강호' (35톤)가, 고종 27년(1890)부터는 미국인 타운센드(W. D. Townsend)의 '순명호'가 운항을 시작하였다.¹⁰⁹⁾

그런데 일본 기선에 청나라 상인이 화물을 싣고자 하면 가득 실었다는 구실로 운송을 거절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자, 이에 분개한 원세개는 조선 정부로 하여금 동순태로부터 은 10만 냥을 빌리도록 하여 화한운선공사(華韓輪船公司)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기선을 구입하여 '한양호'라고 명명한 뒤 인천과 용산 간을 운항하도록 하였다.

동순태가 운영하는 '한양호'는 일본인의 운송업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청나라 상인의 편의만을 도모한 것이었다. 속력 8노트에 승객 100명을 태울 수 있는 이 배는 100톤으로 양자강에서의 운항을 토대로 제조된 것이어서 성능이 뛰어났으며, 전용 소부두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한양호'는 청일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군의 군용선으로 징발되어 서울과 인천 간의 병력과 군수품 수송을 위해 사용되었다가 전쟁 후에는 오사카(大阪)에서 경매되었다.¹¹⁰⁾

청나라 상인들이 수표교 남북쪽, 현재 중구 수표동과 종로구 관수동 일대에 중심을 두고 그 수가 늘어나자 남대문로 일대에도 당당히 점포를 차리고 입주하여 서울의 상권을 차지하기 시작하였다.¹¹¹⁾ 그뿐만



1898년경의 원세개(袁世凱)

아니라 토지·가옥 등 부동산도 구입하기 시작하여 1883년부터 1884년 말까지 불과 1년 사이에 청국 상인 12명이 13칸의 건물과 대지 450칸을 사들였다.¹¹²⁾

이에 따라 청나라 상인과 한국 상인 간의 잦은 다툼으로 감정적으로 대립하게 되자 청나라 사람들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진수당은 1885년 초에 수포교 부근을 ‘청국인 거류 구역’으로 정하고 당시 외무독관 김윤식(金允植)과 만나 이를 합의하였다.¹¹³⁾

진수당이 물러난 뒤 1885년 10월에 원세개가 후임으로 부임하여 조선의 정치·경제·인사 문제 등을 간섭함에 따라 청나라 상인들과 거류민들이 크게 늘어났다. 원세개는 청나라 상인의 입국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성공하는 한편, 밀수를 통하여¹¹⁴⁾ 서울의 수입상품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다.

이처럼 청나라 상인들이 원세개의 위력을 업고 도성 안팎의 중요한 곳을 잠식하면서 상권을 확장해 나갔으므로¹¹⁵⁾ 한국인들과 다투지 않을 수 없었다. 즉 1887년부터 1889년까지 청나라 상점에 잇따른 방화 사건이 일어나 피해가 컸다. 이에 원세개는 청나라 상인들의 강력한 자위책을 세우고,¹¹⁶⁾ 조선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청나라 상인들을 수포교 지역과 덕수궁 남동쪽 및 남서쪽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함으로써 차이나타운(중국인 거리)을 형성하였다.

한편 청나라 상인들은 서울에서 동전을 모아들여 물가를 조정하여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고,¹¹⁷⁾ 서울 사람들의 일용품을 공급하는 남대문·동대문 새벽 시장에도 뛰어들었다. 그리고 1891년 12월에는 청나라 상인의 노점 100여 개가 남대문으로부터 종로를 거쳐 동대문에 이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도성 내에 새벽 시장 행상으로 이익이 있는 곳은 추호도 남기지 않았다.¹¹⁸⁾

대체로 청나라 상인들은 출신 지역별로 서울에 자리 잡았다. 산동계

(山東系)는 현재 수포교 부근에, 절강계(浙江系)는 현재 서소문 육교 부근, 광둥계(廣東系)는 소공동 일대에 각각 회관을 세워서 이를 근거지로 삼아 그들 간의 정보 교환과 친목 장소로 삼았다.¹¹⁹⁾

그러나 1894년 6월에 청일 전쟁이 발발하자 청나라 상인들은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갔으므로 이들의 상업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 예로 1895년 9월 당시의 자료를 보면, 수포교동의 청나라 상점은 16개였는데 광목(金巾) 잡화점 4곳, 일반 잡화점 2곳, 음식점 2곳, 과일점 2곳 그리고 전쟁으로 귀국해서 폐점한 상점 4곳이 있었다. 광목 잡화점 내에서 도매상은 1호이며, 기타는 모두 소매상으로 4~5필 정도 진열하고 있었다.

동대문 쪽의 청나라 상인은 23호로서 도로의 북쪽을 점유하여 광목 잡화점 9개소, 일반 잡화점 2곳, 서점 2곳, 지물포 및 잡화점 3곳, 과일 상점 1곳, 폐점한 곳은 6곳으로 모두 영세 상인들이었다.

남대문로와 종로의 수포교 사이에 있었던 청나라 상점은 모두 45개소였다. 서양 잡화점 2곳, 광목 잡화점 16곳, 종이 및 잡화점 1곳, 잡화점 11곳, 음식점 4곳, 폐점한 곳은 11곳이었다. 큰 서양 잡화점은 덕흥호(德興號), 그다음은 연화호(聯和號)이고, 큰 광목 잡화점은 서성춘(瑞盛春)이었다.

그 외에도 구리개(銅峴)에 유명한 동순태를 비롯하여 정동에 잡화점, 남대문로와 다른 곳(장소 미상)에 제분소가 2곳이 있었으며, 청나라 사람 직공 집이 2~3호 있었다. 잡화상들은 염색 종류나 가위, 거울, 파이프, 담뱃대, 맥고모자 종류 등을 팔았다.¹²⁰⁾

이 당시 청일 전쟁으로 청나라 상점들이 대부분 폐점하였지만 전쟁 5년 뒤인 1899년에 청나라 공사관이 서울에 자리 잡으면서 청나라 상인들이 다시 서울에 들어오게 되어 그 수가 3천 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다시 일본 상인들을 누르고 우세한 지위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이후에 서울의 청나라 상인의 수효는 다시 줄어들어 1910년 말에는 519호 1,828명이 거주하였다.¹²¹⁾



청계천에서 빨래하는 여인들(1920년대)

여인들의 대화 장소였던 빨래터

청계천 상류와 지천은 인근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되었고, 마장동 동쪽의 하루 지역은 채소 등을 재배하는 관계로 농업용수로 사용되었다. 청계천 본류는 오염되어 세탁이나 허드렛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지만 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 계곡의 물은 맑았으므로 새벽이면 물장수들이 모여 들었다. 이곳에는 면포를 바래서 표백하는 사람들과 제지(製紙)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살았다.

동대문 부근의 채소 상인들은 오간수문 부근에서 야채를 씻어 내다 팔았다.

청계천 물줄기 양쪽에는 빨래터가 있었다. 큰비가 와서 청계천 주변의 더러운 쓰레기들이 씻겨 내려가고 맑은 물이 흐르면 인근의 여인들은 빨랫감을 들고 몰려와 세탁을 하였고, 가난하여 주인의 행랑채에 살면서

먹고 자고 일해 주는 '드난살이' 빨래꾼들은 청계천을 작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 당시 두 줄로 늘어선 버드나무 아래로 여인들이 푸른빛 장옷을 쓰고 흰 빨래를 이고 걸어가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

일제 때는 경성부에서 청계천과 그 상류에 공설 빨래터를 설치하였으며, 사실 빨래터도 있어서 빨래꾼들에게 하루 사용료를 10전씩 받았다.¹²²⁾

상업이 번성하던 청계천변

청계천변은 조선 초부터 상권(商圈)의 중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상인들도 살았지만 수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여 경제 활동이 활발하였다.

19세기 말경 서울에 왔던 미국인 공군 하사 에드먼드는 기행문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길가의 가게와 집들은 거의 서로 붙어 있는 단층집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보는 그림 같은 가게에서 물건을 흥정하고 있었다. 가게들은 거의 좁아서 주인들도 그 속에 들어가 앉을 수 없었다. 따라서 주인들은 밖에 놓은 작은 마루에 쭈그리고 앉아서 가게 앞 작은 터전에서 서 있는 손님을 접대하였다.

물건은 가게 속 시렁 위에 쌓여 있었는데 손님이 필요한 것을 말하면 주인은 팔을 벌려 이를 꺼내 왔다. 두 손이 어떻게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아는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상품은 매우 종류가 다양하고 풍부하였다.¹²³⁾

에드먼드에 이어 러일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1905년 스웨덴 신문 기자 A. S. 그랩스트가 서울에 들어왔다. 그랩스트는 그의 견문담을 『코레아 코레아』라는 책에 실었다. 이 책에 그는 서울의 거리와 가게 모습을 상세히 써 놓았다.

그는 서울의 거리를 단조롭다고 느꼈으며 상점은 도시의 몇 구역에만 따로 위치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가게는 두 종류로 나누어 개방적인 가게와 폐쇄적인 가게가 있다고 하였다.

“개방적인 가게는 일본의 가게를 연상케 하는데, 길옆에 생활필수품을 진열해 놓아 행인이 언제든지 걸음을 멈추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고를 수 있다.”

그런 다음 진열된 상품들을 열거해 놓았는데, 그중에 낫쇠로 만든 번쩍번쩍 빛나는 물건 외에 중국과 일본 상품, 골동품 등을 보았다고 써 놓았다.

“어떤 구역에 가면 아름다운 한식 장롱을 파는 가게가 있고 자개가 박힌 보석함이나 손के, 은 세공품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랩스트는 재수가 좋으면 이런 가게에서 녹색, 빨강, 금색, 은색 등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자수가 있는 병풍 한두 점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조선인뿐만 아니라 동양의 고전 예술과 옛 수공업품에 일가견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도 이 병풍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병풍을 극찬하였다.

다음에 폐쇄적인 가게는 무명, 비단, 신발 등을 파는 대상인의 가게로 규정하였다. 만약 고객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옷감 한 벌 끊으러 왔소이다.” 하고 말하면 가게 주인은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창고에서 꺼내와 가게 안의 고객에게 보여 준다. 그런데 절대로 모든 재고품의 견본을 보여 주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고객이 혹시 “이것보다 다른 것은 없소?” 하면 주인은 “이보다 더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이다.

그랩스트는 가게 주인들이 물건을 파는 데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며, 따라서 고객들은 상인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정확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적었다. 가격은 깎을 수 있을지언정 물건이 좋고 나쁜 것



스웨덴 기자 그랩스트가 찍은 20세기 초 조선인들

을 논하는 것은 금기(禁忌)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그랩스트는 서울의 가게 주인들은 간판을 걸지 않는 대신 큰 점포에서는 예외 없이 몇 사람의 종업원을 둔다고 하였다. 이들은 고객이 가게 앞을 지나면 “손님, 무얼 찾으십니까. 우리 가게에 들어와 보십시오. 아주 싸게 팝니다.”라고 열심히 선전하여 손님을 유치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어떤 종류의 생필품이나 잡화는 시장에서 파는데, 시장의 주위 환경은 매우 깨끗하다고 평하였다.

청계천 2, 3가나 관수동 지역에 있었던 상인들은 자기 소유의 가게, 전방(塵房)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았다. 이 상인들은 서울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동대문 배오개시장이거나 남대문 근처 칠패시장을 지키고 있다가 물건을 헐값에 팔라고 강요하기도 하고, 거절하면 금난전권(禁亂塵權)을 빌미로 난전(亂塵)이라고 뒤집어쓰워 물건을 빼앗는 행패를 부렸으므로 길목에는 울음소리가 잦았다

고 한다.

이에 반해 자기 가게가 없는 상인은 거간꾼 노릇을 하면서 점포 상인의 이익에 더 붙여서 그 몫을 취하는 ‘여리꾼’ 노릇을 했다. 이들은 딸을 시집보내기 위하여 옷감을 사려고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다가가서는 딸을 붙인 다음 찢어서 자기가 아는 가게에 안내하고는 물건을 싸게 흥정하는 척하면서 자기 몫을 챙겼다. 이들은 그들만의 파자(破字)에 의한 암호가 있었는데 이를 ‘변어’라고 하였다.¹²⁴⁾

청계천 양편 공터에는 나무 시장이 섰다. 조선 시대의 서울 거리에는 연료로 쓰이는 숯과 장작을 파는 시장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특히 숯을 팔고 시는 경우에는 검은 가루가 날리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장작을 부려 놓은 곳은 도로를 가로막아 시민들의 왕래에 큰 불편을 주었다. 조선 말에 한성부는 시탄(柴炭) 시장을 지정하여 경계를 획정한 다음 다른 지역에서는 사고팔지 못하게 하도록 경무청(警務廳)에 요청하였다.

조선 시대 청계천변 을지로 6가의 훈련원 주변에는 넓은 공지가 있어서 농사를 많이 지었으므로, 동대문 밖에는 큰 채소 시장이 섰다.

밤이면 청계천에 오물과 쓰레기를 버렸던 주민들

1893년~1935년까지 조선에 머무르면서 세브란스 의학교와 연희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한국의 의학 교육 및 고등 교육의 토대를 마련한 올리버 R. 에비슨은 『근대 한국 42년』이라는 책을 썼다. 제중원의 원장이었던 그는 조선 말과 일제 때 잘사는 집의 하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청계천변을 따라 세워졌다고 하였다.

건물의 바깥을 따라 복개되지 않은 하수가 흐르고 대문은 길 쪽이 아니라 반대편 골목길에 있었다. 하인들의 오두막이나 창고의 작은 창만이 길을 향해 있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밤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쉽게 버릴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 이 창을 통해 바깥의 복개되지 않은 하수구로 던져 버리는 것이었다. 버려진 일부 액체, 그리고 심지어 약간의

고형물이 집의 외벽에 달라붙어 보기에 상당히 흉했고 냄새도 불쾌했다.

하수구는 곧 이 쓰레기로 메워졌지만 거의 청소를 하지 않았다. 비가 많이 오면 이 쓰레기가 모두 수로로 씻겨 내려가므로 많은 비가 오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덥고 건조한 계절에는 거의 건딜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하고, 보기에 흉했다. 정기적으로 일꾼들이 이 오물 덩어리들을 치웠지만 하수구를 깨끗이 하지는 못했다.

우기 중에 이 하수구가 막히면 그 속에 들어 있던 쓰레기들이 넘쳐 좁은 길을 오물투성이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곳을 통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골목길을 따라 가로질러 간격을 두고 디딤돌을 놓는 것이었다고 소개하였다.¹²⁵⁾

노인정 회담이 열렸던 남산의 노인정

오늘날 서울의 각 동과 아파트 단지에는 노인을 위한 경로당 또는 노인정이 세워져 있다. 그런데 조선 말에 일본이 갑오개혁을 강요한 노인정은 중구 필동 2가 134번지 2호에 있었다. 전일에는 대한극장 남쪽에 미주아파트가 있고, 이곳을 지나 남산 기슭으로 오르면 느티나무 고목이 있는 한옥집이 있었는데 이곳이 조선 후기 헌종 때 영의정 조만영(趙萬永)이 세운 노인정 터다. 이 정자를 노인정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조선 말 이곳에 항상 많은 노인이 모여 한가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 집 서쪽 바위벽에는 ‘조씨노기(趙氏老基)’란 넉 자가 크게 새겨져 있었는데 현재는 ‘조씨노기’ 글자는 남아 있으나 한옥 대신 높다란 양옥이 세워져 있고, 노인정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다.

원래 이 정자는 조선 말 헌종 때 세도정치를 했던 풍양 조씨(豐壤趙氏)의 거두 조만영이 세웠다. 그 뒤 그의 후손이 대대로 이곳을 지키며 정자 뒤 바위에 ‘조씨노기’라고 새겼다고 전해 온다. 조만영은 그의 딸(趙大妃)이 익종(翼宗)의 왕비가 되고, 그가 낳은 헌종이 왕위에 오르자 동생인 조인영(趙寅永)과 함께 안동김씨(安東金氏)에 대립하여 세도정치를 한 인



남산에 있던 노인정

물이다.

노인정이 있던 이 마을은 전일에 팽나무가 많이 자라 팽나무굴 또는 팽목동(彭木洞)이라 하였다. 또한 골이 깊고 음침하여 도깨비가 많이 출몰하였으므로 '도깨비 골'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래서 서울의 한량(閑良)들이 모이면 밤에 이 도깨비 골을 다녀오는 사람에게 술을 사 주는 내기를 걸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한편 이 노인정에서는 청일 전쟁(1894)이 일어나기 2개월 전, 일본의 강요로 조선 대표 신정희(申正熙)와 일본의 오오토리(大鳥圭介) 공사 간에 회담이 진행되었던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일본은 민씨 정권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 군대를 요청하자 텐진조약(天津條約)을 빌미로 조선에 대한 침략 야욕을 채우기 위해 일본군을 대대적으로 파병하였다. 이에 일본과 청나라는 조선을 점유하기 위한 전쟁을 피할 수 없었다.

조선에 군대를 파견한 일본은 동학농민군이 전주성(全州城)에서 해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의 내정 개혁을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전 구실로 활용하였다. 즉 동학 농민 운동과 같은 내란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내정을 개혁하지 않으면 아니 되며, 조선의 내란을 근절하지 못하면 동양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명분을 내세운 일본은 조선 내에서 청나라 세력을 밀어내고 조선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 조선의 내정 개혁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일본은 청나라에게 조선의 내정 개혁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의했다가 거절당하자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의 무력을 배경으로 단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즉 갑오년(1894) 6월 1일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공사는 조선의 내정 개혁을 추진하라는 본국 외부대신의 훈령을 받고, 5개 조의 내정 개혁안을 조선 정부에 제시한 뒤 6월 6일 정오까지 회답을 요구하였다. 5개 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① 중앙 정부의 제도 및 지방 제도를 개정하고 새로운 인물을 뽑아 쓸 것.
- ② 재정을 정리하고, 부원(富源)을 개발할 것.
- ③ 법률을 정돈하고 재판법을 개정할 것.
- ④ 국내의 민란을 진정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군제를 설치할 것.
- ⑤ 교육 제도를 확립할 것.

조선 정부는 부득이 신정희 등 3명을 위원으로 임명하여 회담에 참여기로 통보하였다. 고종은 6월 6일, 이제까지의 폐단을 없애고 자주적으로 내정을 개혁하겠다는 전교(傳敎)를 내렸다.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내정을 개혁한다는 독립 국가로서의

위신을 세워 보려는 의도에서 취해졌다.

일본 측은 조선 정부가 자주적으로 개혁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정 개혁안을 거부할 경우 병력을 동원, 경복궁을 포위하고 강압적으로라도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 측의 강압적인 위협으로 6월 8일, 남산 노인정에서 조선 대표 3인은 오오토리 공사와 제1차 회담을 가졌는데 이것이 이른바 '노인정 회담'이다.

이 회담에서 오오토리 공사는 5개 조의 내정 개혁 세목 강령과 그 시행 방침 등 두 가지 문서를 장시간에 걸쳐 설명했다. 그리고 조선의 모든 분야를 10일 이내에서 2년 이내에 개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개혁을 강요한 일본의 의도는 조선의 정치·경제적 세력의 침투와 확장은 물론 광산·철도·체신 등에 관련된 이권 장악을 꾀하려는 것이었다.

이들간 열린 노인정 회담에서 조선 대표 위원 3인은 일본 측의 제안을 강요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므로 수락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조선 정부는 중신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대응책의 강구를 위해 논의의 거듭하는 동시에 청나라 측의 권고를 받아들여 내정 개혁 강요에 앞서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1894년 6월 21일, 일본은 남산에 설치한 일본군 포대(砲臺)의 포구를 경복궁을 향하여 조준한 다음 1개 연대 이상의 병력이 경복궁을 포위, 점령한 뒤 고종과 흥선 대원군을 위협하여 민씨 정권을 해체시키고 김홍집 친일 내각을 구성시켰다. 그리고 선뜻 응낙하지 않는 흥선 대원군을 끌어내어 국왕 섭정의 자리에 앉혔다. 곧 김홍집 정부에 의해 내정 개혁을 위한 협상이 일본과 진행되었다. 이어 일본은 조선에서 청나라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청일 전쟁을 도발하였다.

조선 정부는 이해 6월 25일에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설치하여 6개월 동안 근대적인 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갑오개혁(甲

午改革)이다.

군국기무처는 김홍집을 총재관(總裁官)으로 박정양·안경수·유길준 등 주로 개화파 인사들을 의원(議員)에 임명했다. 오오토리 일본 공사는 군국기무처의 고문이 되어 배후에서 간섭하게 되었다.

군국기무처의 임무는 군국기무 및 일체 사무의 개혁을 관장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초정 부적이며 방대한 것이었다. 따라서 군국기무처는 오오토리 일본 공사에 의해 조종되었고, 김가진·안경수·유길준 등이 그의 손발이 되어 연락을 맡아 운영되었다.

원래 군국기무처는 모든 개혁 안건을 의결하여 국왕의 재가를 통해 시행하게 되어 있었으나 행정·사법·경제·재정에 관한 일체의 규칙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

군정·식산·홍업에 관한 안건을 심의 결정하되 의결은 다수결로 하였다. 모든 정무는 군국기무처의 심의를 거쳐야만 하였기 때문에 왕권이나 정부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군국기무처는 7월 26일에 개청하여 약 6개월간 설치되어 있었는데, 개청한 이후 3개월 만에 208건의 법안이 의결되었다.

조선 왕조의 제도는 왕실 관계의 여러 부서와 일반적 정치 기구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행정·사법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궁내부(宮內府)와 의정부(議政府) 관제로 각각 분리하고, 종래에 명확한 구분이 없었던 재정상의 분리를 꾀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수신사 시절의 김홍집(1880년경)

종래의 의정부 관제는 의정부를 최고 기관으로 삼고 그 밑에 내무·외무 등 8개 아문(衙門)을 두고, 총리대신을 우두머리로 각 아문에 대신 등의 관직을 두었다. 또한 의정부 관제에는 부설기관으로서 군국기무처·도찰원·중추원·의금사·회계심사원·경무청 등을 두게 하였다.

조선 500년간 관리를 임용하던 과거제를 폐지하고 근대적인 시험 제도를 실시한 것은 큰 변화였다. 보통시험제와 특별시험제를 두어 일반 하급 관리를 채용케 했다. 그리고 정치 제도 개편과 함께 회계·출납·조세·국채·화폐 등 일체의 재정 업무는 탁지부(度支部)에서 전관하게 하고, 왕실 관계 제 기관의 경비 지출도 탁지부에서 취급하게 하였으며, 각 지방의 징세 기관을 체계화하였다.

이와 동시에 모든 현물 징세법을 폐기하고 전면적인 징세의 금납(金納)화를 실시함으로써 현물 경제가 화폐 경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화폐제의 근대화 내지 정비 안정을 위한 필요성에 따라 일본의 은본위제(銀本位制)를 모방하는 이른바 신식 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을 선포·시행하면서 은화·동화(銅貨) 등 근대 화폐를 일본 화폐와 같은 가치로 발행하여 전일의 화폐와 공용하게 하였다. 또한 일본 화폐의 조선 내 유통을 합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본의 경제적 세력 침투를 용이하게 하였다.

사회 제도의 개혁은 양반이 지배하는 제도를 개혁하여 양반·중인·상민·노비 등으로 엄격히 고정화된 신분 계급을 타파하여 신분에 구애되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게 하였다. 따라서 노비제도를 혁파하여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동시에 특수한 천인 신분에 대해서도 신분 해방이 약속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조선에 대한 정치·경제적 침투가 용이해져 각종 이권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갑오개혁은 일본의 강요로 시행되었지만, 개화 세력의 주도로 조선의 봉건 체제를 타파하고 근대 국가 체제로 바꾸기 위한 근대적 개혁이었다.

청계천에 쓰레기를 버리면 체포

조선 말에 한성부는 청계천의 물이 잘 흐르도록 오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 경무청(警務廳)의 협조를 얻어 청계천을 자주 준설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이 청계천에 쓰레기 등의 오물을 버리는 일이 많은 관계로 한성부는 이를 막고자 청계천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오물을 버리지 못하도록 책임을 지워 감시하도록 하였다. 만약 청계천에 오물이 버려져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가옥의 주민이 이를 처리하도록 했고, 순검(巡檢)이 근무하는 교번소(交番所)에서는 오물을 함부로 버리는 자를 적발하여 체포하였다.

광무 2년(1898) 6월에 한성부는 청계천에서 돼지를 기르는 중국 상인 때문에 위생상 불결하므로 경무청 산하의 중서장(中署長)에게 이를 금지시키도록 다음과 같은 통첩을 발송하기도 했다.

귀서(貴署) 소관 내인 장동방 시병(市屏), 섬교(종로구 장사동 55번지 북동쪽) 위쪽 개천에 청국인 상인의 돼지우리가 있어서 위생에 해롭고, 물 흐름이 막히니 귀서에서 속히 금지하도록 함이 마땅하겠기에 이에 통첩함.¹²⁶⁾

최초의 상수도원, 남산의 계곡물

광무 7년(1903), 미국인 콜브란(Collbran)과 보스트위크(Bostwick)에 의해 상수도 사업 특허 신청이 한국 정부에 제출되었다. 같은 해 2월에 일본인 하야시다(林田)·사카모토(坂本) 두 명이 일본인 거류민들에게 수도를 급수할 목적으로 사설 수도(私設水道) 부설 허가원을 일본 영사관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서울의 상수도는 콜브란·보스트위크보다 몇 년 앞서 일본인 거류 지역의 사설 상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진고개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을지로 2·3가 퇴계로 2·3가, 남산동, 필동 일대의 지역에

집단 거주하던 일본인들도 당초에는 우물을 파서 음료수 등 생활용수에 사용하였으나 냄새가 나고, 염분이 많아 음료수로는 부적합하였다.

이들은 남산 계곡의 다섯 군대를 막아 수원지로 하고, 여과지(濾過池)를 거쳐 저수한 다음에 급·배수하도록 하였다. 이 시설 수도는 “한국 정부의 자체 사업 또는 그 특허에 의하여 경성 전 지역 또는 그 일부 지역에 상수도 사업이 실시될 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부로 10년 기한의 특허를 받았다.

이들은 허가를 받은 3개월 후부터 기공하여 동년 7월 말까지 제1기 공사를 끝내고, 8월 1일부터 영업을 개시했다고 한다. 이 공사 이후 급수량이나 급수 가구 수 등을 전혀 알 수 없으나 투입된 자금이 4,707여 원(圓)이었다고 하니 그 규모는 보잘 것이 없었고, 급수량도 적었을 것이다. 일본인들은 이 물을 받아 음료수로만 썼다고 전한다.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전으로 끝나가자 일본인 내한자(來韓者)가 급증하고, 진고개를 중심으로 일본인 거류 지역의 범위도 늘어나 시설 수도의 확장이 불가피해졌다. 융희 원년(1907) 11월에 일본 거류민단은 코리안 워터웍스사(Korean Water Works Co.)에 청하여 일본 거류민단역소(日本居留民團役所), 일본인 학교, 유치원, 병원 등에 매일 9만 갤런(gallon)씩의 무상 급수와 화재 등의 비상시에 임시 급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진고개 일대의 시설 수도는 코리안 워터웍스사의 경영권이 일본 시부사와 재벌(澁澤財閥)의 손을 거쳐 1911년 3월에 조선총독부로 이관되자마자 서울 시내 수도 체계의 일원화라는 명목으로 폐쇄된 것으로 추측된다.¹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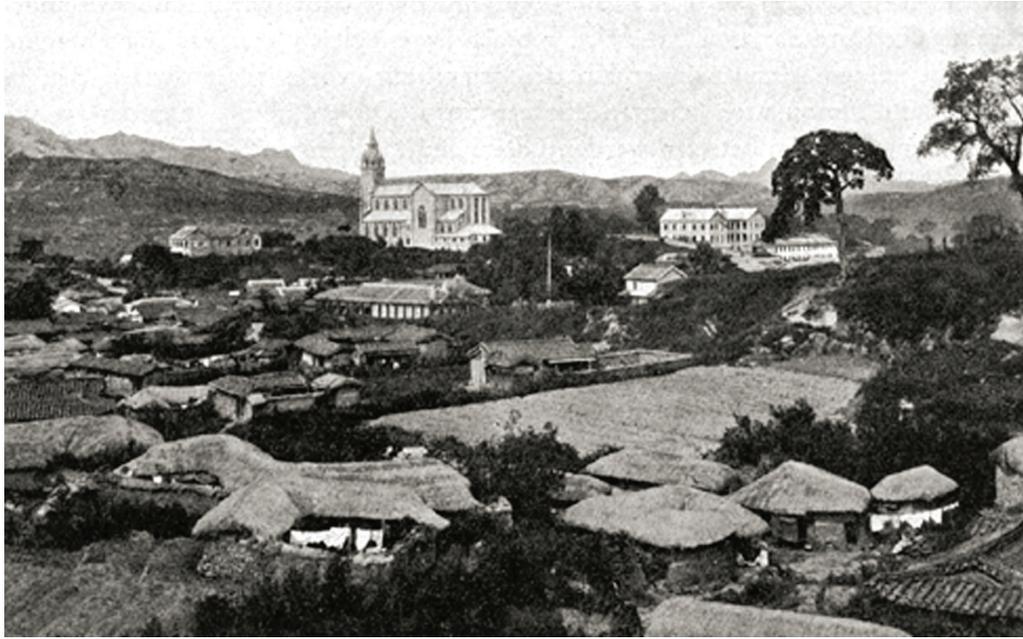
2. 일제 강점기의 청계천

1) 남촌·북촌의 경계선이 된 청계천

경술국치 이후의 북촌과 남촌

경술국치 후부터 북촌은 한국인, 남촌은 일본인들의 거주 지역으로 불렸다. 일본인들에게 서울 거주가 허용된 것은 갑신정변 다음 해인 고종 22년(1885) 2월부터의 일이다. 이때 이들의 안전을 위해 일본 공사관(중구 충무로 2가 52)과 영사관 주변에 집단 거주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고개 일대, 즉 오늘날의 중구 예장동·주자동에서 충무로 1·2·3가, 명동에 이르는 지역을 일본인 거주 지역으로 정하였다. 그리하여 이 일대의 일본인 시가지는 점차 그 모습을 바꾸어 갔으며, 진고개와 명동은 서울의 새로운 상거래의 핵심 기능을 하게 되었다.

도성 내의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에 의해 성 밖으로 밀려나거나 낙향(落鄕)하는 과정에서 한국인과 일본인 주민들의 교체가 이루어져 도심부는 일본인의 독거지(獨居地)가 되었다. 이 결과 청계천변을 중심으로 마침내 일본인 거주 구역인 남촌과 한인 거주 구역인 북촌으로 구분된 것이다. 이로써 이른바 ‘민족의 거리 종로’와 ‘왜인들의 마을 혼마찌[本町]’를 가르는 경계선이 청계천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의 차별의 선(線)이 되었고, 조선 시대 도성 내의 남촌·북촌과는



진고개 쪽에서 바라본 명동성당 일대(1900년경)

뉘앙스나 내용이 다른 새로운 남·북촌이 형성되었다.¹²⁸⁾

이 당시의 남촌이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경계로 한 것일까? 남촌의 중심은 대체로 충무로 일대·명동~인현동까지와 퇴계로 남쪽의 남산동, 회현동, 예장동, 필동, 목정동 일대로 일본인 인구는 평균 90%를 차지하였다.¹²⁹⁾

일제 강점기에 한글로 발표된 신문, 잡지들을 보면 남촌이니 북촌이니 하는 말이 무수히 많이 등장한다. 1910년대까지 형성된 이 북촌과 남촌의 한·일인별 거주 실태와 상업지·거주지 등에 관하여 잡지 『개벽(開闢)』에 실린 글을 보면 서울 주민의 구성과 거주 분포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

서대문 밖(西大門外)에 잇든 일본 영사관이 지금 왜성대(倭城臺)로 옮기게 되며 이것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일본인 거류지(日本人居留地)로 허하게 되었다. 그것이 고종 이십일 년 갑신(甲申)년부

터이다. ……그러케 되니 차차 검은 옷 입고 쭉대거리들이 작고 이 남촌 일대를 침범하면서부터 슬슬 몰려 나가는 것이 량반이었다. 그 때는 도성 안에다가 거류를 허한 것이였지만 그러케 중대하게 보지 안어서 아모도 이것을 반대한 사람이 업섯다. 내 집안 더군다나 안방 격이 되는 도성 안에다가 남의 식구를 두고야 엇지 그 살림살이에 대한 비밀(秘密)을 직힐 것인지? 하여간 이 가타하야 현재의 진고개는 완전히 그네들의 텃디가 되엿든 것이다. 량반들은 슬슬 몰려나가고 그 대신으로 쌀각바리 량반이 독차지를 하게 된 뒤로부터는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세우기 시작하얏다.

그래서 진고개리는 일흠은 본정(本町)으로 변하고 소슬대문 줄행랑이 변하야 이층집 삼층집으로 변작이 되며 쌀아 ‘청사초롱’ 재명등은 천백축의 던등(電燈)으로 밧귀고 보니 그야말로 불야성(不夜城)의 별턴디(別天地)로 변하야 바렷다. 지금 그곳을 들어스면 조선 을 떠나 일본에 려행 나온 늦감이 있다.¹³⁰⁾

남촌의 일본인이 차지한 상권은 충무로 1~3가를 정점으로 명동 2가·을지로 2~3가·남대문로 2~3가·회현동 1가·소공동·남창동 일대가 피라미드의 상층부를 형성하였다. 당시 상경한 시골 사람이 “나는 서울 사람이 무엇하느라고 그렇게 밤낮으로 길거리에서 복작복작하느고 했더니, 진고개 일본 사람에게 돈 털어 바치러 가노라고 그러하더만.” 하였다.¹³¹⁾

청일·러일 양대 전쟁을 계기로 일본인이 입경하여 정착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일본 군인이 거리를 활보하고, 일본 공사관의 발언권이 강해지며 원래는 대단치도 않던 일본인들이 위세를 부리자 작년에 김모(某)의 소유 가옥이 금년에는 모 태랑(太郎), 모 위병(衛兵)의 소유가 되고, 작일에 이모의 소유 점포가 금일에는 이등(伊藤) 모, 재등(齋藤) 모의 소유로 되는 등, 동산·부동산이 매년 날마다 일본인의 소유로 귀속하였다.

이리하여 일본인 거주 지역 안에서 겨우 명맥만을 유지해 오던 소수의 한국인들도 모두 쫓겨나 완전한 일본인의 주거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 거주 지역 자체가 더욱더 확장되어 동쪽으로는 진고개 일대(충무로 1~5가), 필동~쌍림동 일대, 서쪽으로는 남대문로 1~5가에서 남산동·회현동·북창동·소공동·도동·양동·동자동의 각 동으로 퍼져 황현의 『매천야록』에 “상남촌(上南村)은 아울러 40여 리가 모두 왜인의 마을이 되었다.”¹³²⁾라는 상태에 이르렀다.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날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은 도성 10리 안에는 서양인·일본인을 막론하고 외국인의 거주를 허락하지 않았다. 즉 1880년 4월에 개설된 최초의 일본 공사관만 하더라도 서대문 밖 청수관(淸水館)에 두었다. 임오군란으로 일본 공사관은 난군의 습격을 받아 불타 버리고 하나부사 공사는 일본으로 쫓겨 갔다.

그해 8월 12일 육·해군 1,200명을 거느리고 인천에 상륙한 하나부사 공사가 8월 16일에 2개 중대를 끌고 도성 안으로 들어와 지금의 충무로 2가에 있던 전 금위대장 이종승(李鍾承)의 집을 임시 공사관으로 하고, 군인들은 인접한 민가 10여 호와 구리개[銅峴]의 장악원(掌樂院)에 나누어 주둔케 하였다.

그리고 4일 후인 7월 7일 다카시마(高島) 소장이 인솔하는 일본 육·해군 1,050여 명이 그 군사력을 시위하면서 입성하여 남산 일대에 주둔하였다. 이때부터 일본인들은 왜성대와 진고개에 진을 치며 그들의 세력을 넓혀 갔다.

진고개 일대를 일본인 거류 구역으로 정한 이유가 있다. 경운동 소재의 일본 공사관이 갑신정변 때 소실되자 일제는 그 트집으로¹³³⁾ 한성조약 제4조에 따라 주동(注洞, 필동 2가 남산한옥촌 자리) 마루에 위치한 녹천정(綠泉亭) 이웃 가옥을 영사관 부지로 할애받아 그곳에서 집무를

개시하고 있었으므로 일본 거류민을 보호하고자 이 지역을 선정했던 것 같다. 이 당시 녹천정은 소나무와 전나무가 울창하고 샘물이 솟아나는 깊숙한 곳으로 조선 초의 양절공 한확(韓確), 조선 말의 판서 김상헌(金尙鉉)의 별장이었다.¹³⁴⁾ 조선 정부는 진고개가 남촌의 끝이면서 문자 그대로 진흙 지대였으므로 거주 환경을 낮게 평가하여 일본에 쉽게 응낙하였을 것이다.

당시 본정통(충무로)에는 일본인 가옥이 하나도 없었으므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조선인 가옥을 임대하여 상품을 가게 앞에 늘어놓고 조선인에게 판매하게 한 뒤 일본인은 안에서 이를 감독하였다. 일본인들은 한옥을 임차 또는 매수하여 입주했으며, 빈터를 구입한 자는 일본식 가옥을 지어 점차 일본인 마을을 형성해 나갔다. 개항기에 이 땅에 건너와서 정착한 일본인의 대다수는 거의 무식하거나 무산자들이었으며 몇 푼 되지 않는 영세한 자금으로 행상·노점·중개·매춘 등 축재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종사하였다.¹⁴⁵⁾

1894년 청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에 온 일본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기자 사쿠라이(柵瀬軍之佐)는 당시의 한국인 모습과 생활 풍속을 써서 그 이듬해에 『조선시사(朝鮮時事)』를 출판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한국인과 그 문화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였는데 그중에서 진고개 일대에 대해서 쓴 것만을 소개해 본다.

부산과 인천의 거류지는 구역이 정해져 따로 마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리도 깨끗하고 건물들도 그다지 보기 흉하지 않다. 그런데 오직 서울의 일본 거류지만은 남산 기슭을 점령하여 조선인 가옥들 사이에 흩어져 있다. 길은 좁고 울퉁불퉁하며 냄새가 지독하여 부산과 인천 두 항구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이 지역을 진고개(泥峴)라고 부르는데 서울에서 가장 변화한 종로의 큰길에서 상당히 떨어진



진고개 쪽에서 바라본 명동성당 일대(1904년 『한국의 백년』 수록)

져 있다.…… 따라서 상업 거래도 활발하지 않고 조선인의 왕래도 드물다. 진고개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140여 호에 700여 명이다. 대개는 잡화를 판매하여 살아가는데 근래 조선 화폐의 가격이 하락하여 가게 앞이 한산하다. 그렇지만 이곳의 일본 남녀는 모두 사치할 대로 사치하여 일본 본토의 보통 상인들에 비하면 생활 정도가 하늘과 땅의 차이이다. 그러므로 거주자들 대부분이 불경기를 몹시 한탄하지만 이곳에 방금 도착한 나는 그 불경기의 정도를 간파하기가 어렵다. 특히 대여섯 군데의 요릿집에서는 밤새 노래와 풍악 소리가 끊이지 않아 불경기를 전혀 느낄 수 없다.

건물 중 좀 볼 만한 것을 굳이 찾았다면 일한무역회사 지점, 제 일은행 출장소, 산카의원(贊化醫院) 정도이다. 나머지는 협소하고 더럽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보잘것없는 것들이다. 서울구락부는 거류지 사무소와 나란히 화성(和城)의 기슭보다 한 단 높은 곳에 있다. 특 트인 조망이 다소 아름답기는 해도 나무 그림자 하나 어튼거리지 않아 7월의 무더위에는 이곳에 놀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 화성은 임진왜란 때 등비주(藤肥州)의 성채를 세운 곳으로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적을 전해 준다.

여관은 3~4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영희와 남산여관이 좋다. 하룻밤 지는데 75전~1원 사이다. 전문 요리집에도 부탁하면 투숙할 수 있다. 서울은 물가가 높기 때문에 모든 일용품은 물론이고 무슨 물건이든지 일본 본토에 비해 3배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진고개에는 목욕탕이 두 군데에 있다. 두 곳 모두 일본인 남녀 욕실 이외에 조선인 욕실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욕실 입구에 ‘중국인 입욕 사절’이라는 팻말을 붙였다. 아마 중국인은 가장 불결하고 또 조선인을 학대하여 중국인과 조선인이 함께 목욕을 하면 싸움이 그치지 않아 조선인이 이곳에 발길을 끊었기 때문인 것 같다.

심각한 것은 조선 여성이다. 그들은 태어난 이래 목욕을 한 적이 없고 늘 집에서 지내며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피부를 보면 백옥을 방불케 한다. 얼굴과 팔, 다리가 눈처럼 희고 머리털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꽃 같은 용모, 버들 같은 자태에 뇌쇄적인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들은 얼굴과 몸 전체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매일 아침 소변으로 닦는다고 한다. 심지어는 입술과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소변으로 입안을 세척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조선의 풍습은 실로 보고 듣는 것이 모두 구역질 나지 않는 것이 없다. 이와 같이 조선 여성은 평생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풍습이어서 진고개의 우리 거류지에 있는 목욕탕에는 목욕하러 오는 여성이 없다.¹⁴⁶⁾

일제가 진고갯길을 개수하기 시작한 것은 을미사변이 나던 해인 1895년이었다. 일본인들은 진고개와 주자동·명례현 일대에 자리 잡은 일본 상인들의 왕래를 위해 공공 예산을 들여 진고갯길 옆의 가가(假家)를 철거하고, 하수도를 설치하여 진고개의 모습을 변모시켰다.¹³⁷⁾

따라서 한말부터 서울에 이주하기 시작한 일본인 역시 서울 전 지역에 분산되어 거주하고는 있었으나 도시 남부의 신흥 상업 지역 및 거주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난날 청나라 영사관이 있었던 거리의 이름을 일본식 혼마찌(本町)로 고치고, 중국 가게가 즐비했던 골목을 메이지 마찌(明治町)라고 바꿔 일본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명동이 가장 변화한 거리로 변했지만 일제 때는 본정통에 눌러 지냈다.

조선 말에 들어온 일본인들은 이 땅의 상권을 거머쥐면서 충무로 일대를 그들의 본거지로 만들었던 것이다. 결국 명동은 충무로의 번창과 더불어 이 지역으로까지 확대된 것이고, 청나라와 일본의 경쟁 틈바구니에서 형성된 거리였다.

고전 문화 보급에 힘쓴 조선광문회

중구 삼각동 7-1번지, 신축한 '센터-1' 빌딩(전일 사법서사회) 부근에는 최남선·현채(玄采)·박은식(朴殷植) 등이 한국 고문헌의 보존과 보급, 고전 문화의 선양(宣揚)을 목적으로 경술국치(1910)가 되던 해에 설립한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가 있었다.

경술국치 후 일제가 조선에서 해마다 진귀한 서적과 국보급 문화재를 반출해 가자 이에 충격을 받은 최남선 등이 조선광문회를 조직하여,

『동국통감』 등 17 종의 조선 고전 총서를 발행하였다. 이 단체는 귀중 문서의 수집·편찬·개간을 통한 보존, 전파를 위하여 고문헌을 최단 시일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인쇄하고, 가입 회원에게는 실비로 배포하였다.

이에 따라 제1차로 역사책인 『동국통감』·『동사강목』·『삼국사기』·『삼국유사』·『발해고』, 지리책인 『택리지』·『산수경』, 민속학 책인 『동국세시기』, 국어학 책인 『훈몽자회』·『아언각비』, 고전서인 『용비어천가』·『산림경제』·『지봉유설』·『성호사설』·『열하일기』, 문집류로는 『율곡전서』·『이충무공전서』 등을 간행하여 일제 강점기에도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황금정(黃金町)으로 변한 구리개

현재 을지로 2가, 즉 을지로 입구 일대에는 나지막한 고개가 있었는데 이 고개의 흙이 몹시 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렸다. 조선 시대의 을지로 일대는 현재처럼 평지는 아니었다. 남산 줄기가 뻗어 내려온 탓으로 낮은 언덕이 있었고, 7개 정도의 개천이 남산에서부터 흘러내려 청계천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권을 강제로 빼앗은 일제는 1914년에 구리개를 황금정(黃金町)이라고 고쳤다. 추측건대 을지로 입구의 동현과 을지로 4가 부근의 은동(銀洞)이란 동명을 따서 황금정이라고 붙인 것 같다.

현재처럼 을지로(乙支路)라는 명칭은 광복 이듬해 1946년 10월 1일부터 붙어졌다. 이 명칭은 주지하다시피 살수대첩을 거둔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乙支文德)의 성(姓)을 붙인 것이다.

그러면 100여 년 전 조선 시대 구리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조선광문회 간포(1914. 5)



일제 강점기의 을지로 풍경

당시 을지로 일대는 종로처럼 붐비지는 않았으나 혜민서, 장악원, 하도감과 같은 관공서가 자리 잡고, 약간의 시전(市廛)이 있었으며, 가내 수공업이 성하던 지역이었다. 오늘날에도 을지로 일대에 공공건물, 상가, 중소기업체가 밀집해 있으니 옛 전통이 이어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한편, 서울은 그 지역마다 주민의 생업이 달랐다. 예를 들면, '목덜미가 까맣게 탄 사람은 왕십리 미나리 장수'이고, '이마가 까맣게 탄 사람은 마포 새우젓 장수'라는 말이 있었다. 이것은 왕십리 일대에는 미나리를 많이 심어 이것을 아침에 도성 안으로 팔러 들어오려면 아침 햇빛을 목덜미에 받아 까맣게 그을렸고, 마포에는 새우젓이 많이 들어와 이를 팔려고 도성 안에 오자면 아침 햇빛을 이마에 받아 새까맣게 그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밖에도 누각골(누상동, 누하동) 씹지 장수, 자하문(彰義門) 밖 화초 장수, 아현동의 낫재(鋸器) 장수, 잔다리(연희동) 게(蟹) 장수, 물쇠골(水鐵里=신수동) 술 장수, 청과동과 두뫇개(옥수동) 콩나물 장수, 이태원 북승아 장수, 전생골(후암동) 제육(豬肉) 장수, 갈우리(갈월동) 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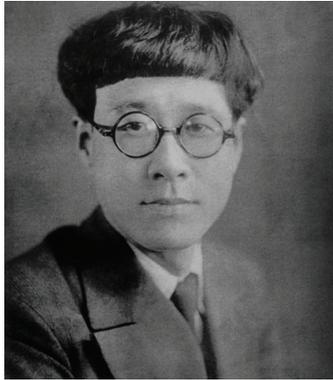
장수, 수구문(광희문) 끈목 장수, 다방골(다동) 기생, 송동(명륜동) 앵두 장수, 용머리(용두동) 무 장수, 홍제원 인절미 장수, 제터골(제기동) 토란 장수, 홍문골(행촌동) 투전(鬪戰) 장수, 서빙고 얼음 장수, 동작리(동작동) 모래 장수, 오강(五江) 뱃사람, 공덕리(공덕동) 소주 장수, 동대문 안 객주(客主)로 유명했으니 지역마다 주민들의 생업의 분포를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서울에는 남촌의 술, 북촌의 떡(南酒北餅)을 꼽았다. 남촌의 술은 오늘날 충무로 1가와 회현동 1가, 즉 장동(長洞)에서 빚은 술이다. 고종 때 영의정이었던 이유원(李裕元)은 “술의 빛과 맛이 모두 절품(絶品)이며 한 잔을 마시면 곧 취하고 술이 깬 다음에는 갈증이 나는 일이 없어 우리나라의 명주(名酒)라고 할 만하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종로가 종로구의 대표적인 도로라면 을지로는 중구의 대표적인 도로이다. 조선 시대에는 도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대문으로 통하는 길이 주요 도로였다. 서대문과 동대문으로 이어지는 종로와, 종각에서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길은 대로(大路)였지만 시청 앞에서 광희문으로 이어지는 오늘날의 을지로는 중로(中路)였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광화문 네거리에서 남대문으로 뻗은 오늘날 ‘태평로’는 조선 말까지 뚫리지 않았다.

전일 동대문 운동장 서쪽 일대인 을지로 6가는 무관들의 과거 시험 장소이며 무예를 익히던 훈련원이 있었다. 충무공 이순신이 이곳에서 시험을 보다가 낙마하여 다리를 다쳤으나 곧 옆의 버드나무 꺾질을 벗겨 다리를 묶은 후 다시 말에 올라 달렸다는 일화가 깃든 곳이다.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 파크(옛 동대문야구장)가 있는 을지로 7가는 훈련도감의 한 영사(營舍)인 하도감(下都監)이 있었다. 조선 말 임오군란 이후에는 이곳에 청나라군이 주둔해 있었고, 갑신정변 때는 창덕궁을 떠난 고종이 이곳에 4일간 체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을지로는 역사의 주 무대가 되었던 곳이다.¹³⁸⁾



청년 시절의 박태원과 '천변풍경'에서 묘사한 청계천 빨래터

문학 작품의 배경이 된 청계천

청계천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소재로 하거나 이 지역의 빈곤과 생활상을 글감으로 삼은 문학 작품도 등장하였다. 청계천변 수중박골(중구 다동, 현재 관광공사 부근)에서 태어나 자란 소설가 박태원(朴泰遠)은 1930년대 한국 소설을 대표하는 『천변풍경』(1938년), 『소설가, 구보씨의 1일』 등을 썼다. 그는 당시의 청계천변의 건물이나 상점, 주민들의 생업, 세시 풍속, 서민들의 언어 등을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천변풍경』 중 「청계천 빨래터」의 일부분을 소개해 본다.

“아아니 그럼 이거 참 빨래 공짜루 하는 줄 알았습디까?”

(……) 위에서 무새빨래를 하었다고 아까 타박을 받은, 그 낮설은 여편네가 이편으로 내려와서, 하던 빨래를 대강 마치고서, 개천 독에다가 널판 쪽으로 비스듬히 짜놓은 사다리를 반이나 올라가고 있는 것을 마침 빨랫줄을 매고 있던 샴터 주인이 발견하고 소리를 지른 것이다. 스물 너댓이나 그 밖에는 더 안 되어 보이는 그 여인은, 잠깐 어리둥절하여 빨래터 주인의 얼굴만 바라보다가,

“그러면, 돈을 내요?”

어이없이 묻는 양이, 이곳 풍습에는 매우 어둔 듯싶다. 김침치는 그대로 그곳에 가 서서 줄을 매면서도 더욱 기가 나서,

“아아니, 돈을 내요라니…그럼 이진, 누가 남 자선사업으루 허는 줄 알았습디까? 무어 이래저래 돈 드는 거, 노력 드는 거, 다아 그만 두구래두, 우선 해마다 경성부청에다 갖다 바치는 세금만 해두 수십 환야. 이진, 왜 어림두 없이 이려는 거요?”

하도 으르르딱거리는 통에, 다시 얼굴이 새빨개가지고,

“그런 줄 누가 알았나요? 몰랐죠. 모르구 그랬죠”

(……) 그렇다 알자, 빨래꾼들의 동정은, 역시, 그 아낙네게로 몰려, 우선 짐통이 어머니가

“저런…그 시골서 침 올라 몰르구 그랬군 그래. 뭐어. 빨래두 많진 않은가 분데, 그저 이번은 그냥 놀러 봐 주구료.”

한마디 말하여 준 것을 기회로, 다른 여편네들도 각기 말들이 있어, 아무리 셈속 빠른 주인으로서도 그것에는 역시 별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말씀두 기시고 하니, 오늘은 어서 그냥 가슈. 요담버 탐이나 정신채리구…”

그리고 그는 큰 기침을 한 번 하고, 아주 그 김에 보기 좋게 개천물에다 가래침을 탁 뱉었다.¹³⁹⁾

이 소설을 보면 1930년대에는 청계천에 사설 빨래터, 세탁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24년의 신문 기사를 보면 경성부에서 청계천에 공설 빨래터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보도가 있으므로 일제 때 청계천의 빨래터는 공설과 사설이 있었고, 사설 빨래터는 하루 10전씩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인에 밀려난 청계천 일대 빈민촌

서울의 빈민촌은 1920년 무렵 청계천 주변에서 최초로 형성되었다. 그 이전부터 종로5가 남쪽의 청계천변 언덕에 살기 시작한 토막민(土幕民)들이 1920년부터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선교사의 카메라에 담긴 한인 노점상(1920년대)

농촌 출신 노동자들이나 서울의 빈민들로 행랑살이조차 할 수 없어 여기저기 토굴이나 토막을 지어 배회하다가 대거 청계천으로 몰려든 것이다. 이들로 인해 청계천 제방에는 무허가 건물이 빼곡하게 들어찼다.

1928년 동대문경찰서에서 청계천변의 빈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총 687호 가운데 경성부 안

에서 이주한 경우가 364호(53%), 경기도 일대에서 이주한 경우가 271호(39%), 기타 다른 도(道)에서 이주한 경우가 52호(8%)로 나타났다.

결국 1920년대 중반 이전에 발생한 빈민들은 경성부 자체 도시 구조의 변동과 그에 따른 생활 불안정에서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출신 빈민들과 인근 농촌에서 배출된 이농민(離農民)들이 가까운 도시로 이입(移入)되는 양상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청계천 주변에 정착한 빈민들은 낱팜팔이 노동자·잡역부·지계꾼·인력거꾼·행상인·넙마주이·고물상·목공·점원·청소부·작부 등 대체로 불안정하고 비고정적인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무리를 이루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배회하면서 일자리를 찾았다. 1926년 무렵의 자료를 보면 청계천뿐 아니라 서울 도심 외곽까지 빈민촌들이 형성되었으며, 그 숫자는 무려 4,000여 명에 달할 정도였다.¹⁴⁰⁾

이들의 존재는 당시 서울에서는 일상적인 광경이 되어 있었다. 실제로 지계꾼 수백 명이 조선은행 앞에 모여 있다가 교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을 당하기까지 했다. 일제의 입장에서도 남루한

행색의 빈민들이 집단적으로 경성부 중심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배회하는 것 자체가 치안의 위협 요소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빈민들의 집단촌 형성에 관해 『경성부사(京城府史)』(1919년)에는 이렇게 써어 있다.

경성부 내에 있어서 일본인의 거주 지역은 남산 산록 북측 일대의 지역에서 점차 확대되어 경성부의 중앙을 관류하는 청계천을 넘어 점차 조선인가에 미치고 1919년 당시에 있어서는 부(府)내의 각 정동(町洞) 중 일본인을 보지 못하는 곳은 거의 없는 상태에 있다. 다음에 조선인은 그 대부분이 청계천 이북, 즉 종로를 중심으로 하여 북악산의 남쪽에 따라 거주하는 자가 많고 점차 청량리·왕십리·마포 등의 교외로 향하여 발전해 가는 상태에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인은 생활난 때문에 교외로 이주하는 자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일제 때 한글로 발표된 신문, 잡지들을 통해서 남촌이니 북촌이니 하는 말은 무수히 등장한다. 잡지 『개벽(開闢)』에는 “형제여 남촌의 시설은 저러하거늘 북촌의 시설은 왜 이 모양입니까?” 외에도 남촌의 일인촌(日人村), 남촌 시가의 극성(極盛), 몰락된 북촌의 참상(慘狀) 등의 글귀가 눈에 띈다. 그러나 당시 일본어 신문, 잡지에서는 남촌·북촌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 표현은 그 이전부터 한국인들 사이에서 통용된 단어에 틀림이 없다.

당시의 한국인들이 ‘왜놈들 마을’이라고 한 것을 남촌이라고 표현하였고, 그에 대해 자기들의 거주 지역을 북촌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종로 1·2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서울의 상업 지역은 남대문로를 비롯한 그 일대와 충무로·명동·을지로 등지까지 확대되었으며, 남



일인촌(日人村)이 된 남촌 일대

쪽 특히 일본인들의 상업 지역이 분포하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이 지역에는 또한 일본인들에 의해 설립된 은행·백화점 등도 분포하였다. 일본인들의 거주지는 대체로 신흥 상업 지역 주변과 남부에 위치하였으며, 기존의 한국인 거주 지역에는 일부만 거주하였다.¹⁴¹⁾

3·1운동 이후, 일본인들은 무단 정치에서 문화 정치로 식민 정책을 바꾼 후 행정 및 지방 제도를 개혁함과 동시에 공업 및 상업의 발달을 꾀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의 중심인 서울을 철저히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장악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다. 이미 개항 이후 조선으로의 '식민'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많은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이주해서 정착해 왔다. 서울의 도시 공간은 이후로 일본인 이주자를 위한 공간으로 재편되어야 했으며, 실제로 청계천 남촌 일본인 집중 거주 지역이 그 예로 꼽힐 수 있다.



일본인들로 넘쳐나던 남대문로 거리와 충무로 입구

1930년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민족별 분리가 더 강화되는 경향이 드러난다. 곧 조선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청계천 이북 지역의 경우에는 종로2정목을 제외하고는 단 한 군데도 10개 이상의 공장이 세워지지 않았다. 공장 증가를 주도한 것은 당연히 일본인들이었지만, 철저한 차별정책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강력한 식민 정치와 경제적 이익 도모, 대륙 침략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도시 내에 공간 분포를 변화시켰으며, 특히 상업권의 형성 및 주거 지역의 공간 변화를 초래하였다. 1924년 잡지 『개벽(開闢)』에 실린 글에는 이렇게 써어 있다.

토목사업 - 최근은 고사하고 기왕 완성된 것으로 포장 공사까지
하야 반들반들한 남대문동, 본정동, 황금정의 일부 등 칠천여 간의

일등 도로도 남부, 도로와 인도의 구별 있는 오천여 간의 일등 도로도 장곡천정, 황금정 전부, 태평동, 관수동으로 대화정, 용산선 등 남부가 거의 전부요, 북부는 창덕궁 덕택에 간신히 수은동 도로뿐이니, 따라서 하수도의 설비가 이리하고 사십만 원을 들인 용산 배수 공사도 남부 사업, 일백 육십여 만 원으로 계속 중인 청계천 공사도 육천, 남부의 지류까지 완성하얏스되 북부는 얼마 전부터 안국동 이북의 삼개소를 착수하얏슬 뿐이며, 연래로 말이 만흔 간선도로도 금년에 '경성역-구용산 분기점', '영락정 사각-종로사정목 사각'의 일천 삼백 간을 허하는 맹색이 일등 도로요, 경성의 중앙을 횡관한 도로요 삼대 간선의 일이요, 북부 시가의 유일한 도로인 종로통은 탑동공원 앞부터 종로사정목까지 사백 오십 간을 시작할 뿐이외다.

그러나 진정한 위험은 서울 내의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경제적 격차에 있었다. 이미 공업과 관련해서도 일본인에 의한 청계천 이남의 집중투자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었지만, 조선인 소유의 공장은 몇몇을 제외하면 대부분 가내 공업과 중소 공업의 규모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조선일보」 1929년 1월 1일자 기사에서 “조선인 공업은 일본인의 1/14에 불과한데 이렇게 부진한 최대의 이유는 금융 배경이 없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데, 당시 실정을 잘 보여 주는 한 예이다.

상업의 경우, 조선인 상인들은 전통적인 상업 중심지인 종로를 지키고 있었다. 반대로 일본인들은 본정(本町)에 자리를 잡고 자신들만의 아성을 구축하고 있었다. 결국 이 두 곳의 성패가 서울의 상권을 결정짓는 셈이 되었다. 종로의 화신백화점과 본정의 미쓰코시(三越)백화점이 이를 상징한다.

종로 상가는 조선인 거주 지역을 배경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 왔으나, 본정 상가에 비해 열세를 보였다. 게다가 남대문을 통해 들어오는 근대적 문물 및 신상품들은 본정 상가에 집결했기 때문에 조선인들 중 부유층들

은 본정으로 발길을 옮겼다. 1927년 「조선일보」 1월 2일자 보도에 의하면, 당 해의 미쓰코시백화점 일일 매상은 평균 6천 원으로 고객 가운데 4할이 조선인이며, 조선인들을 통해 올린 매상고가 전체의 6할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계천 북촌 일대 상가들의 초라한 모습과 그에 대비되는 남촌의 모습은 아래의 글을 통해 확연히 드러난다.

진고개! 진고개! …… 지금은 조선의 상권을 독차지한 곳이다. 육층으로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는 삼중정(三中井)의 대상점, 조선 사람의 손님을 끌어들이기로 제일인 평전(平田) 상점, 대자본을 가지고 조선 전도 상계를 풍미하려는 미쓰코시(三越) 왕국의 작은 집인 삼월 오복점을 비롯하여 좌우로 총총이 들어선 일본인의 상점, 들어서 보면 휘황찬란하고 으리으리하며 풍성풍성한 품이 조선 사람들이 몇 백 년을 두고 만들어 놓았다는 북촌 일대에 비하여 얼마나 장한지 견주어 말할 바 못된다.¹⁴²⁾

일본인들의 끊임없는 증가와 경제력의 격차는 도성 내 일본인들의 거주 및 상업 지역의 확장을 가능케 했다. 이미 이전부터 일본인들의 공간으로 새로이 구성된 용산은 말할 것도 없고, 성내의 을지로 남쪽에서 남산 북쪽 산기슭에 이르는 하류층의 거주지가 가장 먼저 일본인들의 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 일제 강점기의 서울은 일본인의 게이쵸(京城)와 조선인의 경성으로 완벽히 구분되는 이중 구조를 가진 도시였던 것이다.

이제 지역 간 위상이 완벽하게 바뀐 상황에서 1920년대 중반에 이르면 청계천 남촌으로 집중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점차 북촌 일대로 진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팔판동의 경우, 1925년에는 고작 7명에 불과했던 일본인들이 1930년에는 무려 171명으로 20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인구 구성상 조선인을 압도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당시 조선인 인구

가 정체 내지 미약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일본인들의 의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자본을 갖춘 일본인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조선인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조선인들의 거주 지역, 즉 상업 지역과 고급 주거 지역의 토지를 잠식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당시 조선인들이 간행하던 신문에는 이에 따른 조선인의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기사가 집중적으로 실리고 있었다.

경복궁 대궐을 중심으로 경성의 북부를 향하여 일본인의 세력이 날로 침범한다 함은 이미 수년 이래 경성에 거주하는 조선인에게 큰 위협을 주는 말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위협이 되었을지라도 조선인의 힘으로는 어찌 하는 수가 없이 일본인의 세력은 날로 북부를 향하여 침범하는 중이다.

종로통에 일본인 상점이 늘어 가는 것은 눈먼 장님이라도 딸까신 소리만 들어도 알 것이니 경복궁 대궐을 중심으로 청진동, 수송동, 중학동, 연동, 송현동, 팔판동, 광화문통과 다시 서편으로 당주동, 도림동, 적선동, 통의동, 창성동, 효자동, 궁정동, 청운동 등지에는 날마다 일본인의 집이 한 집씩, 두 집씩 늘어 가는 대신에 조선 사람의 집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은 현저한 사실이라.

이와 같이 되는 것은 가련한 조선 사람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믿고 살던 북부의 한구석에서도 살 수가 없이 되고, 차차 문 밖으로 나 시골로 쫓겨 가는 형편이다.¹⁴³⁾

서울 종로 네거리의 땅값은 근일에 이르러 한 평에 일천 이백 원이라는 조선에 처음 되는 고가로 팔고사고 한다. 조선의 중심이 되는 서울의 땅값이 이제야 비로소 일천 원을 부르게 된 것은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그 실상을 말하면 조선

에는 소위 물질문명의 중심이 되는 상공업이 발달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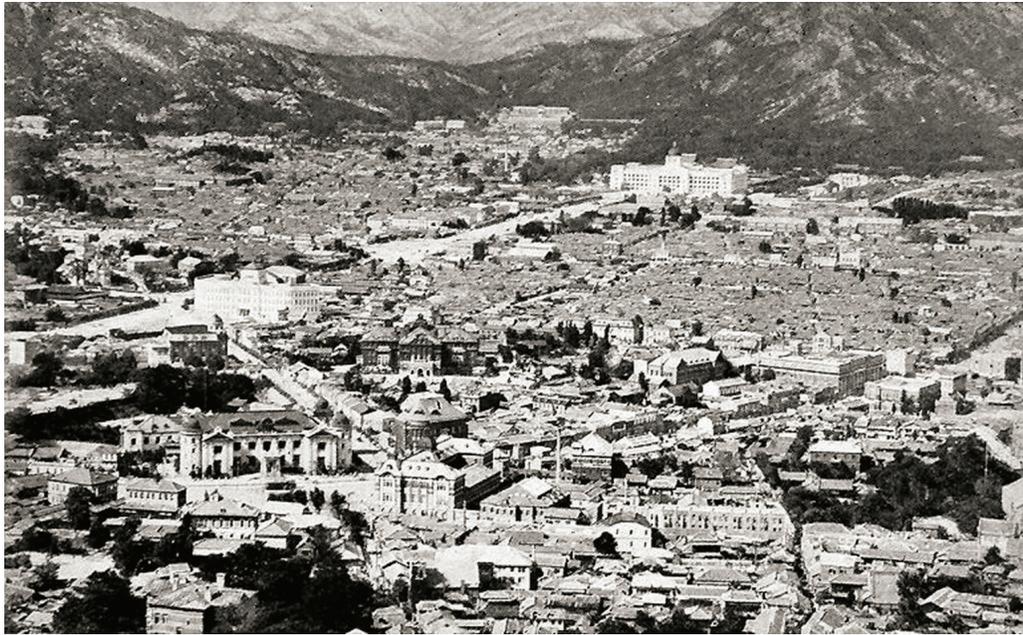
이 점으로 보면 땅값이 이렇게 올랐다 함은 좀 늦었지만 매우 기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값이 어찌한 까닭으로 근래에 와서 이같이 올랐는가 하는 그 원인을 찾아보면 새삼스럽지만은 기절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는 과연 어떤 연고인가? 원래 서울의 제일 상등지는 진고개였었다. 진고개라 하면 누구든지 다 아는 바와 같이 일본인의 중심 상업지다. 그전에는 조선 사람의 세력도 무던히 있었던 고로 일인은 진고개에 몰려서 살았었다. 그리하여 상업이 발달된 까닭으로 그 땅값은 제일 높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종로 네거리의 땅값이 오른 것은 이 일본 사람의 모든 세력이 종로로 옮겨 오는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일인의 세력이 점점 커 가는 반면에 조선인의 세력이 점점 몰락하는 것을 알 것이다. 아 조선 사람아! 이것이 서울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 죽겠느냐? 살겠느냐?¹⁴⁴⁾

1930년대에 들어 북촌의 일본인 침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북촌 일대에서의 한국인과 일본인 간의 거주지별 세력 대비는 그만큼 한국인 쪽이 위축되어 갔다.

1924년에는 경성제국대학이 개교되고, 1926년부터 1928년에 걸쳐 의학부를 비롯한 경성제국대학 교사가 연건동, 동숭동에 건립되는 동시에 동숭동·이화동·명륜동·혜화동 등 각 동에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의 관사와 관택이 건립되고, 그들을 따라서 이주해 온 일본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1926년 10월에 광화문 내에 조선총독부 청사가 준공됨으로써 예장동에 있던 총독부가 이전되고, 같은 달에 경성부청 청사도 준공되어 태평로로 이전되자 적선동·통의동·궁정동·청운동·효자동 등의 북촌 마을



1930년대 경성 풍경

에 많은 총독부, 경정부 직원용 관사가 들어서게 되어 한·일 주민 거주 비율의 교체 현상이 일어났다.

1929년 정동에 경성재판소 건물이 준공되고, 1934년 태평로 1가에 천대전 빌딩과 세종로에 총독부 체신국 분관이 들어서면서 신문로에서부터 당주동·내수동·내자동 각 동에도 일본인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또한 1931년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자회사로 설립된 조선 도시경영주식회사가 장충동 1가의 6천 평, 신당동의 4만 평 토지를 고급 주택지로 개발함으로써 많은 일본인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북촌 일대의 땅값이 뛰었는데, 당장 하루하루가 곤궁한 조선인들의 약점을 간파한 일본인들이 시세보다 높은 값을 부른 것 역시 땅값 오르는 데에 한몫을 했다. 결국 북촌에 살던 조선인들은 앞다투어 토지를 방매하고 주거지를 옮기게 되었다. 비교적 땅값이 헐한 4대문 밖으로 옮겨가는 북촌 주민들이 행렬이 줄을 이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종로1가·서

린동·관철동 등지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이렇게 되면 1922년 말 대비 1923년 말 종로 일대 조선인 호수가 종로 1가에서 114호, 종로 2가에서 67호, 종로 3가에서 32호, 종로 5가에서 30호, 공평동에서 56호, 서린동에서 136호, 관철동에서 300호씩 각각 감소하고 있다.¹⁴⁵⁾

이제 도성 내의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에 의해 성 밖으로 밀려나거나 낙향(落鄕)하는 신세가 되었다. 여전히 도성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은 많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일본인들과 관계가 있거나 청계천 일대 빈민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근근이 자기 지역을 지키며 생계를 이어 나가는 자영업자들은 비교적 소수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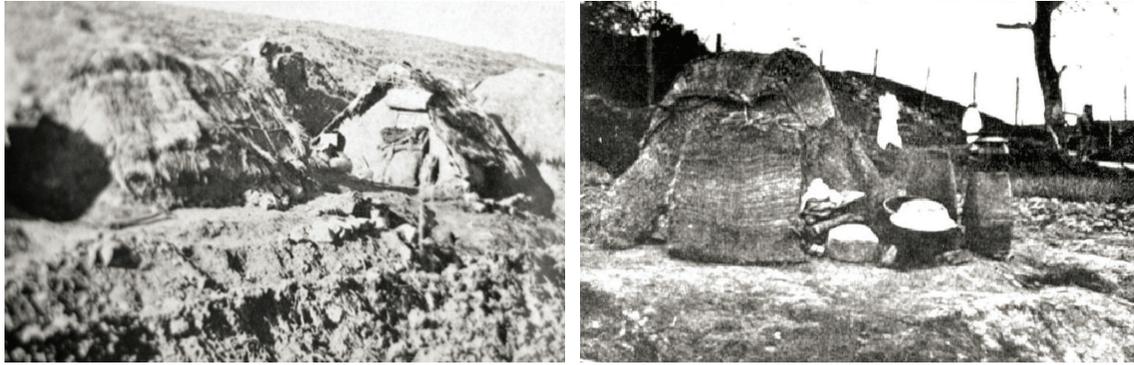
하지만 성 밖으로 밀려난 조선인들로 인해 서울이 일제의 식민지 도시로 확실하게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1920년대 중반, 일본인들에게 땅을 팔고 옮긴 지역은 도성 외곽으로 미개발된 지역이었다. 당연히 지가(地價)도 싸고 정착하기 쉬운 면이 있었다. 청계천 일대에서 일본인들과 끝까지 경쟁하던 이들이 외곽 지역에 머무르게 되면서 도성 외곽 지역의 자체적 개발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일제의 의도와는 달리 서울의 도시 공간이 외연적(外延的)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계천 일대 조선인들의 이동은 서울의 도시 문화 확산이라는 측면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다.

2) 일제 강점기의 청계천 개조 사업

사망률이 높았던 청계천 주변의 서울 주민

일제 때 청계천 주변은 위생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장마가 지면 침수되는 가옥이 부지기수였고, 전염병이 돌면 바로 전 시기를 휩쓸었다.



청계천 주변 가산 등지에 토막을 짓고 살던 토막민(土幕民)

집중 호우라도 내리면 청계천 하수가 빈민들의 집단 주거 밀집 지역으로 바로 역류하였다. 따라서 서울 주민의 사망률은 청계천에 가까운 곳에 거주할수록 높았다. 하지만 청계천의 위생과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문제에 대한 기록은 총독부 쪽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일제가 청계천을 정비하기 시작한 것은 위생 및 자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조선 식민 지배의 중추 기관을 청계천 이북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을 위해서였다. 일제는 청계천과 일부 지천의 바닥을 준설하고 양안에 석축을 새로 쌓았다.

1915년 9월, 정무총감은 경성부 내의 하수구 준설이 불충분하여 오수 및 우수의 정체, 위생상의 유해뿐만 아니라 비상 출수(出水) 시에 부근 일대에 침수를 일으키는 등 피해가 적지 아니하므로 하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경성부에 지시하였다.¹⁴⁶⁾

1. 시내 중앙을 관통하는 청계천을 비롯하여 기타 하수구 내에 쌓인 토사는 항상 이를 준설하거나 또는 매년 장마 전에 기타 필요에 응하여 대침설(大深濽)을 할 것.
2. 재래 하수구와 개량 하수구가 만나는 곳에 있는 수수구(受水口)는 항상 여기에 쌓이는 쓰레기, 토사를 청소할 것.

3. 하수구 소제를 태만히 하지 않도록 항상 계원(係員)이 순시할 것.
4. 하수 암거(暗渠)의 청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가장 편리한 사수법(射水法)을 사용할 것.
5. 남산 및 북산(北山) 등 토사가 흘러내릴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상당한 사방 공사를 시공하여 토사의 유출을 예방할 것.

1916년 경성부협의회는 경성부 하수구 개설 계획을 결의하였다.¹⁴⁷⁾ 이 계획에 의하면 착공은 1917년도부터로, 총 공사비 예산액은 150만 원(圓)이며, 제1기 공사비 70만 원, 청계천 및 지천(支川)의 개수 공사비는 27만 원이었다.

1921년 4월 6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경성부의 토목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예산과 1921년의 예산으로 청계천 등의 배수 공사에 3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전염병으로 청계천 물 사용이 금지되다

1920년 8월, 시내에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자 경성부는 하수와 기타 개천에도 병균이 흘러 들어갈 염려가 있으므로 얼마 동안은 청계천 하류에서 마포나루터까지의 한강에서는 수영과 고기잡이, 세탁과 물건을 씻는 등 한강 물의 사용을 금하고, 청계천 물의 사용도 당분간 금지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천변에는 표지판을 세워 놓아 청계천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하였다.¹⁴⁸⁾

1935년 7월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서울에 장티푸스 환자가 178명이 증가하여 23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경성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총독부 위생과와 경기도 위생과, 각 서 위생계 주임, 대학병원, 의전병원, 의사회 간사 등을 초청하여 상세히 토의한 후 경기도 경찰부에 의뢰하여 청계천에서 야채 씻는 것을 엄금하기로 하였으며, 수산 시장의 생선 장수 3,000명을 대상으로 위생 검사를 하는 등

시에 모두에게 예방 주사를 놓았다.¹⁴⁹⁾

1918년부터 청계천 개수 공사를 시작한 경성부

경성부는 1918년부터 1924년까지 7년간 총경비 174만 3천 원으로 계획하고 청계천의 개수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1921년에는 수표교~동대문 오간수교까지 개수 공사를 하고, 화원정(花園町)~대화정(大和町)까지의 130간과 원남동에서 흐르는 125간은 모두 콘크리트 하수관을 매설하여 청계천으로 흐르도록 공사를 한다고 보도하였다.¹⁵⁰⁾

관수교 상류는 1922년과 1923년에 개수 공사를 할 계획이었고, 1924년까지 5척~9척을 파내는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당시의 청계천 개수 공사에 대한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경성부에서는 대정 7년도(1918)부터 계속하여 공사하던 청계천(淸溪川)의 공사를 할 터인데 금년에는 동대문에서부터 수표교까지 개수(改修) 공사를 하고, 청계천은 경성 시내의 모든 하수도의 물을 바다 가지고 나아가는 큰 개천임으로 위선 이 개천부터 수축을 한 후에 다른 적은 하수도에도 완전한 공사를 한다 하며 처소에 따라서 다섯 자 내지 아홉 자 가량을 파내어서 물이 잘 내려가도록 할 터인데 청계천의 공사는 대정 13년에는 전부 맞칠 예딩이라더라.¹⁵¹⁾

1925년부터는 지금의 종로구 신교동에서 도림동까지, 즉 청계천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백운동천을 비롯하여 옥류동천, 사직동천 등을 복개하였다. 당시 복개는 하천에 ‘ㄱ’ 형의 하수관을 만드는 것으로 일종의 하수구 작업이었다. 이로써 청계천을 이어 주는 지천들은 물이 흐르는 실개천이 아닌 일종의 하수구로 바뀌었다.

1926년에는 청계천 복개를 통해 1만 평의 택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복개 구역은 광통교에서 주교정(舟橋町)까지의 구간으로

이곳을 철근 콘크리트로 덮어 택지와 상가, 위락 시설을 조성하려고 했다.

1931년 이후에는 일제가 만주 사변,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으로 치달으면서 조선을 대륙 병참 기지로 설정하고 당시 서울을 그 중심에 놓으면서 청계천 복개 계획의 규모가 커졌다. 이른바 ‘대경성(大京城) 계획’이 그것으로, 1934년의 시가지 계획령을 계기로 서울의 전반적 개조에 대한 구상이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모두 재정 문제로 인하여 단순히 구상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으며, 실제 복개가 이루어진 것은 1937년 태평로에서 무교동에 이르는 구간뿐이었다. 오히려 일제는 이후 전쟁에 대비해 모든 물자와 인력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청계천 준설을 비롯한 서울의 도시 정비 사업은 거의 방치되었다.

이렇게 일제가 청계천 복개에 대해 구상안을 산발적으로 내놓으면서 청계천에 있던 많은 다리들이 수난을 겪었다.

하지만 전면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청계천은 광복 때까지 토사와 쓰레기가 하천 바닥을 뒤덮고 있었으며, 청계천변을 따라 어지럽게 늘어선 판잣집들과 거기에서 쏟아지는 오수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다.

기부금으로 청계천변 이주민들의 주택을 건립하려는 계획

1920년, 청계천변 가산(假山)에 위생 인부, 지계꾼 등이 움집을 짓고 사는 50여 호 110명의 빈민들 사이에 전염병이 유행하여 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추위가 닥쳐오자 이들은 1921년에 왕십리 움집에 50여 명, 동소문 밖의 삼선평의 평산목장(平山牧場)에 40명이 임시 거처를 삼고 있었다.

이에 평산목장의 주인 평산정십(平山政十)이 군용지 26,000평을 빌려 유지들의 기부금을 받고 1921년 5월 21일에 경성공회당에서 음악회를 열어 그 수입으로 빈민 마을을 세우려고 하였다.¹⁵²⁾

쓰레기 처리를 위한 경편철도 가설 계획

1921년 12월, 경성부에서는 1922년도 예산에 30만 원을 차입(借入)하여 청계천에 경편철도(輕便鐵道)를 놓아 경성부의 골치 아픈 쓰레기 등을 광화문 밖 처리장까지 운반하여 소각 처리할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¹⁵³⁾

그러자 「동아일보」는 5일 후의 기사에서 이 계획은 호우가 내릴 때마다 청계천 바닥이 변모하고, 장마 때는 쓰레기 운반이 불가능할 사상누각(沙上樓閣)의 진기한 계획이라고 비판하는 보도를 하였다.

1939년에 이르러 날로 팽창해 가는 경성은 이와 정비례하여 교통량이 엄청나게 격증되어 경성부는 교통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되었다. 1939년 7월의 「동아일보」기사에는 경성부를 중심으로 총독부 토목과와 경기도 철도국 경전 수뇌부 사이에서 철저히 검토한 결과 15차년도의 대계획을 세웠다고 보도되었다. 그 하나로, 청계천에 지하철을 부설하여 동경성역과 본역(本驛) 삼각지 아현정으로 빠져나오는 고속 기관을 배치하여 경성부 내 교통에 완벽을 기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¹⁵⁴⁾

청계천에서 준설한 흙을 종로를 높이는 데에 사용

경성부는 1920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홍수 때 청계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4척 정도 파내는 준설을 벌였다. 1922년에는 광화문 앞에서 관수교(觀水橋)까지 준설을 하면서 나온 흙을 종로 4가에서 동대문까지 종로에 궤도를 놓고 흙을 운반하여 전차길 좌우로 퍼서 지형을 돋우고 있었다. 전에는 청계천 준천으로 나온 흙을 운반하여 훈련원(訓練院) 뒤에 쌓아 놓아 흙을 처리하였으나 이곳에 주택이 들어서면서 흙을 처리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¹⁵⁵⁾

그러자 준설한 청계천의 썩은 흙을 종로에 덮는 것이 좋지 않다는 여론이 있었다. 그뿐 아니라 통행하는 사람의 발목이 빠져서 다닐 수 없는 것은 물론, 길가의 상점들은 교통 관계로 상업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비가 오면 집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와서 곤란을 겪었다. 이처럼 종로 양편의 상인들의 불평이 적지 않자 경성부에서는 우선 좌우편으로 하수도를 내어 도로의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시구개정사업(市區改定事業)이 실시되면 완전한 도로 정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¹⁵⁶⁾



청계천에서 빨래하는 여인들

청계천에 공설 빨래터를 설치하다

1924년에 경성부는 청계천 세 곳에 공설 빨래터(洗濯場)를 설치할 9천 원의 예산을 세웠다. 한 곳은 청계천의 상류인 누상동이나 누하동 부근, 또한 곳은 청계천의 지천인 중학천이 흐르는 삼청동이나 팔관동 부근으로 확정하였다. 또 한 곳은 장충단 부근이나 공업전문학교 부근을 후보지로 하였으나 미정이었다.

공설 빨래터에는 2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이 흐르지 않을 때를 대비한 물웅덩이(水槽), 세탁 시에 찌꺼기 등을 가라앉혀 물만 흘러가도록 하는 침전지(沈澱池), 빨래를 하는 빨래터 등의 세 가지 시설과 빨래를 삶는 가마(蒸釜) 2개를 갖추기로 하였다. 이용료는 경성부 내 20여 곳의 사설 빨래터가 10전씩 사용료를 받는 것에 비해 빨래를 삶는 연료비만 받는 실비로 한다고 발표하였다.¹⁵⁷⁾

청계천을 복개하여 상가를 조성하려는 계획

1920년대 이후 일제는 여러 차례 청계천 복개 계획을 발표하였다.

1926년 7월에 예종석(芮宗錫) 등 4명의 민간인이 남대문로 1가~주

교(舟橋)까지의 청계천 566칸 9,800평을 복개하여 그 위에 아스팔트길을 만들고, 수표정(水標町) 부근~주교까지는 양쪽에 4칸 폭의 도로를 내어 중앙에는 10칸 폭의 점포를 짓는다는 <청계천 사용 허가원>을 총독부에 제출하였다.¹⁵⁸⁾

일제는 한국인의 위생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까닭에 193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인의 주거지였던 남산 기슭과 경복궁 내에 새로 지은 총독부 청사 서쪽의 지류만 복개하였다.

그 이듬해 1927년 11월에 총독부는 허가 여부를 심의하던 중에 조사를 더 해 보겠다고 경기도 경찰부로 내려보냈다. 이 당시 총독부는 공사 비용이 180만 원이 소요되는데 어려운 시기에 그만큼 많은 돈을 모으기에도 힘이 들뿐더러 자금이 있더라도 경제계가 궁핍한 이때에 그와 같은 큰 사업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가졌다.

이에 대해 신문 보도는 청원인들이 장차 경성부가 해마다 확장되어 갈 것이므로 지금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권리만 얻어 두면 유리할 것 같아 이 같은 사업안을 제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¹⁵⁹⁾

1935년에 경성부는 삼청동에서 의전병원(醫專病院) 앞을 거쳐 광화문 우편국(光化門郵便局) 옆을 지나는 청계천의 지천을 비롯하여 다옥정(茶屋町: 다동) 남측을 관통하는 청계천의 지천 등을 일괄하여 모두 그 위를 철근 콘크리트로 복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청계천의 좌우 양편에 역시 일부를 철근 시멘트, 콘크리트로 덮어 양편의 길을 넓히는 동시에 오물을 흘러 버리는 분류 하수관을 만들려고 하였다.¹⁶⁰⁾

1936년에 서울인구가 70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대도시 교통과 위생 문제가 긴급한 현안으로 떠오르자 시내 구간의 청계천을 전면 복개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중일 전쟁 발발 등 시국 관계로 1937년부터 공사 기간의 1/3을 연기하여 경비를 축소하기로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개수 공사는 예정한 연한보다 3년 이상 연기되었다. 이로써 일제 때 청계천 복개 계획만 내세웠을 뿐 1937년에 태평로~무교동 구간만 복개되었다.

1939년에는 청계천을 덮어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만든다는 안이 마련되었고, 1940년에는 청계천을 복개하여 위로는 전차, 밑으로는 지하철을 부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¹⁶¹⁾ 이러한 청계천 복개와 사업 계획은 조선총독부가 만주 사변,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조선의 식민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나아가 서울을 대륙의 병참 기지로 육성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일제는 전쟁에 대비해 모든 물자와 인력을 쏟아부었으므로 청계천 준설을 비롯한 서울의 도시 정비 사업은 거의 방치 상태에 놓였다.

청계천에 스케이트장 개설

1926년 11월에 경성전기주식회사에서는 청계천 오간수교로부터 길이 150칸 4,500여 평을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사용케 하고자 경성부에 인가 신청하였다. 사용 기간은 11월 10일~명년 3월 10일까지로 곧 허가가 될 것이라는 신문 보도가 보인다. 「동아일보」는 경성전기주식회사의 스케이트장 개설을 전기 요금이 비싸다는 시민들의 반대를 막으려는 한 계책으로 보았다.¹⁶²⁾

1928년 1월 15일 조선체협(朝鮮體協) 주최 제4회 '조선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권대회 겸 제2회 일본·조선·만주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권대회' 예선 대회가 오전부터 동대문 내 청계천 경성전기주식회사(京電)링에서 개최되었다. 참가 연인원은 120여 명에 달하였다.¹⁶³⁾

서울의 유일한 이 스케이트장은 오간수교 상류는 스케이트 링, 하류는 아이스하키 전용장으로 구별하여 주야 겸용케 할 계획이라고 보도되었다.¹⁶⁴⁾

청계천 제방 위 무허가 기옥 8채 철거

동대문경찰서는 1927년 6월, 창신동 산비탈과 청계천 제방 위에 지은 무허가 주택 8호에 대하여 돌연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철거 대상 주민들 중 30여 명이 동대문경찰서 앞에 모여 서장 면담을 요청하고, “집을 철거하라고 경찰서에서 강요하면 이는 우리더러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죽을 바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죽겠다” 하고, 살던 집은 철거할 수 없다고 흥분하자 경찰관들이 겨우 설득하여 귀가시켰다.

청계천 제방의 60여 명 철거민을 대표하여 동대문서에 모인 10여인 진정위원 중에 자유노동조합(自由勞動組合) 대표 이량(李亮)은 “여태껏 살아오던 집을 돌연 헐어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하니 참으로 딱합니다. 지금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가동(加藤) 동대문경찰서장은 청계천 제방 위에 지은 무허가 집은 여러 가지 폐해도 있고, 또 이를 그대로 두면 도시의 체면에도 크게 관계가 되므로 이를 철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¹⁶⁵⁾

청계천에서 실족하여 죽은 시민들

일제 때인 1920년 7월에 서울에 큰비가 내려 경춘도로(京春道路)의 청량리 죽령 개다리 부근은 물이 넘쳐 나룻배로 통행을 하고, 사근동의 살곶이다리는 다리 위로 1척 이상 물에 잠겼다. 이 당시 청량리 관내의 청계천 공사장 부근에서 한국인 시체 1구가 발견되었다. 검시(檢屍)를 마치지 않아 신원을 알 수 없지만 폭우에 실족하여 청계천에 떨어져서 떠내려 온 시체일 것으로 추측 보도를 하였다.¹⁶⁶⁾

언제나 통행에 위험천만이라고 문제가 되는 청계천의 연안 도로는 특히 어린이들과 야간 취객들에게는 더욱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1924년 2월에 수표정(水標町) 5번지 부근 청계천 남천변에서 물 위에 떨어져서 동사(凍死)한 시체가 발견되었다. 관할 본정 경찰서에서 검시한 결과 죽은 사람은 개백정 이사봉(李四奉)이라는 사람으로 2월 12일 밤에 술이 취



〈최신경성전도〉, 모리야마 요시오(森山美夫), 1907년, 고려대학교 박물관

하여 청계천변으로 지나다가 실족하여 떨어진 후 다시 일어나지 못해 그대로 얼어 죽은 것으로 보도되었다.¹⁶⁷⁾

1927년 8월에는 청계천 주교(舟橋) 밑에서 고기를 잡던 16세 소년이 돌연 수심 6, 7척 되는 웅덩이에 빠져 익사하였다. 소년은 일정한 주소가 없는 김금룡(金金龍)으로 비가 온 끝에 고기를 잡으려다가 익사하였는데 관할 동대문서에서는 검시한 후에 부친 김덕순(金德巡)에게 시체를 인계하였다.¹⁶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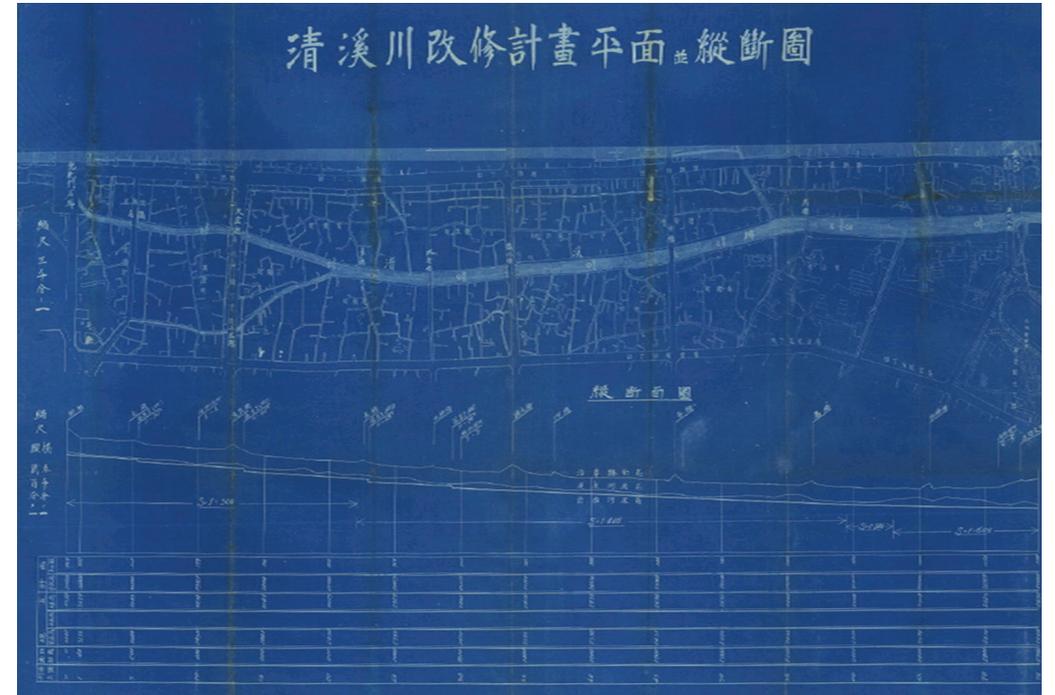
1934년 8월 13일 오후 8시경에는 견지동 43번지에 거주하는 47세 박운삼(朴雲三)이 술에 취하여 다옥정(茶屋町)의 청계천에 연한 도로를 통과하다가 실족하여 떨어져 그 이튿날 자택에서 숨졌다.¹⁶⁹⁾

1936년에 경성부가 세운 청계천 개수 계획

1934년 3월에 열린 경성부회(京城府會)에서는 청계천 양안의 도로가 협착하고 또는 단절되기도 하여 서울 시민들의 교통상 큰 지장이 있다고 보아 도로 확장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했다. 이에 대하여 경성부윤은 교통량이 적다는 점에서 청계천 양안의 도로를 확장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¹⁷⁰⁾

2년 뒤인 1936년에 경성부가 총독부에 제출한 ‘청계천 개수 계획’ 제2안에는 청계천 양쪽에 암거(暗渠)를 걸어 양쪽으로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는데 참고로 ‘청계천 개수 계획’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안으로는 광화문에서 청계천까지 암거(暗渠)를 설치하여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고,
제2안으로는 청계천 양쪽에 암거를 걸어 양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이며,



청계천 개수계획도(1936년)

제3안으로는 한강이나 세검정에 펌프를 설치하여 물을 끌어 올려 정기적으로 오물을 세척하는 방안이다.¹⁷¹⁾

청계천 정비로 수난을 당한 교량들

일제 때 청계천 정비로 인하여 여기에 놓인 많은 다리들이 수난을 겪었다.

광통교의 경우 다리 옆에 전차선이 놓이게 되었으며, 다리는 콘크리트로 보강되어 확장되었다. 또한 광통교 교대(橋臺)에는 지름 1m가 넘는 하수관이 묻히게 되었다. 오간수교는 오간수문과 함께 1908년에 완전히 헐렸고, 대신 차로와 전차선로 겸용 다리가 놓여졌다. 하량교, 영도교 등 일부 다리는 콘크리트 다리로 개축되었으며, 관수교, 주교도 근대식 토목 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다리로 놓였다.

굽은다리에 나타난 도깨비

삼각동 104번지 전일 경기빌딩 동남쪽에 굽은다리라는 돌다리가 있었다. 광고와 청계천의 첫 자를 따서 광청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한자로 곡교(曲橋)라 하였다. 이 다리는 모양이 활처럼 휘거나 굽은 것은 아니고, 다리가 중간에 ‘ㄱ’자 처럼 꺾인 것도 아니었다. 실제로 쪽 끝은 다리로, 네 귀가 번듯하고 바닥 돌판도 아주 고르고 단단한 다리였다. 이런 다리가 굽은다리로 불리게 된 것은 길이 굽이쳐 돌아가는 위치에 다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 때 3·1운동 직후 이 굽은다리에 도깨비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밤중에 처녀가 혼자 이 다리를 지나가려고 하면 난데없이 흰옷을 입은 도깨비가 나타나서 처녀를 놀라게 하여 청계천 밑으로 떨어뜨려 다리를 다치게 하거나 팔이 부러지도록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

이런 소문이 돌자 부녀자들은 밤길이 무서워서 외출을 삼가는 까닭에 아예 날이 저물면 삼각동 근처에는 부녀자들이 얼씬도 안 했다고 한다. 나중에 경찰이 잠복근무를 하고 조사한 결과, 흰옷을 입은 도깨비는 짓궂은 장난꾼의 소행으로 밝혀졌다.¹⁷²⁾

1924년 10월, 을지로 1가 181번지의 환구단(圓丘壇) 부근의 기다란 줄행랑 집에 도깨비가 나타났다. 이 줄행랑 26호 집에는 낙원동에서 요릿집을 하는 기생 이진홍이 살았다. 날이 흐리기만 하면 밤중에 집을 때려 부수는 것과 같은 ‘우당통탕’ 하는 소리에 잠을 깼다. 대문을 열어 보면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잠이 들려고 하면 또 ‘우당통탕 하는 소리가 밤새도록 계속되는데 나가 보면 아무것도 없고, 틀림없는 도깨비장난이라고 했다. 아침에 날이 새서 나가 보니 안대문이 조금 휘었는데 틀림없이 누가 손을 댄 것이었다.

이진홍은 이러한 괴변이 잇따라 일어나자 여기서 오래 살지 못하고 노이로제에 걸리고 말았다. 마침내 정신 이상이 생겨 거리로 뛰쳐나갔고,

나중에는 행려병자로 죽었다고 전한다.

같은 곳 줄행랑 30호에도 도깨비가 나타났다. 이 집에는 소월이라는 예명을 쓰는 오현녀라는 기생이 살았다. 역시 날이 흐리고 꾸물꾸물하는 밤이면 ‘우당통탕’ 하는 소리가 났다. 때로는 벼락 치는 소리가 나서 들창이 우수수하고 흔들리고 문이 들썩거리는가 하면, 창문 밖에서는 뭔가 옷자락이 펄럭펄럭하면서 사람의 인기척이 나기도 했고, 마루에서는 콩을 쏟아붓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고 한다. 기생 소월 역시 무서워서 밤에는 꿈쩍 못하다가 아침에 나가 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깨끗하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란히 붙어 있는 이웃집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하니, 도깨비장난으로 보았다. 그래서 소월은 결국은 보따리를 싸 들고 이사를 가 버리고 말았다. 이상하게도 그 뒤로부터는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한때 이곳의 관할 본정경찰서에서 신고를 받고 근처에서 잠복근무를 했지만, 이상하게 도깨비는 나타나지 않았다.¹⁷³⁾

3. 광복 이후의 청계천

1) 청계천 복개 사업의 시작

1945년 광복을 즈음하여 청계천에는 토사와 쓰레기가 하천 바닥을 뒤덮고 있었으며, 천변을 따라 어지럽게 늘어선 판잣집들과 이곳에서 쏟아지는 생활 하수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다.

1949년 9월에 7,485만 원을 들여 11월말까지 광통교에서 오간수교까지 청계천을 준설하는 계획¹⁷⁴⁾을 세워 추진하였는데, 파낸 흙은 청량리~성동역까지의 저지대를 메우기로 하였다. 하지만 12월이 되어도 공사는 지지부진하였다. 그 이유는 업자가 배급받은 휘발유를 공사 차량에 넣지 않고 횡령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¹⁷⁵⁾

1953년 휴전 이후에는 생계를 위하여 서울로 모여든 피난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다시 청계천변에 정착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들은 반은 땅 위에, 반은 물 위에 떠 있는 판잣집을 짓고 생활하였다. 청계천변을 따라 어지럽게 형성된 판자촌과 여기에서 쏟아내는 생활 하수로 청계천은 더욱 빠르게 오염되어 갔다.

청계천 오염 등을 막기 위한 복개

일제 강점기에 도심 한복판을 흐르면서 경관 면이나 위생 면에서 심각

한 악영향을 끼치는 청계천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해야 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은 '복개(覆蓋)'였다.

개천을 복개하려는 시도는 1905년 대한제국 때 있었다.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내정을 장악한 일제가 남대문 시장을 폐쇄하려고 하자 남대문시장 상인을 비롯한 우리나라 상인들이 청계천의 일부 구간을 복개하여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청계천 복개가 시도된 것은 일제 강점기이다. 청계천은 시가지 중심을 꿰뚫는 배수 간선이면서도 하수가 땅속으로 흐르도록 암거화(暗渠化)되지 않음에 따라 토사와 쓰레기의 퇴적으로 해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준설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청계천 복개의 필요성은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엄청난 하수가 시가지 중심을 흐름에 따라 악취가 발생하여 청계천 양안(兩岸) 주민 생활에 고통을 주는 등 생활 환경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경관 면으로도 좋지 않았다. 또한 이 당시 도시를 관통하는 도로가 부족하여 청계천을 복개하면 교통 소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950년대 중반의 청계천은 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나라의 가난하고 불결한 상황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빈민 거주지, 슬럼(slum) 지역이었으



6·25전쟁 직후의 청계천 하류 지역



청계천 하류 지역의 판자촌

므로 청계천을 그대로 두고 서울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다. 기초적인 생활필수품을 스스로 생산하기 어려웠던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볼 때 청계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우면서도 유일한 방법은 '복개' 뿐이었다.

청계천 복개는 1955년 광통교 상류의 약 136m를 복개한 것을 시작으로 1958년부터 1977년까지 5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 ① 제1차는 1958년에 대광교에서 장교(長橋)까지 450m 구간 복개
- ② 제2차는 1958년 12월부터 1959년 8월까지 장교에서 주교(舟橋), 방산시장) 앞까지 969.5m 구간 복개
- ③ 제3차는 1961년 12월까지 방산교에서 오간수교까지(평화상가) 232m 구간의 암거 하부(暗渠下部) 공사
- ④ 제4차는 1965년~1967년에 청계 6가에서 청계 8가 신설동까지 복개
- ⑤ 제5차는 1970년~1977년에 청계 8가에서 신답철교까지 복개

대광교에서 장교(長橋)까지 제1차 청계천 복개 공사는 1958년 5월 25일에 착공되어 10월 말까지 준공하기로 계획되었다. 이 공사는 당국이 책정한 가격보다도 4,500만 환이 낮은 7,400만 환(책정액의 65%)으로 대림(大林)산업에 낙찰되었다.¹⁷⁶⁾

청계천 복개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1959년 초에 청계천변 상인들이 서울시에 청계천 도로에 고가도로를 만들되 그 밑에 점포 2,000개를 만들게 해 주면 공사비 35억 환은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하자, 허정(許政) 시장은 “이상은 좋지만 현실은 쉬운 것이 아니다. 공사비 중 20억 환을 보여 주면 고려하겠다.”고 말하였다.¹⁷⁷⁾ 이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부정적이었다.

청계천 2가(장교)~오간수교 간 청계천 복개 공사가 끝난 1961년 12

월 5일, 동대문 옆 오간수교에서 청계천 복개 공사 개통식이 거행되었다. 공사비 23억 3,200여만 환을 들여 만 4년 3개월 만인 1965년에 준공된 이 도로는 총 연장 2,358m로, 너비 15m~54m였다. 1961년에는 청계천 방산교에서 오간수교에 이르는 640m를 복개하였다. 이날 윤태일 서울시장 은 개통식에서 “이 공사로 청계천의 더러운 물이 가려져 시민 보건에 도움을 주고 교통난을 완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¹⁷⁸⁾

1966년에 ‘불도저’ 시장으로 불리는 김현옥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청계천변 판자촌이 철거되어 청계천 상가아파트, 청계고가도로와 세운상가 건물이 세워졌다.

1967년 10월 20일에는 오간수교~제2청계교 간 복개 공사를 끝내고 개통하였다.

제2청계교~마장동 구간까지는 1970년 11월 20일에 착공하여 1971년 8월 15일에 완공되었다.¹⁷⁹⁾ 청계천의 마장교~철교에 이르는 길이 284m 너비 78m의 청계천 복개 공사는 1977년 5월 3일에 시작되었다. 10억 300만 원을 들여 1977년 12월 말에 완공 예정이던 이 복개 공사가 마무리 되면 8,800평의 공간이 마련되어 동마장 시외버스터미널을 옮기게 되고, 청계천에서 풍기는 악취도 막을 수 있었다.¹⁸⁰⁾

이와 같이 청계천은 1961년 이후 1970년까지 2~3년만 제외하고는 매년 상당 부분의 복개 공사가 시행되어 일제가 태평동~무교동 구간을 복개한 때로부터 약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1977년에는 신답철교까지 복개되었다. 이로써 600년간 서울 주민과 호흡을 같이했던 청계천은 그 수명을 다하고 땅속으로 묻혀 버렸다. 그리고 확장된 도로변을 따라 신평화시장, 삼일아파트 등의 현대식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청계천 복개도로 개통으로 서울의 종로와 을지로 방면의 교통량이 분산 흡수되었다.

한편 청계고가도로는 3·1로에서 동대문까지 2,700m와 3·1빌딩에서 남산 제1호 터널까지의 441m, 모두 3,141m 구간을 폭 10.3~16m로

시설하였다. 그중 3·1로에서 오간수교까지의 구간은 청계천 복개도로의 상부에 시설된 것으로 도심의 교통을 고속화하여 외곽으로 소산시킨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고가도로의 건설을 의미하였다.

총 길이 5,600m, 폭 16m의 청계고가도로는 세운상가~오간수교 간을 1967년 10월 14일에 착공하여, 1969년 3월 22일에 명동성당~용두동 제2청계교 구간이 먼저 개통되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 내외와 김현옥 서울시장 등이 테이프를 끊어 개통되었다.

3·1로에서 제2청계교에 이르는 총 연장 3,740m, 폭 16m의 4차선인 이 고가도로는 17개월 만에 내자 11억 원, 외자 4억 3,000만 원 등 15억 3,000만 원을 들여 청계천 복개도로 위에 또 하나의 길로 개통되었다.¹⁸¹⁾

청계천의 복개는 서울 주민의 생활에 엄청난 변혁을 가져왔다. 청계천 주변에 어지럽게 늘어선 판잣집은 헐리고, 대신 현대식 상가 건물이 들어섰으며, 토사와 쓰레기, 오수가 흐르던 하천은 깨끗하게 단장된 아스팔트 도로에 묻혔다. 시원하게 뚫린 복개도로와 고가도로 위에는 자동차들이 쏟아져 달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울의 가장 부끄러운 곳이었던 청계천은 근대화·산업화의 상징으로 서울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복개된 청계천변에 야시장(夜市場)이 1962년 3월 21일에 개장되었다. 100여 점포로 이루어진 이 야 시장은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문을 열어 놓고 고객들을 맞게 되었다.¹⁸²⁾

반면 청계천 복개로 주변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봉천동, 신림동, 상계동 등으로 강제 이주되어 또 다른 빈곤의 상징인 ‘달동네’를 형성하였고, 청계천변에서 상업을 하던 영세 상인들도 다른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그리고 광통교와 같은 소중한 문화유산도 함께 훼손되었다.

청계천 복개 이후 약 40여 년간 청계천은 도심 산업의 중심지로서 복개도로 양편에 공구상, 조명가게, 신발상회, 의류상가, 헌책방, 벼룩시장 등 크고 작은 상가들이 밀집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복



청계천 복개 공사 기공식(1960년대)

개도로와 고가도로에는 하루에도 수십만 대의 차량들이 지나 다녔다.

이때부터 청계천은 서울에서 가장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의 대명사가 되어 청계천 주변을 낙후(落後)시키고, 서울의 이미지를 해치는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었다. 또한 청계고가도로를 이루고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는 근대화·산업화의 상징이 아니라 개발 시대의 무지(無知)가 낳은 흉물로 인식되었다.

청계천 복개 25년 후인 1984년 1월, 경향신문 특별취재팀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환경연구팀, 서울대 생태계연구팀이 2개월 동안 공동으로 청계천 복개 하천에 대한 종합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 하수와 각종 폐수 오염 물질로 폐천(廢川)이 되어 버린 청계천 내부가 상상했던 만큼 흑독한 상태가 아님을 확인한 적이 있었다.

즉 청계천 수질이 복개 당시보다 현저하게 좋아져 지렁이, 쥐들이 서식하는 등 나뭇대로의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고, 가연성 물질도 제한 수치를 크게 밑돌아 항간의 억측과 소문이 기우(杞憂)였음을 밝혀냈다. 버려진 이 하천이 '죽음의 늪'에서 '생명의 늪'으로 서서히 탈바꿈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¹⁸³⁾

서울시는 1997년 2월 17일, 하천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하천 복개나 제방 겸용 도로를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복개 하천이 채광과 통풍이 되지 않아 하수도화되고 있는 데다가 식물과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은데에 따른 것이다.

1997년 당시 서울 시내의 복개 하천은 35개 하천 238km 중 청계천, 홍제천 등 26개 하천 61km(26%)였는데,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부족한 도로 등을 확보하거나 별도 보상이 필요 없고 민원이 없어서 복개 방식에 의한 도로 건설이 주로 이용되어 왔다.¹⁸⁴⁾

맑은 물이 흘러 이름에 걸맞던 청계천

조선 500년간과 일제 강점기에 걸쳐 서울 시민들의 하수구 역할을 하던 청계천에 맑은 물이 흘러 '맑은 계곡 시내'인 청계천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

청계천이 큰 변화를 겪은 시기는 아마도 6·25전쟁 때일 것이다. 1·4후퇴로 서울 시민이 거의 남쪽으로 피난하여 서울이 텅 비었을 때의 일이다. 피난으로 청계천변에 주민이 거의 살지 않고 상류에서 생활 용수를 버리는 사람들이 없어진 탓으로 이 청계천에는 이름 그대로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내렸다. 이 물은 그 후로 근 1년간 흘렀으며, 물속에는 송사리와 피라미 떼가 몰려다니며 꼬리 치던 일도 있었다. 그러나 1952년에 한강 도강(渡江) 수속이 점차 완화된 서울 시민들이 모여 살게 되자 청계천은 더러웠던 옛 모습을 찾기 시작했고, 정부가 부산으로부터 환도하였

을 때는 서울시에서 일대 준설 공사를 하였다.

일제 때까지도 수표교 밑에서는 여름 장마철에 벌거숭이 소년들이 햇불을 들고 물놀이를 겸한 송사리 잡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또한 청계천 교량 밑에 사는 걸인들이 청계천의 미꾸라지를 잡아 추어탕 집에 팔았다는 이야기가 전해 오고, 1950년대까지도 청계천 하류의 마장동 지역에서는 여름이면 미꾸라지를 잡았다는 주민들의 어릴 때 회고담을 들을 수 있다.

광복 후의 청계천 홍수 피해

6·25전쟁이 휴전된 지 1개월이 지난 1953년 8월 13일, 서울시에 내린 집중 호우로 도로가 물에 잠기고 전차와 택시 운행이 중지되었다. 이 비로 서울 시내의 가옥 5,364호가 침수되고, 5명이 사망, 7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21,80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이 당시 청계천변 방산시장의 점포를 비롯한 94호의 가옥이 유실되었다.¹⁸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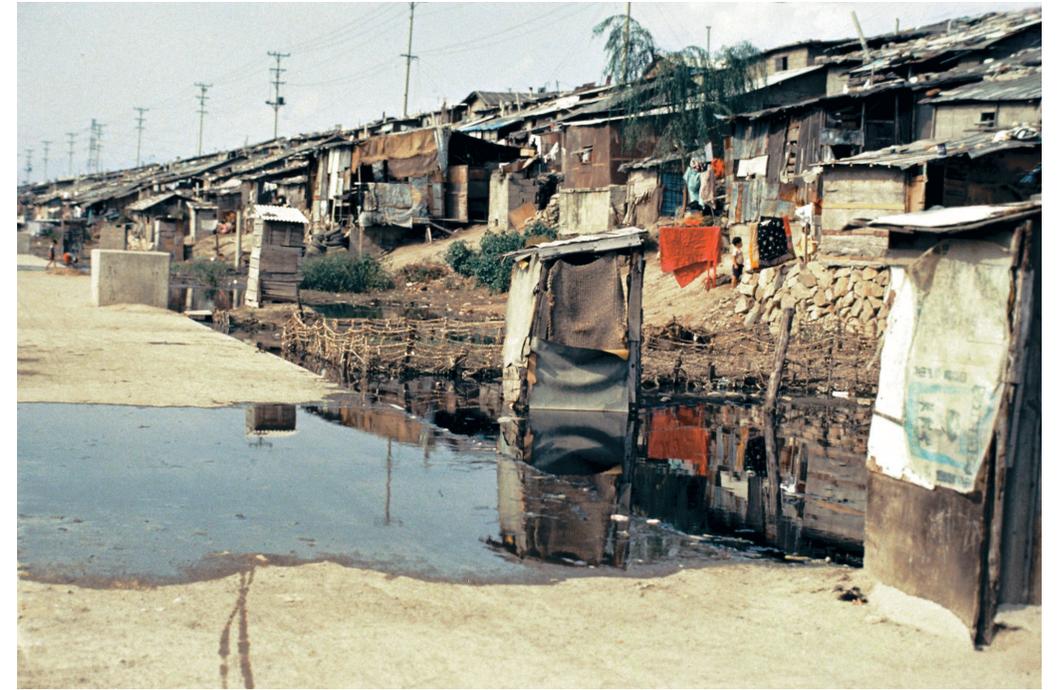
1954년 7월 28일 새벽 1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6시경부터 폭우로 변하여 곳곳에 수해를 입혔다. 이날 서울은 오전 10시경까지 쏟아지는 비로 시내 전역이 물바다로 변하여 일시 교통까지 두절되는 혼란이 일어나고, 청계천이 범람하여 주변 주택지를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이날 오전 1시부터 9시 반까지 118.1mm나 되는 폭우가 서울을 중심으로 내렸으며, 7월 16일부터 26일 오후까지 내린 강우량은 340mm이었다.

1954년 7월 28일 오전 9시 반부터 10시 사이에 청계천이 범람할 위기에 놓여 경찰이 비상경계를 발하고, 의용소방대원 수백 명을 동원 대기 하였으나 비가 그침으로써 피해는 입지 않았다.¹⁸⁶⁾

1966년 7월엔 장맛비가 먼저 서울을 비롯한 중부 일대를 강타, 치수 대책을 게을리 한 탓으로 44명이나 되는 귀한 인명 피해를 냈다. 총 5억 3,000여 만 원의 재산 손실과 26,000여 명을 헤아리는 이재민이 삽시간에



청계천의 판잣집(노무라 모토유키, 청계천문화관 제공)



청계천 하류 지역의 판잣집(노무라 모토유키, 청계천문화관 제공)

살불이와 가재도구마저 잃고, 습기 찬 교실 바닥과 비 새는 천막에서 주림과 병마까지 겹쳐 고생하게 되었다.

풍수해는 해마다 겪어 오는 터였지만, 특히 가장 피해가 컸던 서울시는 너무나 방비가 소홀했다. 인구 350만의 서울이 수도가 아니라 ‘수도(水都)’라는 달갑잖은 별명까지 붙은 수해 무방비 도시로 벌거숭이 알몸을 송두리째 드러내게 되었다.

1966년 7월의 첫 번째 수해 요인은 한강 유역을 비롯하여, 둔치(河川敷地) 위의 무허가 판잣집이 무려 8,109동에 달한다는 데에 있었다. 그중 청계천변에는 2,033동이 들어서 있었다. 몇 시간 비가 쏟아지면 도심지에 서도 침수 소동이 일어났다. 수해 지구의 판잣집 주민들은 물이 조금만 불어도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되지만 물이 빠지면 또 들어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였다.

서울의 두 번째 수해 요인은 인구가 늘고 수도권은 넓어지는데 하수

도 시설은 이에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도되었다.¹⁸⁷⁾

1972년 8월 19일, 서울에 폭우가 내렸다. 마장교 동쪽 하류 지역은 중랑천변과 마찬가지로 2,000여 동의 무허가 건물이 밀집, 만성 침수의 취약성을 드러내었으며, 성동구 군자동에 건설하고 있는 청계천 하수처리장 공사장 주변 중랑천과의 합류 지역 일대는 수십만 평에 달하는 우수성 지반으로 수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정비 계획이 요망되었다. 답십리 1·2동 일대는 이 폭우로 예상보다 침수 면적이 훨씬 늘어났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8·19 수마는 27억의 예산으로 건설 중인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장 언저리의 저지대 하천 제방의 배수 관리에 하나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다. 전농천까지 유입하는 이 일대 우수성 저지대 지형은 향후 완공될 하수처리장의 수방과 부근 농경지 보존에 큰 문제점을 안겨 주었다. 그리고 들

관 제방 변에 산재해 있는 무허가 건물 일부는 대충 정리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무허가 건물이 산재해 있었다.

이 당시 성동구 능동에 사는 주민은 “하수처리장 주변 제방 보강이 절실하고 수문 관리를 잘해 달라”고 강조하고, 전농제방에서 중랑천으로 들어가는 배수량에 비해 현존 수문이 너무 작다고 말하면서 수문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⁸⁸⁾

청계천 축대 개수 조건으로 무허가 시장의 개축 허가

6·25전쟁 이후 서울로 모여든 피난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청계천변에 정착하는 현상으로 무허가 시장이 생겼다. 서울시는 도시 미관상 좋지 않은 청계천변 무허가 상점인 이른바 ‘하꼬방’ (판잣집)을 몇 번이나 철거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철거를 강행하지 못한 서울시는 1953년 4월에 524명의 회원이 가입된 청계상우회(淸溪商友會)에 파괴된 청계천변 제방을 수축하는 교환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내 주었다. 이리하여 청계천변 ‘하꼬방’은 서울시의 허가로 대대적인 개축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청계상우회가 점포 개축비로 매 점포당 14,500환을 4월 28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점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회람으로 돌리자 돈을 낼 수 없는 상인들의 불평이 높았다.¹⁸⁹⁾

이 당시 국유지인 청계천변이 허가를 얻은 시장이 되자 이 지역의 가점포 대지 1필지를 5만~6만 환의 고가로 매매하는 사기꾼이 나타났으므로 서울시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였다.

판잣집의 난립으로 인한 청계천 준설의 어려움

청계천이 복개되기 전 1957년 6월에 서울시는 내무부의 지원으로 청계천의 광교로부터 오간수교까지 하상(河床)에 쌓인 흙을 1m 정도 준설하기로 계획하였다. 종로3가에서부터 오간수교까지의 청계천 양편에 준비하게 늘

어선 약 3,000호에 달하는 판자 점포는 준설 공사 진행에 많은 지장을 끼치고 있었다. 서울시는 판자 점포를 철거하지 않고는 본격적인 준설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현재의 서울시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판자 점포를 철거시킬 능력이 없다”고 비관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서울시는 이미 3년 전에 청계천 양편의 판자 점포 철거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이 문제가 국회에까지 상정됨으로써 부득이 1957년까지 판자 점포를 방치한 채 응급적인 준설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판자 점포가 철거되지 않아 본격적인 준설은 할 수 없었으므로 우선 청계천 주변의 2만 호에 달하는 주민들을 홍수 때 청계천 범람의 위기에서 막아 내기 위하여 청계천 한복판에 깊은 수로(水路)만을 내는 공사를 진행하였다.¹⁹⁰⁾

1958년부터 시작된 청계천 복개 공사로 서울시 경찰국에서 청계천변의 무허가 판잣집을 헐기 위해 철거 계고장(戒告狀)을 발부하였는데, 철거 지역 부근의 평화시장 내에는 새로 50채의 판잣집이 세워진 것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무허가 판잣집을 세우는 것을 막고 있는 경찰의 단속을 비웃고 있는 것 같다고 보도되었다.¹⁹¹⁾

5·16쿠데타 직후인 1961년 5월 23일 서울시는 청계천 2가~5가에 복개된 양편의 무허가 판잣집을 헐어 내고,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등 보도를 정리하였다.

서울시는 1978년 1월 19일 청계천2가~마장동 사이의 4,4475m 구간에 있는 1만 3,251개소의 각종 점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중 50%는 오염원 배출, 교통 체증 요인 유발이 심하므로 빠른 시일 안에 외곽 지대로 옮길 방침이라고 신문에 보도되었다.

한강 수질 오염과 도심 교통 체증의 요인이 되고 있는 청계천변 자동차 부속품상, 고물상, 섬유류 제품상을 외곽 지대로 옮기기로 한 서울시는 시립산업대학의 수도권연구소에 ‘유통 구조개선을 위한 도심 기능

의 재배치 계획에 관한 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이들 업소 중 자동차 부속품 등 기계류 점포는 966개소, 전자제품 점포 398개소, 봉제품 점포 5,528개소, 고물하치장 68개소 등으로 파악되었으며,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3만 6,711명으로 집계됐다.¹⁹²⁾

2) 철거와 이주의 사회사(社會史)

청계천변 판잣집 철거민의 이주

1971년 6월 23일, 청계천고가도로의 연장으로 청계천변의 무허가 판자 건물 2,628동이 완전히 철거됨으로써 불결하던 청계천 하류가 말끔해졌다. 이 당시 철거된 무허가 건물의 주민 5,519가구는 광주대단지(성남시)에 모두 이주하였다. 이 판자촌 철거로 청계천 하류에는 3만 5,600여 평의 땅이 확보되었다.¹⁹³⁾

1976년 7월 20일, 청계천변 판자촌 철거민 50가구가 서울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雨汀面) 이화리(梨花里) 남양만 간척지에 집단으로 귀농(歸農) 이주하였다. 700만 평의 광활한 간척지에서 지역 개발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한편 남양만 개발의 전초지인 이곳에 우선 400여 평 대지 위에 92평의 남양 지역사회관을 건립, 농촌 풍습에 따라 지신밟기를 하는 등 이날 다채로운 개관식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청계천변에서 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집단 귀농을 주선한 활빈교회 김진홍(金鎭洪) 전도사(35) 등 교인과 이화리 원주민 등 200여 명도 참석, 이주민들의 무궁한 발전을 축복해 주었다. 이 지역사회관은 청계천 철거민 이주를 돕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서독, 일본 등의 교회에서 보낸 1,600만 원으로 건립, 주일 예배 시간 외에는 농민 교육탁아소로 이용키로 했으며, 특별히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어 농한기의 농민 교육에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당초에는 100가구를 집단 이주시키기로 했으나 우선 50가구 257명만 입주가 결정됐는데, 이들 귀농민은 영농(營農)의 경험이 있고 한 가구당 2명 이상의 노동력이 있는 가구들이었다.

간척지엔 아직도 염분이 많아 제대로 농사가 안 될 것을 고려하여 이들 이주민들에겐 향후 2년간의 생계비와 영농비를 호주교회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또 탁아소의 운영과 생계비 일부는 독일교회가 부담키로 했으며,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보건소 설치 운영은 미국교회가 맡고, 지역 사회 개발을 전공한 2명의 박사를 파견키로 했으며, 일본교회에서도 2명의 농업 기술자를 파견, 영농 기술을 지도하기로 했다.

이들 50가구 주민들은 1가구당 3,000평의 토지를 분할받았다. 조건은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으로 토지 대금을 내기로 하고, 건설부에서 이곳에 주택 마련을 끝내는 대로 입주, 개간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¹⁹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청계천변 상가의 이주와 재개발

청계천변 일대는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 간선도로변인데도 철재 수송 차량들의 노상 주차로 체증과 혼잡을 이루고, 불량 건물이 늘어서서 도시 미관을 크게 해쳤다.

서울시는 1982년 11월 1일, 청계천3, 4가 일대의 철재상 이전 부지로 예정된 구로구 시흥동 966번지 일대 1만 1,563평이 풍치지구에서 해제되면 1983년 초부터 청계천변 169개 철재상들이 입주할 철재상 단지를 건립하고, 철재상들이 이전한 청계천3, 4가 일대의 이적지(移籍地) 3,000여 평에 대한 재개발 계획을 마련, 주변을 말끔히 정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¹⁹⁵⁾

1983년 6월, 청계천변과 종로3가 일대에 난립되어 있던 자동차 부품상들이 동대문구 장안동 246번지 신축 상가로 옮겼다. 이 상가는 대지 1만 4,092㎡(4,263평)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건평 1만 2,000평으로 상가

건물 4개 동에 점포 759개를 갖추었다.

장안동 상가건물은 서울시의 도심 부적격 시설 이전 방침에 따라 관련 상인들이 연합회를 구성, 1981년에 공사비 60억 원을 들여 착공한 것이다.¹⁹⁶⁾

또한 청계천 주변의 각종 공구 및 부품상들은 자체 조합을 구성하여 1987년 말까지 구로구 구로동 625번지 일대 구로 공구상가 옆에 대단위 기계 부품 단지를 만들어 이전하기로 하였다.

청계천 부품상 이전은 서울시가 도심 부적격 업소로 판정했기 때문이다. 이전 대상은 기계 공구, 베어링, 전기 제품, 전동기, 유·공압 기기, 상하수도 기기, 냉난방 기기, 고무 제품, 비철금속 판매상 등이었다.

부품상조합은 3만 3,000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1985년 말경 2,000여 개의 점포와 사무실 등을 갖춘 연건평 6만 평 규모의 대단위 상가 건립에 착수한다고 보도되었다. 영세 입주 상인에게는 분담금의 30%를 은행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수립되었다.¹⁹⁷⁾

서울시는 청계천 세운상가를 도심 부적격 시설로 지정하여 용산 전자상가로의 이전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1987년에 용산 전자상가가 개장하였다. 용산 전자상가가 그동안의 입주 및 영업부진에서 벗어나 95%의 입주율과 컴퓨터·가전제품 판매가 상승세를 보이자 서울시는 전자상가의 이원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용산 전자상가와 청계천 세운상가의 상권 경쟁이 치열해졌다.

청계천 세운상가는 전자상가의 원조라는 자부심과 상권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¹⁹⁸⁾

청계천7가 남쪽의 삼일아파트는 1970년대 청계천변에서 바라보이는 판자촌을 가리는 용도와 철거민 입주용으로 서울시가 청계천변 남북

쪽에 건축하였다. 이 지역은 1970년에 지은 삼일아파트가 청계천로를 따라 일자로 줄지어 있고, 낮은 단독 주택 400여 채가 몰려 있었다. 서울 도심의 대표적 불량 주택 지역인 이곳에는 각종 중고품과 골동품 등을 사고파는 황학동 벼룩시장도 들어서 있었다.

서울시는 1995년 4월 12일, 중구 황학동 2085번지 일대의 황학구역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 심의를 마치고, 5월에 사업 시행을 인가하였다.

재개발 대상인 청계천 남쪽 삼일아파트는 10~15평 규모의 12개 동에 941가구가 살고 있었다. 황학재개발조합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부지 규모는 1만 2,000여 평이 되었다.

이에 따라 청계천7가 남쪽 삼일아파트 12개 동과 황학동 벼룩시장 일대의 낡은 건물들이 철거되고, 강북에서 가장 높은 30~35층 규모의 롯데캐슬 주상복합건물 군이 세워짐에 따라 청계천 일대의 면모가 일신되었다.¹⁹⁹⁾

청계천 다리 밑의 '뱀 장수'

1958년에 청계천의 광교에서 장교까지 450m 구간이 복개되자 기구한 역사를 지닌 청계천도 이제 시대의 요구에 의해 덮이고, 그 위에는 신작로



복개된 청계천(1960년대 말)

가 생겼다. 청계천변에서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시민들 중에는 청계천의 역사가 파묻히게 된 것을 마음속으로는 무척 서운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

광교, 배다리 그리고 오간수교 다리 밑에는 '뱀 장수'가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뱀 장수가 이 다리 밑에 자리한 것은 100년은 넘었으리라고 추측하였다. 뱀 장수들은 다리 밑에 판자, 천막 조각 등을 모아다가 잠자리를 만든 뒤 이곳에서 살림도 하고, 장사도 하였다. 여름철에 장마가 질 때면 다리 밑에 바짝 선반을 매고, 그곳에 뱀과 가재도구 등을 피난시켰다. 1958년까지도 뱀 장수는 '구렁이', '살무사', '점박이' 라고 쓴 간판을 걸고 다리 밑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뱀 장수들은 조선 초에도 있었다. 청계천을 준설할 때 나온 흙을 청계천변에 쌓아 생긴 가산(假山)은 조선 초부터 한양 걸인들의 집회소가 되었으며, 이들의 수는 수백 명이나 되었다.

서울에서 거지를 땅꾼이라 부른 것은 가산에 땅굴을 파고 살았기 때문이다. "다리 밑이라도 정들여 놓으면 떠나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들은 벌써 여러 사람의 뒤를 이어 뱀 장수를 해 온 후예들이었다.

다리 밑에 사는 사람은 뱀 장수뿐이 아니었다. 거지와 녀마주이들도 움막을 만들어 살았다. 거지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배(?)들이 언제부터 다리 밑에 살기 시작하였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이들이 이곳에 산 것은 100여년은 넘었을 것이라고 청계천변에 사는 고로(故老)들은 추측하였다. 이곳에 살던 거지들은 그래도 착실한 편으로 휴지, 고물, 쓰레기 등을 모아서 팔아 돈을 벌어 1, 2년 후면 모은 돈으로 장사를 하여 분가, 독립하는 이들이 많았다.²⁰⁰⁾

6·25전쟁 후에 오간수다리 밑에는 염색소가 있었다. 당시는 살기가 어려운 때여서 민간인들도 군복을 입고 다녔는데, 검은색으로 염색해야 헌병에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염색하는 집이 성업 중이었다. 그래서

가득이나 생활 하수로 오염된 청계천에 검은 염색 물을 흘려 버림으로써 시커먼 물이 항상 흐르게 되었다.

청계천변 판잣집의 잇따른 화재

6·25전쟁 이후에 청계천 양편에 즐비하게 늘어선 판잣집은 화재에 무방비이고 소방 도로도 없는 관계로 화재가 나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였다.

1957년 11월 2일, 청계천변 평화시장의 화재로 판자 점포 40여 동이 소실되었다. 이어서 1958년 3월 1일 새벽에도 청계천변의 시장이 화재로 잿더미가 되었다. 서울시는 잿더미가 된 청계천변 시장터에 새로운 판자 점포 건축을 금지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만일 야음을 이용하여 판잣집을 짓는 것이 발견될 때는 곧 경찰을 동원하여 이를 철거시키겠다고 하였다. 서울시는 도시 미관상 좋지 않은 청계천변의 판자 점포의 화재를 계기로 다른 지역의 강제 철거는 일시 보류하더라도 화재 터 위의 새로운 판잣집 건축은 철저히 금지하겠다고 발표는 하였으나²⁰¹⁾ 실제로 집행하지는 못한 관계로 화재는 빈발하였다.

○ 343동이 전소된 송인동 청계천변의 판자촌

1969년 11월 18일에 송인동 청계천변의 판자촌에서 화재가 발생, 판잣집 80여동이 전소, 220여 세대 1,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부근의 송신 국민학교에 수용되었다. 1970년 4월 12일에는 용두동 청계천변 판자촌 화재로 343동이 전소되어 695여 세대 3,5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 연탄아궁이 과열로 106동이 전소된 마장동 청계천변의 판자촌

1973년 1월 7일 새벽 2시 20분경, 성동구 마장동 588번지 홍의표(洪義杓, 35) 집에서 연탄아궁이 과열로 불이나 인근 청계천변 판잣집 106동을 모두 태우고, 2시간 30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1,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

생하였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날 불은 부근 판자촌 일대로 삼시간에 번졌는데 “불이야” 하는 소리에 놀라 단잠에서 깬 주민들은 밖으로 뛰어나와 불타는 광경을 바라볼 뿐 가재도구 하나 꺼내지 못했다. 긴급 출동한 30여 대의 소방차는 진화 작업에 나섰으나 소방 도로가 좁고, 집이 밀집하여 진화 작업이 늦어져 500여 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이날 불로 집과 가구가 모두 불탄 1,000여 명의 이재민들은 동명초등학교(700명)와 3·1기공사(200명) 삼사(三思)극장(50명) 등에 분산 수용하였다. 경찰은 홍의표를 중실화 혐의로 입건했다.²⁰²⁾

○ **촛불이 이삿짐에 인화되어 88동이 전소된 답십리동 청계천변의 판자촌**
1974년 5월 2일 오후 8시 45분경, 동대문구 답십리 4동 545번지 청계천변 판자촌에서 불이나 판잣집 88채를 전소시키고, 252가구 900여 명의 이재민을 낸 뒤 한 시간 만에 꺼졌다.

이날 불은 노영근(盧永根, 57) 집에 세든 김종수(金鍾洙, 44) 방에서 일어나 순식간에 밀집한 판잣집들에 옮겨 붙었다. 불이 나자 주민들이 가재도구를 좁은 길에 늘어놓아 소방차 20여 대가 출동했으나 3대만이 화재 현장에 접근할 수밖에 없어, 진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화재 원인은 노영근 씨의 집이 전기 요금 체납으로 10일 전부터 단전(斷電)되어 그동안 촛불을 켜 왔는데 이날 이사 온 김종수가 촛불을 켜 놓고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간 사이에 촛불이 이삿짐에 붙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재민들은 답십리4동 동부시장 앞 빈터에 대형텐트 10개를 치고, 임시 수용되었다.²⁰³⁾

○ **원인 미상의 화재로 80여 점포가 전소된 신당동 신평화시장 의류상가**
1976년 7월 23일 오후 9시 3분경, 중구 신당1동 신평화시장상가(대표李

洋洪, 50세) 3층 C동 메리야스 점포에서 원인 모를 불이나 C동의 동쪽 편 3, 4층 의류부 80여 개 점포(150여 평)를 태우고, 3시간 만인 밤 12시경에 꺼졌다. 신평화시장은 상인들이 오후 7시경부터 점포 문을 닫고 모두 철시한 뒤라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대부분 섬유 물질인 상품을 꺼내지 못해 상인들은 피해액이 1억 원(경찰 추산 2천만 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처음에 불은 3층 34호(주인 노순애, 35)에서부터 일어나 경비원 이유웅(李由雄) 등이 재빨리 소화전을 작동시켰으나 수압이 낮아 물이 잘 나오지 않은 데다 점포마다 철제 셔터를 내려 물건을 꺼내지 못해 피해가 컸다. 불이 나자 고가 사다리차 3대를 비롯하여 30여 대의 소방차가 출동했으나, 점포 사이에 방화벽 대신 베니어판 등으로 칸막이를 했을 뿐이어서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경찰은 화인을 누전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섬유 물질이 타면서 나온 독한 연기가 청계천7가 일대에 퍼져 부근 주민과 행인들은 한때 호흡 장애를 일으키기도 했다.²⁰⁴⁾

복개된 청계천의 메탄가스 폭발

1962년 1월 말에 필동 근방의 청계천 밑바닥에서 소규모의 폭발 사고가 있었다. 서울시 건설국에서는 1962년 2월 초순에 시내 청계천 하류의 메탄가스 유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개 공사 착수 당시부터 가스의 폭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였으나 소규모의 폭발 사고가 있자 조사 계획을 발표하였다.²⁰⁵⁾

1968년 12월 9일 오전 11시 50분경 중구 수하동에서 청계천으로 빠지는 세 곳의 하수구에서 2, 3초 간격을 두고 메탄가스가 연쇄적으로 폭발, 콘크리트 맨홀 뚜껑이 날아가 행인이 다치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

맨 처음 폭음은 수하동 37번지 성림주점 앞의 맨홀(직경 75cm)과 금

수(金水)여관 안에 있는 조그마한 하수구 뚜껑이 폭음과 함께 흰 연기를 내면서 폭발하고, 2, 3초 후에는 을지로2가 27번지 성호(星湖)주점 앞길의 콘크리트 맨홀 뚜껑이 폭발했다. 때마침 야채를 끌고 이 맨홀 위를 지나가던 야채상 김태수(金泰洙, 42)가 하수구에 왼쪽다리가 빠져 전치 4일의 타박상을 입었다.

폭발한 하수구는 청계천에서 45m가량 떨어진 곳으로 하수관의 직경은 45cm와 35cm로 연결되어 있었다. 서울시와 경찰의 합동 조사에 의하면 이 맨홀 뚜껑은 콘크리트로 만든 직경 75cm, 두께 12cm의 정방형으로 하수구를 완전 밀폐, 배기가 전혀 되지 않아 청계천과 하수도에서 발생한 메탄가스가 이상 고온으로 상승 작용을 일으켜 팽창,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²⁰⁶⁾

청계천변에 밀집한 흥등가

「동아일보」 1962년 7월 사회면에는 아래와 같은 기사가 실렸다.

5·16쿠데타(1961) 이후 청계천변 판자촌을 이룬 40여 가구의 무허가 하숙집에는 150여 명의 사창(私娼)이 포진하고 있다. 이곳은 최하급에 속하는 곳이어서 반 칸짜리 방으로, 그들을 찾아드는 탕아도 허줄한 사람들뿐이다.

1962년 6·10 통화 개혁 이전에는 그래도 하룻밤 1,500원에서 2,000원, 한 달 평균 40,000원은 생겨서 이럭저럭 사창들도 목숨을 이어 갔으나 최근 경찰의 단속으로 포주(抱主)들의 굴레를 벗어난 뒤 독립하여 자취 생활을 하는 그들은 하루 방세 20원을 물기에도 벅차게 되었으며, 더욱이 지난 6월 13일부터 연 나흘간 동민들까지 들고 일어나 그날 밥 먹기도 어렵게 되었다 한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그들의 성분은 80%가 전라도에서 왔다는 데 국민학교도 못나온 지적 수준이고, 대부분 부모가 없어 귀향할

곳도 없다.

그래서 “몇 푼의 목돈을 장만할 수 있다면 방 한 칸이라도 얻어 장사를 해야겠다”는 막연한 희망들을 갖고, 어두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편 집주인의 경우 평균 3개의 방을 놓고, 하루 60원씩 받아 4~5명의 식구가 생활하고 있는 극빈자들이다.

서울시 경찰국이 짜낸 특정 구역 설정 안을 보면, 첫 단계로는 문맹 퇴치를 한 다음 “식모살이 같은 것은 고되어서 못하겠다”는 그들의 고질화된 안일주의를 뜯어고쳐 근로정신을 불어넣으려고 특수 기술 교육을 펴하고 있다.

그들도 스스로 ‘재건자립부녀회’를 조직, 매일 30원씩 저금하여 윤락의 구렁이에서 몸을 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 중에는 허무주의와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 길에 한번 빠지면 그만이라”는 체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경찰국에서는 기어코 이들을 갱생시킬 수 있다고 자부하고, 특정 구역 인접 지대 시민들에게도 이 취지를 계몽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데 도움을 받겠다고 장담하고 있으나 과연 어떠한 결과를 맺을지?²⁰⁷⁾

같은 시기인 1962년 7월에는 「경향신문」 사회면 기사에 ‘사창(私娼) 특정 지역 설치에 부작용’이라는 제목으로 청계천변의 실정을 밝히고 있다.

즉 서울시정은 서울시의 윤락녀들을 집단 수용하여 이들의 선도를 위한 조치로서 시내 10개 지역에 특정 구역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특정 구역의 설정은 뜻밖에도 주민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의 시비를 일으켰다.

청계천을 끼고 있는 ‘바라크’촌인 이 사창굴 주변에는 성동공업고등학교 및 광희중학교(사창굴에서 2백 미터 지점)와 광희국민학교(약 6백

미터 지점)가 있고, 서울운동장(현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바로 옆에 있었다. 이 ‘바라크’ 촌은 주민들이 사는 주택과 3미터의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이곳 홍인동 주민들은 위와 같은 지리적 조건을 들면서 특정 구역 설정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홍인동 주민들은 같은 달 13일 ‘정화반’을 조직, 2일간 동네 청년들로 하여금 사창굴 입구를 지키며 행인의 출입을 제한시켰다. 그들은 이 때문에 윤락녀 및 포주들과 충돌을 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① 불쌍한 윤락녀들을 생각하면 목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숫자가 배 이상이나 늘어난 지금은 주민들의 자녀 교육에 지장이 많다. ② 근처에 학교가 셋이 있어 이런 환경은 교육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 ③ 특정 구역의 설정은 공창(公娼)을 인정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왕 그럴 바에야 주택과는 좀 떨어진 지역에 이러한 구역을 만들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정 구역을 만들게 된 이유를 경찰은 “윤락녀를 없애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이들을 이렇게 집단 수용시켜 그들에게 필요한 직업 교육을 시킬 계획이다. 현재 미용학교 및 편물학교 등을 설립 중에 있다.”고 설명하였다.²⁰⁸⁾

업혀서 건너는 청계천 하류의 주민들

1963년 12월 18일자 「경향신문」을 보면 ‘짜증나는 도강(渡江)… 등에 업혀 건너며’라는 제목의 고발 기사가 보인다.

교통 기관이 고도로 발달하고 밤이면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한 서울도 원시적인 곳이 많아 절름발이 문명이 비대해 가기만 하는 것을 비웃고 있다.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성동구 마장동을 가로지르는 청계천 하

류를 왕래하는 수많은 주민들은 교량이 없어 지난 2년 여의 군정 기간 중 사람의 등에 업혀 건너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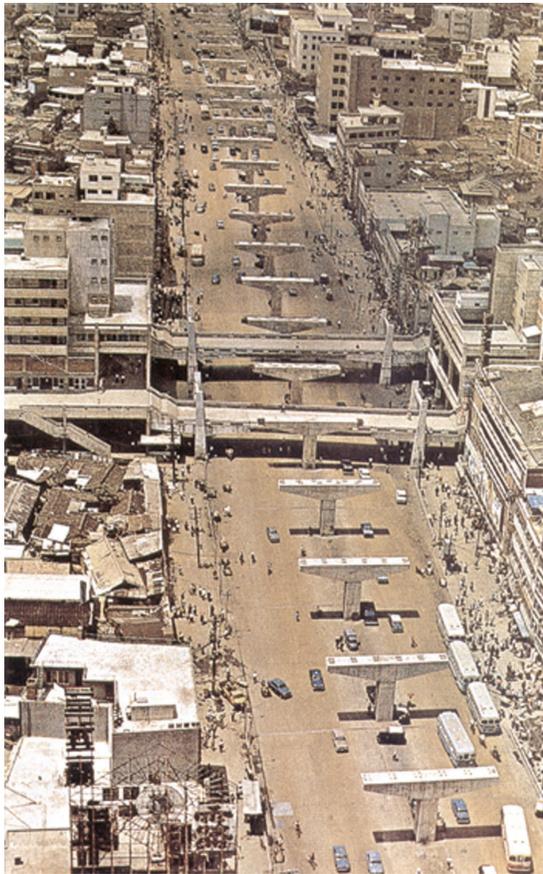
인근에 토막집을 짓고 살고 있는 임종섭(24) 씨가 유일한 교통 수단이 되고 있는 주민들은 사례금으로 담뱃값 정도를 주어 오던 것이 어른 3원, 학생 2원, 어린이 1원씩을 내게 되어 임씨는 매일 2, 3백 원의 벌이가 되고 있다.

청량리와 성동구를 연결하기 위해 마장교(馬場橋) 하류 100m 지점에 민주당 권경 당시 교량(제2마장교)을 놓기 시작하여 교각 2개까지 건설했으나 5·16쿠데타 이후 공사가 중단된 채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청계천 건너에 한영중고교와 대학교, 여학교 등이 있어 학생들의 왕래가 가장 많다는 이곳 주민들은 마장교를 돌아다니자니 20, 30분씩 시간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임씨의 등에 업혀 다니고 있는데 여학생들과 부녀자도 임씨 등에 의존하고 있다.²⁰⁹⁾

이로부터 5년 뒤 1968년 7월 31일자 「경향신문」에 ‘돈 받는 나룻배’라는 제목으로 청계천의 나룻배 운영을 보도하였다. 답십리 100번지 일대와 청계천 건너 마장동 220번지 사이를 잇는 나무다리가 지난 장마 때 떠내려가자 이곳 주민 3,000여 명이 매일 10원씩 내고 나룻배로 건넜다. 나무다리가 떠내려간 후 이점도(李点道, 38, 답십리100) 등 5명이 나룻배를 만들어 구청의 묵인 아래 10원씩 받고 운행하였다. 주민들은 1km 떨어진 마장교를 이용하지 않고, 돈을 내고 나룻배를 이용하였다.²¹⁰⁾

청계천 복개 도로의 철근을 뜯어 판 ‘불가사리’ 부자

1964년 3월 23일, 청계천 4가 천일백화점 부근 복개 도로 밑의 80mm 주철근 8톤이 도난당해 차량 왕래에 위협을 주었다. 이에 서울시는 다리가 있던 청계천4가 도로가 차량 왕래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8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개월간 청계천4가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실시키로



청계고가도로 교각 건설 작업

했다.²¹¹⁾

1966년 1월 13일 오후, 종로4가 청계천 복개 도로 밑에서 철근을 끊고 있던 손태준 부자(父子) 절도범을 경찰이 격투 끝에 체포하였다. 종로경찰서는 장물아비 형제철물상 주인을 구속하고, 장물인 철근도 압수했다.

손씨 부자는 1964년 3월 15일부터 청계천2가와 4가 사이 복개 도로 밑의 약 500m 거리 내에서 24mm 철근 모두 20톤(시가 약100만 원)을 끊어내어 시중에 팔아 왔다. 이들은 충무로4가 '샘표' 간장공장 앞 맨홀로 들어가 청계천2가와 4가 사이 지점에서 쇠톱으로 철근을 끊어 종로구 중학천 복개도로 밑을 통해 삼청동으로 빠져나온 뒤 절취한 철근을 팔아 계(契)도 들고 비교적 윤택한 생활을 해 왔다.²¹²⁾

청계천 하수종합처리장이 세워지다

○ 1966년 AID 차관으로 청계천 하수종합처리장 건설 착공

미국 국제개발처(AID)는 1966년 9월 15일, 서울에 하수오물처리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350만 불의 차관(借款)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차관은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미국 대통령의 협약에 따라 9번째로 승인된 것이다. AID차관 350만 달러와 내자 12억 3,000만 원으로 서울시는 숙원 사업인 청계천 하류의 하수종합처리장건설을 위한 기본 공사를 1966년 10

월 27일에 착공하였다.

이 하수종합처리장은 성동구 군자동 장안평의 15만 평 대지에 세워졌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 하수종합처리장은 서울시의 급수원인 한강의 오염을 제거하여 시민의 위생 조건을 향상시키고, 청계천 물을 인공 화학요법으로 정수(淨水), 맑은 물을 한강으로 내보내며, 처리 찌꺼기로 연간 405만 톤의 비료를 생산하게 되었다.²¹³⁾

○ 1973년 AID 차관으로 중단된 청계천 하수처리장 건설 착공

서울시는 1973년 8월 6일, AID 차관 200만 달러를 새로 도입, 중단 상태에 있던 청계천 하수처리장 본 공사를 1974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청계천하수처리장 건설은 당초 총공사비 52억 원을 들여 1972년 말까지 완공기로 했었으나 공사 자금이 달려 1973년 9월로 준공을 연기했다. 다시 1974년 4월말로 연기하는 등 완공 시기를 두 번이나 연기했는데, 그동안 교섭해 오던 외국 차관 교섭이 늦어져 다시 1974년 말로 준공을 세 번째 연기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침전지(沈澱池) 등 부대시설 공사만 벌여 공사를 65% 선에서 중단하고 있었으나 오니(汚泥) 분쇄기 등 나머지 본 공사 시설 도입 자금 200만 달러를 AID 차관 도입으로 결정하여 다시 본 공사를 진행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청계천 하수처리장이 1974년 말까지 준공되면 청계천으로 흘러오는 공장 폐수, 일반 가정에서 버린 분뇨 등 매일 25만 톤의 하수를 활성오니법(活性汚泥法)에 의해 처리, 정화된 하수를 한강으로 흘러 보내게 된다.²¹⁴⁾

○ 6년 만에 청계천 하수처리장 준공

1976년 9월 21일 상오 10시, 성동구 군자동 현장에서 최규하 국무총리, 신현확 보사부장관, 김재규 건설부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계천 하수처리장 준공식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건설된 이

하수처리장은 내외자 61억 원을 투입하여 1970년 6월에 착공, 6년 3개월 만에 준공되었다.

45,000평의 대지 위에 자리 잡은 이 하수처리장의 준공으로 종로, 중구, 성북, 동대문구 등 청계천 유역 5,600ha에 거주하는 130만 명의 생활 오수를 하루에 25만 톤 정수하게 되었다.

이 하수처리장의 오수(汚水) 정화 방법은 활성오니법으로, 청계천의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B) 평균 350ppm에서 19ppm으로 떨어뜨려 방류함으로써 한강의 수질 보호로 시민들의 건강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이 하수처리장의 준공으로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경인 지구의 수리 이용도를 제고시키게 되었다.²¹⁵⁾

청계천 하수처리장이 가동된 지 20여일 만인 1976년 10월 하순부터 붕어, 피라미 등 물고기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1950년대 하반기부터 사라졌던 물고기가 다시 나타난 곳은 살곶이다리에서 5백여 미터 더 올라간 청계천 하수처리장의 배수구 사이이다. 이에 따라 인근 꼬마들이 매일 떼를 지어 그물이나 반두를 들고 물고기 잡기에 한창이었다.²¹⁶⁾

○ 청계천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용량 증가

1982년 9월, 정부는 한강 본류를 맑게 하기 위해 청계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용량을 현재의 1일 25만 톤에서 50만 톤으로 2배 늘리는 한편 점차적으로 안양천과 난지도에도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1982년 현재 청계하수처리장의 용량은 1일 25만 톤으로 처리 대상 인구가 130만 명인데 비해 절대용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청계천으로 흘러드는 정릉천 등이 완전히 하수도로 변하여 청계하수처리장이 한강을 맑게 하는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어려웠다.²¹⁷⁾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의 분신자살

현재 청계천 버들다리 평화시장 앞은 평화시장 피복 공장 재단사로 일하다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을 한 '전태일(全泰壹) 거리'이다.

1970년 11월 13일 오후 2시경 중구 을지로6가 평화시장 앞길에서 평화시장 재단사친목회원 전태일(23, 성북구 쌍문동 208)이 휘발유를 몸에 끼얹고 분신자살을 기도, 국립의료원을 거쳐 성모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날 오후 10시경에 숨졌다.

전태일은 “기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지켜 달라. 15, 16세의 어린아이들이 일요일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혹사당하고 있으니 당국은 이런 사태를 시정해 달라”고 호소, 미리 준비했던 휘발유로 『근로기준법 해설』이란 책을 태우려다 제지를 받자 자기 몸에 불을 붙인 것이다.

1970년 11월 13일 오후 1시 반부터 평화시장 안의 통일, 동화, 평화 등 재단사친목회에서는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업주들은 근로기준법을 지켜 달라”는 등 현서를 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에 의하면 업주들은 10월 9일 노동청이 노동 조건 개선 지시를 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²¹⁸⁾

1970년 당시 청계천 5~6가 사이에 있는 평화시장 내 각종 기성복 가공업에 종사하는 미싱사, 재단사 조수 등은 2만 7,000여 명에 달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연소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줄 것을 누차 요구하던 전태일이 근로 조건 개선을 부르짖고 분신자살을



‘전태일 다리’에 세워진 기념물

함으로써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버들다리 앞 평화시장 모퉁이에는 “나는 돌아가야 한다.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라는 고 전태일의 말이 써어 있다. 전태일이 분신한 곳에는 ‘말의 꽃을 든 소녀상’이 세워져 있고, 버들다리는 ‘전태일 다리’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마약 소굴로 적발된 청계천 복개 밀

1971년 5월, 박용교(朴龍敎, 42)와 이성호(李成虎, 40) 등 2명과 5명의 일당은 1개월 전부터 청계천 8가 복개 공사장 밑에서 마약 중독자와 인근 우범자들 50여 명에게 마약(麻藥) 주사를 1대에 8백 원씩 받고 놓아 주었다. 그러다가 1971년 5월 13일 오후 8시경에 단골인 김복길(金福吉, 42세)에게 마약 주사를 놓은 것이 잘못되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5월 14일 박용교, 이성호 등 2명을 마약법 위반 및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용남(40)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²¹⁹⁾

‘벼룩시장’으로 불리는 청계천변의 황학동시장

파리 등 외국 도시의 벼룩시장이 관광객들의 명물로 사랑을 받고 있듯이 청계천 7가와 8가 사이의 영도교 남쪽, 성동공업고등학교 동쪽에는 일명 ‘황학동 벼룩시장’ 또는 ‘도깨비시장’, ‘만물시장’이라고 일컫는 고물 시장이 있다.

이 시장은 1950~1960년대 이후부터 생기기 시작한 우리나라 중고품 매장의 원조 격으로, 성동공업고등학교를 낀 담벼락을 시작으로 200미터 정도 늘어선 점포들, 그리고 ‘삼전술하임’ 상가 뒤편에 밀집된 전자 제품, 기계 공구류상 등 여러 업종과 어우러져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2005년 10월에 청계천 복원으로 삼일아파트가 헐리고, 그 자리에 새로 대규모의 롯데캐슬 주상복합 건물과 5층 상가가 신축되면서 위축되었다. 황학동시장 상인들 중의 일부는 장안평으로 이전하고, 일부는 영도교 건너편

의 송인동 동묘 부근으로 옮겨 갔다.

이곳은 일제 때에는 청과 시장으로 유명하였으나 6·25전쟁 후 고물들이 이곳으로 몰려들면서 중고품 전문 시장이 되었다. 황학동시장을 ‘벼룩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은 다 식아가는 맷돌, 광주리, 곰방대 등이 모여 있고, 부지런히 사 모아 뽀얀 먼지가 앉아 털어지지도 않을 이런 물건들에서 당장 벼룩이라도 기어 나올 것 같은 데다, 수집상들이 전국을 벼룩처럼 팔딱팔딱 빠르게 뛰어다니며 수집해 온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황학동시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벼룩시장이다. 온갖 잡동사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헌것과 새것이 교차하는 곳, 버리는 이와 사들이는 이가 함께 오가는 곳, 새 주인을 기다리며 어깨를 겨루는 만물들이 집합하는 곳이다. 어떤 사람은 오래오래 쓰던 물건이 필요 없거나 지겨워져서 내다 버리다시피 고물 장수에게 쓸어 넘긴다.

또 어떤 사람은 리어카에 실려 온 물건을 사들여 고치고 닦아 팔 수 있는 귀한 물건으로 탈바꿈시킨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물건들 속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찾던 물건을 발견하고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흔쾌히 값을 치른다. 그러곤 안방이나 거실에 모셔다 놓고 정성스레 기름걸레로 닦아 가면서 옛 물건의 맛에 몰입한다.

불품 없이 헐고 낡았던 물건도 눈 밝은 새 주인을 만나면 한순간에 신분이 바뀌어 자리를 잡게 된다. 물건의 가치가 몇 십 배로 꺾충 뛰어 고가품이 되고, 예술품이 되고, 그 집안의 가보(家寶)로도 둔갑한다. 가난한 자취생이 만 원짜리 한 장 달랑 쥐고 이 시장을 찾기도 한다.

황학동은 바로 지금의 우리 삶을 대변하고 먼 옛 사람들의 삶을 대변하고, 그래서 미래의 삶까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물건들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모습을 바꾼다. 시대가 흐를수록 내용도 풍부해지

고 품목도 다양해진다. 단순하고 간단한 몇 가지 물건만으로도 넉넉하게 살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고 황학동은 말해 준다. 또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모양새의 물건에 가슴이 찡한 아름다움을 붙여넣을 수 있을 것이다.

고물은 고물이고 가보(家寶)는 가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고물이 보배이고, 보배도 고물일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는 황학동시장은 바로 인간 시장이다. 그리고 세월 시장이다. 시간은 흐르고 문명도 변하지만, 이 '시간'을 초월하여 보여 주는 고물들은 인생이 세월 앞에서는 새옹지마(塞翁之馬)에 불과함을 일깨워 준다.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이 쓰는 물건들도 살아 숨 쉬며 움직이고 있음을 이들은 말없이 보여 준다.

1970년대에는 미술품, 골동품들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많았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점들이 장안평이나 인사동으로 이주함에 따라 이들이 있던 자리에는 전자 제품, 기계 부품 등의 가게들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곳은 귀중한 학술 자료의 제공처가 되고 있으며, 선조들의 체취를 느끼려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소품(小品) 구입처가 되고 있다. 이곳은 오전 10시경이면 신기한 물건을 찾아 나선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한다. 시장 곳곳에 어지럽게 널린 고물들을 바라보는 행인들의 눈길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게 마련이고, 고객을 맞는 상인들의 눈길 또한 분주하기만 하다.

황학동시장을 '만물 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없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고대 인도(印度)의 부족들이 썼다는 탈부터 우리 조상들이 목화씨를 뽑아 내던 씨아, 옛날 시골집에서 볼 수 있었던 동서고금의 진귀한 물건들이 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양주병, 스탠드, 가스버너, 드라이기, 소형 스피커, 낡은 구두…… 그중에 고작 10여 가지 정도 되는 물건을 늘어놓고 있는 상인을 보면, “과연 이것들을 어디에 쓸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진지하게 흥정을 하고, 때로

는 사 가는 사람이 있으므로 이곳 상인들은 고물상에서 본 듯한 물건을 부지런히 늘어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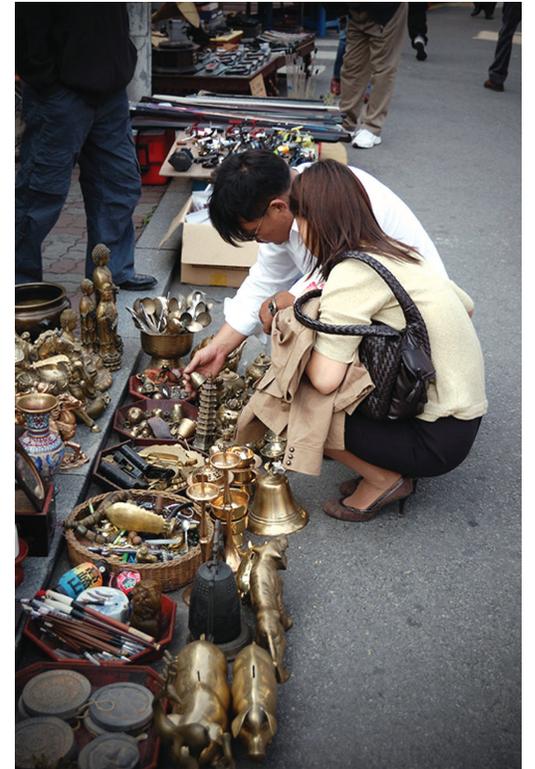
황학동시장을 '도깨비시장'이라고 일컫는 것은, 아무리 오래되고 부서진 물건일지라도 취급 상품에 대해 거의 전문가인 이곳 상인들의 손만 거쳤다 하면 감쪽같이 새것이 되고 실용성 있는 재활용품이 되기 때문이다.

이 도깨비시장은 먼지와 햇빛, 소음, 경찰에 쫓기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터전으로 1980년대 말부터 형성되었는데, 짧은 기간 동안 번창할 수 있게 된 것은 자릿세가 없고 마진이 100%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지만, 하루 수입은 적지 않다. 청계천 복원 전에 저녁 무렵 장이 섰던 것은 무엇보다도 구청 단속반이 퇴근한 이후였던 까닭이었다.

'쇼핑'이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물건만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지혜가 생생히 담겨 있는 곳이기에 활력을 얻는다.²²⁰⁾

『중구문화』 2호(1998)에 수록된 「황학동 골동품 시장」에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이곳은 일제 때까지만 해도 거의 논밭이었다. 벼와 미나리가 자라던 곳인데 아침에 미나리를 팔러 문안으로 가던 뒷목이 까맣



황학동 '벼룩시장'

게 그을린 사람들이 살던 곳이다.

그러던 이곳에 동대문 쪽 시장이 번성하자 야채 장수 등 영세한 상인들이 모여들었고, 바늘에 실 가듯 참기름, 콩기름 장사들까지 모여들어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었다.

광복 후 머리 모양과 옷차림이 자유로워지면서 길게 땡아 늘어뜨린 전통적인 땡기머리를 자르게 되었고, 그 잘린 머리카락을 사모으려는 외국 상인들이 찾아왔다. 황학동시장에 가면 땡기머리를 좋은 값에 팔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고, 점차 전문적인 수집상이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창신동, 약수동, 성남 아주머니들이 무리 지어 다니며 수집한 물건들은 머리카락뿐 아니라 은수저, 금이빨 등 옛날 방물장수처럼 온갖 생활용품들을 수집해 왔다. 가끔 금이 값거나 빛바랜 향아리며 그림 등도 따라 나왔는데 의외로 재미를 보는 경우도 생겼다.

그 후 고물상을 하던 남자와 전문적으로 수집해 보려는 남자 수집상들이 전국의 각 지방을 돌면서 부피나 무게가 나가는 고서와 고가구, 오래된 도자기 등을 수집해 와 가끔 횡재를 하게 됐다.

이는 자연히 골동품에 대해 안목이 높은 전문가들의 발길을 끌게 되었다. 이곳 만물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학술적 자료를 찾는 대학 교수로부터 소품을 구하려는 방송 관계자들, 실내 장식가, 가게를 고풍스럽게 꾸며 보려는 주인, 집 안을 옛날 분위기로 연출해 보고 싶은 주부 등 시장에 쌓여 있는 만물만큼 다양하다. 골동품 가게를 차리고 싶은 초보 상인이나 초보 수집가들의 학습 코스이기도 하다.

고객 중에는 외국인도 많은데 사 가는 물건은 주로 탈, 징, 팽과 리 등 주로 무당들이 쓰던 도구이며 일본인들은 도자기류, 유럽인들은 목기(木器)와 유기(鑪器) 그릇 종류를 아주 좋아한다. 낫요강을 반들반들 닦아 캔디 그릇으로 사용하는 어느 서양인 가정도 있다고 한다.

가게 수는 1960~1970년대에 200여 개에 달했다. 이때부터 중앙

시장 뒤쪽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수집상들이 전국을 베틀처럼 팔딱 팔딱 빠르게 뛰어다니며 수집해 온다고 해서 ‘벼룩시장’,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개미처럼 북적댄다고, 또는 개미처럼 무엇이든지 모아 둔다고 ‘개미시장’이라고도 한다.

가게 안에 도깨비가 나올 듯한 온갖 고물들이 잔뜩 쌓여 있다고 하여 ‘도깨비시장’이라고도 한다. 동서고금의 만물들이 다 있다고 ‘만물시장’, 한때는 ‘장물시장(贖物市場)’이라는 오명도 있었다. 만물시장이라는 말 그대로 이곳에는 사람 빼고는 무엇이든지 사고판다.

금이 값거나 깨진 신라 때 토기부터 고려청자, 조선백자, 고서, 고화 등은 물론 참빗·얼레빗·은장도·대청·안방·가마·요강에 홍두깨, 절간 끝에 있어야 할 풍경까지 바람 불면 금방이라도 울릴 것 같은 낯쇠로 만든 풍경이다. 값 또한 매력적이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겠다고 입담 좋은 손님이 아무래도 한 푼이나마 싸게 산다.

시세 형성에는 중간 상인들이 사들인 가격과 점포 주인의 안목이 크게 작용한다. 상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얻은 경험과 전문 서적을 읽어서 얻은 지식이 크기 때문에 학자들도 가끔 이들에게 묻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살 때는 욕심난다고 덤석 사는 것이 아니며 일단 구경을 많이 하여 안목을 키운 뒤 작고 값이 싼 것부터 고가품으로 수집해 가는 것이 좋다고 한다.

거래는 한번 이루어지면 반품이나 교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골동품은 “잘 사면 횡재요, 못 사면 바가지다”라는 말이 있다. 진짜도 많고 가짜도 많기 때문이다. 연대도 알 수 없는 빛바랜 누런 고서를 모 대학 교수에게 2만 원에 팔았는데 며칠 후 그 고서가 추사 김정희의 작품으로 판명되었다는 일화를 간직한 골동품 가게 주인도 있다. 이 소식을 듣고 배가 좀 아프긴 했지만 상거래의 신의를 지키느라 병어리 냉가슴을 앓았다고 한다.

같은 종류의 물건이라도 똑같은 모습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골동품들. 선조들의 채취와 얼이 가득 담긴 생활 도구요, 생활품들이다. 요즘같이 판에 박은 물건은 한 개도 없어 더욱더 정이 간다. 아무리 본래의 용도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쓰이더라도 손색없이 훌륭하다. 응접실에서 여물 대신 꽃을 가득 담고 있는 소 여물통, 사탕 통이 된 가마 요강, 보리밥과 시래기국을 퍼 담았을 놋주걱과 국자는 부뚜막 대신 현관 벽을 높지막하게 차지하고 한가하게 쉬고 있다.

저런 물건도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다 해지고 낡은 물품들도 입자가 있고, 장식품들이 된다. 해묵은 먼지와 손때 묻은 골동품들. 지금은 1950~1960년대의 것도 취급한다.

하루에 1,000여 명이 모이는 이곳 황학동 만물시장은 골목길에 자연적으로 생겨난 시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 불편하고 조합이나 번영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아 정보 교환이 불가능하며 한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의견 일치가 안 되어 휴일 없이 문을 열어야 한다. 안내판 설치를 못해 전자 제품 가게 속에 띄엄띄엄 섞여 있는 가게를 찾으려면 숨바꼭질을 하듯 해야 한다.

해묵은 먼지 속에서 추억이 묻어나는 정겨운 황학동 만물시장. 구경 실컷 하고 나서 출출해지면 바로 옆 중앙시장 골목 포장마차에서 쫄깃한 손칼국수와 곱창에 막걸리 한 잔 들이키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골동품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이곳의 터줏대감 김정남(민속골동, 58)씨는 “옛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이는 사람”이라고 한다. 골동품은 결코 사치품이나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없어지고 사라져 가는 먼지 속의 추억과 손때 속에서 정이 묻어난다. ……이 시장은 일요일에도 가게가 다 같이 문을 닫는 날은 없고 다만 첫째, 둘째 화요일에 쉬는 가게가 많다.²²¹⁾

현대 미술상을 경영하는 이 씨(32)는 시간만 나면 청계천이나 인사동 아현동의 고미술상 골동품 가게를 둘러본다. 꼭 무엇을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것저것 구경하다 신기하다 싶으면 사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돌아오기도 한다. “골동품을 이것저것 만지고 보다 보면 각박하고 분초를 다투는 듯한 일상을 잊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다 이런 식으로 남겨지게 마련인데 험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는 교훈까지도 얻게 된다고 이 씨는 말한다. ……

골동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은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부터였다. 골동 취미는 1974, 1975년 아파트 투기 붐에 이어 이른바 ‘골부인’이 등장하면서부터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했다.²²²⁾

1980년대 공기 오염이 심했던 청계천 지역

1983년 9월, 서울 시내에서 일산화탄소(CO) 오염도가 가장 심한 곳은 청계 2가와 세운상가, 청계 5가 등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연구소가 지난해 말 교통 체증이 심한 서울 시내 중심가 17개 지점을 분석한 결과 일산화탄소 오염도가 가장 높은 곳은 청계 2가로 평균 16.3PPM이었고, 다음은 세운상가, 청계 5가, 퇴계로 3가, 종로 3가, 광화문, 동대문, 퇴계 5가 등의 순이었다. 일산화탄소 오염도가 비교적 낮은 곳은 비원, 시청 앞, 서대문, 원남동 등이었다.

이 같은 오염도를 외국 수준과 비교할 때 청계 2가와 세운상가, 청계 5가 등 3곳은 미국의 환경 기준(9PPM=8시간 평균)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청계로는 광화문 시청 앞 등 다른 지점에 비해 교통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도 오염이 심한 것은 삼일로 및 청계고가도로 등 고가도로망이 있는데다가 주변에 삼일로빌딩 등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²²³⁾

3) 청계천 복원과 새 시대

하루 12만 톤의 물이 흐르는 청계천의 복원

청계천 복원은 도심 내 자연과의 공존과 서울의 녹색화를 위한 미래 지향적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03년 7월에 40년간 복개(覆蓋)되었던 청계천을 다시 여는 ‘복개(復開) 사업’을 시작하였다. 태평로의 동아일보사 남쪽~동대문~신답철교에 이르는 5.84km의 청계천을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2년 만인 2005년 9월에 마무리하였다. 총 3,867억 3,900만 원이 소요된 이 청계천 복원사업은 청계천에 맑은 물을 다시 흐르게 하여 생태계의 복원은 물론 서울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환경 친화적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프로젝트였다.

청계천 복원으로 깨끗한 물이 흐름으로써 수중과 수변에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생태 공간이 이루어졌다. 또한 복원된 청계천 양측 하천 둔치에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조성되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여가·휴가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광통교 등 청계천지역에 존재하는 유적을 발굴하고 복원하여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서울에 대한 시민들의 자부심을 제고하는 데에 비중을 두었다.

복원 이전의 청계천 주변 지역은 대부분 40~5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서 상주인구 감소는 물론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으로 주변 지역을 국제 금융과 비즈니스의 중심, 첨단 정보와 고부가가치 사업 지구로 재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국제 경쟁력이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주변 노후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성장 잠재력도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서울시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58년에 건설되기 시작한 청계천 복개 구조물과 청계고가도로는 30~40년이 지났으므로 시멘트와 철근은 부식(腐蝕)되었고, 구조적 결함 등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공사 구간을 세 구간으로 분할, 공사를 시행하여 주변 상가의 영업 활동을 보장하면서 청계천로 양측에 편도 2차선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주변의 지하철역의 지하수와 한강물을 주 용수(用水)로 하여 청계천에 항상 맑은 물이 흐르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청계천광장 아래에는 청계천에 물을 흘려 보내는 펌프 등의 기계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청계천에는 하루 12만 톤의 물이 흐른다. 잠실대교 인근 자양취수장에서 퍼 올린 9만 8,000톤의 한강물(2급수)과 12개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1급수) 2만 2,000톤을 모아 똑도 정수장에서 정수, 소독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청계광장과 삼각동, 동대문, 성북천 하류 등의 4개 지점에서 흘려 보낸다. 이에 따라 전기료 등으로 연간 8억 7,000여 만 원, 하루 238만 원이 소요된다.²²⁴⁾

한편 청계천 유지 관리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67억 6,900만 원이던 것이 매년 10% 정도씩 증가하여 2010년에 지출한 금액은 84억 200만 원으로 미터당 환산 금액은 144만 원이다.²²⁵⁾

5개 구간으로 나누어 본 복원된 청계천

2005년 10월에 복원된 청계천에는 22개의 다리가 놓였다. 조선 시대에 건설된 다리는 광통교만 하나만 놓이고, 나머지 21개 다리는 전일의 다리 이름이거나 새로 이름을 붙인 것이다.

『주간조선』의 특별부록으로 발간된 『청계천 블루북』에서는 청계천의 22개 다리를 기준으로 하여 5개 구간으로 나누었다. 이 구간의 특징과 볼거리를 소개해 본다.



청계광장에서 떨어지는 2단 폭포

○ 젊음의 거리

모전교~광통교~광교~장통교~삼일교~수표교

청계광장

동아일보 앞 740여 평 규모의 이 광장은 복원된 청계천이 흐르는 첫 구간이다. 광장 바닥에는 복원된 청계천 구간을 1/600로 축소한 ‘청계 미니 여처’가 앙증맞게 새겨져 있다. 이 광장은 빛과 만남을 통해 특히 밤에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광장분수와 2단 폭포가 시설되어 있다.

수변(水邊) 공간은 조선 8도를 상징하는 8도석(八道石)으로 꾸며 만남과 화합,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았다. 8도석 사이로 나온 물은 청계천에서 합쳐진다. 이 청계광장 아래 공간에는 물을 흘러 보내는 펌프 등 기계 장비가 시설되어 있다.



52년 만에 햇빛을 보게 된 광통교와 이 다리 석벽의 신장석(神將石)

현재 청계광장~삼일교(삼일빌딩 앞) 구간은 토요일 오후에서 일요일, 공휴일에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청계천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아트센터 나비

광통교 북쪽, SK 본사 4층에 있는 이 전시관은 평일에만 첨단 기술과 비디오 아트 등 현대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그 밖에 만화와 단편 영화를 상영하고, 각종 워크숍과 강연회를 열 수 있는 극장도 있다. 그리고 도서관, 포토 갤러리 등을 갖추고 있다.

광통교

이 다리는 원래 신한은행 본점 옆의 광교 자리에 위치하였는데, 1953년에 청계천 복개 공사로 서쪽 부분이 덮이고, 1958년에 동쪽 부분마저 덮였으므로 복개된 지하에서나 볼 수 있었다. 2005년 10월에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으로 광통교는 52년 만에 햇빛을 보게 되었으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광교에서 청계천 상류 쪽으로 155m쯤의 위치인 SK 본사와 한국관광공사 사옥이 있는 곳에 옮겨 놓았다.

광통교는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남북 양측의 석벽에 12개



정조 능행 반차도가 모자이크 벽화로 표현된 장교 북벽

의 신장석(神將石) 등이 조각되어 있으므로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들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 강씨를 위해 정릉(貞陵)을 조성할 때 사용된 석물이다. 그런데 태종 때 정릉을 천장(遷葬)하고 나서 광통교가 홍수에 떠내려가자 돌다리로 놓기 위해 석재로 쓴 것이다.

관광 안내 전시관

광통교와 광고 사이의 남쪽, 한국관광공사 사옥 지하 1층에 있는 이곳은 지역 홍보관, 이벤트홀, 한류 상품 코너, 관광 기념품 코너 등을 갖추고 있는데 평일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정조대왕 능행 반차도(斑次圖)

장교 북쪽에는 청계천 옹벽에 높이 2.4m, 길이 186m의 자기 타일 5,120장으로 모자이크한 「정조 능행 반차도」 벽화가 있다. 1,700여 명의 인물과 800여 필의 말이 행진하는 모습을 담은 이 그림은 정조 19년(1795)에 정조가 모친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사도세자가 문헌 화성의 융릉(장조의 능)을 참배하기 위한 행렬을 그린 것으로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에 수록된 것이다.

이 타일 벽화는 2005년에 신한은행이 조선 말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성은행이 위치하던 곳을 의미하여 서울시에 제작, 기증한 것이다.

「정조 능행 반차도」 벽화가 있는 북쪽에는 1971년 준공될 당시 국내 최고층 빌딩(31층, 114m)이었던 삼일빌딩이 자리하고 있다.



첨단 문화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을지한빛거리

을지한빛거리

장통교 남쪽의 이 광장은 신축된 미래에셋 빌딩 북쪽에 붙어 있다. 체험형 미디어 시설물과 녹지 공간이 어우러져 있어서 첨단 문화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신개념 공원이다. 이곳에는 매 시간 시각을 알려 주는 영상 가로등이 있는데, 달의 주기에 따라 영상이 주기적으로 바뀌며 그렇게 바뀌는 영상은 시민들의 발걸음에 맞춰 다시금 반응한다. 이곳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공연이 열린다.

파리광장

장통교와 삼일교 사이의 한화빌딩~기업은행 본점의 공간에 자리한 이 광장은 한화의 지원으로 중구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금요 정오음악회'가 봄 가을이면 매주 열리고 있다.

베를린광장

한화빌딩 앞에 위치한 이 광장은 독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전시되어 있는 통일 염원의 명소이다. 베를린 시로부터 기증 받은 콘크리트 장벽은 1989년 독일 통일 당시 베를린시 브란덴부르크 문 옆에 남아 있던 원형의 일부다. 이곳에서는 매년 봄가을에 한화의 지원으로 중구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한국영화 포스터전’, ‘청계천 버블버블’ 등의 행사와 전시를 하고 있다.

○ 쇼핑의 거리

수표교~관수교~세운교~배오개다리~새벽다리~마전교

수표교(水標橋)

원래 중구 수표동 43번지와 종로구 관수동 152번지 사이에 놓였던 다리였으나 1959년 청계천 복개 때 수표(水標)와 함께 장충단공원으로 옮겨졌다. 서울시 유형문화재 18호로 지정된 이 다리는 2003년 청계천 복원 때 제자리로 다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문화재위원들이 이전을 반대하였으므로 장충단공원에 그대로 두고, 그 상류 쪽에 임시로 만든 수표교를 설치하였다.

세운교 고사분수

세운상가 앞의 위치한 세운교에는 10m의 높이로 치솟는 분수대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부근의 독특한 볼거리이자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새벽다리

광장시장과 방산시장 사이에 놓인 새벽다리는 새벽부터 바빠 움직이는 시장 사람들의 활기를 상징하여 다리 이름을 붙였다. 아치형 천장으로 천



청계천에 임시로 놓인 수표교와 광장시장 앞에 놓인 새벽다리

막을 친 재래시장의 모습을 나타냈다.

옥류천

새벽다리와 마전교 사이의 광장시장 남1문 남쪽의 청계천에는 창덕궁 옥류천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높이 2.5m, 폭 1m의 옥류천(玉流川)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전일의 청계천으로 유입되던 물길의 흔적을 남기고자 설치한 것이다.

○ 패션의 거리

마전교~나래교~버들다리(전태일 다리)~오간수교~맑은내다리~다산교

전태일 거리

버들다리는 ‘전태일 다리’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버들다리 중간에는 전태일(全泰壹) 흉상이 세워져 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업주들은 근로기준법을 지켜 달라”, “나는 돌아가야 한다...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라는 고 전태일의 어록이 새겨져 있다. 평화시장 앞은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피복 공장 재단사로 일하다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전태일 다리'로 불리는 버들다리와 이 다리 중간에 세워진 전태일 동상

분신을 한 '전태일 거리'로 불린다. 평화시장 쪽 청계천변에는 2003년 청계천 복원 때 전태일기념관건설추진위원회에 기부금을 낸 시민들의 이름과 소망이 적힌 6,000여 개의 동판 블록이 교량 위와 도로에 깔려 있다.

문화의 벽

버들다리와 오간수교 사이 청계천 북쪽 옹벽에는 타일로 꾸며진 '문화의 벽'이 설치되어 있다. 전갑배 교수(서울시립대학교)의 「자연+인간+환경」, 배진환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의 「시각의 미로」, 장수홍 교수(서울대학교)의 「별」, 백명진 교수(서울대학교)의 「중생」, 강석영 교수(이화여자대학교)의 「생성-빛」 등의 벽화 5점이 전시되어 있다.

수변 무대

'문화의 벽' 남쪽의 청계천에는 10m로 치솟는 하천 분수가 설치되어 있고, 그 건너편에는 수변 무대와 계단으로 된 관람석이 조성되어 있어서 '패션광장'으로 불린다.

오간수문 터

현재 동대문 부근의 청계천 옹벽에는 오간수문(五間水門) 모양의 조형물



청계천 북쪽 옹벽에 꾸며진 '문화의 벽'과 다섯 개의 홍예가 있는 오간수문 모형

이 있다. 원래 이 수문은 서울 성곽을 쌓으면서 청계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다섯 개의 홍예(아치형 문)를 만들고, 그 위에 성곽을 쌓아 올렸으므로 오간수문이라고 불렀다.

오간수문은 광무 11년(1908), 당시 한성부 유맹(劉猛) 토목국장이 청계천 물이 원활히 흐르게 한다는 명분으로 헐어 버리고 말았다. 오간수문에 설치한 다리는 오간수다리로 불렸는데 이 수문을 헐어 버릴 때 오간수교도 함께 사라졌다.

2003년 7월, 청계천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청계천 역사 유적을 발굴할 때 이 수문의 아래쪽 끝받침과 홍예 기초부, 돌거북 등이 발굴되었으므로 이 터를 사적 제461호로 지정하였다. 또한 상류 쪽의 광통교지, 수표교지도 오간수문지와 같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 역사의 거리

다산교~영도교~황학교~비우당교

청계 빨래터

성동공업고등학교가 위치한 다산교와 영도교 사이의 청계천 북쪽 수변에



현대적으로 재현한 청계빨래터의 모습

는 빨래터를 각종 모습으로 조각하여 옛 아낙네의 애환이 담겨 있는 빨래터를 재현하였다. 예전에는 큰비가 와서 청계천 주변의 더러운 쓰레기들이 씻겨 내려가고 맑은 물이 흐르면 인근의 여인들이 빨래감을 들고 몰려와 세탁을 하였다.

이 당시 두 줄로 늘어진 버드나무 아래로 푸른빛 장옷을 쓰고 흰 빨래를 이고 걸어가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이었으므로 2005년 청계천 복원 때 충남 천안시에서 옮겨온 능수버들 16주를 심었다.

동묘(東廟)

영도교 북쪽, 동관왕묘라고 불리는 이 사당은 보물 제142호로 중국 3국 시대 촉한의 관우(關羽)를 모셨다. 임진왜란 후 명나라의 영향으로 선조 34년(1601) 관왕묘를 건립하자 많은 사람들이 관우를 숭배하게 되고, 무과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이를 참배하는 것은 의무가 되었다. 건물 형태는 정면보다 측면이 길고, 측면과 후면의 벽은 벽돌로 쌓아 중국풍의 고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영도교(永渡橋)

동묘 남쪽, 송인동~황학동 간 청계천 하류에 있는 이 다리는 동대문 방면에서 왕십리 쪽을 가려면 건너야만 하였기 때문에 교통량이 몹시 빈번하였다. 조선 초의 성종은 안암동의 영도사 중들을 동원해서 살곶이다리



영도교 북쪽에 있는 보물 제142호 동묘와 단종과 정순왕후의 전설이 얽힌 영도교

(전관교)와 함께 이곳을 돌다리로 중수(重修)하고, 어필(御筆)로 ‘영도교’라 하였다.

이 다리에 얽힌 전설로는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고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降封)되어 영월로 귀양 갈 때(세조 4년, 1458) 그의 비인 정순왕후(定順王后) 송씨(宋氏)가 이곳까지 나와서 서로 영영 이별을 하였다 하여 ‘영이별다리’ 혹은 ‘영영 건넌다리’라고 전해진다.

황학동 벼룩시장

영도교를 건너면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은 추억의 명소, 황학동 벼룩시장이 있다. 일명 ‘도깨비시장’, ‘만물시장’이라고 일컫는 이 고물 시장은 현재 점포가 1,000여 개나 들어서 있다. 이 시장은 1950~1960년대 이후부터 생기기 시작한 우리나라 중고품 매장의 원조 격으로, 성동공업고등학교를 낀 담벼락을 시작으로 해서 삼일아파트를 따라 200미터 정도 늘어난 점포들과 노점상들, 그리고 아파트 뒤편으로 밀집된 전자 제품, 기계 공구류상 등의 300여 업종이 어우러져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일제 때에는 청과 시장으로 유명하였으나 6·25전쟁 후 고물들이 몰려들면서 중고품 전문 시장이 되었다. ‘벼룩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은 맷돌, 광주리, 곰방대 등에 뽀얀 먼



만물시장으로 불리는 황학동 벼룩시장

지가 끼어 당장 벼룩이라도 기어 나올 것 같아 불렀다는 설과, 고물 수집 상들이 전국을 벼룩처럼 팔딱팔딱 빠르게 뛰어다니며 수집해 온다고 하여 '벼룩시장'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황학벽천

남쪽 소망의 벽 부근에는 높이 5m, 폭 20m의 대리석 벽 상단에서 하루 4,700톤의 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도록 만들어진 '황학벽천', 또는 '리듬벽천'이 조성되어 있다. 벽에는 검은 돌을 박아 물고기가 물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황학벽천 옆에는 제주도에서 서울시와 교류 협정 기념으로 4m 되는 '물허벅 여인상'을 조각해서 세워 놓았다. 그리고 황학벽천 부근에는 넓은 수변 무대가 조성되어 있다.



황학벽천에 세워진 물허벅 여인상

소망의 벽

황학교와 비우당교 사이의 양쪽 청계천 벽에는 '소망의 벽'이 조성되어 있다. 2만 명 시민의 꿈과 소망을 담은 글과 그림을 사방 10cm 크기의 자기 타일에 담아 이어 붙였다. 이 벽은 길이 50m, 높이 2m를 이루고 있다.



시민들의 소망이 담긴 '소망의 벽'

○ 자연의 거리

비우당교~무학교~두물다리~고산자교~서울숲

비우당 터널분수

성북천이 청계천에 합류하는 부근의 비우당교 남쪽, 청계천 8경의 하나인 '비우당 터널분수'는 높이 5m, 폭 50m 구간 벽에 설치된 42개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 산책로를 넘어 포물선을 그리며 청계천으로 떨어지도록 시설되어 있다.

청계고가 존치 교각

비우당교와 무학교 사이의 청계천에는 전일의 청계고가도로의 교각(橋脚) 중 3개를 철거하지 않고 남겨 두었다. 동대문축구장의 조명탑(나이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남겨 놓은 청계고가도로 교각

터) 일부를 헐지 않고 남겨 둔 것같이 이 고가도로도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는 뜻에서 그 일부를 남겨 두게 되었다.

두물다리(청혼의 벽)

청계천 두물다리 변에 있는 청계천 청혼의 벽에서는 행인들의 부러움과 축복을 받으면서 공개 프리포즈를 할 수 있다. 이 벽은 물과 첨단 디지털 영상 기법을 활용해 만든 청혼의 명소로, 청혼자가 두물다리를 건너 청혼 무대로 걸어와 하트 모양의 '시작' 버튼을 누르면 사진과 메시지가 담긴 동영상에 벽에 달린 스크린 위로 뜬다. 청혼을 받는 사람은 '승낙' 또는 '거절'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승낙'을 누르는 순간 반짝이는 조명과 함께 축하 영상 메시지가 스크린에 등장하고, 낭만적인 조명 분수가 춤을 춘다. 연인들은 청혼 자전거를 타고 '자물쇠 쥘'과 '언약의 동판 쥘'으로 이동해 사진을 찍으며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게 된다.



공개 프리포즈를 할 수 있는 두물다리 '청혼의 벽'과 옛 모습을 복원해 놓은 청계천 판잣집

청계천 판잣집

정릉천이 청계천에 합류(두물다리와 고산자교 사이)하는 남쪽, 청계천문화관 앞에는 1960년대의 청계천 판잣집 몇 채를 복원해 놓았다.

버들습지

자연의 거리(비우당교~서울숲)는 생태의 거리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우선 고산자교 남북쪽 청계천 도로 구간에는 충주시에서 옮겨온 사과나무 120그루를 심은 '충주 사과나무길'이 있고, 그 아래에는 '버들습지'가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신담철교와 제2마장교 사이의 북쪽 구간에는 상주시에서 옮겨 온 감나무 90그루를 심은 '경북 상주 감나무길'이 있다.

'버들습지'는 생태 복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아동들의 자연 학습 마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였다. 청계천과 중랑천이 만나는 하류에는 청둥오리·흰뺨검둥오리·황조롱이·중대백로 등의 새들이 날아오고, 메기·버들치·잉어·피라미·송사리·미꾸라지 등 많은 종류의 물고기 등이 발견되어 새로운 생태계가 이루어졌다.

청계천으로 흘러드는 물길

중구 관내를 흐르는 물길은 주로 남산에서 흘러내려와 청계천에 합류된다. 먼저 중구의 청계천 지류를 꼽자면 창동천이 있다. 이 물길은 북쪽으로 흘러 수각교·전도감교를 거쳐 소광통교로 흐르며, 회현동에서 발원한 장흥동천은 남대문로를 따라 흐르다가 창동천과 합류하여 청계천에 들어간다. 남산동천으로 불리는 지천은 동현교를 거쳐 장통교에 이르러 청계천에 흘러 들어간다. 중부경찰서 부근에서 발원한 이천동천은 청계천 3가와 입정동을 지나 청계천에 합류된다. 예장동 남산1호터널에서 시작되는 주자동천도 북쪽으로 흘러 주자교를 거쳐 청계천의 하량교에 흘러 들어가며,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발원한 필동천은 필동교를 거쳐 영풍교를 지나 청계천에 합류된다.



1. 남산에서 발원한 지천

현재 청계천과 그 지류 유역을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 구역은 중구, 종로구, 성북구, 성동구, 동대문구, 강북구 등 6개 구에 달한다. 오늘날 청계천의 지천은 성북천과 정릉천 외에 거의 복개되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조선 말 철종 12년(1861)에 그려진 「수선전도(首善全圖)」를 보면 청계천 북쪽에 13개, 남쪽에 10개, 모두 23개의 지천이 청계천으로 흘러 들고 있었다.

1) 송례문을 들어서 첫 번째로 건너는 창동천(倉洞川)

남산의 서쪽, 힐튼호텔 부근에서 발원하여 남창동(南倉洞)으로 흘러 남대문시장 북쪽(남대문로4가)의 수각다리(水閣橋)를 지나 서울시청 앞으로 흘러서 을지로를 가로질러 삼성화재 빌딩과 금세기 빌딩 샛길을 흐르다가 을지로 1가 부림빌딩 앞에서 정릉동천과 만나 소광통교, 수하동을 거쳐 장통교 부근 청계천으로 흘러드는 지천이 창동천(倉洞川)이다.

이 물줄기는 송례문을 통해 도성 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데 현재는 복개되어 보이지 않는다. 남창동은 조선 시대에 전국에서 올라오는 세곡(稅穀)을 관리하던 선혜청(宣惠廳)이 있었던 것에 연유하여 불린

이름으로, 창골 또는 창동이라고도 하여 창동천이라 하였다.

조선 시대에 창동천 일대에는 수풀이 우거지고 풍경이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쌍회정(雙檜亭)과 칠송정(七松亭) 등이 있었고, 이 물줄기 하류인 수하동 64번지 일대에는 도화서(圖畫署)가 있었다.

굴산 이유원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 보면 이렇게 기술하였다.

예로부터 남주북병(南酒北餅)이라는 속담이 있다. 남주(南酒)는 장흥동, 회현동에서 빚어내는 것을 제일로 쳤다. 그 맛과 색깔이 뛰어나서 한 잔에 취하여도 쉽게 깰 뿐 아니라 갈증이 나지 않으니 가위 나라 안을 통 털어서 가장 이름난 명주(名酒)이다. 떡은 누각 골의 것을 제일 좋게 친다.



「도성도」 중의 창동천 부근

즉 ‘떡 빚는 북촌, 술 거르는 남촌’이라고 하는데 이는 술을 빚어 팔기도 하고 시장기를 달래던 남산골센넵에 비해, 양식이 넉넉하여 떡 빚어 잔치를 차리고 아이들 군것질 시키던 북촌 양반들의 일상생활을 대조적으로 풍자한 것이다.¹⁾

창동은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이 서울에 올라와 처음 자리 잡은 곳이기도 하다. 다산은 정조 6년(1782) 봄에 서울에 올라와 창동천 남쪽의 집을 구입하여 채천정사(楸泉精舍)라고 이름을 붙이고, “...남산 곁에 작은 집이 생겨 다행히도 숙원을 이루었다네...”라는 시 한 수를 남겼다.

물가 조절과 세금을 관리한 선혜청(宣惠廳)

창동천변에 있던 선혜청은 남대문과 남대문시장 사이의 높은 지대인 중구 남창동 284번지 일대에 위치하였던 조선 시대의 관아였다. 한때는 인경궁(仁慶宮) 옛터에 있었던 것으로 서울 고지도에 나타난다. 선혜청이란 이름은 임진왜란 이후인 광해군 원년(1608)에 대동법을 선혜법(宣惠法)이란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하면서부터 일컫게 되었다.

선혜청이 처음 설치될 때에는 물가 조절과 빈민의 구휼을 맡은 상평청(常平廳)의 업무와 경기도의 대동미(大同米)를 취급하였으나, 효종 3년(1652)에 충청도·강원도의 대동미까지 관장하다가 점차 각 도의 대동미·베(布)·돈(錢)의 출납을 맡게 되었다. 또한 균역법에 의한 군관포(軍官布)와 결작미(結作米) 및 어·염·선세(魚鹽船稅)의 출납을 맡아 보던 균역청이 영조 29년(1753)에 속하게 되어 조선 후기에는 세입(歲入)의 대부분을 관장하여, 호조(戶曹)를 능가하는 새로운 재정 기관이 되었다.

효종 때 선혜청의 책임자는 영의정 등 세 정승이었으나 기구가 확대되면서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당상(堂上)을 두었다. 선혜청은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동미의 출납을 위하여 용산강에 별창(別倉)을 두고 북창(北倉)은 삼청동에, 동창(東倉)은 구 장용영(壯勇營)에 두었다가 고종 31년(1894) 갑오개혁 때까지 있었다.

이곳에 선혜청의 창고가 있어서 창동(倉洞)이라는 동명이 생겨났고, 그 북쪽은 북창동, 남쪽은 남창동이라고 불렀다.²⁾

서울 3대 시장의 하나인 칠패시장(七牌市場)

서울에서 매점매석하는 민간 상인의 본거지는 남대문 밖의 칠패(七牌)와 동대문 근처의 배오개(梨峴)였다. 이곳이 언제부터 매점매석하는 민간 상인의 중심지가 되었는지 확실치 않지만 18세기 전반경에 이미 대규모의 시장으로 변모하여 시전(市廛) 상업의 중심지이던 종루(鐘樓) 부근을 오

히려 능가하고 있었다.

영·정조 시대의 문인 유득공(柳得恭)은 『경도잡지(京都雜誌)』에서 당시 한성 시전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주단·지물·포목의 여러 큰 점포가 종로를 끼고 있으며, 기타는 모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모든 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새벽에는 이현(梨峴) 및 소의문(서소문) 밖에 모였다가 정오 때면 종로 거리로 모여든다. 도성 안에서 많이 소요되는 것은 동부의 채소와 칠패의 생선이 제일이다.³⁾

이 글에 의하면 종로 좌우 쪽에는 주단·지물·포목 등 여러 점포가 많은 반면, 이현 즉 지금의 종로 4가 근처와 남대문 밖의 칠패 근처에는 생선이 많이 들어와서 도성 안의 수요를 충족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현·칠패 등지의 외어물전 상인들은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더욱 상권(商圈)의 확대를 꾀하였고 내어물전보다 탁월한 상술을 발휘하였다. 이에 따라 외어물전은 차츰 관청의 신용을 얻게 되어 외분전(外分廛)을 각종 어물이 반입되는 요처에 세워 놓아 서남 해상과 한강의 수송 어물을 독점적으로 매수하고, 나아가서는 동북 지방에서 육로를 통해 반입되는 어물을 매점하였다.

외어물전은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그 입지 조건을 한층 더 이용하여 칠패시장의 중도아(中道兒)들과 결탁함으로써 상권을 확대하고, 또 경강상인(京江商人)들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이 나타난 외어물전 상인들은 시전 상인들의 기득권적인 매취점거(買取占據)를 침범하여 심한 경쟁을 유발하였다.

조선 후기 정조 때 활동한 실학자 박제가(朴齊家)가 지은 「한양 성시전도가(漢陽城市全圖歌)」에 이런 구절이 있다.



칠패시장의 옛 모습

이현(梨峴)과 종루 그리고 칠패는
 도성 중에서도 유명한 3대 시장이라네.
 온갖 공장(工匠)과 상인들 많이 모이는데
 1만 물화(一萬物貨) 이(利)를 따라 수레가 줄 이었네.

즉 조선 후기의 서울 장안에는 종로의 시전 외에도 이현(배오개)시장·칠패시장의 3대 시장이 모두 성시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 성시를 이루었던 이현시장은 그 후에도 계속 시장 기능을 잃지 않고 광장시장(동대문시장)이 되었지만, 칠패시장은 남대문 밖에서 남대문 안으로 옮겨져 오늘날의 남대문시장으로 이어져 왔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치른 후 남대문 밖의 칠패(七牌)에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시장이 생긴 것이 오늘날 남대문시장의 시초로 볼 수 있다. 칠패는 지금의 봉래동 일대로 어영청의 7패 관할 구역인 순청(巡廳)이 있

어서 칠패시장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이에 따라 현재 ‘칠패길’이란 도로 이름도 붙여졌고, 서울시에서 1993년에 ‘칠패시장 터’라는 표석도 세워 놓았다.

칠패 지역은 도성의 정문인 남대문 가까이에 있고, 당시 한강을 통하여 생활 물품이 많이 부러지는 용산·마포·서강과 바로 이어지는 곳이었다. 칠패에서 만초천(육천)을 따라 내려가면 용산에 이르렀고, 만리재를 넘어 공덕리를 지나면 마포였으며, 애고개를 넘어 창천을 따라 내려가면 서강과 연결되는 곳이었다.

칠패시장은 배오개·종로와 함께 서울의 가장 큰 상업 중심지로 등장하였다. 이 시장은 시전(市廛)과는 달리 민간 상인들의 활동 무대였다.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칠패시장은 하루 종일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말이 길거리를 꽉 메웠다고 하였다. 칠패상인들은 동작진, 마포, 서강 등지로 사람을 보내어 어물(魚物)을 몇 백 바리, 몇 천 바리를 매점하여 칠패시장으로 반입하였다. 칠패상인들은 이를 중개업자인 중도아를 끌어들여 각지로 도·산매하였으므로 수각교·회현동·죽전동·주자동·어청동·어의동·이현·병문 등지에는 칠패시장에서 흘러나온 어물들이 산과 같이 쌓였다는 것이다.⁴⁾

남대문 밖의 칠패시장이 자연스럽게 현재 남창동 지역으로 옮겨지게 된 이유가 있다. 선혜청에서는 백성들로부터 받은 대동미(大同米)를 보관하였다가 관아의 비용이나 관리들의 녹봉(祿俸)으로 주었다. 쌀 등의 곡식으로 녹봉을 받은 관리들은 이를 어물, 채소, 옷감 등 생활필수품으로 바꾸어 갔다. 이리하여 선혜청이 위치한 남창동 일대에 자연히 주막, 도매상, 소매상, 중개상이 법석대는 저자가 형성된 것이 현재 남대문시장의 전신(前身)이 되었다.

남대문시장은 조선 말까지 ‘남문(南門) 안장’ 또는 ‘신창(新倉) 안장’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신창 안장’이란 이름은 현재 남창동 지역에

선혜청의 대동미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던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리고 서울 토박이들은 남대문시장을 ‘센창시장’이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신창시장이란 명칭이 변음된 것이라고 본다.

경술국치 후에 일제는 1914년에 시장 규칙을 제정·공포하여 재래의 시장을 금하는 등 시장의 허가, 경영 등을 장악하였다. 이로 인하여 서울에는 남대문시장·동대문시장·남미창정시장의 3대 사설 시장이 존재하였다.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곡물류가 거래의 주요 상품이 되었으며, 잡화류는 조금씩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1920년에는 일본인들이 회현동에 거대한 외래품 상가를 세우고 장사를 하였으므로 남대문시장의 상업은 활기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1921년에는 10월 12일, 12월 14일 두 차례나 화재가 나서 남대문시장은 모두 타 버렸다. 남대문시장은 일본인이 많이 이용한 편인데 연말이면 일본인은 밀감, 한국인은 꽃감·밤·계란·닭을 주로 사 갔다. 그러나 1921년 말까지 남대문시장의 화재 복구가 되지 않아 사람들이 각처의 공설 시장으로 발길을 돌렸으므로 고객을 잃었다.

1936년 3월에 중앙물산주식회사는 남대문시장을 ‘중앙물산시장(中央物産市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한국인 상인이나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그대로 남대문시장으로 불렀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이 시장의 이용을 꺼렸다. 이처럼 남대문시장의 연혁 속에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민족의 수난사가 담겨 있다.

광복 이후 6·25전쟁으로 200여 점포가 상품과 함께 소실되어 그 피해가 컸다. 1·4후퇴 때에는 이 시장에 중공군이 주둔하고 야전병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시장 건물은 물론이고, 인근의 시민들도 강제 퇴거시켜 그 피해가 막심하였다.

1953년경 남대문시장은 150여 점포, 노점 500여 개를 헤아리게 되었

는데 야채·과일·해산물이 주로 거래되었다. 다른 시장을 능가하는 상품은 야채와 과일이었다.

6·25전쟁 때 서울이 수복되어도 시민들의 한강 도강을 막았으므로 남대문시장의 상업은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 당시 월남한 실향민들이 남대문시장에 대거 뛰어들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군복과 담요·C레이션 박스·양키 물건 등 종류에 구애됨이 없이 닥치는 대로 물건을 팔았으므로 서울 장안에 소문이 나서 ‘아바이시장’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이에 따라 ‘남대문시장에 가면 박격포도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유행한 적도 있었다.

6·25전쟁 후 ‘아바이시장’이라는 남대문시장에 어둠이 깔리면, 크고 작은 상점들이 문을 닫는 밤 골목은 불빛으로 가득하였다. 시장 길거리에는 연탄불 위에 미군 부대 식당에서 나온 각종 식품을 섞어 끓이는 ‘꿀꿀이죽’을 파는 상인이 손님을 부르고 있었고, 시장의 지게꾼과 시장 상인들이 양미리 토막을 뒤적이며 주린 배를 채우는 복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남대문시장은 다시 새벽을 맞을 준비에 바빴다.

현재 남대문 동쪽에는 한때 ‘도깨비시장’으로 유명했던 송례문 수입상가가 들어서 있다. 1953년 휴전 후 국산품을 애용하지는 구호를 외쳐 외래 상품에 대한 단속이 철저할 무렵에 이곳은 군용 물품이나 밀수입해 온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상점이 대부분이었다. 이를 단속하려고 헌병이나 관계 공무원이 들이닥치면 어느새 외제품을 치우고 국산품을 대신 진열하므로 도깨비장난 같다 하여 ‘도깨비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한다.

그러자 불법 외제품의 거래를 막기 위하여 1974년 2월에 서울시 경찰국·관세청이 합동으로 남대문 지하상가 도깨비시장에 갑자기 들이닥쳐 부정 외래품을 단속한 결과 모두 다섯 트럭분을 압수한 적도 있다.



활기 찬 남대문시장의 모습

조선 시대나 일제 때에 남대문시장은 생선과 건어물이나 식품들이 주로 거래되었으나, 1960년대부터 아동복 등의 의류업종이 등장하다가 1980년대부터는 의류가 주요 업종이 되었다.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남대문시장은 1980년대 호황기에는 찾는 사람이 줄잡아 하루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시장 측은 추산하였다. 토요일에는 더욱 늘어나 70만 명을 헤아렸다. 그래서 물건 값을 부르고 깎는 흥정 속에서 서민 생활의 정취가 질펀하게 깔리고, 골목골목에는 떡·부침개·족발·순대를 파는 ‘먹자골목’이 있어 남대문시장을 찾는 사람들을 손짓하였다.

남대문시장은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치르면서 세계적인 관광쇼핑 명소가 되어 많은 외국인들이 고객이 되었다. 동구권 사람들에게는 가죽 제품 구입처로 알려졌고, 또 중동이나 아프

리카 사람들은 여름 바지, 러닝셔츠, 티셔츠 같은 것을 보따리로 엄청나게 사 갔다. 당시 알제리의 체육부 차관은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백에다 상품을 잔뜩 주워 담고 나서 계산은 비서가 한 뒤 차에 싣고 간 일도 있다.

전국의 상권(商圈)을 장악하고 있는 남대문시장 10,172개 점포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1,700여 종에 이르므로 일명 ‘만물시장’이라고 한다. 시장 관계자는 남대문시장을 모두 한 번 돌아보려면 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남대문시장의 활기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 1997년 말부터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의 부족으로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접어들자 시장의 매출액은 종전보다 줄어들었다. 매주 일요일이면 남대문시장 전체 상가는 철시하고, 여름 휴가철과 설·추석 연휴에는 시장 전체가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간다. 최근에는 일본과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 활력은 유지하고 있지만,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유명 백화점과 재벌 회사, 외국계 대형 유통 상가의 건립으로 남대문시장 상권(商圈)은 위협을 받고 있다.

흑 상자 귀신과 번개우물 전설

지금의 남대문시장 자리는 개화기에 독일 영사관이 있던 곳이다. 조선과 독일이 국교를 맺은 뒤 독일은 1901년부터 6년간 이 자리에 2층 벽돌 건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

1905년경에 스웨덴 신문 기자인 그랩스트는 일본인을 피해 서울에 몰래 들어왔다. 그는 어느 날 독일 영사관을 방문했던 길에 독일 영사로부터 이곳 정원에 있던 우물에 관해 들은 이야기를 기행문으로 남겼다.

당시 독일 영사관이 있던 곳을 상동(尙洞)이라고 칭했는데 조선 초에는 이곳에 다섯 개의 궁궐이 있었으므로 ‘5궁궐’이라고도 불렀다. 독일 영사관이 자리 잡은 곳은 바로 5궁궐 중의 하나인데 수년 동안 장군 모습의 귀신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귀신은 항상 자정이 되면 말을 타고 나타나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궁궐 문을 통과했다. 이 장군 귀신이 나타나

궁궐은 오랫동안 빈 채로 버려져 있었다.

어느 날 상(尙)이란 가난한 선비가 상경하여 장군 귀신이 나타난다는 궁궐 가까운 여인숙에 머물게 되었다. 담이 큰 상은 장군 귀신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소문의 진상을 캐 보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폐허가 된 궁궐에 묵을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종들이 따르려고 하지 않자, 그는 혼자 궁궐로 거처를 옮겼다. 상은 밤이 깊어지자 등잔불을 켜고 앉아 귀신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자정이 지나 새벽 1시경, 눈꺼풀이 감길 무렵 상은 문 밖으로부터 천둥을 치는 듯한 큰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흙 상자, 흙 상자, 문을 열어라!”

세 번 반복된 소리는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상이 가만히 앉은 채 귀를 곤두세우니 조금 있다가 누구에게 목을 졸린 듯한 목소리가 땅 속에서 이렇게 외쳤다.

“오늘 밤은 안 된다. 상정승(尙政丞)이 여기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가고 내일 오너라.”

이 소리에 문 밖의 말발굽 소리가 멀어져 갔다. 다시 주위가 조용해지자 상은 땅속의 목소리가 왜 자기를 정승이라고 칭했는지 궁금해서 그를 부르기로 했다.

“흙 상자, 흙 상자. 너는 누구이며 무슨 이유로 흙 상자로 불리는지 그 까닭을 말해 다오.”

그러자 땅속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옛날 옛적 이 궁궐에서 살던 아이들이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 아이들은 진흙으로 상자를 만들고 그 속에 사람 모습을 한 물건을 넣었다. 그런 뒤 아이들은 귀신을 막기 위해 장군의 형상을 그려 성문 밖에 붙여 놓은 다음 그림을 갈기갈기 찢어 그 종잇조각을 흙 상자 안에 붙여 놓았다. 그 흙 상자는 당신이 앉아 있는 땅속에 묻혔다. 당시 집 없는 귀신이었던 나는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흙 상자 안의 사람 모습의 형상

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장군 그림에 붙어살던 귀신은 그림이 찢겨지자 쫓겨나서 그 후로는 밤마다 나를 찾아와 집을 돌려 달라고 조르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상은 그 이튿날 아침에 사람을 시켜 흙 상자를 파내어 부수어 버렸다. 그 후로는 귀신이 나타나지 않아 상은 이 궁궐을 차지할 수 있었다.

얼마 후 상이 지방을 다녀오는 길에 서울 가까이 이르렀는데 어느 노인이 그를 보더니 서울 쪽을 손가락질하며 말하는 것이었다.

“보라, 너의 집을 보라. 너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상이 고개를 돌리자 번개가 치는 것이 보였다. 상이 말에 채찍질을 가해 집에 당도하니 집은 무사했으나 번개가 정원 한가운데에 큰 구멍을 뚫어 우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이로 인해 이 우물을 ‘번개우물’이라고 불렀는데, 이 우물의 물맛은 매우 좋아 유명했다.

이 상이란 선비는 후에 정승 자리에 올랐는데 아마 조선 초기에 정승을 지낸 상진(尙震) 정승을 일컫는 것 같다.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李承業) 가옥

남산 한옥촌의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李承業 家屋, 서울시 민속자료 제20호)은 원래 중구 삼각동 36-2번지에 있었다. 1998년에 서울시가 남산골 한옥마을로 이전하여 복원하면서 ‘조흥은행 관리가’라 하던 것을 ‘도편수 이승업 가옥’이라고 명칭을 바꾸었다. 이후 2009년 2월 5일에 다시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으로 바꾸었다. 이 가옥은 조선 말 중인 계층 주택의 시대적 특징을 읽을 수 있으므로 건축사적으로도 중요하다.

건평 25.3평, 대지 167.3평의 이 가옥은 남향한 ‘ㄱ자’ 집으로 평면은 정면 4칸, 측면 5칸인데 간살이는 중앙에 좌우로 긴 2칸 크기의 대청을 두고, 그 서쪽 2칸에 안방을 배치하였다.

현재 이 집은 안채·사랑채·사주 문만 한옥마을로 이견되어 있지만, 본래 문간채·앞뒤 행랑채·사랑채·안채·사랑뒤채 등으로 구성된



도편수 이승업의 가옥(서울시 민속자료 제20호). 중구 삼각동 36-2번지에서 남산골 한옥촌으로 이전되었다.

큰 규모의 가옥이었다고 한다. 목수의 주택답게 장식적이고 정교한 부재들로 치밀하게 구성되었다.

삼각동에 있을 당시의 배치를 보면, 대지 서측으로 골목길에 면하여 줄행랑채가 남북으로 길게 늘어서고, 그 남단에 대문간이 있었다. 대문을 들어서면 동서 방향으로 긴 행랑마당이 된다. 행랑마당의 남쪽에는 정면 4칸, 측면 1칸 크기의 문간채가 자리 잡았다. 북쪽으로는 중문간 행랑채의 뒷벽이 행랑마당에 면하여 있고, 안마당으로 드나드는 중문이 나 있다. 행랑마당의 동쪽으로는 사랑마당으로 드나드는 중문간이 있고, 사랑마당 남쪽에는 정면 4칸 측면 1칸의 광채가 자리 잡았고, 그 동쪽에는 외측간 1칸이 있다. 사랑마당 북쪽에는 ‘ㄱ’자형 평면의 사랑채가 남향하여 자리 잡았다.

안채의 실(室) 배치 방식은 경기도 지방에서 자주 볼 수 있는 ‘ㄱ자’

의 ‘곱은자집’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안방 동쪽으로 정면 2칸, 측면 1칸 반 규모의 대청이 있고, 그 동쪽에 정면 1칸의 건넌방이 있는데, 앞뒤로 나뉘어 두 개의 방으로 되어 있다. 몸채와 직교하며 안방에서 북쪽으로 꺾여 나가 윗방이 있고, 남쪽으로 꺾여 부엌이 있다.

대청은 우물마루에 연등천장이며, 전퇴의 들창문은 들쇠가 있어서 들어 올릴 수 있게 하였다. 도리는 굴도리이고, 몸채 부분은 1고주 5량(一高柱五樑)이고, 날개 부분은 평주 3량에 뒷간이 첨가되었다. 전면 처마는 겹처마이고, 후면은 홑처마이며, 몸채 지붕은 팔작지붕이고, 날개 채는 맞배지붕이다.

안채 서쪽으로는 줄행랑채가 남북으로 길게 서 있는데, 나뭇광·내측·김치광·젓갈광·숯광·마루광·쌀광 등으로 구성되었다. 안채 북쪽으로는 장독대가 있고, 그 북쪽에도 아궁이부엌·방·마루 등으로 구성된 행랑채가 서쪽의 행랑채와 ‘ㄱ’자로 꺾여서 자리 잡고 있다.

옛 사진에 의하면, 안채는 장대석 두벌대 기단, 네모뿔대 주춧돌, 사각기둥으로 조영된 1고주 5량 가구(架構)의 굴도리 겹처마 팔작집이며, 사랑채는 납도리 홑처마 팔작집이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는 무늬로 장식된 사잇담이 있고, 홍예문이 나 있다.

이 가옥은 3량 구조에 뒤로 뒷간을 조성했기 때문에, 몸채에서 앞으로 나온 부엌 부분의 지붕면이 용마루를 중심으로 대청을 형성하지 않고 앞면의 지붕면이 뒷면보다 짧게 처리된 점이 특징이다.

이 집의 형태는 다동과 무교동에 있던 중인 주택과 비슷한데, 구전에 의하면 300여 년 전의 건축이라 하지만 1고주 5량이나 여러 요소들로 미루어 조선 말 1800년대의 사대부 집으로 추측된다.⁵⁾

청계천변 삼각동에 세워졌던 효자 정려문

중구 삼각동에는 조선 중종 때 김처선(金處善) 부부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조정에서 붉은색을 칠한 정려문(旌閭門)을 세웠으므로 이 부근을 홍문

섯골 또는 홍문선골이라고 불렀고, 한자명으로 홍문동(紅門洞, 弘門洞)이라고도 하였다.

이곳에 세운 정려문은 보기 드물게 중인(中人)을 위해 세운 것이다.

김처선은 성종 때 성리학자 김굉필(金宏弼)의 일가로, 거둬진 흥년과 질병으로 부모를 어렸을 때 여의고 유모 손에 자라다가 15세 되던 해에 돌림병으로 유모마저 갑자기 죽자 다동의 육의전(六矣廛) 상인 안씨(安氏) 집의 심부름꾼이 되었다.

부모와 친척마저 없던 김처선은 20세 성년이 되도록 혼인조차 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남달리 총명하면서도 부지런하고 어딘지 모르게 위엄과 귀티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임하였다.

주인 안씨도 과년한 고명딸을 두고 있었지만 미천한 신분이어서 양반과의 혼인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인들 중에 성실한 사람을 골라 데릴사위로 삼아 가업을 이어 주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 무렵 연산군이 왕위에 있었는데 무오사화를 일으키고 갑자년에 생모 윤씨의 폐위와 사약을 내린 것을 빙자하여 사화(士禍)를 일으켜 정국이 뒤숭숭하였으므로 몸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씨는 김처선이 연산군 생모 윤씨 폐위에 앞장섰던 김굉필의 일가임을 알고 그의 신분을 생각하여 사위로 삼기로 했다. 자신이 양반 집안의 자제임을 알면서도 사대부 집안의 길을 따르지 않고 육의전의 상인 안씨의 사위가 된 김처선은 뛰어난 두뇌로 사업을 하여 육의전 상인 가운데서도 으뜸이 되었다.

그는 유모가 자신을 아버지 없는 유복자로 키워준 데 대한 고마움으로 살아 있는 동안 유모의 제사를 지극한 정성으로 계속 모셨다. 그가 죽은 후에 아내인 안씨의 딸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편 유모의 제사를 지극한 정성으로 받들었다. 후일 중종반정으로 중종이 왕위에 오른 뒤에 이 이야기가 조정에게까지 들리자, 김처선 부부가 길러 준 어머니에 대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 하여 그 집 앞에 정려문을 세워 주었다.⁶⁾

교량명	연혁
수각교(水閣橋)	남대문로 4가 1번지 부근에 있던 다리로 조선 시대 이곳에 수각(水閣)이 있었으므로 수각다리, 한자로 수교(水橋)라 하였다. 승례문을 들어와서 첫 번째로 건너는 다리였다.
무명 다리	교량의 이름은 알 수 없으나 「서울지도」에만 교량 표시가 되어 있다.
소광통교(小廣通橋)	남대문로 1가 23번지 남쪽에 있던 다리로 대광교(大廣橋) 남쪽에 있던 다리이므로 소광통교 혹은 소광교(小廣橋)라고 하였다.
미장동교(美場洞橋)	을지로 1가 192번지 부근에 있던 다리로 조선 시대 이곳을 미동(美洞) 또는 미장동(美場洞)이라 불렀으므로, 다리 이름도 지역의 이름을 따서 미장동교라 불렀다.
전도감교(錢都監橋)	태평로 2가 57번지 서쪽에 있던 다리로 전도감(錢都監) 앞에 있어서 전도감교라 불렀으며 줄여서 전교(錢橋)라 하였다. 전도감은 고려 숙종 때 해동통보 등의 화폐를 주조한 관아인데 한성부에 있었던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대동지지」에는 이곳과 신당동 140번지~261번지에도 전도감교가 표시되어 있어 전도감이 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굽은다리(曲橋)	삼각동 104번지 경기빌딩 동남쪽에 있던 다리로 길이 굽어져 돌아가는 위치에 다리가 있었으므로 굽은다리 또는 굽은다리, 한자로 곡교라 하고, 광청교(廣淸橋)라고도 불렀다. 1950년대 초의 사진을 보면 창동천이 복개되어 다리의 옛 모습은 찾을 수 없다.

2) 회현동에서 내려오는 장흥동천(長興洞川)

남산 기슭의 회현동과 장흥동에서 발원한 두 물길이 합쳐져 북쪽으로 흘러 한국은행 앞에서 남대문로를 따라 흐르다가 롯데백화점, 코리아헤럴드 학원, 소광통교를 지나서 창동천과 합류하여 청계천에 흘러들어가는 물줄기가 장흥동천(長興洞川)이다.

장흥동천의 이름은 조선 시대에 궁궐과 각 관서에서 소요되는 창호지 및 유지(油紙)와, 기름을 먹여 비옷 용구로 쓰던 종이나 목면포 등 일체와 돛자리 등을 보관 조달하는 관아인 장흥고(長興庫)가 회현동 1가 부근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유래한 것이다. 장흥동천은 일명 회현동천(會賢洞川)으로도 불렀는데 복개되어 볼 수가 없다.

고지도인 「수선총도」에는 장흥동천에 6개의 다리가 표시되어 있으나 이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도성도」 중의 장흥동천 부근

뚝자리를 조달한 장흥고(長興庫)

남대문로 3가, 충무로 1가, 회현동 1가에 걸쳐 있던 곳에 조선 시대 관아인 장흥고(長興庫)가 있어서 이 부근을 장동(長洞), 장흥곶골이라고 불렀다. 장흥고는 후에 풍저창(豐儲倉)을 병합했다.

『한경지략』 권2 각동 조에 보면 조선 전기에 이 동에는 박은(朴闇)·심희수(沈喜壽)·김광국(金光國) 등 많은 문인과 학자가 살았다고 하였다. 박은은 뛰어난 시인으로 18세에 문과에 급제한 후 23세에 파직되고 갑자사화 때 26세에 처형되었다.

이유원(李裕元)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 보면 이 장흥곶골 부근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다. 그 가운데 장흥고 관아 옆의 일송(一松) 심희수의 집 곁에 한 그루의 소나무가 있었으므로 그의 아호를 일송이라고 하였으며, 나중에는 양연산방(養研山房)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읍취헌(攄翠軒) 박은의 옛집에도 역시 한 그루의 큰 은행나무가 있었다고 전한다.

12명의 정승이 배출된 회현동의 은행나무집

회현동 1가 36-3번지에는 서울시 지정 보호수(1-6)인 450년 된 은행나무가, 회현동 1가 14-3번지에는 중구의 지정 보호수(1-2-7)인 은행나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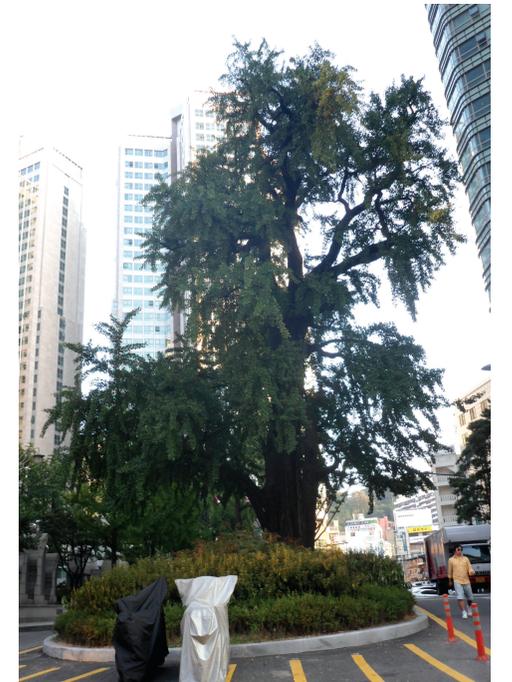
서울시 지정 보호수인 은행나무에 관한 이야기로는 『한경지략』에 “중종 때 영의정 정광필(鄭光弼) 집 안에 심었는데 전하는 이야기로 신선(神仙)이 정승이 지닐 수 있는 물소 뿔로 만든 12개의 서대(犀帶)를 나무에 걸 것이다”라고 하였다. 곧 12명의 정승이 배출된다는 것인데 『한경

지략』이 간행되던 조선 말 순조 연간까지 이미 10명의 정승이 배출되었고, 그 후 고종과 순종 때 각 1명씩 정승 반열에 올라 12명의 숫자가 채워져 신선의 예언이 적중하였다는 것이다.

회동 정씨로 불리는 정광필의 후손으로 정승이 된 사람은 선조 때 우의정 정지연, 좌의정 정유길, 인조 때 좌의정 정창연, 인조·효종·현종에 걸쳐 6번 정승이 된 정태화, 현종 때 좌의정 정지화, 숙종 때 우의정 정재승, 영조 때 좌의정 정석오, 우의정 정홍순, 정조 때 영의정 정존겸, 고종 때 영의정 정원용, 순종 때 우의정 정범조 등이 있다. 또한 정유길의 외손으로 김상용·김상헌이 이 집에서 태어났다.

이 집은 효종 때 정태화(鄭太和)·정지화(鄭知和)가 살 때만 해도 바깥 사랑방이 겨우 한 칸 집으로 두 형제가 정승이 되어도 좁은 줄 모르고 살았다. 김상용과 상헌 형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태실(胎室)이라 하여 사람들이 우러러 보았으므로 집을 넓힐 수가 없었는데 대한제국 때에는 대지 수천 평에 건평 300칸의 저택으로 되어 있었다.

회동 정씨 집터에 대해서 호암 문일평(文一平, 1888~1939)은 『서울산악사화』에서 은행나무는 원래 후원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안사랑 뜰에 있으므로 이 집 사랑을 문행관(文杏館)이라고 했다고 전한다. 이 집은 일제 때 일본인 반전(半田)의 반전농림회사가 되었다가 광복 후에는 염업(鹽業)을 하는 사람의 소유로 되었으며, 그 후 상업은행(현 우리은행)의 소유가 되었다.⁷⁾



회현동 회동 정씨 집터의 은행나무

또 원래 이 집은 싸리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깨비의 작폐가 심하기로 유명한 흥가였다. 도깨비 소굴은 바로 은행나무였는데 정광필이 이 집에 살면서부터 그의 기상이 장래 정승감이라 사부범정(邪不犯正)으로 도깨비가 감히 덤벼들어 작폐를 부리지 못하였다. 그래서 도깨비 하나만을 호위하도록 남겨 두고 함흥 만세교 아래로 떠나 버렸다. 그 후 회동 정씨 집안 사람이 함경감사로 부임할 때는 반드시 만세교 아래에서 도깨비 제사를 지내 줌으로써 회동 집에서 쫓겨난 도깨비들을 위로하고, 파수꾼을 남겨준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는 것이다.⁸⁾

이 집은 조선 말 영의정 등의 관직을 거친 정원용(鄭元容)이 관직에서 물러나와 한가하게 휴양하던 중 꽃나무로 둘러져 있는 재산루(在山樓)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별도로 누정을 짓고, 각종 꽃과 나무로 어울린다는 뜻으로 화수루(花樹樓)라고 하였다.

재산루 터는 회현동 2가 끝에 있던 누각 터를 가리키는데 아시아나 항공과 우리은행 회현지점이 있는 18번지 부근이다. 이곳에서 청성부원군 김석주(金錫胄, 1634~1684)가 출생하였다. 김석주의 어릴 때 얼굴 모습이 범과 같으므로 “범은 당연히 산에 있는 것”이라 하여 그 집의 다락을 재산루라고 하였다. 그 아래 있는 우물은 물맛이 매우 좋았으며 우물 동쪽 돌 벽에 ‘창벽(蒼壁)’이란 두 글자를 새겼고, 바위에는 연지(硯池)도 있어 명소로 알려져 있었다.⁹⁾

김석주는 영의정 김육(金堉)의 손자로 1662년에 문과에 장원으로 합격하고, 서인에 속하여 남인의 허견(許堅) 모역 사건을 고변하여 보사공신 1등으로 청성부원군에 봉해졌으며, 우의정으로 호위대장을 겸직했다.

남현동으로 옮겨 간 구 벨기에 영사관

남산 3호 터널 입구의 중구 회현동 2가 72-2번지에는 사적 제254호로 지정된 구 벨기에 영사관 건물이 있었다. 1982년 8월에 관악구 남현동

1059-13번지로 해체·이전하여 2004년부터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본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벽돌과 석재로 지어진 이 건물은 건평 1,500㎡로 고전주의 양식의 현관과 이오니아식 발코니의 돌기둥이 독특한 고전주의 건축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내부의 문과 계단 등도 옛 모습 그대로 지니고 있다.

이 집은 일본인 고다마(小玉)의 설계와 일본 토목회사(北陸土木會社)의 시공으로 1905년에 준공되어 1918년까지 벨기에 영사관이 사용하다가 1919년에 중구 충무로 1가 18번지로 이전하였다. 그러자 이 건물은 일본 요코하마(橫濱)생명보험회사에서 사용하다가 다시 일본 해군성 무관부의 관사로 되었다. 광복 후에는 해군 헌병대 청사였으나 1970년에 한국상업은행에 불하(拂下)되었다. 한국상업은행은 불하받은 지 2년 뒤에 사료관으로 한때 사용하였다.

이중화(李重華)가 쓴 『경성기략(京城記略)』에 보면 1901년에 조선과 수교를 체결한 벨기에 정부는 광무 6년(1902) 10월에 회현동의 영사관 부지를 구입하였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독립한 벨기에는 영세 중립국으로 국토가 작고 인구도 적지만 19세기 말에 아프리카의 콩고를 지배할 정도로 국력이 강해져 멀리 떨어진 조선과도 통상을 하게 되었다.

1900년 11월 5일에 벨기에인 벵카르(Leon Vincart)가 조선에 입국하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본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 벨기에 영사관

여 이듬해 3월 23일, 외부대신 박제순과 수호 조약을 체결하고 10월 17일에 영사관을 설치한 뒤에 벵카르 자신이 초대 총영사가 되었다.

우리나라와 벨기에와의 외교 관계는 을사조약으로 중단되었다가 1962년에 다시 수립되어 오늘에 이른다.

오늘날의 구청인 남부(南部) 관아

오늘날 을지로 1가 140번지(롯데백화점 본점 신관)에는 한성부 5부(部) 중의 하나인 남부(南部) 청사가 있어서 이 부근을 구남부골이라 하였다.

5부는 현재의 구청과 같은 관아로 조선 초에는 5부의 책임자로 관령(管領)을 두었다가 후에 영(令)이 배치되었다. 그 후 주부(主簿)라고 개칭하고, 영조 때 도사(都事)로 바꾼 후 정조 때 다시 영(令)으로 고쳤다. 5부는 관내 주민들이 법을 어긴 것을 다스리고, 도로·교량·화재 예방·택지 측량·시체 검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¹⁰⁾ 갑오개혁 때에는 5부가 5서(署)로 바뀌었다.

역관 홍순언이 살았던 보은담골

롯데호텔 동남쪽(을지로 1가 180번지)에는 조선 시대에 의협심이 강한 역관(譯官) 홍순언(洪純彦, 1518~1608)이 살았으므로 일대의 마을을 곤담골·보은담골·고운담골·미장동(美牆洞)·미동(美洞)으로 불렀다.

홍순언은 선조 때 중국어 역관으로 사신을 따라 명나라 남경으로 가는 중에 통주(通州)에서 목계 되었을 때 부모의 시신을 고향에 반장(返葬)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흥등가에 나온 규수를 300냥이란 거액을 주고 구해 주었다.

그 후 이 여인은 명나라 예부시랑 석성(石星)의 후실이 되어 홍순언이 명나라에 파견되기를 기다리며, 그에게 줄 비단을 짜며 ‘보은(報恩)’이라는 글자를 수놓았다.

선조 17년(1584), 조선에서는 이성계의 부친 이자춘(李子春)이 이인



보은담골의 현재 모습. 롯데호텔이 자리하고 있다.

임(李仁任)으로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잘못 기재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종계변무 주청사(宗系辨誣奏請使)를 명나라에 파견하였는데, 홍순언이 역관으로 따라가게 되었다. 조선 사신 일행이 남경에 도착하자 석성의 부인이 은인으로 그를 환대하고, 석성 시랑의 도움으로 종계변무의 일을 해결할 수 있었다. 홍순언이 귀국할 때 석성의 부인이 금은보화와 오색비단 100필을 선물을 주려고 하자 이를 사양하고 ‘보은단’이란 수를 놓은 비단만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선조는 종계변무의 일을 해결한 것을 크게 기뻐하여 홍순언을 광릉군(廣陵君)으로 봉했다.¹¹⁾

이 보은단(報恩緞)에 얽힌 아름다운 사연이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홍순언이 살던 동네를 보은단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후에 보은단골은 와전이 되어 고운담골로, 다시 곤담골이 되었는데 한문으로 의역되어 미장동(美牆洞)이 되었다가 대한제국 말에는 보은단과는 관계없는 미동(美洞)

이라는 엉뚱한 지명이 되었다.¹²⁾

또 다른 한 가지 설로는 ‘보은단’ 과 ‘고은단’은 음이 비슷한 데에서 이름이 유래된 것이라고도 하며, 홍순언의 집이 부유해져서 담 치장이 유난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고은담골이 되었다고도 전한다.

변경의 국방을 담당하던 체부청(體府廳) 관아

을지로 입구 부근(구리개)에는 조선 시대에 체부청(體府廳)이 있었다. 『한경지략』 권2에 의하면 “체부청동은 동현(銅峴) 안 왼쪽에 있는데 현종 때 체찰사부를 이 동에 설치하였다.”¹³⁾ 고 되어 있고, 『동국여지비고』 권2 한성부조에도 “현종 때 허적(許積)이 동현에 체찰사부를 설치했기 때문에 동현에 체부청동이 있게 되었다.”고 소개되어 있다.

체부청은 1·2품의 고관인 체찰사(體察使)가 있는 체찰사부를 일컫는 관아로 임진왜란 때 군사들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상설 기관이다. 광해군 때에는 폐지하지는 의견을 무릅쓰고 대신 가운데 인재를 가려 임명해서 변경의 방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¹⁴⁾ 이 체찰사부는 창설 당시에는 경복궁 서쪽 일대에 세워졌으나 광해군 이후에 일시 폐지되었다가 현종 때 이곳에 재창설된 것으로 보인다.

3) 남산골에서 내려오는 남산동천(南山洞川)

남산 3호 터널 부근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명동역, 명동1·2가, 외환은행 본점 서쪽, 수하동을 지나 창동천 등과 만나 굽은다리를 거쳐 장통교 서쪽 부근에서 청계천과 합류하는 이 물길은 상류에 남산동이란 지명이 있으므로 남산동천(南山洞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남산동천은 명례동천(明禮洞川)으로도 불렸는데 현재 복개되어 보이지 않는다.

남산동은 남산골이라고도 불렸는데 예부터 가난한 선비와 청렴한 관

리들이 이곳에 많이 살아 이들을 ‘남산골샌님’ 또는 ‘남산골 딸각발이’로 불렀고, ‘남산골샌님이 원(員) 하나는 내지 못해도 뽕 권리는 있다’는 말이 나왔다.

남산동천변에는 각종 돛자리를 전문으로 매매하는 자리전(席塵)이 위치하여 한자명으로 석동(席洞)이라고 하였다. 이곳에서는 강화도 화문 석뿐만 아니라 광희문 밖에서 만든 짚자리와 짚방석까지도 취급하였다. 조선 시대에 돛자리는 생활필수품이었으므로 이곳 자리전 상인들의 세력은 종로 시전(市塵)에 못지않게 컸다고 전한다.



『도성도』 중의 남산동천 부근

축한의 제갈공명을 모신 와룡묘(臥龍廟)

남산동천변 중구 예장동 산 5번지 6호에는 서울시 민속자료 제5호로 지정된 와룡묘가 있다. 와룡묘는 중국 후한 말 삼국 시대에 축한(蜀漢)의 유비를 도운 제갈공명을 모신 사당이다. 제갈공명은 이름이 양(亮), 호가 와룡(臥龍)이므로 사당 이름을 와룡묘라고 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와룡묘는 선조 38년(1605)에 평안도 영유현(永柔縣)에 공식적으로 창건하였으므로 역대 왕들이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거나 제문을 지어 보낸 일도 있고, 현판을 써서 내려 준 일도 있다.

남산의 와룡묘는 조선 말 고종 때 엄상궁이 처음 건립하였다는 설이 있고, 6백여 년 전부터 이 사당 뒤 바위벽에 제갈공명의 영상(影像)이 조각되어 모셔 왔다는 설이 전해 온다. 조선 말 철종 때(1862) 유지들이 사당을 건립하여 와룡상을 모셨다고 하며, 와룡묘 외에도 뒤쪽에 삼성각(三聖閣)이 있고, 와룡묘 왼쪽에는 단군성전(檀君聖殿)이 있다.

이 사당은 일제 때(1924)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유지들이 다시 합심



제갈공명을 모신 와룡묘 입구

하여 중창하고 시봉인(侍奉人)을 상주시키며 아침저녁으로 분향 배례(拜禮)하였다. 또한 와룡 선생의 탄일, 기일, 명절 등에 제향하다가 건물이 퇴락해지자 1976년에 유지들이 합심하여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벌였다.

와룡묘 내에는 가운데에 와룡 선생의 석고상이 있다.

머리에 와룡관(臥龍冠)을 쓰고, 녹색 도포를 입었으며, 낮은 의자 위에 앉아 있다. 오른손에는 우선(羽扇)을 들어 가슴 쪽에 대고 있고 왼손은 무릎 위에 내려놓은 형상이다.

와룡 선생의 오른쪽에는 유비와 의형제를 맺은 관운장(關雲長), 관성제군상(關聖帝君像)의 석고상이 있는데 황색 도포에 긴 수염을 늘어뜨리고 낮은 의자 위에 앉아 있다. 그리고 오른손은 퍼진 책을 잡아 오른쪽 무릎 위에 얹어 놓고, 왼손은 책 쪽으로 가볍게 구부리고 있다. 그리고 다리 사이에 긴 칼을 세워 왼쪽 무릎에 기대어 놓고 있다.

와룡 선생과 관성제군상 아래에는 긴 제단(祭壇)이 놓여 있고, 문 쪽에는 와룡 선생 앞에 일산(日傘), 관성제군 앞에는 큰 청룡도 두 자루와 삼지창 한 자루가 세워져 있다.

와룡묘 뒤의 삼성각은 통칭 산신각으로, 가운데에 산신님, 오른쪽에 칠성님, 왼쪽에 독성님 등 삼신(三神)을 모시고 있다. 산신님은 부조(浮彫)로서 머리에는 복건을 쓰고 수염을 길게 늘이고 붉은 도포에 녹색 옷을 아래에 입었다. 왼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고, 손에는 우선을 들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호랑이를 데리고 있다. 칠성님은 부처상인데, 독성님은

대머리에 붉은 도포를 입고 있으며 오른손에는 단장, 왼손은 염주를 굴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와룡묘 왼쪽의 단군성전의 단군상(檀君像)은 석고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복식은 물감으로 그리고 도포에 긴 수염을 늘어뜨리고 양손을 소매 안에 넣은 채 의자에 앉아 있다.

와룡묘에서는 매년 음력 6월 24일, 와룡 선생과 관성제군 두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지낸다. 제사 때는 평소 이곳을 드나들며 기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참여한다.

위장병에 특효가 있는 부엉바위 약수

서울의 많은 약수 중에 첫손을 꼽는 것은 현재 숭의여자대학 서쪽(중구 예장동 산 5번지) 남산 공명골(孔明谷)에 있는 부엉바위(휴암, 鵞岩) 약수 또는 범바위 약수이다. 바위 모습이 마치 부엉이처럼 생겼다 하여 부엉바위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간혹 범바위라고도 부른다.

이 바위 밑에서 물맛이 좋은 약수가 나와 약수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약수는 절벽 사이를 흘러내려 맛이 매우 좋고 위장병에 특효가 있었다고 전한다. 여름철에는 피서를 하거나 산책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석간수(石澗水) 위에 걸쳐 지은 천석각(泉石閣)이라는 누각은 피서하기에 아주 좋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한경지략』에도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여 “휴암천은 목덕산 아래 있고 삼아동(三丫洞)의 물맛도 달고 차다.”고 하였다.

부엉바위에는 한 선비와 오래된 암지네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 온다.

조선 후기 영조 때 한은석(韓恩錫)은 일찍이 관직에 있다가 사도세자의 죽음을 보고는 관직에 환멸을 느껴 벼슬을 버리고 초야에 묻혔다. 하지만 워낙 결백한 한은석은 모아 놓은 재산도 없는 데다가 가족은 많아 살림이 몹시 궁핍하였다. 한은석은 건디다 못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뒤 어두운 밤에 남산에 올라 부엉바위 옆의 나무에 줄을 매고 자결을 하기로



위장병에 효력이 있다고 전해지는 부엉바위 약수

결심하였다.

바로 이때 어디선가 여인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에 목을 매려던 선비는 귀를 기울여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았다. 잠시 후에 삼십이 채 안 되어 보이는 여인이 선비 앞에 나타났다.

이 여인은 남산 너머 후암동 복숭아 밭에 사는데 문안에 복숭아를 갖고 갔다가 날이 어두워서 길을 잃고 말아 금방 귀신이래도 나올 것만 같아서 그만 무서운 생각에 창피를 무릅쓰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여인은 “혹 바쁘지 않으시면 저의 집이 바로 요 너머 과일밭이니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짐을 한은석에게 넘겨주면서

들어 달라고까지 하였다.

죽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청하는 말에 쓴웃음을 금치 못한 한은석이지만 그녀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여인을 따라 밤길을 더듬어 나갔다. 한은석이 여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니 식구라곤 아무도 없었다. 이윽고 여인이 조출한 주안상을 차려 내왔으므로 한은석은 따라 주는 술과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 밤을 여인과 함께 지내는 행운을 얻었다. 아침이 되어 한은석이 돌아가려 하니 여인은 수십 냥의 돈까지 내어 주므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부터 한은석은 매일 밤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 달콤한 밤을 보냈다. 그런 어느 날 밤 한은석은 후암동 여인의 집을 찾아가는 길에 남산 부엉바위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때 부엉바위에 한 노인이 앉아 한은

석에게 행선지를 물은 뒤에 오늘 밤 그 계집한테 가면 죽고 말 것이라고 알려 주는 것이었다. 한은석은 그 노인이 범상한 것 같지 않아 그 이유를 물었다. 그랬더니 노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실은 그 계집은 사람이 아니라 수천 년 묵은 지네인데 사람의 진을 빼먹는단 말ियो. 그동안 당신도 그 계집한테 진을 빼앗겨 왔는데 오늘 밤에 마지막으로 당신은 죽고 말 것이요. 하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당신은 살 수가 있소. 이 담뱃대에 담배를 꼭꼭 담아 가지고 입으로 뺨 후 입안에 고인 침을 절대로 뱉어서는 아니 되오. 고인 입안의 침을 그 계집의 얼굴에 뱉시오. 그래야만 당신은 살 수 있소. 자아 이 담뱃대를 가져가시오.”

그러면서 노인은 한은석에게 담뱃대 한 개를 주었다.

한은석은 우연히 만난 여인의 호의로 이렇게 호강을 해 오는 터에 그 착한 여인이 자기를 해치는 무서운 지네라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어서 한은석은 노인이 시킨 대로 담뱃대를 입에 물고 여인의 집으로 갔다. 한은석이 여느 때와 다름 없이 태연하게 대문을 흔들자 여인이 나오면서 반색을 하였다.

이때 당연히 한은석은 입안에 고인 침을 여인의 얼굴에 뱉어야 하였다. 그러나 한은석은 이다지도 어여쁘고 마음씨 고운 여인을 어찌 죽인단 말인가 하며 차라리 자기가 죽더라도 노인이 시킨 대로 할 수가 없어서 입안의 침을 땅에 탁 뱉어 버렸다.

한은석이 땅에 침을 뱉자 여인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했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 여인은 고백하기를 “아까 만났던 노인의 말대로 저는 지네이고 그 노인은 천년 묵은 지렁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사람이 되는 것을 질투해서 서방님을 시켜 저를 죽이려 했던 것인데 저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여기 돈 만 냥이 있사오니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는 많은 돈을 내어 놓았다.

한은석은 어리둥절하였다. 너무나 많은 돈을 보고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도 한은석은 여인과 단꿈을 꾸고 이튿날 집으로 돌아갔다. 그다음 날 한은석이 다시 여인의 집을 찾았더니 이게 웬 일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어엿하게 있던 집이 자취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한은석은 너무 허망했지만 지네의 변신인 그 여인이 사람이 되어 어디론가 사라진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였다.

그 후 한은석은 여인이 준 돈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렸고 그의 자손들도 번성했다고 한다.

궁중을 경호하던 호위청(扈衛廳)

남산동 2가 2번지, 남산초등학교 자리에는 호위청(扈衛廳)이 있었다.¹⁵⁾ 호위청은 조선 후기에 궁중을 경호하던 군영이다. 인조 1년(1623) 인조반정에 공이 있었던 김류(金鑾)·이귀(李貴) 등의 훈신들이 숙위(宿衛)가 소홀하다고 하여, 반정 직후인 9월에 설치해 10월에 군영의 체제를 갖추었다.

표면적인 설치의 이유는 왕권 호위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정 공신들이 모집해 거사에 이용했던 군사들로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정 공신 주축의 군사적 세력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설치 당시는 ‘호위 4청’이라 하여 반정에 공로가 가장 많았던 이서(李曙)·김류(金鑾)·이귀(李貴)·신경진(申景禎) 등을 대장으로 임명하고, 각각 100명의 군관을 거느리게 하였다. 이 밖에 심기원(沈器遠)·김자점(金自點)은 당상관이라 하여 각 50명의 군관을 거느리게 했다. 그 수는 모두 500명으로, 국가에서 급료를 지불하였다.

이와 같은 호위청의 편제는 현종 때 호위 3청으로 개편되었다. 대장은 대개 시·원임대신 및 국구(國舅) 중에서 겸하고, 실제 군사 지휘권자로 별장 3명을 두었다. 각 청에는 군관 350명씩을 편제하여 이른바 최고 관료층의 군사 기반화 형태를 갖추었다. 그러나 정조 2년(1778) 정조가 왕권 호위 기관으로 숙위소(宿衛所) 등을 설치하면서 호위 1청으로 축소

하였다.

군관도 350명으로 한정하여 지난날 왕권 견제 구실을 하던 것을 명실상부한 왕권 호위의 친위 체제로 변혁시켰다. 군사는 대궐 내의 입직은 물론 국왕의 교외 행행(郊外行幸) 및 도성 안 동가(動駕) 등의 배위(陪衛)를 담당하였다.

고종 18년(1881)에 일단 폐지되었다가 이듬해 다시 설치되는 등 개편을 거듭하다가, 1894년의 군제 개편으로 폐지되었다.

흙이 질었던 진고개

충무로 2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옛날에는 진고개 또는 이현(泥峴)이라고 하였다. 남산의 산줄기가 뺏어 내려오면서 만든 이 고개는 충무로 2가에 있는 세종호텔 뒤쪽에 있었는데, 배수시설이 잘 되지 않은 데다가 고개에 있는 흙이 몹시 질어서 비가 한번 오면 사람들의 왕래가 끊어질 정도로 통행이 곤란했던 곳으로 유명하였다.¹⁶⁾ 이에 고종 32년(1895)과 광무10년(1906)에 진고개를 깊이 8척가량 파내어 높이를 낮추고 길을 닦으면서 현대식 도로를 만들어 높이 5척의 물레의 북, 즉 방추(紡錘) 모양의 하수도를 묻어 그 지역의 하수를 통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서울 시내 하수구 도랑의 시초가 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이 진고개 일대를 남산골이라고 불렀는데 이 지역에는 주로 하급 관료인 아전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갑신정변 이후부터 이곳에 일본인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일본인들의 거류민 지역을 형성



궁중을 경호하는 군영이 있었던 옛 호위청 터(남산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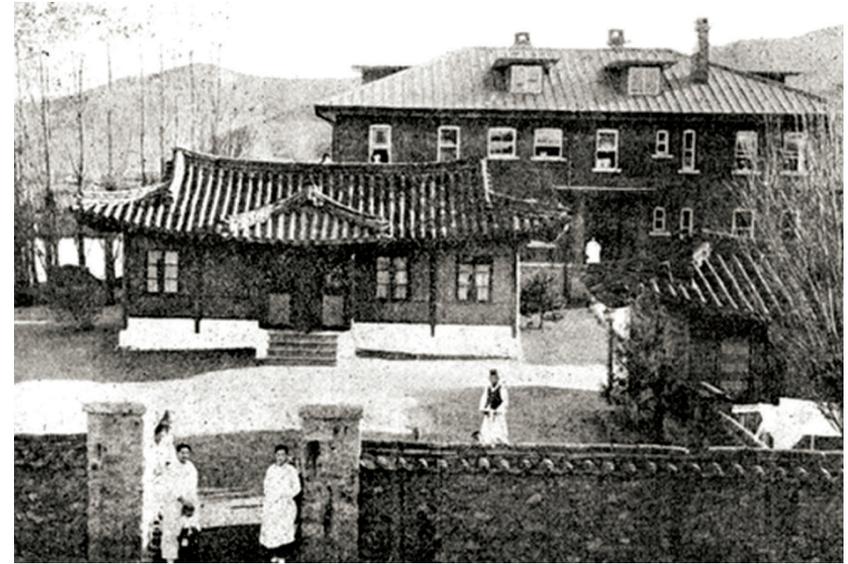
하였고, 자국에서 가져온 근대적 상품을 진열하여 당시 개화가 늦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곳이기도 하였다.

한편 진고개에는 굴우물이 있어 또한 유명하였다. 이 굴우물은 깊고 또 우물 안에 굴이 있었으므로 한자로 굴정(窟井)이라 하였다.¹⁷⁾ 『한경지략』에도 “굴정은 남부 이현에 있는데 우물이 깊고 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라고 하였다. 굴정은 처음부터 우물로 사용했던 곳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노출된 샘물이었다. 이를 처음 발견하여 굴우물로 만든 사람은 인조 때 문인으로 이수광의 아들인 동주(東州) 이민구(李敏求)이다.

그가 13세 때인 선조 30년(1601), 진고개 길가에서 놀다가 돌 밑에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동리 아이들을 모아 이 돌을 치우고 샘을 만들었다. 그 뒤부터 길을 가던 나그네들도 지나가다가 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는데 언제나 일정한 수위를 간직하던 이 우물의 물구멍은 점점 더 크게 파여서 굴(窟)같이 되었다. 그런데 그가 벼슬을 나가 내외관직을 지내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양난을 치른 후 잠시 관직에서 물러나 있던 53세가 되던 어느 날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 보니, 어린 시절에 아이들과 함께 파 놓았던 그 돌 밑의 우물이 이제는 고색창연한 옛날의 우물이 된 것을 보고 감개가 무량하여 길 가던 발걸음을 멈춘 뒤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를 읊었다.

손으로 뚫을 때는 한 줄기 샘물이었는데
어느덧 오십 년의 세월이 지나갔네.
돌 속의 한 줄기 샘물은 줄지 않았는데도
그 속에서 늙고 죽은 사람 누구누구던가.¹⁸⁾

당대의 시인으로 이름이 높았던 이민구가 지은 이 시에도 굴정(窟



구리개에 자리했던 최초의 서양식 의료 기관, 제중원

井)을 그가 뚫었음을 밝히고 있다.

조선 시대에 진고개에는 영조·정조 때의 명신이며 학자로도 유명한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가 살았다. 홍양호는 진고개 근처에 있던 그의 집 이름을 이와(泥窩, 진굴)라고 지었다.

최초의 서양식 병원, 제중원(濟衆院)

한성부 남부(南部) 회현방 동현(銅峴, 구리개), 현재 한국외환은행 본점 뒤편(중구 을지로 2가 181번지)에는 조선 말에 서양식 의료 기관인 제중원(濟衆院)이 있었다.

고종 22년(1885) 4월 10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근대 병원인 왕립(王立) 광혜원(廣惠院)이 미국 북장로회 파견 선교 의사(宣敎醫師) 알렌(安連, H. N. Allen)에 의하여 현재 재동의 헌법재판소 자리에 세워졌다. 이곳은 갑신정변의 주동 인물의 한 사람인 홍영식(洪英植)의 집으로, 13일 후인 이해 4월 23일에 제중원(濟衆院)으로 이름을 고쳤다.

고종은 제중원을 통리교섭아문(統理交涉衙門) 안에 두도록 했다. 그러나 제중원을 찾는 환자가 너무 많은데 비해 병원이 너무 비좁아 이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개업 2년 뒤인 1887년에 재동에서 구리개로 이전하였다.

그런데 이해 가을에 알렌이 미국 특파 전권대사 박정양(朴定陽)의 수행원으로 떠났다가 귀국한 후 미국 공사관 서기관이 되어 제중원 진료는 손을 떼게 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해 내무아문(內務衙門)에 속하게 된 제중원은 국가 재정의 궁핍으로 지원이 줄어들자 운영난에 빠졌으므로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로 운영이 넘겨졌다. 제중원은 광무 8년(1904) 9월에 미국인 세브란스(L. H. Severance)의 재정 지원으로 남대문 밖 용산구 도동(桃洞)에 현대식 병원으로 바뀌면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이름을 고쳤다.

이 병원에서는 황해도, 평안도에서 13세부터 16세까지의 총명한 기생 2, 3명을 뽑아 병설(併設) 여의원(女醫院)에서 의술을 익히게 했다.

터가 센 장악원

중구 을지로 2가 181번지, 외환은행 본점이 위치한 곳에는 조선 시대 500년간 음악을 가르쳐 악공(樂工)을 길러 낸 장악원(掌樂院) 관아가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이 부근을 장악원동이라고 불러 왔다.

이 장악원에서는 보통 320명을 교육하였는데 맹인(盲人)도 15여 명이 교육을 받았던 것이 특이하다. 그런데 이곳에 장악원을 특별히 설치한 까닭이 있다고 한다. 『한경지략』에는 “풍수설에 따르면, 이곳은 터가 세고 불길한 곳이므로 특별히 장악원을 세우면 사람들이 걱정 근심으로 생긴 답답한 마음을 풀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날마다 노랫소리가 들려오니 어찌 마음이 불쾌할 수 있을 것인가.

『태조실록』에 “저자를 구리고개(仇里古介)로 읍기다.”라고 한 기록

이 보이는 것을 보면 애초부터 우리말 그대로 ‘구리고개’ 였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어느덧 ‘동헌’으로 표기하게 된 것 같다. 8·15 광복 전까지도 전차 정거장 이름을 ‘구리개’라고 불렀던 현재의 을지로 입구 언저리는 오랜 세월 동안 장악원이 자리하고 있어서 유명한 곳으로 손꼽혔다.



악공을 양성하던 장악원 터

『한경지략』에 “장악원이 개

국 초부터 남부 명례방에 있어서 음악을 맡아 보았는데, 아악(雅樂)은 좌방에서, 속악(俗樂)은 우방에서 관리하여 매월 초 2·6일과 12·16일과 22·26일에 풍악을 강습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초창기에는 장악원의 전신인 관습도감을 흥복사 안 서쪽 선당에 설치하였다가, 세종 때에 이를 봉상시(奉常寺)로 소속시켜 아악을 가르치게 하는 한편 속악을 맡아 보는 악학도감을 따로 설치하고 이를 장악서라 하였다. 세조 때에 악학도감을 없애고 장악서를 장악원으로 승격시켜 아악·향악·당악까지 통합 관장하게 하였다.

세조 때 봉상시 동쪽에 새로 지은 장악원의 건물은 매우 거대하여 크기가 장안의 모든 관청건물 중에서 으뜸가는 규모였는데 그 이유는 백관(百官)의 습의소(習儀所)로 쓰기 위함이었다. 궁궐 정전에서 거행되는 조하(朝賀) 등의 의례를 익히기 위하여 장악원 넓은 뜰에는 지체 높은 벼슬아치들을 모이게 하곤 하였다. 장악원이 이처럼 규모가 크고 터전이 넓었기 때문에 때로는 과거 시험장으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장악원은 조선 말 고종 때 갑오개혁으로 폐지하였지만 한때 일본군 이 악생(樂生)을 내쫓고 주둔한 적이 있었다. 즉, 임오군란으로 쫓겨 갔던

일본 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가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1개 대대 병력을 끌고 도성에 들어왔던 것이다. 이때 장악원을 주둔 장소로 사용하였다.

장악원은 일제의 침략으로 건물마저 헐리었고, 1908년 일제는 이 자리에 동양척식회사(東洋拓植會社)를 세웠다. 동양척식회사는 우리나라 경제 침략의 총본산으로 악명 높은 침략 기관이었다.

이 회사의 설립 목적은 ‘한국에 있어서 척식(拓植) 사업의 경영’이라 하였다. 영업 과목은 ①농업 ②척식을 위해 필요한 토지의 매매 및 대차 ③척식을 위해 필요한 토지의 경영 및 관리 ④척식을 위해 필요한 한·일 이주민의 모집 및 분배 ⑤척식상 필요한 자금의 공급 등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하여 설립한, 식민 지배를 위한 국책 기관이었다.

이 회사는 1924년까지 선량한 농민들의 토지를 하루아침에 빼앗아 약 8만 정보(町步)의 토지를 강점 소유하였으므로, 토지를 잃은 조선인들에게 동양척식회사야말로 원한의 표적이었다.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은 농공은행(農工銀行)을 병합하여 동양척식회사의 자매기관으로 출발, 농촌 및 산업 기관을 상대로 경제 침략의 구실을 맡았던 일제의 어용 금융 기구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침략 기구에 대한 의거는 경제 파탄, 생활고로 허덕이던 한민족의 원한을 풀어 줄 수 있는 일이었다. 1926년 12월 28일 오후 2시, 중국에서 김구(金九) 선생의 의열단에 가입한 나석주(羅錫疇) 의사는 우리나라에 몰래 입국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는 장악원 부근의 지리를 익힌 뒤 먼저 식산은행(현 롯데백화점 자리)에 들어가 폭탄을 던지고 뛰어나와 동양척식회사로 달려갔다. 권총으로 일본인 몇 명을 사살하고 폭탄을 던졌으나 불발하였다. 회사를 나온 나석주 의사는 을지로 큰길에 나와 일본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면서 을지로 2가까지 오게 되었다. 탄



장악원 자리에 들어선 일제의 동양척식회사

환은 떨어지고 사방에서 경찰이 몰려드니 그는 최후의 1발로 장렬하게 자결하였다.

동양척식회사 건물은 1911년 을지로 2가 195번지에 목조 르네상스 풍 2층 규모로 세워졌다. 19세기 말부터 일본은 홋카이도를 농업 기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미국으로부터 개척사를 초빙하여 여러 분야의 기술을 습득하였는데, 특히 토목·건설에 관한 기술을 이곳을 통하여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홋카이도 전역에 세워진 초기 관청 건물 중에서도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성 지점과 같은 의양풍(擬洋風) 건축물이 상당수 있었다. 대개가 목조 르네상스 양식으로 고전주의 양식의 건물을 모사하는 정도의 건축물이었다.

건축 규모에 비하여 상당히 짧은 기간에 완공된 이 건물은 가각(街角)의 모서리에 주 출입구가 있고, 그 좌우에 한 쌍의 원기둥을 두었으며, 2층 정면도 이와 유사한 입면으로 구성하였다. 양쪽 도로변의 입면에도



을사조약에 반대했던 한규설 대감의 가옥(서울민속자료 제7호). 장교동에서 정릉동으로 이전되었다.

중간에 가식적인 페디먼트(Pediment)가 사용되었으며, 외관은 전체적으로 당시 일본 건축 중 유사 서양식 건축을 구사하는 단계에서 막 벗어난 단계의 풍토가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1977년에 이 건물은 철거되었고, 1981년에 이 자리에 한국의환은행 본점이 세워졌다.

을사조약을 반대한 한규설이 살던 곳

중구 장교동 63-1번지에는 조선 말에 을사조약을 끝까지 반대한 의정부 참정대신 한규설(韓圭畵, ?~1930)이 살았다. 이 집은 건평 약 61평으로 원래 박준혁의 소유였다가 1890년 무렵에 한규설이 한성부판윤을 지낼 때 살았다. 한규설은 무과에 급제한 후 형조와 공조판서, 한성부판윤을 거쳐 포도대장·장위사(壯衛使)·의정부찬성을 역임하였고, 광무 9년(1905) 의정부 참정대신으로 내각을 조직하였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 전권대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강제로 어전회의를 열어 을사조약을 체결할 때 각 대신들에게 개별적으로 가부를 묻자 한규설은 극구 반대하여 조약 체결 후 파직되었다. 후일 중추원 고문·궁내부 특진관을 역임하였고,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정부에 의해 남작이 수여되었으나 거절하였다.¹⁹⁾

서울시에서 장교동 일대의 재개발 사업으로 이 집을 철거하게 되었던 것을 쌍용그룹 회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곤(金成坤)의 부인 김미희(金美熙)가 정릉동의 국민대학교에 기증함에 따라 이 학교 구내로 옮겨져, 1980년 12월 20일에 완공하였다. 지금은 명원민속관(茗園民俗館)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 지방민속자료 제7호 장교동 한규설 대감가(韓圭畵大監家)로 지정된 이 집은 개량식 한옥이라는 새로운 추세에 따라 지은 절충식 집으로 서양식 난방 시설을 하였다.

문장이 뛰어난 사람들이 살았던 대은암(大隱庵) 터

수하동의 청계천변에는 조선 시대 광해군 때 실학자 이수광(李睟光)의 집인 대은암(大隱庵)이 있어 유명하였다. 이 집은 조선 초에 집현전 직제학을 지낸 김맹헌(金孟獻)이 지은 것으로 이수광은 이 고옥의 내부를 수리하여 대은암이라는 편액을 달았으며, 그 아들인 동주 이민구(李敏求, 1589~1670)가 다시 크게 집을 지었다. 말년에 이 집을 외손인 신필화(申弼華)에게 물려주었다. 신필화 역시 문장에 뛰어났던 인물로 이수광을 비롯하여 역대 소유주가 모두 조선 시대의 대문장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대은암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²⁰⁾

대은암은 청계천변의 풍경이 아름다운 곳에 자리 잡았지만 『한경지략』 등 조선 후기에 발간된 저서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다. 이는 개항 이후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양안(兩岸)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상업 지구로 발전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름 그대로 맑은 물이 흐르던 청계천이 탁류로

남산동천에 놓였던 다리

교량명	연혁
무명 다리	충무로1가 52번지 부근과 남산동 3가 3번지 부근에 있었던 다리로 「수선전도」에 교량 표시만 되어 있다. 수하동 39번지 부근에도 「서울지도」에 교량 표시는 되어 있으나 다리 이름은 없다.
동현교(銅峴橋)	을지로2가 195번지 명동 입구 부근에 있던 이 다리는 조선 시대에 이곳을 '구리개'라 하였으므로 구리개다리로 불렸으며 후에 동현교라 불렸다.

변하고, 부근의 자연 경관도 훼손되면서 대은암까지 황폐되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을 가르친 관아, 도화서(圖畫署)

중구 수하동 64번지에는 조선 시대 관아인 도화서(圖畫署)가 있었다. 원래 중부 건평방에 있었다가 이곳으로 옮긴 도화서는 그림을 가르치고 시험·제조·보관 등에 관한 일체의 일을 맡은 관청으로 역대 왕들의 초상화도 많이 그렸다.²¹⁾ 조선 초 태조 때 설치되어 처음에는 도화원이라고 한 후에 도화서로 개칭되었다.

유본예(柳本藝)는 『한경지략』에서 “도화서는 중부 건평방에 있는데 국초에는 도화원을 두었다가 뒤에 서(署)로 고치고, 그림 그리는 일을 장악하였다. 화원은 모두 30명이며, 또 전자관(篆字官) 2명은 젊은이 중에서 총명한 인재를 뽑아서 예조(禮曹)의 당상관이 출제하여 고시하고, 연말에 점수를 많이 받은 자를 병조(兵曹)에 추천해서 1년 기한으로 녹봉을 주게 하였다.”²²⁾라고 기술하였다.

『경국대전』에서는 도화서 화원의 선발 규정에 대하여 “대나무·산수·인물·조수(鳥獸)·화초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 시험을 보되 대나무 그림을 1등, 산수를 2등, 인물·새, 짐승 3등, 화초를 4등으로 하며, 화초의 그림에서 통(通)의 성적을 받으면 2분(分), 약(略)을 받으면 1분의 점수를 주고, 인물·조수화 이상은 차례로 등을 올려서 각각 그 성격에 따른 점수를 보탬과 같이 한다.”²³⁾라고 하여 도화서 화원은 특히 사군자(四君子)와 산수화에 능한 사람이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4) 신발 가게가 있던 이전동천(履塵洞川)

이전동천(履塵洞川)은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부근의 죽전동(竹塵洞)과 중부경찰서 부근의 영희전(永禧殿)이 위치한 이전동(履塵洞)에서 발원하여 수표동 세한 빌딩 부근에서 만나 청계천3가 청소년회관길을 따라 입정동 5번지 북쪽의 하랑교(河浪橋)를 지나 청계천에 합류된다. 이전동천은 조선 시대에 신발을 파는 시전, 이전(履塵)이 부근에 위치하였으므로 이렇게 불렀는데 모두 복개되었다. 이전동천은 장수교천(長壽橋川)으로도 불렸다.



「도성도」 중의 이전동천 부근

이전(履塵)에서는 쇠가죽, 말가죽, 사슴가죽, 당나귀가죽 등의 가죽으로 만든 갓신 등을 취급하였다. 이전동천변에는 신발 외에도 대나무로 만든 생활용품을 파는 죽전(竹塵)이 있었고, 갓방 즉 갓을 만드는 집이 있어서 입정동이라고 불렸다.

이전동천이 청계천에 합류되는 곳에 있었던 하랑교(河浪橋) 또는 하릿교는 하남위(河南尉)의 집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연유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이 다리 부근에 화류농장(樺榴籠穡)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시전(市塵)이 있었기 때문에 화류장농교라 하다가 화류교(樺柳橋)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하릿교, 하랑교, 하교(河橋), 화교(花橋) 등의 명칭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석교인 이 다리의 서쪽 시렁 측면에는 ‘임신개조(壬申改造)’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개축 년도를 추측할 수 있었으나²⁴⁾ 청계천의 복개 공사로 철거되었다.

6명의 조선 국왕 영정을 모셨던 영희전(永禧殿)

이전동천변의 영희전(永禧殿)은 저동 2가의 중부경찰서·영락교회·영락병원 자리에 있었는데 조선 시대 태조·세조·원종·숙종·영조·순조의 영정(影禎)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다.

영희전은 본래 세조의 딸인 의숙공주(懿叔公主)의 저택이었는데 중종 원년(1506)에 왕비인 단경왕후 신씨(愼氏)가 쫓겨난 후에 거처하였다. 광해군 2년(1610)에는 왕의 생모인 공빈 김씨(恭嬪金氏)의 영정과 신위를 모시고 봉자전(奉慈殿)이라고 하였다가, 광해군 11년(1619)에 태조와 세조의 영정을 이곳에 봉안하고 남별전(南別殿)이라 하였다.

숙종 16년(1609)에 태조 이성계의 어진(御眞)을 봉안한 곳이 여섯 군데인데 모두 전호(殿號)가 있지만 서울에 봉안한 곳에만 전호가 없다고 하여 영희전이라고 명명하였다. 영조 24년(1748)에는 숙종의 영정을, 정조 때에는 영조의 영정을, 철종 때는 순조의 영정을 함께 봉안하고, 한식·단오·동지·납일(臘日) 등에 제사를 지냈다.

영희전에 있던 역대 왕의 영정은 광무 4년(1900)에 경모궁(景慕宮, 창경궁 동쪽 함춘원 터)에 새로 지은 영희전으로 옮겼다가 다시 융희 2년(1909)에 선원전으로 이관하였다. 이 터에는 의소묘(懿昭廟)와 문희묘(文禧廟)를 이관하였으나 융희 2년(1908) 7월에 신위를 땅에 묻고 사당은 국유로 이속되었는데 이듬해 3월에 건물도 철거되었다.²⁵⁾

철거되기 전의 영희전은 정전으로 수용전(睟容殿) 3칸이 중앙에 동남향으로 있고, 앞쪽에 대문 3칸이 있었다. 신좌와 영정은 모두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봉안되었으며, 재전(齋殿) 3칸은 좌측에 있고, 동궁 재실(東宮齋室) 3칸이 아래쪽에 있었다. 제사의 규모는 속제(俗祭)에 준하며, 제사 방법은 헌작(獻酌)과 친향(親享)의 두 가지가 있었다.

영희전의 제사를 지내려면 국왕이 수표교를 건넜다.

군수 물자를 조달하는 양향청(糧餉廳)

저동 1가 1번지, 남대문세무서 자리에는 양향청(糧餉廳)이 있었다.²⁶⁾ 양향청은 선조 27년(1594)에 설치한 5군영 중 하나인 훈련도감에 조달되는 군량·군복·무기·깃발·금고(金鼓) 등 기타 일체의 물자를 공급하였다. 임진왜란 때 수도 서울의 수비 및 신병법(新兵法)의 훈련을 위하여 훈련도감이 설치되면서 함께 발족되었다. 양향청에는 특히 신당(神堂)을 부설하고, 중국 한나라 관우(關羽)의 신상을 모셔 놓았다.

양향청은 갑오개혁 때인 1884년에 폐지되었고, 그 후 이 자리는 일제 때 조선총독부 전매국 인쇄부, 경성세무서에서 사용하다가 광복 후 중부세무서가 들어섰다.



삼연 김창흡의 초상

시와 거문고를 연주한 김창흡이 살던 시금골

수표동·입정동·을지로 3가에 걸쳤던 시금골 마을에는 조선 후기 영조 때 삼연 김창흡(金昌翕)이 친구를 모아 풍류를 즐기면서 시와 거문고(琴)를 연주하였으므로 시금골, 시금골이라 하다가 시금동(詩琴洞), 시동(詩洞)이라고 하였다.

김창흡은 좌의정 김상헌의 증손자이며 영의정 김수항의 셋째 아들로, 과거 시험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명령으로 응시해 현종 14년(1673)에 진사시에 합격한 뒤 과거 시험장에는 발을 끊었다. 그는 백악(白岳) 기슭에 낙송루(洛誦樓)를 짓고, 친구들과 글을 읽으며 산수를 즐겼다.

숙종 7년(1681)에 김석주(金錫胄)의 천거로 장악원 주부(掌樂院主簿)에 임명되었으나 관직에 나가지 않았고,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 때 아버지 김수항이 사사(賜死)되자 영평(永平, 경기도 포천)에 은거하였다.



광암 이벽의 초상

김창흡은 『장자(莊子)』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를 좋아하고 시도(詩道)에 힘썼으며, 친상을 당한 뒤에는 불전(佛典)을 탐독하여 슬픔을 잊으려 하였다. 그 뒤 주자의 글을 읽고 깨달은 바 있어 유학에 전심하였다.

1696년에 서연관(書筵官)에 초선(抄選)되고, 경종 1년(1721) 집의에 제수되었으며, 이듬해 영조가 세제(世弟)로 책봉되자 세제시강원(世弟侍講院)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임하고 나가지 않았다. 신임사화(辛壬士禍)로 거제도에 유배된 형 김창집이 사사되자 지병이 악화되어 죽었다.

조선천주교회 창립 터

수포교 부근에는 서학을 연구하던 이벽(李穡, 1754~1786)이 서양 문물과 사상에 눈을 뜨게 되어 1784년에 조선천주교회를 세웠다.²⁷⁾ 이벽은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많은 천주교 서적들을 가지고 오자, 그에게서 세례를 받아 정식으로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그는 서울 수포교 부근에 집을 마련해 서학의 교리를 깊이 연구하는 한편, 교분이 두터운 양반 학자와 인척들 및 중인 계층의 인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천주교를 전교하였다. 이벽은 ‘가성직자 계급(假聖職者階級)’의 교단을 조직하고 이 조직의 지도자로서 그의 집에서 포교(布教)·강학(講學) 등의 천주교 전례의식(典禮儀式)을 주도했으며, 새로 입교한 남인 학자들은 모두 그의 제자로 칭하였다.

1785년 봄에는 장례원 앞에 있는 김범우(金範禹)의 집에서 사대부와

교량명	연혁
장수교(長壽橋)	서울 고지도에는 이전동천에 다리 5개가 표기되어 있으나 다리 이름은 장수교 1개만 알려져 있다. 수포동 수료약국 부근에 있던 이 다리는 조선 역대 국왕이 영희전을 참배하러 갈 때 수포교를 건너 다음에 건넌 다리이다.

중인 수십 명이 모인 가운데 ‘설법교회(說法教誨)’하는 모임을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천주교 모임은 그해 ‘을사추조(乙巳秋曹) 적발 사건’으로 세상에 드러나 큰 타격을 받았으며, 성균관 유생들의 척사 운동으로 일단 해산되었다.

또한 이벽을 설득하지 못한 부친 이보만(李溥萬)이 자결함에 따라 1785년 천주교와 결별했다. 그러나 이듬해 폐스트에 걸려 죽음에 이르자 이벽은 천주교에 대한 배교 행위(背教行爲)를 뉘우치며 눈을 감았다.

그는 저서 『성교요지(聖教要旨)』에서 기독교 사상과 동양 유학 사상이 결합된 윤리와 규범을 제시하여 후일 천주교가 유례없는 대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닦았다.

5) 주자소를 지나는 주자동천(鑄字洞川)

주자동천(鑄字洞川)은 남산 예장동 남산 1호 터널 부근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흘러 주자동, 극동빌딩 동쪽 길을 따라 흐르다가 지하철 3호선 을지로3가역, 국민은행 지점을 지나 세운상가 부근에서 청계천에 합류된다.

조선 초 태종 3년(1403)에 활자가 적어 책을 만들기 어려우므로 이곳에 주자소(鑄字所)를 설치한 데서 연유하여 이 지역을 주자동이라 불렀고, 이곳을 흐르는 물줄기를 주자동천이라고 하였는데 현재는 복개되어 보이지 않는다. 이 하천이 흐르는 곳에는 짚·마(麻)·솜 등을 가공하지 않고 재료 그대로 파는 초전(草塵)이 있어서 초동(草洞)이라고 불렸다.²⁸⁾ 초동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이 토지와 상권을 장악하였다.



『도성도』 중의 주자동천 부근

조선 침략 기구, 조선총독부

주자동천변 중구 예장동 8번지에는 일제가 대한 제국을 탈취하기 위하여 한국 황실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1906년부터 1926년까지 남산 기슭에 설치했던 침략 기구인 조선통감부(朝鮮統監府)와 조선총독부가 있었다. 1905년 8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통감으로 부임, 침략 공작을 폈다. 1910년 일제 강점 이후에는 조선통감부가 조선총독부로 바뀌어 1926년까지 이곳에 있었다.

개항 후 밀려오기 시작한 일본인은 차츰 남산 밑 충무로, 필동 등에 주택과 상가를 짓고 자리 잡아 나갔다. 갑신정변(1884) 이후에는 경운동의 공사관이 소실되자 남산골 한옥마을 자리에 일본 공사관을 세웠다. 청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일본은 1904년 5월 31일 내각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對韓) 방침을 결정했다.

이러한 방침은 1905년 4월 8일과 10월 27일에 보다 구체화되었다. 일제는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한국에서의 정치·군사·경제상의 우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 장악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에는 통감부를 설치하고 한국 통치를 통감에 예속시켜 독점적인 지배를 감행하게 되었다.

1905년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의 진두지휘 하에 11월 17일 한국의 박제순(朴齊純)과 일본의 하야시(林權助) 사이에 5개 항의 제2차 한일협약이 강제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통감에 의해서 외교 사무가 대행되었다. 특히



남산의 조선총독부 건물

일본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서 한국 신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한국은 주권 상실의 상태가 되었다.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理事廳官制)가 공포되어 주한 일본 공사관은 1906년 1월 31일로 자연히 폐쇄되었다. 1906년 2월 1일에 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여(실제로 이토는 3월에 부임했고, 그동안은 한국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好道)가 대리하였다) 이른바 시정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국정 전반을 지휘 감독하면서 한국의 통치 조직을 체계적으로 해체해 갔다.

1906년 2월 남산 임시 청사에서 통감부는 즉시 본 청사의 건축에 착공하여 다음 해인 1907년 2월에 준공하였다. '왜장터'에 세워진 조선통감부 건물은 1910년에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건물로 변신하였다. 이어서 일본 공사관은 총독 관저가 되고, 인근에 정부총감의 관저를 지어 한

국을 지배하였다. 이 당시 통감부 청사는 벽돌 건물 2층에 회칠로 석조 모양을 낸 평리원의 건축과 비슷하나 규모가 더 큰 절충식 건물이었다.

조선총독부 청사는 1926년 경복궁 내에 총독부 청사가 준공되어 이전하자 1929년 4월부터 이른바 은사과학관(恩賜科學館)이 되었고, 광복 후에도 과학관으로 사용되었다. 1956년에는 그 자리에 한국방송공사(KBS)가 건축되어 사용되다가 여의도로 옮기자 한때 국토통일원이 사용하였다.

서울 마을의 역사 지리서, 『훈도방 주자동지』

광해군 13년(1621)에 지은 중구 주자동의 관청, 주요 가옥, 풍속을 기록한 『훈도방 주자동지(薰陶坊鑄字洞志)』²⁹⁾는 한성관윤을 지낸 권반(權盼)이 노년에 편찬한 조선 시대 서울의 마을 역사 지리서이다. 이 책에 의하면 주자동은 기묘·을사사화 때 충절이 높았던 인물들이 많았고, 여씨향약(呂氏鄉約)이 행해졌던 곳임을 알 수 있다.

광해군 때 영의정을 지낸 밀창부원군 박승종(朴承宗)이 쓴 서문에 보면 이렇게 써어 있다.

“땅은 편재(偏在)하여 도로가 나쁘고 시장도 멀어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아 시류(時流)와 명세(名勢)를 탐하는 자와 이익을 쫓는 사람은 이 부근에 살기를 꺼린다. 다만 기술이 있어 서적을 인쇄하는 사람, 독서에 전념하는 자, 높고 공기 맑은 곳에서 병을 돌보려는 사람이 거주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초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동안 변함이 없어 다른 동리에 비하면 매우 적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귀천노소(貴賤老少)를 불구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하는 정이 넘쳐흐를뿐더러 좁은 동네이면서도 옛날부터 충효명현(忠孝名賢)이 잇따라 나타나 주자동의 이름을 빛나게 하였던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공관(公館)·사우(祠宇)·고적·풍속·효자·절부(節婦)·명환(名宦)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관」은 도서관(校書館)의 업무와 관원의 구성을 적었는데, 주자동 이름이 도서관이 자리 잡은 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연혁 대신 서두에 소개하였다.

이 책 내용의 중심은 「명환(名宦)」으로 주자동에 거주한 주요 인물들의 약력이다. 이들이 살던 터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끝에 적었다.

이 마을의 효자로 권상(權常)·순천군(順川君) 관(瑄)·이영운(李榮胤)·서상남(徐尙男)·조명중(趙命仲) 등 5명을 소개하고, 열녀로는 권규(權規)의 부인 유씨(柳氏), 사천(私賤)인 말영(末命), 의정부의 노비인 세옥(世玉) 등 3명을 기록하고 있다.

명신으로는 세조 때 영의정을 지낸 조석문(曹錫文, 1413~1477)과 세조 때 공신으로 좌의정을 역임한 권람(權擘, 1416~1465),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산해(李山海, 1538 ~1609), 임진왜란 때 진주성을 지키다 전사한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김시민(金時敏) 등 40명을 기록하였다.

활자를 만들어 책을 인쇄하던 주자소(鑄字所)

주자소는 중구 (구)주자동 4~7번지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조선 시대에 활자를 주조하여 책을 인쇄하던 관아였다. 이에 따라 주자동(鑄字洞)이란 동명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고려 시대의 서적원(書籍院)을 이어받아 태종 3년(1403) 왕명에 의해 승정원 직속으로 주자소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궁궐 내의 도서관(校書館)을 내관(內館), 주자소를 외관(外館)이라 하였다. 이 해 2월부터 수개월



주자동의 옛모습을 알 수 있는 『훈도방 주자동지』



활자로 책을 만들던 주자소 터

동안 '계미자(癸未字)' 약 10만 개의 활자를 주조하여 책을 인쇄하였다.

태종 5년(1405)에 한양에 다시 천도하면서 이곳 주자동에 주자소를 두었다. 인쇄 업무는 승정원이 관장하였는데 장소가 궁궐 내외에 서로 떨어져 업무 연락에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였기 때문에 세종 17년(1435) 9월에 주자소를 경복궁 안으로 옮겼다.

그리고 주자소의 옛 건물에는 책관을 두고 교서관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였다. 주자소의 소관 업무는 승지 2인이 주관하고, 따로 2품 이상의 문신 1인과 승지 1인을 제조(提調)로 삼았으며, 그 밖에 교서(校書)·교리(校理)·참외(參外) 등 2, 3인을 두어 업무를 나누어 맡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자·인쇄는 그 업무가 중요하므로 유능한 관리를 배정하고, 또 자주 바꾸면 업무가 소홀해져 인쇄 업무에 착오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만기가 되어야만 교체할 수 있게 하였다.

그 뒤 세조 6년(1460) 5월에 주자소를 교서관으로 소속을 옮기고, 동시에 전교서(典校署)라고 개칭하였다. 이는 주자·인쇄 업무가 본래 교서관의 소관인데, 그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확장, 설치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통합한 것이다.

활자를 주조하는 경우는 주자도감을 임시로 설치하거나 지방 감영 또는 수어청(守禦廳) 등에 명하여 만들어 냈지만, 그 주자는 교서관으로 보내져 인쇄에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주자소가 교서관에 합속, 운영되어 오다가 조선 초기와 같이 따로 분리, 운영된 것은 정조 때이다.

정조는 조선의 문예를 부흥시킨 학문을 좋아한 임금으로서 새로 규

장각을 설치하여 내각으로, 그리고 교서관을 외각으로 삼고 관찬서의 편찬 및 간행 업무를 촉진시켰다.

이에 정조 18년(1794)에 규장각과 책을 출판하는 교서관이 떨어져 있어 불편하므로 교서관을 돈화문 밖으로 옮긴 후 주자소를 분리시켜 창경궁의 홍문관 자리에 설치하고 활자를 주조하게 하였다. 정조 20년(1796)에는 이곳에서 '정리자(整理字)'로 큰 활자 19만 자와 작은 활자 14만 자를 구리로 주조하였다.

철종 8년(1857) 화재로 '정유자' 등의 활자가 불타 버리자 그 이듬해에 '한구자', '정리자'를 다시 주조하였다. 그리고 교서관에 두었던 임진자(壬辰字)와 함께 한말까지 인쇄에 사용하였다. 이들 활자를 비롯한 그 밖의 활자 일부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래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책을 출판하던 교서관(校書館)

예관동의 명칭이 유래된 교서관(校書館, 예관)은 조선 시대에 서적의 출판, 출납에 관한 일은 물론 향축(香祝)·인전(印篆)의 관리 등을 맡았다. 이 교서관은 내관(內館)과 외관(外館)이 있었다. 경복궁 안 사육원 남쪽에는 내관이 있었고, 외관인 주자소는 남부 훈도방(薰陶坊), 즉 충무로 2가에서 남산동으로 들어가는 어귀에 있었다. 이 부근 역시 교서관동으로 불리는 마을이 있었는데 후에 중부 정선방으로 옮겼다.

교서관이 훈도방에서 정선방으로 이전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조선 정조 때에 지은 『한경지략』에 예관, 즉 교서관이 있던 곳은 임경업(林慶業) 장군의 옛 집터로, 예관 부근에 있는 부군당에는 임경업 장군의 신



주자소 현판(고궁박물관 소장)



병역세를 관장하던 균역청이 있던 극동빌딩

상(神像)을 모셨다고 하였다.³⁰⁾ 임진·병자 양란으로 파괴된 서울을 재건할 때 교서관도 훈도방에서 이곳으로 옮기지 않았나 생각된다.

조선 후기 병역세를 관장하던 균역청(均役廳)

충무로 3가 60-1번지 퇴계로 변에는 극동빌딩이 세워져 있다. 이곳에는 조선 후기 영조 26년(1750)에 창설된 병역세(兵役稅)를 관장하던 관아인 균역청이 있었다.

영조는 양민들이 부담하던 균역(軍役)이 과중하자 그 대책으로 균역청을 설치하고, 종래까지 베[布] 2필을 바치던 것을 1필로 줄였다. 그 대신 부족한 재정은 어·염·선세(魚·鹽·船稅)와 징집 대상자에게 부과하던 세금인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와 군량미 조달을 위한 공미(貢米)에 덧붙여 받던 결작(結作)의 징수로 보충하게 하였다. 해당 관청에 대한 급대(給代)를 충괄하기 위해 옛날의 수어청 자리에 균역청 청사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양민들의 부담이 반감(半減)되고, 종래까지 왕권을 견제하던

신권(臣權)을 억누르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국가 재정의 균형을 바로잡게 되었다.

그러나 균역청은 국가 경비의 절약책으로 2년 뒤인 영조 29년(1753)에 선혜청에 합병되었다. 대체로 영조 때 균역청의 1년 수입은 돈으로 환산하여 약 60만 냥이 되었으므로 호조(戶曹)의 1년 예산을 웃돌았다.

조선 말 임오군란(1882) 때는 급료를 받지 못한 구식 군인들이 선혜청 당상 민겸호 집을 습격하고 선혜청 창고로 사용되었던 전 균역청에 몰려들어 쌓여 있던 곡식을 나누어 가기도 하였다.

균역청 자리는 1880년대 일본인들의 자치 조직인 총대역장(總代役場)이 세워져 일인 거류민 집단 지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후 국유지로 편입되면서 1889년에 일본인의 2세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일출소학교(日出小學校)가 세워졌다가 광복 후 일신국민학교로 교명이 개칭되었다. 그러나 도심의 학생 수의 감소와 퇴계로의 확장 등으로 인해 1973년 폐교되면서 민간인에 불하되어 재개발로 지상 22층의 업무용 빌딩이 건립되었다. 이 일대는 처음에 남학동 지역이었으나 범정동 경계의 재조정으로 충무로 3가에 편입되었다.

물맛이 맵던 후추우물[椒井]

충무로 3가·초동·을지로 3가에 걸쳐서 있던 마을을 초정(椒井)골이라 하는데 이곳에는 후추우물[椒井]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라졌다. 이 우물의 물맛이 맵고 톡 쏘는 것이 마치 후추를 탄 것 같다고 하여 후추우물이라고 불렀는데 오늘날의 탄산수로 볼 수 있다.

이 우물은 조선 시대에 위장병에 특효라고 하여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였으나, 1906년 일본인들이 진고개를 8척이나 파내고 높이 5척이나 되는 방추형 수명을 묻고 나서는 물빛이 흐려지고 맛도 보통 물처럼 되어서 효능이 없어졌다고 한다.³¹⁾

초정은 냉천욕(冷泉浴)의 일종으로 조선 시대에 애용되었다. 조선 초

주자동천에 놓였던 다리

교량명	연혁
무명 다리	『수선전도』에 교량 표시만 되어 있어 그 이름은 알 수 없다.
주자교(鑄字橋)	극동빌딩 동쪽, 주자동 5번지 부근에 있던 다리로 조선 시대 활자를 만드는 관청인 주자소 앞에 있어서 주자골다리, 주자동교(鑄字洞橋)라고도 불렀다.

세종은 자신의 안질(眼疾)을 치료하기 위하여 세종 26년(1444)에 청주목의 초수(椒水)에 행궁(行宮)을 수선하고 왕비와 함께 행차하였으며, 충청도 목천현(木川縣), 전의현(全義縣)의 초수가 효력이 있다 하여 내섬시(內臚寺) 인원을 보내어 행궁을 건조하게 하였다.

6) 붓골을 지나는 필동천(筆洞川)



『도성도』 중의 필동천 부근

필동천(筆洞川)은 남산골 한옥마을, 필동2가, 충무로역을 지나 건천동길, 인현길을 따라 흘러 대림상가 서쪽을 거쳐 효경교 서쪽에서 청계천에 합류하는 물줄기이다.

필동천 동쪽의 작은 물줄기를 생민동천(生民洞川)이라고 『한경지략』에는 표기하고 있다. 생민동천은 ‘한국의 집’ 부근, 생민동(生民洞)에서 발원하여 충무로역, 명보극장을 지나 건천동, 산림동, 입정동 294번지 대명금속 부근에서 필동천 본류와 만나 청계천에 합류한다.

이 물줄기가 흐르는 지역은 조선 시대 부동(部洞) 또는 붓골(筆洞)이라 하던 지역을 흘러 내려가므로 필동천이라고 하였다. 필동천은 부동천(部洞川)이나 암이문동천(暗里門洞川)으로도 불렸는데

현재는 대부분 복개되어 볼 수가 없고, 남산골 한옥마을 서쪽에 복원되어 있다.

필동천은 현재 충무로역 부근의 필동교를 거쳐 영풍교로 이어지는데 지천의 교량은 대개가 나무다리였다. 그 대부분은 조선 초인 즉 태종~세종 연간에 가설된 것으로 보인다.³²⁾



복원된 필동천 모습(남산골 한옥마을 내)

금위영의 분영, 남별영(南別營)

필동천변의 남별영 터는 남산 아래 남부 낙선방(樂善坊)에 있다고 했으니 이는 현재 ‘한국의 집’ 남쪽의 필동 2가 103번지에 해당되며 금위영의 분영(分營)으로 군사 주둔지였다. 금위영은 훈련도감, 어영청 등과 함께 궁성의 금위(禁衛)는 물론 서울 수비를 위한 군영으로 경기 이남 수비병의 본영이었다.

남별영 남쪽에는 남창(南倉)이 있었는데 101칸이었고, 북쪽에는 하남창(下南倉) 104칸, 남창 서쪽 기슭에는 17칸 되는 화약고가 있었다. 또한 남별영 계곡에 ‘아계(丫溪)’라고 새긴 바위벽 아래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있는 정자 천우각(泉雨閣)은 남산 계곡 깊은 곳에 위치한 까닭에 피서지로 알려져 여름이면 장안에서 이름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도 유명하였다.

한옥의 양식과 생활 방식을 볼 수 있는 남산골 한옥마을

남산골 한옥마을 일대의 필동 2가 84-1번지는 일제 때 헌병사령부와 헌병 분대가 있었고, 필동 2가 80번지에는 정무총감 관저가 있었다. 조선군 사령부는 처음에 조선주차군사령부였는데 1908년 10월 1일 용산에서 이



남산골 한옥마을 입구와 2011년 '남산골 한가위 민속 한미당 축제' 모습

곳으로 이전해 왔고, 1914년에 조선군사령부로 개칭되었다. 광복과 함께 미군이 주둔했다.

한국군 창설 후 수도방위사령부가 자리 잡았다가 1991년 3월에 이전해 가자, 서울시에서 '남산 제 모습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오랜 세월 동안 훼손된 24,180평의 대지를 지형 복원하고 전통 정원으로 꾸미면서 서울 각처의 민속자료로 지정된 한옥 5개 동을 이곳으로 이전 복원하여, 1998년에 남산골 한옥마을로 일반에 공개하였다.

이곳에 이전된 한옥은 종로구 관훈동 박영호 가와 삼청동 김춘영 가, 옥인동 윤비 친가(복원), 중구 삼각동 이승업 가, 동대문구 제기동 윤택영 가이다. 이들 한옥은 이전하면서 그간 노후 되어 멸실(滅失)된 부분까지도 모두 복원함으로써 서울 지역의 서민 생활부터 사대부 신분에 걸맞은 가옥의 양식과 생활 방식까지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이 한옥촌은 우리 고유의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을 수시로 감상할 수 있는 음악 공원으로도 조성되며,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는 우리의 연극, 놀이, 춤 등이 공연되어 우리의 옛 문화와 만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한지 생활 공예전, 장 담그기(강좌, 시연, 실습), 민속주 제작, 민화장, 오죽장, 체장, 송절주, 침선장, 초고장, 나전칠기 등 전통 공예와



전통 생활문화를 느낄 수 있는 '한국의 집'

조선 시대 양반 문화의 실연으로 한문 강독, 사군자, 서예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기도 하였다.

또한 남산골 전통 정원 남쪽 광장에는 1994년 6월 21일 서울시가 '서울 600년 사업'으로 400년 뒤에 후손들이 보게 될 타임캡슐을 매설하는 '서울 1천 년 타임캡슐 광장' 조성 사업을 기공하여 11월 29일에 마무리하였다.³³⁾ 이 타임캡슐 안에는 서울시청의 각종 공문서와 현대 문물 등 600점이 들어 있으며, 이 캡슐은 매설 후 400년이 지난 2394년에 후손들의 손에 의하여 발굴하게 된다.

전통 생활문화를 보여 주는 '한국의 집'

필동 2가 81번지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생활문화를 한자리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한국의 집'이 세워져 있다. 1979년 문공부에서 옛 코리아하우스를 헐고, 그 자리에 20억 원을 들여 공사에 착공한 지 2년 만인 1981

년 2월 20일에 문을 열었다. 이 집은 한국의 전통적 건축 양식을 살려 지었는데 관람석 100석의 민속 극장이 있어서 매일 오후에 우리 고유의 춤과 음악을 연주하고, 마당은 전통 혼례식을 올리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조선 시대의 중등 교육 기관, 남부학당(南部學堂)

현재 중구 필동 1가 30번지(매일경제 미디어센터) 자리에는 조선 시대 서울 5부(五部)마다 설치된 중등 교육 기관의 하나인 남부학당(南部學堂)이 있었다.

남부학당, 즉 남학당은 태종 11년(1411) 6월에 예조참의 허조(許稠)에 건의에 의해 이곳에 독립된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9월에 완성하였다. 이로써 남학당은 5부 학당 중에서는 처음으로 독립적인 학당 건물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세종 1년(1419)에는 개성에서 폐사(廢寺)의 목재와 기와를 옮겨와 남학당의 동서재(東西齋)를 증축하였다.

세종 27년(1445) 이후 북부학당이 폐지됨으로써 5부 학당이란 표현 대신 4부 학당이란 이름이 나타나며, 4부 학당은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토지·노비 및 어장(漁場)의 수입을 하사받아 교육 비용에 충당하였다.

임진왜란으로 남학당은 소실되어 광해군 2년(1610) 이후에 중건된 것으로 보이며, 조선 말 고종 31년(1894)까지 존속되었다. 이 터는 일제 때에도 남아 있어 깨진 기와 조각이나 주춧돌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³⁴⁾ 그러나 1939년 '퇴계로'의 전신인 '소화통(昭和通)'이 개설되면서 일대가 정비되었고, 6·25전쟁 중에 충무로·명동 일대의 폭격으로 인해 폐허가 된 데다가 1952년에 '퇴계로'가 확장되면서 남학 터는 찾기 어렵게 되었다.

사육신의 한 사람인 박팽년(朴彭年)이 살던 곳

충무로 4가의 생민(生民)골, 필동 2가 80-2에는 조선 초 사육신의 한 사람인 최금현 박팽년(朴彭年)이 살았다. 『동국여지비고』에 보면 “박팽년의

집이 낙선방 생민동에 있는데 반송(盤松) 한 그루가 있어서 ‘육신송(六臣松)’이라 했으나 지금은 고사(枯死)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곧 최금현 박팽년이 살던 집 안뜰에 있던 소나무는 그 자신이 사육신의 한 사람인 듯 충절을 상징하였으므로 ‘6신송’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박팽년은 세종 16년(1434)에 알성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성삼문 등과 함께 집현전 학자로서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 세종 20년(1438)에는 성삼문 등과 함께 삼각산 진관사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그는 경학(經學), 문장, 필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통달하여 모인 학사들이 그를 집대성이라 불렀다.

어느 날 성삼문과 함께 집현전에 입직할 때 세종께서 친히 거동하여 내린 술에 취해서 늙자 세종은 남의(藍衣)를 벗어 손수 덮어 주기도 하였다. 그는 광주(廣州)에 얼마간의 논밭이 있었으나 어느 친구가 “그대는 녹봉만으로도 족한데 하물며 땅은 가져서 무엇하겠는가?” 하자 즉시 토지를 팔아 버린 일이 있다.

단종 때에는 좌승지, 세조가 즉위하자 충청도관찰사를 거쳐 형조참판 재임 시에 단종 복위 거사를 추진하다가 김질(金漬)의 밀고로 발각되어 투옥되었다. 세조가 그의 재주를 아껴 회유했으나 대꾸하지 않고 처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졌다.



최금현 박팽년의 초상

충무공 이순신이 태어난 마른내골

○ 충무공 이순신의 탄생지, 고증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에 보면 충무공 이순신은 조선 초 인종 1년(1545) 4월 28일(음 3월 8일)에 한성부 남부 마른내골(乾川洞)에서 태어

났다고 하였다. 마른내골은 인현동 1가 40번지 부근의 마을이다. 현재 마른내(乾川)는 모두 복개되어 보이지는 않지만, ‘한국의 집’ 부근에서 발원하여 충무로역, 명보극장을 지나 입정동을 거쳐 청계천으로 흘러드는 필동천의 한 갈래인 생민동천이다.

이 생민동천은 비가 오지 않는 날은 바닥이 말라붙어서 도로로 사용되지만 조금이라도 비가 내리면 금세 냇가로 변했다. 선조 때 허균(許筠)의 형 허봉(許篈)은 『성소복부고(性所覆誦稿)』 권 24에서 이 지역은 국조(國祖) 이래로 명인(名人)이 많이 탄생한 곳이라 하였다.

마른내 변에서는 충무공 이순신을 비롯해서 단종 때 영의정을 지낸 정인지(鄭麟趾)와 두만강 호랑이라 일컫던 김종서(金宗瑞)를 비롯해서 이계동(李季叟), 세조가 자신의 제갈량이라면서 놓지 않았던 양성지(梁誠之), 청빈한 대학자 김수온(金守溫)을 비롯하여 이병정(李秉正)이 살았다. 또한 중종 때 유순정(柳順汀), 권민수(權民手), 유담년(柳聃年), 선조 때 영의정 노수신(盧守愼), 유성룡(柳成龍), 『홍길동전』으로 유명한 허균과 허난설헌(許蘭雪軒), 허봉 오누이와 임진왜란 때 해전을 이끈 원균(元均) 등이 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무공의 탄생지나 성장한 곳이 충남 아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산의 현충사가 성역화된 데에서 기인한다. 충무공은 한성부 건천동(乾川洞)에서 태어났다고 하였으나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1956년 12월 5일에 한글학회와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가 공동으로 충무공의 탄생지를 답사하여 중구 인현동 1가 40번지(현재는 지적 변동으로 인현동 1가 31-2번지)로 고증하였다.

이 당시 충무공의 탄생지 고증은 문헌 기록과 고지도를 대조하고, 지형지물, 고로(古老)의 증언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1968년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동명연혁고』는 향토사학자 고 김용국(金龍國) 선생이 집필하였는데 그는 이 글에서 충무공의 탄생지를 인현동 1가



인쇄골목으로 변해있는 충무공 이순신 생가 터의 현재 모습과 명보아트홀 앞에 세워져 있는 「충무공 이순신 생가터」 표석

40번지로 고증한 것을 다음과 같은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분(李芬)의 충무공 행록(行錄)에 “...공 생우한성건천동가(公生又漢城乾川洞家)”라고 하여 충무공은 건천동에서 태어났다고 하였다. 또한 18세기에 그려진 「도성대지도」에 보면 건천동은 인현동 지역으로 나타나고, 선조(宣祖) 때 허균의 형으로 이조좌랑을 지낸 허봉(許篈)의 『성소이봉고(性所履誦稿)』에는 청녕공주(靑寧公主) 저택 뒤편~본방교에 이르는 부근 건천동에는 양성지, 유순정, 충무공 등의 유명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기록하였음을 볼 때 충무공이 건천동, 즉 현재 인현동 1가 부근에서 탄생하였다.

현재 지하철 2호선 을지로 4가역에서 삼풍상가 부근의 ‘인현길’로 들어서면 속칭 ‘충무로 인쇄골목’이라 하여 규모가 작은 인쇄소·스티커·금박·지업사 외에 식당들이 밀집되어 있어 복잡하다. 이 길에서 명보극장 방향으로 80여 미터 정도 가다가 삼풍상가로 나가는 인현1길 모퉁이에 4층의 신도빌딩(중구 인현동 1가 31번지 1호, 2호)이 세워져 있는데 이 자리가 바로 충무공이 태어난 곳이다.



서애 유성룡이 저술한 『징비록』

이곳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충무공 이순신은 21세에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면 백암리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무공의 선대는 한양에서 5대에 걸쳐 거주하였는데 대제학을 지낸 고조부 이변(李邊)은 84세까지 이곳에서 거주하고, 조부 이백록(李百祿)은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이후부터 문관이 아

닌 무관 집안이 되었다고 전한다.

충무공과 같은 마을에 살았던 영의정 유성룡(柳成龍)은 『징비록(懲毖錄)』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순신은 어린 시절 얼굴 모양이 뛰어나고 기풍이 있었으며 남에게 구속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과 모여 놀라치면 나무를 깎아 화살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동리에서 전쟁놀이를 하였으며,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 눈을 쏘려고 하여 어른들도 그를 꺼려 감히 그의 문 앞을 지나려 하지 않았다. 또 자라면서 활을 잘 쏘았으며 무과에 급제하여 발신(發身)하려 하였다. 또 자라면서 말 타고 활쏘기를 좋아하였으며 더욱이 글씨를 잘 썼다.

2006년에 텔레비전 방송에서 사극 「불멸의 성웅 이순신」(104회)이 인기리에 방영되었다. 처음 방영 때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차츰 시청률이 높아져 막상 마무리가 되자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다. 이는 충무공이 사대부가의 전통인 충효와 문학에 있어서 뛰어났을 뿐 아니라 시재(詩才)에도 특출하였으며, 인자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고, 전쟁에서는 물러섬이 없

는 용장(勇將), 전략전술에 밝은 지장(智將), 부하들에게는 믿고 따를 덕장(德將), 가족에게는 다정다감한 자식으로, 남편으로, 부모로 전사하는 순간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성웅(聖雄)이었기 때문이다.

『선조실록』 선조 31년(1598) 11월 27일자에 사관(史官)이 쓴 이순신의 졸기(卒記)를 보면 이렇게 써어 있다.

이순신은 사람됨이 충용(忠勇)하고, 재략(才略)도 있었으며, 기율(紀律)을 밝히고, 군졸을 사랑하니 사람들이 모두 즐겨 따랐다. 전일 통제사 원균(元均)은 비할 데 없이 탐학(貪虐)하여 크게 군사들의 인심을 잃고, 사람들이 모두 그를 배반하여 마침내 정유년(丁酉年) 한산(閑山)의 패전을 가져 왔다. 원균이 죽은 뒤에 이순신으로 대체하자 이순신이 처음 한산에 이르러 남은 군졸들을 수합하고, 무기를 준비하며 둔전(屯田)을 개척하고, 어염(魚鹽)을 판매하여 군량을 넉넉하게 하니, 불과 몇 개월 만에 군대의 명성이 크게 떨쳐 범이 산에 있는 듯한 형세를 지냈다. 지금 예교(曳橋)의 전투에서 육군은 바라보고 전진하지 못하는데, 이순신이 중국의 수군과 밤낮으로 혈전하여 많은 왜적을 참획(斬獲)하였다.

어느 날 저녁, 왜적 4명이 배를 타고 나갔는데, 이순신이 명나라 장수 진인(陳璘)에게 고하기를 “이는 반드시 구원병을 요청하려고 나간 왜적일 것이다. 나간 지가 벌써 4일이 되었으니 내일쯤은 많은 군사가 반드시 이를 것이다. 우리 군사가 먼저 나아가 맞이해 싸우면 아마도 성공할 것이다.” 하니, 진인이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 이순신이 눈물을 흘리며 굳이 청하자 허락하였다. 이리하여 명나라 군과 노를 저어 밤새도록 나아가 날이 밝기 전에 노량(露梁)에 도착하니, 과연 많은 왜적이 이르렀다. 불의에 진격하여 한창 혈전을 하던 중 이순신이 몸소 왜적에게 활을 쏘다가 왜적의 탄환에 가슴을 맞아 선상(船上)에 쓰러지니 이순신의 아들이 울려고 하고 군사들은 당황하였

다. 이문욱(李文彥)이 곁에 있다가 울음을 멈추게 하고, 옷으로 시체를 가려 놓은 다음 북을 치며 진격하니, 모든 군사들이 이순신은 죽지 않았다고 여겨 용기를 내어 공격하였다.

왜적이 마침내 대패하니 사람들은 모두 “죽은 순신이 산 왜적을 물리쳤다.”고 하였다.

이순신의 전사 소식이 전파되자 호남(湖南) 일도(一道)의 사람들이 모두 통곡하여 노파와 아이들까지도 슬피 울지 않는 자가 없었다. 국가를 위하는 충성과 몸을 잊고, 전사한 의리는 비록 옛날의 어진 장수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할 수 없다. 조정에서 사람을 잘못 써서 이순신으로 하여금 그 재능을 다 펴지 못하게 한 것이 참으로 애석하다.

만약 이순신을 병신년(丙申年)과 정유년 간에 통제사에서 체직(遞職)시키지 않았더라면 어찌 한산(閑山)의 패전을 가져왔겠으며, 양호(兩湖)가 왜적의 소굴이 되었겠는가! 아, 애석하다.³⁵⁾

1985년에 서울특별시에서 세운 충무공 탄생지 표석(標石)은 명보아트홀 앞(중구 인현동 1가 2번지)에 세워져 있다. 원래 이 표석은 충무공 생가 터인 인현동 1가 31-2번지에 세워 놓아야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 설치하기로 결정한 원칙에 따라 이곳에 설치된 것이다. 현재 세워진 표석 문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충무공 이순신 생가지(忠武公 李舜臣生家址)

이순신(1545~1598)은 조선 중기의 명장이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당시 옥포·한산포 등에서 해전을 승리로 이끌어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내었다.

선조 31년(1598) 노량에서 전사하였으며, 글씨도 능하여 『난중일기』를 비롯하여 시조와 한시 등을 많이 남겼다.

서울시의 급격한 도시 개발과 변화로 충무공의 탄생지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충무공 선양사업(宣揚事業)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중구문화원의 주선으로 2005년 7월 22일 오후에 충무공 탄생지를 답사하였다. 섭씨 30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남상만 중구문화원장·원영환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장·이인섭 (사)한국서화교육협회 이사장·이재신 덕수 이씨 정정공, 풍암공 종회 회장·이천용 덕수 이씨 종친회 이사·조상기 중구문화원 이사·김기태 중구문화원 사무국장 그리고 본인 등 8명이 인현동 1가의 충무공 탄생지를 답사하였다.

8명의 일행은 지하철 2호선 을지로 3가역에서 을지로 4가역 쪽으로 걸어가다가 삼풍상가와 을지로 4가 우체국 못 미처 6미터 정도의 좁은 도로로 들어섰다. 이 도로는 새 주소 부여 때 ‘인현길’로 정해진 을지로~마른내길로 나가는 일방통행 도로로서 오토바이 등 차량 통행이 끊이지 않아 마음 놓고 걷기가 어렵다. 속칭 ‘충무로 인쇄골목’인 관계로 규모가 작은 인쇄소·스티커·금박·지업사 외에 식당들이 밀집되어 있어 복잡하였다. 여기서 명보극장 방향으로 80여 미터 올라가다가 왼쪽의 삼풍상가로 나가는 첫 번째 골목(인현1길) 모퉁이에 4층의 신도빌딩이 세워져 있다.

우선 인근의 을지로교회를 방문하였다. 이 교회 관리인 이정식씨에게 충무공의 생가 터에 대해서 묻자, 그는 교회 서쪽 옆의 인현동 1가 31번지 1호, 2호에 위치한 신도빌딩(‘고은손 카드방’이 자리한 건물)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였다. 이에 신도빌딩에 1층의 ‘고은손 카드방’ 주인 이진선 할머니(88세)를 면담하였더니 “나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이곳에서 태어나 살았다고 들었다.”고 하였고, 또한 남편 김정수 옹도 어느 신문에 보도된 것을 스크랩하여 장롱 깊숙이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다.

○ 충무공의 일생과 구국 정신

충무공 이순신은 조선 초 명종 때 마른내골(乾川洞)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고 21세에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면 백암리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



충무공 이순신의 초상

저 있다. 덕수 이씨 종친회 이재신 전 회장에 의하면 충무공의 선대는 한양에서 5대에 걸쳐 거주하였는데, 고조부 이변(李邊)은 성종 때 대제학을 지낸 분으로 84세까지 이곳에서 거주하고 조부 이백록(李百祿)은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이후부터 문관이 아닌 무관 집안이 되었다는 것이다.

충무공의 본관은 덕수(德水)이고, 자는 여해(汝諧)이다. 아버지는 정(貞)이며, 어머니는 초계 변씨(草溪卞氏)로 수림(守琳)의 딸이다. 증조부 거(綱)는 병조참의에 이르렀다. 조부 백록(百祿)은 조광조(趙光祖) 등 지지주의(至治主義)를 주장하던 소장파 사림(士林)들과 뜻을 같이하다가 기묘사화의 참화를 당한 뒤로는 부친 정(貞)도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았던 만큼 이순신이 태어날 즈음에 가세는 이미 기울어 있었다.

충무공이 뒤에 명장으로 나라에 큰 공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유년 시절에 어머니 변씨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변씨는 현모로서 아들들을 끔찍이 사랑하면서도 가정 교육을 엄격히 하였다. 그는 위로 희신(羲臣)·요신(堯臣) 두 형과 아우 우신(禹臣)이 있어 모두 4형제였다. 형제들의 이름은 돌림자인 신(臣)자 위에 고대 중국의 삼황오제(三皇五帝) 중에서 복희씨(伏羲氏)·요(堯)·순(舜)·우(禹) 임금을 시대 순으로 따서 붙인 것이다.

충무공이 28세 되던 해에 비로소 무인 선발 시험의 일종인 훈련원 별과(訓練院別科)에 응시하였으나 불운하게도 시험장에서 달리던 말이

거꾸러지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져서 왼발을 다치고 실격하였다. 그 뒤에도 계속 무예를 닦아 4년 뒤인 32세에 선조 9년(1576) 식년 무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권지훈련원봉사(權知訓練院奉事)로 처음 관직에 나갔다.

이어 함경도의 동구비 보권관(董仇非堡權管)에 보직되고, 이듬해에 발포 수군만호(鉢浦水軍萬戶)를 거쳐, 1583년 건원 보권관(乾原堡權管)·훈련원 참군(訓練院參軍)을 역임하고, 1586년에는 사복시 주부(主簿)가 되었다. 그러나 무관으로 발을 들여놓은 그의 진로는 순탄하지 않았다.

그는 사복시 주부에 이어 조산보 만호 겸 녹도 둔전 사의(造山堡萬戶兼鹿島屯田事宜)가 되었는데, 이때 그는 국방의 강화를 위하여 군사를 더 보내 줄 것을 중앙에 요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던 차에 여진족의 침입을 받고 적은 군사로 막아 낼 수 없어 부득이 피하게 되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그것이 오로지 그의 죄라 하여 문책하였다. 그러나 그는 처형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장(主將)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첨병(添兵)을 들어주지 않고 정죄(定罪)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끝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서 중형을 면하기는 하였으나, 충무공은 첫 번째로 백의종군(白衣從軍)이라는 억울한 길을 걷게 되었다.

그 뒤 전라도관찰사 이광(李洸)에게 발탁되어 전라도의 조방장(助防將)·선전관 등이 되고, 1589년 정읍현감으로 있을 때 유성룡에게 추천되어 고사리첨사(高沙里僉使)로 승진, 이어 절충장군(折衝將軍)으로 만포첨사(滿浦僉使)·진도군수 등을 지내고, 임진왜란 전년도인 47세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가 되었다.

그는 곧 왜적의 침입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좌수영(左水營, 여수)을 근거지로 삼아 거북선 등 전선(戰船)을 제조하고 군비를 확충하는 등 일본의 침략에 대처하였고, 나아가서 군량의 확보를 위하여 해도(海島)에 둔전(屯田)을 설치할 것을 조정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선조 25년(1592)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충무공이 거느린 함대는 5월에 옥포·합포의 해전, 계속해서 6월에 당포·당항포의 해전에서 승리하고, 7월에 한산도에서 왜선 40여 척을 격파하는 등 대첩을 거두었다. 이어서 안골포·부산·마산의 왜군을 궤멸시켜 남해안 일대의 왜군을 소탕하자 충무공은 10월에 3도 수군통제사를 겸하였다.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고니시(小西行長)의 부하이며 이중간첩인 요시라(要時羅)는 경상우병사 김응서(金應瑞)에게 가토(加藤清正)가 어느 날 바다를 건너올 것이니 조선 수군을 시켜 사로잡으라고 은밀히 알려 왔다. 조정에서는 통제사 이순신에게 이를 실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충무공은 이것이 적의 흉계인 줄 알면서도 부득이 출동하였으니, 가토는 이미 수일 전에 서생포(西生浦)에 들어온 뒤였다. 이때 마침 조정에서 영의정 유성룡을 몰아내려고 하는 반대파가 충무공은 유성룡이 전라 좌수사로 추천한 사람이라 하여 먼저 충무공을 모함하게 되었다. 또한 경상우수사 원균(元均)도 이순신을 모함하는 상소를 올리자, 선조는 이 상소만을 믿고 크게 노하여 충무공이 명령을 어기고 출전을 지연하였다는 죄를 들어 체포, 압송하고 원균으로 하여금 그 직을 대신하게 하였다.

그러나 유성룡은 끝까지 “통제사의 책임지는 이순신밖에 없으며, 만일 한산도를 잃는 날이면 호남 지방 또한 지킬 수 없습니다.” 하고 간청하였지만 정세 판단에 어두운 선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순신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때 충무공은 전선을 거느리고 가덕도 앞바다에 있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바로 본영인 한산도로 돌아와 진중을 정리하고 원균에게 직위를 인계하였다. 당시 한산도에는 밖에 있는 군량미를 제외하고도 9,914석의 군량이 있었으며, 화약은 4,000근, 총통은 각 선척에 적재한 것을 제외하고도 300자루나 되었다. 영남 지방을 순시하던 도체찰사 이원익(李元翼)은 충무공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왜군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의 수군인데, 이순신을 바꾸고 원균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치계(馳啓)를 올렸지만 허사였다.

충무공이 서울로 압송되자, 지나는 곳곳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백성들이 모여들어 통곡을 하며 “사또는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우리는 모두 죽었습니다.” 하였다. 서울로 압송된 그는 이미 해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였지만, 그러한 공로도 아랑곳없이 가혹한 고문이 계속되었다.

그는 남을 끌어들이거나 혈투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자초지종을 날 낱이 고하였다. 죽음 직전에서 그는 우의정 정탁(鄭琢)의 변호로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도원수 권율(權慄)의 막하(幕下)로 들어가 두 번째 백의종군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통제사 원균의 수군이 1597년 7월에 왜군의 유인술에 빠져 거제에서 전멸함에 따라 충무공은 다시 통제사로 기용되었다. 8월 15일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과 맞서 31척을 격파하는 명량(울돌목)대첩을 거두었다.

이듬해 1598년 11월, 노량(鷲梁)에서 퇴각하는 왜선 500여 척을 공격하다가 왜군의 유탄(流彈)에 맞아 전사하였다. 충무공은 죽는 순간까지 “싸움이 바야흐로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삼가라.” 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운명을 지켜보던 아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그대로 통



청계천에서 거행된 이순신 탄생 465주년 기념 모형 거북선 경주대회



세종로에 세워진 충무공 이순신 동상

꼭하려 하였으나, 이문욱(李文穢)이 결에서 꼭(哭)을 그치게 하고 옷으로 시신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한 다음, 북을 치며 앞으로 나아가 싸울 것을 재촉하였다.

군사들은 충무공이 전사한 사실을 미처 모른 채 기운을 내어 분전하여 물러나는 왜군을 대파하였으며, 모두들 “죽은 순신이 산 왜군을 물리쳤다.”고 외쳤다. 충무공의 부음(訃音)이 전파되자 모든 백성들이 애통해하였다.

해전사(海戰史) 연구가이며 이순신을 연구한 발라드(G. A. Ballard) 제독은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이순신 제독은 서양 사학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의 업적은 그로 하여금 넉넉히 위대한 해군 사령관 가운데서도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게 하였다. 이순신은 전략적 상황을 널리 파악하고, 해군 전술의 비상한 기술을 가지고 전쟁의 유일한 참정신인 불굴의 공격 원칙에 의하여 항상 고무된 통솔 정신을 겸비하고 있었다. 어떠한 전투에서도 그가 참가하기만 하면 승리는 항상 결정된 것과 같았다. 그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 맹렬한 공격은 절대로 맹목적인 모험이 아니었다. 그는 싸움이 벌어지면 강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나, 승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중을 기하는 점에 있어서는 넬슨(Nelson)과 공통된 점이 있었다.

…… 영국인으로서 넬슨과 어깨를 견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기란 항상 어렵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인정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그는 한 번도 패배한 일이 없고, 전투 중에 전사한 이 위대한 동양의 해군 사령관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충무공의 전사는 후대인들의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추리에 불과한 것이며 확실한 근거는 없다.

충무공은 해전의 승리로 제해권을 장악하여 ‘풍전등화(風前燈火)’의 국가의 사직(社稷)을 지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란 중에는 『난중일기(亂中日記)』를 써서 남겼고, 우국충절(憂國忠節)의 시를 여러 편 남겨 놓았으므로 겨레의 성웅(聖雄)으로 추앙되어 세종로 네거리에 동상이 세워져 있다.

국가 의식과 민족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는 요즘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충무공과 세종대왕은 아무리 추앙해도 부족하므로 충무공이 청소년기를 보낸 인현동 1가 31번지 일대를 문화관광부·서울시·중구청 등에서 10년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토지, 건물 매입을 추진, 부지를 확보한 뒤 충무공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역사 마을 조성 사업’의 하나로 남산골 한옥마을에 아산 현충사와 같이 충무공 현충관을 세워 시민들이 참배하도록 하고, 효창공원 부근의 백범 기념관처럼 큰 규모로 충무공 교육관을 건립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의 교육을 이곳에서 실시하는 것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은 있지만 충무공의 구국 정신 현양(顯揚) 사업을 위한 충무공 기념 사업회를 거시적(舉市的)으로 구성하여 기념 활동을 벌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 사신이 머물던 동평관이 있던 자리(인현동 신성상가)

일본 사신이 머물던 동평관(東平館)

인현동 2가는 조선 시대에 일본 사신 유숙소인 동평관(東平館)이 있었고, 왕자의 집이 있는 곳이었어서 많은 사람이 내왕하였다. 일제 때 일본인의 거리로 변해 갔지만 아직도 옛 지명이 많이 남아 있다. 이곳은 남산에서 뺏어온 자락이 청계천과 합류되어 풍수지리상으로도 명당이 되고, 물이 모이므로 우물이 많았다.³⁶⁾

동평관은 인현동 2가 192번지에 있었으므로 이 일대를 왜관동(倭館洞)이라 하였다. 조선 초부터 일본과 왕래가 있어서 일본사신이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는데, 세종 2년(1420)에는 일본인들이

법을 어기므로 이곳에 감호관(監護官)을

두고 감시케 하는 한편 동평관 주위에는 울타리까지 둘렀다. 세종 27년(1445)에는 일본인들이 담을 넘어서 민가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자 의금부에서 이들을 체포하여 구금한 일도 있었다. 이 동평관에서는 무역도 이루어졌으며, 관사와 창고를 설치하여 그릇과 미곡을 저장하고, 일본 사신과 객인(客人)을 접대하였다.

그 뒤 삼포왜란(1510) 때에도 의금부에서 10여 명을 감금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동평관에 묵은 일본인들이 일으킨 폐단이 많았다. 임진왜란 때에 동평관이 소실된 이후 일본 사신의 상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폐쇄되었다.³⁷⁾

교량명	연혁
필동교(筆洞橋)	「도성대지도」에 보면 현재 충무로역 부근에 있던 다리로서 전일에 한성부 남부(南部) 관아가 있어서 부동(部洞)이라고 하다가 붓(筆)과 부(部)가 비슷한 음이므로 필동(筆洞)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동명에서 유래하여 필동교, 부동교라는 다리 이름이 붙여졌다.
무명 다리	을지로 3가 285번지 부근에 있던 다리로서 「수선전도」에 교량 표시만 있을 뿐 그 이름은 알 수 없다.
본방교(本方橋)	조선 후기의 허균(許筠)이 쓴 『성소부부고(惺所覆誦稿)』에 “...건천동에 살았는데 청녕공주 저택 뒤로 본방교(本方橋)까지 겨우 3, 40집에 불과하였으나, 이곳에는 조선 건국 이래로 명인(名人)이 많이 나왔다.”고 소개하고 있어서 고지도에 다리 이름 표시는 없지만 이 다리가 본방교로 추정된다.

7) 허생이 살았던 묵사동천(墨寺洞川)

묵사동천은 금위영의 남별영(南別營)이 위치했던 남산 계곡의 노인정 터(老人亭址, 필동 2가 134-2)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남산공원길(남측)을 건너 필동길을 따라 대한극장 서쪽~중구청 앞~오장동을 거쳐 방산시장 부근의 현 마전교 부근에 이르러 청계천에 합류하는 지천이다. 노인정 터 윗쪽은 묵사동천 물줄기를 볼 수 있지만 대부분 복개되었다.

묵사동천은 조선 시대 먹절 혹은 묵사(墨寺)로 부르던 절이 있어서 이 일대를 먹절골 또는 묵동·묵사동이라 불렀던 데에서 물길의 이름이 연유하였는데, 그 밖에도 먹절에서 먹을 만들어 시전에 내다 팔아 항상 시커먼 물이 흘러내려서 먹내·먹절골내라고 불렀다는 설도 있다.

이 물길의 상류는 예로부터 풍경이 수려하고 환경이 쾌적하여 많은 문인과 명사들이 살면서 독서를 하고 시를 읊으면서 즐겼던 지역이다. 조선 초 이안눌(李安訥)은 동국대학교 내의 자택에 ‘동악시단(東岳詩壇)과 비과정(琵琶亭)이라는 정자를 지었고, 조현명(趙顯命)은 귀록정(歸鹿亭)을 지었다.



「도성도」 중의 묵사동천 부근

도깨비골의 노인정

오늘날 서울 각 동에는 노인을 위한 경로당 또는 노인정이 세워져 있다. 그런데 조선 말에 일본이 갑오개혁을 강요하여 두 나라 대표가 모여서 회담을 한 노인정(老人亭)은 묵사동천변인 중구 필동 2가 134번지 2호에 있었다.

현재 대한극장 남쪽에는 미주아파트가 있고, 여기를 지나 남산 기슭으로 오르면 고급 주택이 들어선 곳에 노인정이 있었다. 노인정 정자의 흔적은 없지만 서쪽 바위벽에 ‘조씨노기(趙氏老基)’란 녀 자가 크게 새겨져 있다.

원래 노인정이란 명칭은 남쪽 하늘의 노인성(老人星)을 따서 지은 것으로 장수(長壽)를 뜻하기도 한다. 이 노인정은 조선 말 1840년경 풍양 조씨(豐壤趙氏)의 중심 인물로 헌종의 장인이자 풍양 조씨의 거두인 풍은부원군 조만영(趙萬永, 1776~1846)이 남산의 산자수

명(山紫水明)한 계곡에 세운 정자로, 항상 많은 노인이 모여 한가한 시간을 보냈다.

조만영은 그의 딸(趙大妃)이 추존된 익종(翼宗)의 왕비가 되고, 그가 낳은 헌종이 왕위에 오르자 동생인 조인영(趙寅永)과 함께 안동 김씨에 대립하여 세도정치를 한 인물이다.

노인정이 있던 이 마을은 전일에 팽나무가 많이 자라 팽나무골 또는 팽목동(彭木洞)이라고 하였다. 또한 골이 깊고 음침하여 도깨비가 많이 출몰하였으므로 ‘도깨비골’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래서 서울의 한량(閑良)들이 모이면 밤에 이 도깨비골을 다녀 오면 술을 사 주는 내기를 걸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전일의 노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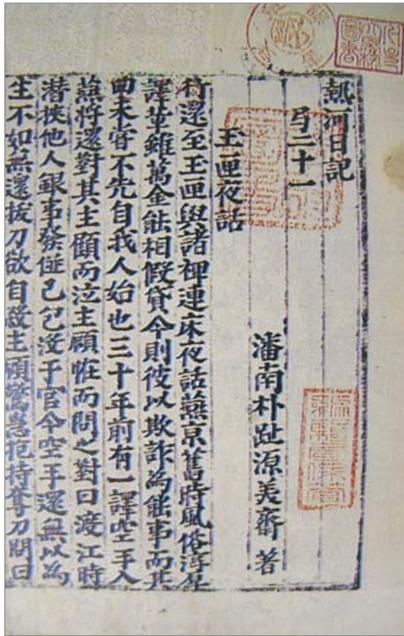
한편 이 노인정에서는 청일 전쟁이 일어나기 2개월 전 일본의 강요로 조선 대표 신정희(申正熙)와 일본의 오오토리(大鳥圭介) 공사 간에 회담이 진행된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노인정은 일제 때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고, 그 후 불교부인회에서 사용하였으나 훼손되었다. 정자 모습은 일제 때 촬영한 사진만 남아 있었는데 ‘조씨노기’란 암각 글씨가 1989년 10월에 서울문화유적 답사 때 비로소 발견되었다.³⁸⁾

『허생전』의 주인공 허생이 은둔해 살던 곳

묵사동천이 흐르는 남산골은 조선 시대 소설 『허생전(許生傳)』의 주인공 허생(許生)이 은둔해서 살던 곳이다. 『허생전』은 조선 후기에 박지원(朴趾源)이 지은 한문 단편 소설로 『열하일기(熱河日記)』 중 「옥갑야화(玉匣夜話)」에 수록되어 있다.

「옥갑야화」는 작자 박지원이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옥갑에 들러 여러 비장(裨將)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적은 것이다. 『허생전』은 변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중 『허생전』 부분

승업(卞承業)의 할아버지인 윤영(尹映)에게서 들은 변승업의 치부 유래를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삽입되어 있다.

『허생전』을 지은 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허생은 남산 아래 목적골의 오막살이집에 살고 있었다. 그는 독서를 좋아하였으나 몹시 가난하였다. 아내가 샴바느질을 하여 살림을 꾸려 나갔다. 굶주리다 못한 아내가 푸념을 하며 과거 시험도 보지 않으면서 책은 무엇 때문에 읽으며, 장사 밑천이 없으면 도둑질이라도 못 하느냐고 대든다. 허생은 책을 덮고 탄식하며 문을 나선다.

허생은 한양에서 제일 부자라는 변씨를 찾아가 돈 만 냥을 꾸어 가지고 안성에 내려가 과일 장사를 하여 폭리를 얻는다. 그리고 제주도에 들어가 말총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번다. 그 뒤에 어느 사공의 안내를 받아 무인도 하나를 얻었다.

허생은 변산에 있는 도둑들을 설득하여 각기 소 한 필, 여자 한 사람씩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무인도에 들어가 농사를 짓는다. 3년 동안 거두어들인 농산물을 흉년이 든 나가사키(長崎)에 팔아 백만금을 얻게 된다.

그는 외부로 통행할 배를 불태우고, 50만 금은 바다에 던져 버린 뒤에 글 아는 사람을 가려 함께 본토로 돌아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 뒤 남은 돈 십만 금을 변씨에게 갚는다.

변씨로부터 허생의 이야기를 들은 이완(李滄) 대장이 어느날 변씨를 데리고 허생을 찾는다. 이완이 나라에서 인재를 구하는 뜻을 이야기하자

허생은 “내가 와룡 선생을 천거할 테니 임금께 아뢰어 삼고초려(三顧草廬: 촉한의 유비가 제갈량을 세 번 찾은 일)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종실의 딸들을 명나라 후손에게 시집보내고 훈척(勳戚, 나라에 훈공이 있는 임금의 친척) 귀가의 세력을 빼앗겠느냐?”, “우수한 자제들을 가려 머리를 깎고 호복을 입혀, 선비들은 유학하게 하고, 소인들은 강남에서 장사하게 하여 그들의 허실을 정탐하고 그곳의 호걸들과 결탁하여 천하를 뒤엎고 국치를 설욕할 계책을 꾸미겠느냐?”고 묻는다.

이완은 이 세 가지 물음에 모두 어렵다고 한다. 허생은 “나라의 신신(信臣)이라는 게 고작 이 꼴이냐!”며 분을 참지 못하여 칼을 찾아 찌르려 하니 이완은 달아난다. 이튿날에 이완이 다시 그를 찾아갔으나 이미 자취를 감추고 집은 비어 있었다.

『허생전』을 통해서 박지원의 실학적 경륜을 볼 수 있다. ‘삼전도의 치욕’을 설욕하려는 국민감정을 부채질하여 ‘복벌’이란 허울 좋은 구호를 내걸고, 국민의 관심을 이에 집중시켜 자체 안의 병리에 눈감아 버리게 한 당대 위정자의 무능과 허위를 꼬집어 풍자한 문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허생전』은 박지원 스스로가 윤영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옮긴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민담(民譚)을 소설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희준(李羲準)의 『계서야담(溪西野譚)』에도 이 작품과 흡사한 내용의 허생 이야기가 실려 있다. 또 실존하였던 인물 허호(許鏞)의 일이 허생과 비슷하다고 전한다.

그러나 『허생전』의 두 편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윤영이라는 인물의 정체가 애매하다. 심지어는 허생의 성인 허(許)씨조차 부인되고 있고, 박지원이 자신의 작품임을 숨겨서 당대 사람들의 비난을 모면하려 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허생전』은 지난날의 전기 소설(傳奇小說)과는 달리 사회의 병리를



장마철이면 물에 잠겼던 무침교가 있던 자리(현 중구청 부근)

통찰하고, 그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열정을 가졌던 이상주의자 허생을 창조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소설사의 새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³⁹⁾

장마 때 물에 잠기는 무침교(無沈橋)

남산에서 내려 온 목사동천은 북류(北流)하면서 무침교(無沈橋), 청녕교(靑寧橋)를 거쳐 청계천에 이어졌다.

무침교는 오장동 22번지 서남쪽과 예관동 67번지 동남쪽 부근(현 중구청 동쪽)에 있던 다리로서 장마가 지면 물에 잠기므로 무침교 또는 침교(沈橋)라고 하였다.⁴⁰⁾ 그 위치에 따라 상무침교(上無沈橋), 하무침교(下無沈橋)라고 불렀다. 이에 따라 이 일대를 무침교가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무침다릿골, 한자명으로 침교동(沈橋洞)이라고 불렀다.⁴¹⁾

또한 오장동 10번지와 예관동 25번지 사이에는 나무로 다리를 놓아 주교(舟橋)라고 하였다.

임진왜란을 수습한 서애 유성룡(柳成龍)의 생가 터

중구 인현동 1가와 목정동에 걸친 곳에 조선 선조 때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이 살았다. 현재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3번 출구 부근의 SK주유소 앞 인도에는 서울시에서 세운 표석이 세워져 있다.

그가 서인 송강 정철(鄭澈)의 처벌을 논의할 때 동인이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었는데 온건파로서 남산 밑에 거주하였으므로 남인으로 칭하고, 강경파인 이발(李潑)은 북악산 아래 거주했으므로 북인이라고 불렀다.

유성룡은 1566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이조판서·우의정·좌의정에 올랐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도체찰사(都體察使)로 군무를 총괄하였다. 이어 영의정에 올라 왕을 호종(扈從)하여 평양에 이르렀다. 그러나 나라를 그르쳤다는 반대파의 탄핵을 받고 면직되었다가 다시 영의정이 되어 임진왜란을 수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가 이순신을 천거하여 일본 수군을 격파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은 유성룡이 살던 목사동과 이순신이 살던 건천동이 이웃해 있었으므로 일찍부터 두 사람 사이에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건어물을 파는 중부시장

중구 오장동 139번지 11호에 자리한 중부시장은 서울의 강남북을 통틀어 가장 큰 건어물 시장으로 유명하다. 이 시장은 2000년대 초에는 833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어서 하루 평균 1만여 명의 고객이 드나들었다.⁴²⁾ 시장에 들어서면 줄줄이 엮어진 굴비 두름, 수북이 쌓인 북어, 멸치, 오징어, 쥐포, 김, 미역 등의 건어물류가 그득하다. 건어물류는 한목에 구입하였다가 필요할 때마다 밑반찬으로 꺼내 쓸 수 있어서 저장용으로 좋다.

이 시장은 서울시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성되었다. 6·25전쟁 후인 1955년 9월 내무부고시 제244호에 의해 시장 부지로 책정되어 1957년 1월 21일에 중부시장으로 개설되었고, 1959년에 허가되었다. 이 시장은



서울 최대의 건어물 시장인 중부시장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중간에 위치하므로 1965년경부터 두 시장의 농수산물 위탁 상인들이 모여들어 주로 건어물과 해산물을 주종으로 거래하는 전문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1974년 12월 6일에 연건평 1,671평 40개 점포로 중부농산물공판장을 개장한 후 1985년 6월에 정부의 시책으로 일부 건어물·해산물 위탁 상인들과 유사 도매상인들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으로 이전하자 서울시는 남대문수산물시장과 함께 거래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1986년 6월 21일 남대문·의주로시장·청량리 수협공판장 등 4개 시장의 농수산물 도매 금지 기간을 1년간 연장하였지만, 이 시장은 오늘날까지 농수산물 가공품을 주종으로 하는 종합 도·소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가격이 저렴하고, 점포별로 한두 품목씩 팔기 때문에 품질 좋은 건어물을 골라 살 수 있다. 요즘에는 구운 김, 조미 북어, 조림 멸

치 등 건어물을 가공식품으로 내놓기 때문에 이들 상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새벽 4시부터 문을 열었다가 오후 한두 시면 대부분 문을 닫고, 오후 5시면 한산해진다. 따라서 아침 일찍 장을 보거나 늦어도 12시 이전에 가야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늦은 오후나 야간에 시장 주변에서 파는 상품은 대개 불량품일 가능성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이 시장에서 건어물을 더욱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요령은 많은 물품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다. 건어물 가격은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한 차례 가격이 오르고, 명절 전에도 강세를 보인다.

성종의 부마 청령위가 살던 청령교(靑寧橋)

을지로 4가 156번지와 을지로 5가 269번지 부근, 방산시장 입구에는 청령교(靑寧橋)가 있었다. 이 다리 이름은 조선 초 성종의 셋째 딸 공신옹주(恭愼翁主)와 결혼한 청령위(靑寧尉) 한경침(韓景琛)이 부근에 살았으므로 불리게 되었다.

공신옹주는 성종의 후궁 엄씨(嚴氏)의 소생으로 한경침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독신으로 지냈다. 연산군이 일으킨 갑자사화 때 생모 엄씨가 사약을 받고, 자신은 아산에 귀양 가게 되자 그곳에서 남편과 생모의 신주를 모셔 놓고 아침저녁으로 곡을 하였다. 연산군이 축출되고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이 공신옹주의 이와 같은 효성과 지아비에 대한 마음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해 열녀 정문(旌門)을 세워 놓아 표창하였다.⁴³⁾

벽지와 문구를 도매하는 방산종합시장

을지로 5가와 청계천 5가의 서쪽, 전일 방산초등학교 터(중구 주교동 19번지 1호)에는 대규모 상가 건물인 방산종합시장이 있다.

이 시장은 현재 꽃수를 비롯하여 식료품·종이류·문구류·사무용품·의류 부자재·비닐·라벨 등을 도매로 팔고 있다. 매년 학기 초가 되



벽지와 문구 도매시장인 방산종합시장

면 신학기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문구류를 저렴하게 사기 위해 몰려들어 성황을 이루며, 어린이날과 성탄절 때는 선물용 완구를 사려는 사람들로 시장은 발 디딜 틈이 없다.

방산종합시장에서 취급하는 식료품은 커피·설탕·물엿·마요네즈·토마토케첩·전분 등의 조미료와 건포도·땅콩 등 견과 가공품인데 가격이 시중보다 20% 정도 저렴하며, 견과 가공품이 진열되어 있어 제과점이나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이 시장은 1975년 4월 25일에 개설되어 1976년 11월 29일에 허가되었다. 현재 이 시장은 A·B동의 3층 대규모 상가 건물로 오전 8시에 개장하여 오후 8시에 폐장하는데 B동의 1층은 제과 재료, 2층은 꽃수를 주문, 판매하고 있다.

현재 을지로에서 방산종합시장으로 들어가는 도로 양편은 지류(紙

교량명	연혁
청녕교(淸寧橋)	현 을지로 5가 을지 인삼빌딩 앞에 있던 다리로 조선 시대 성종의 셋째 사위였던 청녕위(淸寧尉) 한경침(韓景琛)이 이 부근에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청녕위교(淸寧尉橋), 청교(淸橋), 청자교(淸字橋)라고도 불렸다.
상무침교(上無沈橋)	예관동 70번지와 충무로5가 82번지 부근, 현 충무로 5가 타올회관 앞 네거리에 있던 다리로 목사동천의 제일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데 장마가 지면 물에 자주 잠기므로 무침다리 즉 무침교라고 불렸다.
하무침교(下無沈橋)	예관동 70번지, 현 중구청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장마가 지면 물에 자주 잠겨 무침교라고 불렸다.
염초교(焰硝橋)	중구 주교동 308번지 전일 방산초등학교 앞, 방산시장 안에 놓였던 다리로 근처 방산동 4번지에 조선 시대 화약을 만들던 기관인 염초청(焰硝廳)이 있었던 데에서 유래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類) 도매시장으로 종이·비닐을 취급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다. 흔히 이곳을 벽지골목이라고 할 정도로 벽지를 취급하거나 장판·카펫·페인트·바닥재·커튼 등 주택 장식품 외에 인쇄소, 코팅집, 봉투 및 쇼핑백 판매점, 포장 센터 등 각종 전문점 500여 곳이 있다. 주로 이곳을 찾는 사람은 소매상·인테리어업자·건축업자 등 대량 구매자들이다.

이 시장은 1953년 4월 10일 부주의로 대화재가 발생하여 손해액이 1,895만 원(圓)에 이르기도 하였다.

8) 쌍이문을 흘러내린 쌍리동천(雙里洞川)

남산공원길(북쪽)에서 발원하여 동국대학교 서쪽을 지나 앰버서더호텔 뒤쪽~충무초등학교 앞을 거쳐 쌍림동과 광희동·오장동·을지로 5가·국립의료원 서쪽을 거쳐 마전교 동쪽에서 청계천과 합류하는 물줄기가 쌍리동천이다. 쌍이문골천·쌍이문골내·쌍이문동천·쌍이뚝골내라고도 하였는데 현재는 복개되어 보이지 않는다.

쌍리동천은 조선 전기 이곳에 방범을 위해 설치한 이문(里門)이 두



「도성도」 중의 쌍리동천 부근

개가 있어서 ‘쌍리(雙里)’라는 이름이 유래하였고, 『한경지략』에는 광해군 때 권신 이이침(李爾瞻)이 이곳에 살았는데 아호를 쌍리(雙里)라고 자칭했다고 쓰여 있다.

이 물줄기 상류에는 조선 시대 윤희평(尹希宏)이라는 선비가 계곡 주위에 수석(水石)을 모아 놓고 풍류를 즐겼다는 일화와 조선 개국 공신이었던 남재(南在)와 묵사(墨寺)의 노승(老僧) 사이에 벌어진 내기 바둑에 관한 일화가 남아 있다.

쌍림동의 동명은 원래 쌍리문동이라 부르던 것이 음이 변해서 쌍림동으로 되었는데 쌍이문골·쌍이못골·쌍문동·쌍리(雙里)라고도 불렀다.⁴⁴⁾ 쌍림동의 연원이 되었던 이문 설치의 조선 초 세조 때 “경성의 각 마을에 이문을 만들어 세우라.”는 전지(傳旨)를 한성부에 보내면서부터 비롯되었다.

국방부에 해당하는 병조(兵曹)의 계청으로 이문 안의 인구를 참작하여 10호 이하는 매일 밤 2명씩, 20호 이하는 3명씩, 30호 이하는 4명씩, 그 이상은 매일 밤 5~6명씩 주민이 나와서 이문에서 숙직을 하도록 하였으며, 외방에도 민가가 조밀한 곳이면 이문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성종 때에도 방법뿐만 아니라 법으로 금했던 사치스러운 잔치나 고성방가(高聲放歌) 같은 소음 공해 시에도 이문의 숙직자가 단속하도록 되어 있었다.

임진왜란으로 서울에 남아 있던 100여 개의 이문은 거의 소실된 채 복구되지 못하였고, 순조·헌종 때에는 종로구 공평동에 있는 이문 터와, 이곳 쌍림동의 이문 터, 그리고 몇 곳에 터가 있었으나 이제는 동명으로만 남았을 뿐 서울의 이문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동국대학교 내의 경희궁의 정전, 송정전(崇政殿)

남산 2호 터널 입구와 인접해 있는 동국대학교 정문으로 들어오면 ‘정각원(正覺院)’이란 현판이 달린 다포계(多包系) 팔각지붕 건물이 세워져 있다. 이 건물은 원래 종로구 신문로 2가 2번지에 위치했던 경희궁의 정전(正殿)으로 광해군 8년(1616)에 경희궁을 건축하면서 지어졌는데 주춧돌과 기둥이 둥근 것이 특징이며, 일제 때인 1926년에 이전하여 세워 놓았다.

경희궁은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과 함께 서울의 5대 궁궐의 하나로서, 조선 후기의 역대 왕들이 머물고 정사를 돌보던 곳이다. 이곳에 경희궁을 건축하게 된 것은 광해군이 신문로 2가의 색문동(塞門洞)에 왕기(王氣)가 서린다는 ‘색문동 왕기설(塞門洞 王氣說)’이 나돌자 이 풍수지리설을 눌러 왕위를 보전하고자 함이었다. 이에 따라 색문동에 위치한 정원군(定遠君, 선조의 5남)의 집을 위시하여 이 지역의 민가를 이주시키고 궁궐 공사를 시작하였다.

궁궐 공사는 완공되었으나 광해군은 경희궁에 들지 않았다가 광해군 15년(1623)에 인조반정으로 왕위에서 물러났다. 따라서 반정으로 정원군의 장남인 인조가 왕으로 추대되고 정원군은 원종(元宗)으로 추존하였으니 이른바 ‘색문동 왕기설’은 적중한 셈이다.

송정전은 경복궁의 근정전, 창덕궁의 인정전, 창경궁의 명정전, 덕수궁의 중화전과 같이 경희궁의 정전(正殿)이어서 국왕이 문무백관의 진하(進賀)를 받거나 조회(朝會)를 하는 중심되는 건물이다. 따라서 송정전 앞에는 정1품부터 종9품까지의 문무백관이 서열대로 늘어서는 표지인 품계석(品階石)이 세워져 있었다.

조선 후기 송정전이 경희궁의 정전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때에는 둘레에 무랑(廡廊)과 담이 둘러 있었고, 그 둘레에는 남쪽에 송정문(崇政門), 남동쪽에 건명문(建明門), 동쪽에 여춘문(麗春門), 서쪽에 의추문(宜秋門)이 있었다.



동국대학교의 법당으로 쓰이고 있는 경희궁 승정전

숙종 36년(1710)에는 60세를 축하하는 헌수하례(獻壽賀禮)가 승정전에서 있었고, 4년 뒤 정월 오일(午日)에는 이곳에서 조회를 마친 후에 국왕이 지은 시가 『궁궐지』에 수록되어 남아 있다. 그 후 경종·정조·헌종 세 임금은 승정전에서 즉위식을 올린 뒤 이 전각에서 신하들의 하례를 받았다.

경희궁은 조선 말 일제의 침략과 함께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 1907년에 서쪽 부분을 일제의 통감부 중학교로 사용하면서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경희궁 부지는 국유지로 편입되어 그 관리권이 1925년부터 경기도로 이전 전환되었다. 1926년에는 승정전 전각이 일반에 매각되어 현재 동국대학교 자리의 일본 사찰인 조계사(曹溪寺)의 본당으로 쓰이게 되면서 궁궐 전각을 사찰 건물 형태로 바꿔 놓았다. 현재도 승정전은 동국대학교의 법당으로 쓰이고 있는데 내부에는 널마루가 깔리고, 벽에는 유리

창이 끼워져 있으며 기단석(基壇石)은 없어지고, 장대석만 둘러져 있다.

1910년 일제가 경성중학교를 세우기 위해 경희궁의 전각들을 헐어 매각하고 이 건하면서 흥화문도 1915년 남쪽 담장으로 옮겨졌다가 1932년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받드는 장충동의 박문사(博文寺)로 옮겨져 정문으로 사용되었다. 광복 후에 이 절은 영빈관이 들어섰다가 신라호텔이 세워지면서 흥화문은 호텔 정문으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경희궁 복원 계획에 따라 승정전도 원래 위치로 이전, 복원하려다가 건물의 본 모습이 많이 변형되었으므로 이전할 계획을 바꾸어 1989년 12월에 새로 축조하여 복원하였다.



동악 이안눌을 기리는 '동악선생시단' 비석

문인 이안눌이 살던 동악시단(東岳詩壇)

쌍리동천변 동국대학교 북문 가까운 암벽에는 '동악선생시단(東岳先生詩壇)'이라고 쓴 각자(刻字)가 있었다. 그런데 이 각자는 1985년에 동국대학교에서 암벽을 헐어 내고 '계산 고시학사' 건물을 세울 때 없었다. 그 대신 부근에 '동악선생시단'이라는 글자를 1987년에 큰 자연석에 새겨 놓았다.

동악(東岳)은 조선 중기 선조(宣祖) 때 시인이자 예조판서를 역임한 이안눌(李安訥, 1571~1637)의 아호이다. 동악 이안눌은 29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참의를 거쳐 강화부윤에 재임하다가 광해군의 폭정에 분개하여 사직하였다가 인조반정 후에 예조참판에 등용되었다. 그 후 명나라에 가서 인조의 부친 정원군(定遠君)을 원종(元宗)이라고 추존하는 것을 허락받아 시호(諡號)를 받고 돌아왔으므로 그 공적을 인정받아 예조판서

에 올랐다.

이안눌은 권필(權鞞)·윤근수(尹根壽)·이호민(李好閔) 등의 많은 문인들과 교제하여 이들과 함께 '동악시단'의 모임을 만들어 이곳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안눌은 날마다 당대 명류인 이들과 어울려 단(壇)에 모였다가 누(樓)에 오르기도 하니 사람들이 신선 같이라며 부러워하였다고 한다. 글 외우고 시 읊는 소리가 마냥 따뜻하고 부드럽게 어울렸기에 그 다락을 가리켜 시루(詩樓)라 하고, 그 단을 일컬어 시단(詩壇)이라고 하였다.

영조 때 예조판서·판돈령부사를 지낸 이안눌의 현손인 이주진(李周鎭)은 그 동산에 담장을 두르고 거칠고 더럽혀진 곳을 가지런히 다듬어 흙을 보태서 단을 수리하고 물을 끌어 연못도 파고, 바위에 '동악선생시단'이라는 여섯 글자를 쪼아 새겼다. 또한 푸른 대나무, 붉은 단풍나무, 철쭉 따위를 고루 갖추어 연못 둘레 섬돌 계단 사이사이에 옮겨 심기도 하였다.⁴⁵⁾

명진학교로 출발한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불교계의 사립 종합 대학교로서, 1906년 5월에 불교계에서 근대적 교육 사업을 위한 중앙 교육 기관의 설립을 추진하여 동대문 밖 원흥사(元興寺, 창신초등학교 자리)에 세운 명진학교(明進學校)로 출발하였다.

1910년 4월에 불교사범학교로 개편되고, 1914년 7월 불교고등강숙, 1915년에 중앙학림(中央學林)으로 개칭한 다음 명륜동의 북관왕묘로 이전했다. 3·1운동 후에는 폐교되었다가 1930년에 중앙불교전문학교, 혜화전문학교로 교명이 바뀌었다.

광복 후 1945년 9월에 동국대학으로 개편하여, 1953년 2월에 종합 대학교로 승격했으며, 1978년 10월에 경주 분교를 설립하였다. 현재 이 대학교는 서울 캠퍼스와 경주 캠퍼스가 있으며, 불교 조계종이 재단이다.



동국대학교 전경

영의정 남재의 집, 조암루(槽岩樓)

쌍림동 풀무재에는 조선 초의 개국 공신으로 영의정을 지낸 남재(南在, 1351~1419)가 살았다. 이 집에는 모양이 마치 말구유처럼 생긴 구유바위가 있어서 한자로 조암(槽岩)이라 하였다. 남재의 집을 조암루(槽岩樓)라고 불렀기 때문에 남재는 그의 호를 구정(龜亭)으로 바꾸었다.

남재가 조암에서 바둑으로 소일하자 이곳에서 멀지 않은 묵사(墨寺)의 노승이 내기 바둑을 제의하여 질 때마다 옷을 벗기로 했다. 노승이 계속 지게 되어 속바지까지 벗게 되자 남재에게 용서를 빌어 간신히 절로 돌아갔다. 절로 돌아온 노승은 남재의 하인들이 콩과 찬거리를 한 바리씩이나 두고 간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내기 바둑에 이긴 남재가 기쁨을 참지 못하여 마음이 흡족한 나머지 일부러 저 준 노승의 뜻을 알아차리고 절에 쓸 물건을 보내 주었다는 것이다.⁴⁶⁾



김홍도의 「대장간」, 18세기 말, 국립중앙박물관

대장간이 늘어섰던 풀무재[冶峴]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 천도할 당시 서울에는 고개가 많았다. 서울을 둘러싼 남산, 인왕산, 북악산의 산줄기가 청계천 쪽으로 뻗어 내려 마치 배를 땅에 대고 기는 형상이었다. 그러나 이 산줄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자 길을 내기 위해서 깎아 내어 낮춤으로써 언덕으로 보이거나 자취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우선 남산에서 북쪽으로 뻗은 산줄기로 인해 생긴 고개 중의 하나가 풀무재, 야현(冶峴)이었다. 남산에서 뻗은 산줄기의 하나는 장충동

2가의 동국대학교 자리와 목정동의 소피텔 앰버서더호텔을 지나 을지로 5가에 닿았다. 따라서 충무로에서 광희문으로 오고 가려면 풀무재를 넘어 다녔다.

1890년까지 고개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즐비하게 풀무질을 해서 쇠를 달궈 연장을 만드는 풀무집, 즉 대장간들이 늘어서 있었으므로 풀무재, 풀무고개 혹은 대장고개라고도 하였다. 이에 따라 쌍림동 73번지 북쪽(현재 충무초등학교) 일대를 야현동(冶峴洞)으로 불렀다. 이 풀무고개 일대에는 일제 강점기 때에도 100여 개의 대장간이 있었고, 이곳을 지나는 지하철 4호선 공사를 시작하기 전이었던 1970년대 말까지도 70군데나 있었다.

서울에는 야현 외에도 인현동(仁峴洞)·송현동(松峴洞)·아현동(阿峴洞)·만리동·돈암동·무악동·망우동 등이 모두 고개 이름이 동명(洞名)으로 된 것이다.⁴⁷⁾

교량명	연혁
어청교(於淸橋)	중구 광희동 1가 296번지~오장동 193번지, 을지로 5가 KT 을지로 지점 부근에 있던 다리로 이곳의 지형이 언청이와 같은 모양이어서 언청다리, 어청교, 어교(漁橋)로 불렸다. 『경성부사』에는 수당교(水唐橋)라고 하였는데 이곳에 무당이 많이 살아서 유래되었다고 하였다.
전도감교(錢都監橋)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광희문 밖에, 『수선총도』 등 고지도에는 광희문 안쪽에 전도감교가 표기되었다. 현 퇴계로 5가 우체국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승례문 부근 창동천 수각교 하류에도 전도감교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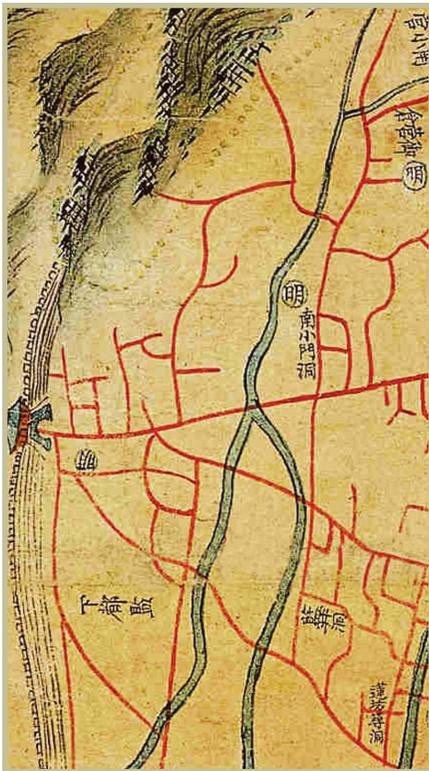
9) 이간수문을 통하는 남소문동천(南小門洞川)

남소문동천은 이름 그대로 남소문 근처(타워호텔 서쪽)를 지나 청계천으로 흘러들었던 하천이다. 그 외에도 남소문동 일파천(南小門洞一派川)·이간수문천(二間水門川)·남소동천(南小洞川)이라고도 불렸다. 남소문동천은 현재 장충단공원 내에만 보이고, 다른 지역은 복개되어 보이지 않는다.

남소문동천은 국립극장 동남쪽으로 흘러 내려 장충단공원, 장충단길을 지나 광희동 네거리에서 두 갈래로 나뉜다. 한 갈래는 국립의료원을 거쳐 청계천에 합류되고, 한 갈래는 동대문 축구장이 자리한 곳의 이간수문(二間水門)을 통하여 서울 성곽 밖에서 청계천에 합류되는 큰 물줄기이다.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장충단공원 사진을 보면 남소문동천의 물이 많이 흘렀음을 알 수 있다. 남소문동천을 끼고 있는 두 능선 중 장충단공원 근처만 개발이 되었고, 다른 부분은 산림이 살아 있었기에 남소문동천의 수량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남소문동천이 마르게 된 것은 신라호텔 쪽 능선의 개발뿐 아니라 동국대학교 쪽 능선 개발이 큰 원인으로 추정된다.

조선 초에 도성에서 한강나루(한남동)를 통하여 남쪽으로 가기 위해



「도성도」 중의 남소문동천 부근

광희문을 통하면 거리가 멀어 불편하므로 도성에서 곧바로 나갈 수 있는 문을 새로 설치하자는 건의에 따라 현재 타워호텔 부근인 버티고개에 남소문을 새로 건립하였다.

그러나 이 문은 설치된 지 12년 만인 예종 1년(1469)에 지경연사 임원준(知經筵事 任元濬) 등이 수레 등이 다닐 수 없으므로 실용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문을 건축한 직후에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가 세상을 떠났고, 남소문을 열어 놓으면 도성 안의 여자들의 음행(淫行)이 많아진 다며 음양가(陰陽家)들이 화가 미친다고 주장하자 예종이 그 건의를 받아들여 폐쇄하게 되었다. 이 시대에 풍수사상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한 예이다.

그 후에도 이 문을 개통하자는 의견이 명종과 숙종 때에 여러 차례 제기되어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음양가들에 의한 반대에 부딪혀

개통을 보지 못하고 말아 조선 말까지 남소문의 역할은 광희문이 담당하게 되었다. 남소문은 비록 폐쇄되기는 하였으나 조선 말까지 존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 훼손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일제 때에 이르러서는 남소문의 주초(柱礎)마저 없어졌다.

항일 정신이 깃든 장충단(獎忠壇)

남소문동천변의 장충단은 광무 4년(1900) 5월 31일, 고종 황제가 원수부(元帥府)에게 갑오년(1894년) 이후에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장졸(將卒)들을 위하여 단을 쌓게 하고,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춘추로 제사하도록 하라는 조칙을 내림에 따라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원수부는 서울 성곽 남쪽을 수비하던 어영청의 분영(分營)인 남소영(南小營)터(중구 장충동 2가 197번지 6호 부근) 일대에 제단(祭壇) 1동과 부속 건물 2채를 짓고 주변을 정화하는 공사를 마무리하였는데, 그때가 이해 10월이었다. 한 달 뒤인 11월 11일, 고종 황제가 이 단을 '장충(獎忠)'이라 명명하자, 황태자(순종)가 '장충단'이라 쓰고, 충정공 민영환이 비문을 지어 장충단 앞에 세웠다.

장충단은 일명 충렬사단(忠烈祠壇)으로도 불렸다. 순국(殉國)한 이들을 제사하기 위한 초혼단(招魂壇)이 장충단이다. 이곳은 일본 침략에 대항하려 했던 항일, 배일사상이 깃든 곳이니만큼 오늘날 동작동 국립묘지에 있는 현화하고 참배하는 현충관(顯忠館)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자 군인은 아니지만 을미사변 때 순국한 궁내부대신 이경직(李耕植)과 '춘생문 사건(春生門 事件)'으로 사형 당한 시종 임최수(林最洙) 등을 제사에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듬해 광무 5년 2월에 육군법원장(陸軍法院長) 백성기(白性基)가 고종 황제에게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선(善)을 표창하고 충(忠)을 포상하는 것은 인군(仁君)의 세상을 권장하는 길로서 예로부터 육신사(六臣祠), 사충사(四忠祠) 등의 예도 있었으니, 근년에 의로운 일로 순국하고 절개를 위해 목숨을 버린 임오년의 영의정 이최응, 판서 김보현, 판서 민겸호, 참관 민창식을 위시해서 갑신년의 찬성 민태호, 판서 조영하, 민영직, 참관 윤태준, 참관 이조연, 중관 유재현과 을미년의 궁내대신 이경직, 시종 임



장충단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호)

최수, 참령 이도철 등은 그 일사 순국(一死 殉國)의 충렬이 한때 전쟁에서 죽은 장졸(將卒)보다 더한데 군인이 아님으로 해서 단사(壇祀)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앞뒤가 뒤바뀐 조치라고 해야 할 것인즉, 따로 한 사당을 지어서라도 해마다 제사를 드려, 충혼(忠魂)·의혼(義魂)이 드러나지 않은 것을 위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자 고종 황제가 “충성을 표창하고 절의를 장려함에 있어서 어찌 문관과 무관을 구별할 필요가 있겠느냐? 상소한 내용이 옳은 것으로 생각되니 장례원에 품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고 재가함으로써 장충단에 모셔야 할 신위(神位)가 늘어나게 되었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노골화되고 명성황후를 시해한 만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던 무렵에 이러한 항일, 배일의 순국열사를 장충단에 모셔 제향하는 일은 장병들을 크게 감격시켰고, 온 국민이 장충단에 대한 경모심(敬慕心)을 높여 애국 순열 사상이 고조되어 갔다. 이리하여 경술국치를 전후하여 널리 애창된 「한양가(漢陽歌)」에는 이런 가사가 있다.

남산 밑에 지어진 장충단 저 집
 나라 위해 몸 바친 신령 뵈시네.
 태산 같은 의리에 목숨 보기를
 터럭같이 하도다. 장한 그분네.

장충단을 건립한 이래 9년 동안 매년 춘추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마다 군악을 연주하고 군인들이 조총(弔銃)을 쏘면서 엄숙하게 거행하였다.

그러나 율희 2년(1908)에 이르러 일제가 한국의 주권 침탈을 노골화하면서 장충단 제사가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 하여 폐지하도록 하였다. 경술국치 후인 1919년 6월부터 일제는 장충단 일대를 일본식 공원으로 꾸미면서 장충단비는 현재 신라호텔 부근의 남산 숲속으로 버리고, 이곳에

벚꽃나무 수천 그루를 심고, 광장, 어린이 놀이터, 산책로, 공중변소, 교량 등의 시설을 하는 등 장충단공원이란 이름을 붙여 경성부(京城府)가 관리하였다. 또한 일제는 이곳에 상해 사변 때(1932년, 1937년) 결사대로 전사한 ‘육탄 3용사’의 동상을 세워 한국인의 역사의를 말살하려 하였다.

한편 장충단에 모셔진 인물을 살펴보면, 임오군란(1882) 때 목숨을 잃은 사람들로써 구식 군인들에게 피살된 흥선 대원군의 중형(仲兄)이자 영의정을 역임한 이최용(1815~1882)을 위시하여 선혜청 당상이던 민겸호(1838~1882), 선혜청 당상을 지냈던 김보현(1826~1882), 호군으로 재직 중에 피살된 민창식(1841~1882) 등이 있다.

그리고 개화당이 일으킨 갑신정변(1884) 때 살해된 인물로서 순종의 장인이며 사대당의 대표적 인물인 민태호(1834~1884), 병조판서로 사대당의 중진이었던 조영하(1845~1884), 박문국 당상으로 「한성순보」를 발간하던 사대당의 거물이었던 민영목(1826~1884), 사대당의 보수파로 한규설의 형인 한규직, 수신사·영선사로 일본과 청나라에 다녀온 뒤 협판 군국사무 등을 지낸 윤태준(1839~1884), 기기국 총관을 지낸 사대당의 거물이었던 이조연(1843~1884), 세력이 컸던 환관 유재현(?~1884) 등이 있다.

또한 을미사변과 관련하여 장충단에 제향된 인물로는 훈련대장 홍계훈과 궁내부대신 이경직이 있다. 고종 32년(1895) 8월 20일 새벽, 일본인이 주동이 된 자객과 난군들이 경복궁 광화문으로 밀어닥쳤을 때 훈련대



을미사변으로 시해진 명성황후의 영정

장 홍계훈은 여섯 발의 총을 맞고 예리한 칼날에 목이 잘렸다. 홍계훈을 제거하고 광화문에 들어선 난군들은 궁궐 안 깊숙이 있는 건청궁(乾淸宮)까지 침입하여 명성황후 민씨를 찾는데 혈안이 되었다. 이때 궁궐을 숙직하던 궁내부대신 이경직이 홀로 몸으로 막아서서 저항하다가 자객의 칼에 그 자리에서 순직하였다.

그리고 '춘생문 사건'으로 장충단에 제향된 인물로 시종(侍從) 임최수(林最洙)와 참령(參領) 이도철(李道徹)이 있다. 이들은 을미사변으로 궁중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광무황제를 모시고 나와 친일 정권을 타도한 뒤 새 정권을 수립하여 명성황후 민씨 시해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고 계획하였다. 이에 러시아 공사와 미국인을 비롯한 25명의 외국인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1895년 11월 28일 춘생문 사건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였다. 임최수와 이도철은 체포되어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신 유배, 징역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두 사람도 장충단에 제향되었다.

장충단은 융희 2년(1908) 일제의 압력으로 제사가 폐지된 후 1919년 6월, 경성부에서 이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훼손되었는데 6·25전쟁 때 제단마저 소실되어 흔적마저 없어졌다. 일제 때 1929년 10월에 개벽사(開闢社)에서 발행한 『별건곤(別乾坤)』(경성호)에 실린 장충단 사진을 보면 규모가 큰 단층 기와집으로 넓은 축대 위에는 본 건물인 사전(祀殿) 1동 외에도 부속 건물 2채가 세워져 있고, 장충단이라고 쓴 비석을 세워 놓았음을 볼 수 있다.

상어가 나가는 광희문(光熙門)

광명(光明)의 문이라는 뜻에서 광희문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문은 중구 광희동 2가 105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광희문은 조선 초 태조 5년(1396)에 서울 성곽을 쌓을 때 남소문(南小門)의 역할로 지어졌지만 속칭 시구문(屍



'시구문'이라 불리었던 광희문

口門) 또는 수구문(水口門)이라고 칭하고, 남소문이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이 문은 소의문, 혜화문, 창의문과 함께 서울의 사소문의 하나로 청계천(오간수문)·이간수문이 가까워 수구문이라고 했고, 서울 사람들의 장례 행렬이 통과하던 문이어서 시구문이라고도 했다.

즉 소의문(서소문)과 더불어 서울 시민들이 죽으면 상여(喪輿)에 싣고 운구(運柩)할 수 있는 '저승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왕조 500년간 도성 안에서 죽은 사람의 시신(屍身)은 반드시 이 두 문 중에서 하나를 거쳐 나갈 수밖에 없었다. 조선 시대에 상여는 사대문은 물론 창의문이나 혜화문 등의 소문도 통과할 수 없다는 금령(禁令) 때문에 신당동·왕십리·금호동 방면에 묘지를 잡게 되면 광희문을 거쳐서 운구하였으므로 시신을 내보내는 문이라 하여 시구문으로 칭하였다.

조선 전기 명종 9년(1554)에는 광희문 밖 일대가 도둑의 소굴이 되어 밤이면 인마(人馬)가 통행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명종 때 남소문이 막혀 있으므로 도적들이 낮에 이 부근에 숨었다가 밤이 되면 성벽을 넘어 도둑질을 하므로 이 문을 열어 피해를 줄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했다.

조선 말 광무 3년(1899)에 전차가 개통되고 도로 개설로 서울 성곽이 철거되기 시작하면서 광희문과 동대문까지의 성곽이 모두 헐려 옛 모습을 잃게 되었는데 일제 때인 1915년경 광희문 문루(門樓)가 무너져 내려 홍예(紅霓)만 초라하게 남아 있었다.

이로부터 60여 년이 지나 서울시가 1974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광희문의 홍예를 남쪽으로 약 15m 이전하여 복원하는 한편 문루를 올림으로써 옛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조선 말 이화학당에 세 번째로 입학한 학생은 전염병이 만연했을 때 광희문 밖에서 병에 걸려 신음하던 여인의 딸, 네 살 난 별단이었다. 스크랜튼 선교사가 개설한 시약소 병원에서 치료한 첫 환자이기도 하였다. 광희문 밖의 이 여인은 어린 딸과 구걸을 하여 시는데 덮을 것이라곤 짚으로 만든 거적蓆이었다.

그날 밤 기온이 내려가기에 스크랜튼은 짐꾼들을 불러 그 여인과 딸을 업어다 병원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여인은 치료 끝에 3주 만에 원기를 회복하였다. 회복된 여인은 패티(Patie)란 세례명을 얻었고, 이후 10여 년간 스크랜튼 선교사의 가정부로 집안일을 도왔다. 그의 딸 별단이는 이화학당을 졸업한 뒤 간호사가 되어 여성 병원인 보구여관(保救女館)에서 일하였다.⁴⁸⁾

조선 왕조 5백 년간 서울 도성 내에서 초상이 나면 시신(屍身)은 반드시 서소문과 광희문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었고, 도성 10리 안에는 묘



복원되기 이전의 광희문 전경, 1890년대

지를 조성할 수 없게 하였다. 만약 이곳에 묘지를 조성하면 왕실의 능묘에 심어진 나무를 도벌(盜伐)하는 예와 같이 죄를 주었다.

갑오개혁 이후에 한성부는 서울의 인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인지 경무청에 다음과 같은 조회(照會)를 발송하였다.

경성 내에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신이 서소문과 광희문을 통해 나간 수효가 얼마인지 각 문을 파수하는 순검이 경무청으로 보고한 실제 기록이 있거든 시명(示明)해 주십시오. 만일 기록이 없거든 명년 1월부터 시작해서 각 문으로 나가는 시신을 해당 순검이 1주일마다 경무청에 보고하거나 경무청에서 한성부에 통보하여 장적(帳籍)에 올리게 하십시오. 또 매년 연말에 각관(各館)에서 시신 수를 기록해서 보여 달라는 조회가 왔으나 회신할 수효가 없어서 이에 알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시대 수문인 이간수문. 83년 만에 발굴·복원되었다(전일 동대문 축구장 내).

이처럼 서울의 사망자 통계를 위해서 한성부는 서소문과 광희문의 두 문을 통해 그 수를 파악하려고 하였다.⁴⁹⁾

83년 만에 햇빛을 본 이간수문(二間水門)

이간수문(二間水門)은 83년 만에 햇빛을 보았다. 조선 초 서울 남산 기슭에서 청계천 본류 쪽으로 흐르는 지천인 남소문동천 위에 세워진 두 개의 수문(水門)은 1926년에 일제가 경성운동장을 건설하면서 일부를 철거하고, 흙을 덮은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서울시가 동대문 축구장과 야구장을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발굴 조사한 결과 조선 전기~일제강점기 때 유물 200여 점이 발견되고 이간수문, 치성(雉城)이 확인되었으며, 동대문~광희문까지 연결되는 서울 성곽의 일부분인 123m가 확인되었다.

이번에 발굴된 이간수문은 상부의 홍예(紅霓)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완벽하게 남아 있어, 지금까지 기록상으로 전해져 오던 그 실체가 확인되었다. 이 문은 그간 두 차례 개축하여 수문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수문의 방어를 위해 시설물을 끼웠던 목재가 하부에서 확인되어 수문의 방어 모습과 관련된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간수문의 석축(石築) 높이는 4m 남짓이며, 수문의 한 칸의 너비는 3.3m 정도다.

조선 후기에는 이간수문으로 흐르는 남소문동천 지천을 오간수문으로 물길을 바꾸는 것을 시도하였다. 영조 30년(1754) 6월에 어영대장 홍봉한(洪鳳漢)이 영조에게 다음과 같이 상언하니, 영조가 그대로 따랐다.

이간수문 상류의 물길을 파서 트더라도 이는 광희문의 직로(直路)이므로 곧 메워지니, 여기서 훈련원 앞을 가로 흘러 오간수문(五間水門)으로 돌아가는 것은 참으로 이 때문입니다. 작은 돌다리를 설치하고서야 이 폐단을 없앨 수 있으므로 영선(營繕)에 넘겨야 할 것인데, 지금 호조(戶曹)에서는 이런 역사(役事)를 감당하기 어렵고, 그곳은 하도감(下都監)에서 가까우므로 훈련대장이 재력을 담당하여 처리하려 한다 하나 군문(軍門)에서 홀로 다리 놓는 일을 맡는 것도 후일 폐단에 관계됩니다. 비변사에서 각사(各司)에 약간의 재력을 분정(分定)하여 보태게 하면 사면(事面)이 바르고 일도 쉽게 성취될 것입니다.⁵⁰⁾

훈련도감의 군사 주둔지, 하도감(下都監)

을지로 7가 2번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는 조선 후기 훈련도감의 군대 주둔지인 하도감(下都監)이 있었다. 선조 26년(1593) 8월에 훈련도감(일명 訓局)이 임시 기구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하도감이 설치된 것은 훈련도감이 상설 기구로 변모한 이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인 1593년에 설치되었고, 18세기에는 상설 기구로서 5군영의 하나가

되었으며, 궁성 수비 및 서울의 방어를 맡았다.

훈련도감의 규모가 커지면서 북영(北營)·남영(南營)·신영(新營)·하도감(下都監)·북일영(北一營)·서영(西營) 등의 군영을 두었다. 이 중 하도감은 남부 명철방(明哲坊) 훈련원 동쪽, 지금의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자리에 있었다.

하도감은 건물 규모가 390칸으로 조선 말에 와서 신식 군대인 별기군(別技軍)의 훈련 장소가 되었다. 별기군은 고종의 특명으로 80명을 선발하여 일본 교관이 훈련을 담당했다. 별기군의 훈련은 1881년 5월 9일부터 서대문 밖 모화관을 가교장(假教場)으로 사용하다가 뒤에 이곳 하도감으로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별기군이 특별히 우대된 것에 비해 구식 군인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 대우는 극심하였다. 이에 분격한 구식 군인들이 1882년에 임오군란을 일으키자 민씨 정권이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청국은 내란을 진압한다는 구실로 1차로 오장경(吳長慶)이 육해군 5,000명을 거느리고 들어와 이곳에서 진을 쳤고, 이어 두 달 후 원세개(袁世凱)가 군사 2,0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오장경과 합세하였다.

2년 후 갑신정변(1884) 때에 청나라군은 북관왕묘로 피신한 고종을 선인문 밖 오조유(吳兆有)의 진영으로 모셨다가 다시 이곳 하도감으로 옮겼다. 그 이튿날 고종은 이곳에서 새로 내각을 조각하여 대신들을 임명하고, 이어서 개화파인 김옥균·박영효 등에 대한 체포령을 내린 다음 창덕궁으로 곧바로 환궁했다.⁵¹⁾

무과 시험을 보던 훈련원 터 [訓練苑址]

훈련원은 중구 을지로 6가와 방산동에 걸쳐 있던 조선 시대 군사의 시재(試才), 무예의 훈련 및 병서(兵書)·전진(戰陣)의 강습을 맡았던 관아였다. 조선 건국 초에는 훈련관(訓練館)이라고 했으나 세조 12년(1466)에 훈련원으로 바뀌었다.

훈련원의 임무는 크게 시취(試取)와 연무(鍊武) 두 가지였다. 시취의 경우 훈련원에서는 무과(武科)시험을 주관하는데 서울에서 초시(初試)에 합격한 70명과 각 도에서 뽑힌 120명을 합한 190명을 병조(兵曹)와 함께 복시(覆試)를 치러 28명을 선발하고, 최종적으로 전시(殿試)를 보아 등수를 정하였다.



19세기 말의 훈련원 전경

한편 연무는 병서의 습득을 포함해 훈련원의 군사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주력하는 일이었는데, 중앙에서 매달 두 번씩 실시되는 습진(習陣)에 훈련원이 간여했으며, 특히 봄과 가을에 실시되는 겸사복(兼司僕)·내금위·충의위·족친위·장용위(壯勇衛)의 병기 검열은 훈련원에서 주관하였다. 그 밖에 구체적인 전술의 연구와 교습도 이루어졌다.

훈련원은 정조 19년(1795)에 첨정 1인, 판관 2인, 주부 8인이 증설되고, 첨정·판관·주부 가운데 1인을 문관으로 임명하도록 하면서 약간의 변모를 하였다. 그 뒤 고종 21년(1884)에는 중국 우창칭(吳長慶)의 공적을 추모하는 오장무공사(吳壯武公祠)가 훈련원에 세워진 일도 있었다.

훈련원의 일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이곳에서 별과(別科)시험을 볼 때 말을 달리다 실수로 낙마하여 왼쪽 다리에 골절상을 당하였으나 다시 일어나 다리를 나무껍질로 묶은 다음 말을 다시 타고 달려서 등과(登科)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조선 말 1907년에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훈련원이 폐지되고 군대 해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해 8월 1일 모든 한국군을 비무장으로 훈련원에

교량명	연혁
석교(石橋)	『서울육백년사』에는 “쌍림동 173번지 부근에 있던 다리인데 돌로 만들어졌다 하여 석교라고 불렀다.”고 하였는데 이 다리는 남소문동천의 교량으로 광희동 1가 금호 오피스텔 앞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집합하게 하였다. 그러자 이에 분개한 시위대대 제1대대 박승환 대대장이 자결하자 본격한 장병들이 일본군과 총격전을 벌인 무장 항일 운동이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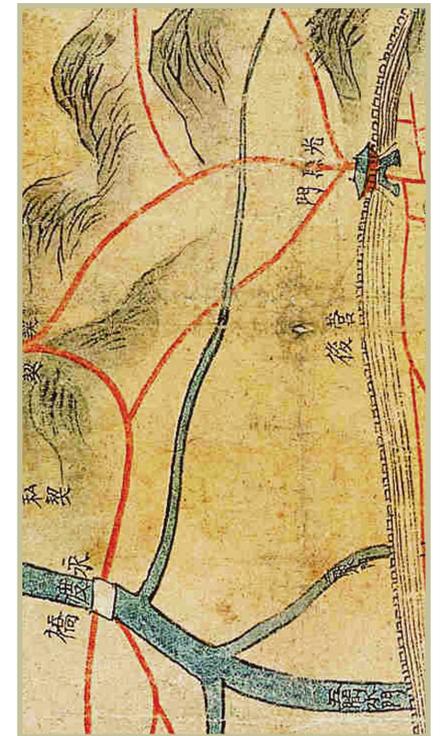
1917년 6월까지도 훈련원(訓練院)이라고 쓴 현판이 기와집에 달려 있었는데 이곳에 초등학교를 신축하면서 기와집은 간호부양성소의 건물로 고쳐졌다.

2. 응봉·정동·인왕산, 안산에서 발원한 지천

1) 무당들이 많이 살았던 신당천(新堂川)

신당동 지역을 흐르는 신당천(新堂川)은 1950년대 즈음부터 불린 이름으로 응봉(鷹峰)에서 흘러 내려와 청계천에 합류되는 지천이다. 이 지천변의 약수동에는 위장병에 효능이 좋은 약수가 있어 약수천(藥水川)이라고도 했고, 조선 시대에는 신당동에 동활인서가 위치하여 동활인서천(東活人署川)으로 불렸다. 신당천은 응봉에서 시작되어 ‘다산로’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 신당동 떡볶이 골목, 무학동을 지나 광희초등학교 앞, 성동공업고등학교 서쪽을 거쳐 영도교에 못 미쳐 청계천으로 들어간다.

1976년에 서울시는 약수동 로터리에서 동화극장(전일 성동구청 부근)까지 828m의 신당천 구간을 1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복개하여⁵²⁾ 현재는 완전히 복개되었다.



『도성도』 중의 신당천 부근

조선 시대의 의료 기관, 동활인서(東活人署)

신당동 236번지와 304번지 일대에는 조선 시대에 동활인서(東活人署)가 있었다. 활인서는 도성 안의 환자, 특히 전염병 질환을 주로 치료하였던 의료 기관으로 서울의 동·서 두 곳에 설치되었다. 조선 초 태조 원년(1392)에 대비원(大悲院)이라 하다가 태종 14년(1414)에 활인원, 세조 12년(1466)에 활인서로 개칭되었는데 임진왜란 때 폐지되었다.

광해군 4년(1662)에 활인서가 다시 설치되었으나 유명무실하다가 영조 때 다시 그 역할이 증대되었다. 인조 24년(1646)에는 전염병이 만연하여 활인서에 수용된 환자가 699명에 이르렀다는 기록도 있다.

이곳에는 땀을 내고 찜질하고 목욕하는 시설도 갖추고 있었으므로 당시로서는 상당한 의료 시설을 갖춘 공공 의료 기관으로 추측된다. 조선 말 고종 19년(1882)에 결국 폐지되고, 그 사업은 혜민서와 통합되어 제중원으로 칭하다가 다시 대한적십자병원으로 이어졌다.⁵³⁾

동활인서는 처음에 동소문 밖 동부 연화방(현재 성북구 동소문동 4가 103번지 일대)에 있었다가 신당동으로 이전하였다. 활인서는 전염병이 크게 돌 때는 무당으로 하여금 역귀(疫鬼)를 퇴치하도록 하였으며, 때로는 의료 이외의 구호 사업을 병행하기도 하였다. 이 무당들에게는 세금과 부역을 면제하여 주었다.

활인서는 상당한 의료 시설을 갖춘 공공 의료 기관이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휼 기관이었다. 또 무당들을 단속하는 기관이어서 장부를 만들어 무당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기도 하였으며, 세금을 거둬들이기도 하였다.⁵⁴⁾

무당들이 많이 살던 무당다리

조선 시대에는 광희동 1가 194·195번지와 광희동 2가 351번지를 연결하는 곳의 다리를 무당다리로 불렀다. 을지로 7가 로터리 부근의 광희동 185·186, 192~200번지 일대에는 무당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로 무당골다리라 하다가 무당다리로 불렸다. 무당다리는 한자로 수당교(水唐橋)라 하였는데 이는 물을 수(水)로 하고, 당은 당(唐)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신당천 좌우편은 조선 시대에 무당들이 많이 살아 무당개울이라 했는데 개울의 중간에는 무원교(巫院橋)가 있었다.⁵⁵⁾ 전에는 중부소방서 뒤로 넘어가는 나지막한 고개를 무당고개라고 불렀다. 1960년대 말까지 이곳에는 무당집이 있어서 쾌자와 남옷을 입고 북과 장구 소리에 맞추어 너울너울 춤추는 무당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서울의 양곡을 공급하던 성동중앙시장

황학동 일대는 일제 강점기 중기까지는 거의 논밭이었으나 현재는 성동중앙시장과 상가들이 밀집해 있다.

이 재래시장은 성동시장(城東市場)이라는 이름으로 1946년 5월 1일에 개설되었다. 개설 초기에는 독섬, 천호동 및 광주군 일대에서 재배되는 야채가 서울에 들어오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미곡과 채소 등이 집산되는 도·산매시장이 되었다.

이 시장은 6·25전쟁 직후에는 주로 양곡 집단 거래처로 바뀌어 1953년경에는 서울 시민의 전체 양곡 소비량 중 70% 이상을 거래하기도 하였다. 주로 주식인 쌀을 취급하지만 찹쌀, 보리, 밀, 조, 옥수수, 참깨, 들깨, 팥, 콩 등 논과 밭에서 나는 것이면 모두 매매하였다. 한때 대도매상들은 생산지의 수집상(蒐集商)들이 쌀을 사서 모아 온 것을 위탁 판매해 주고 수수료를 받았으며, 신용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1965년 정부가 행정 명령으로 쌀값을 통제하여 서울 시민들이 먹는 양곡의 수급을 조절함에 따라 이 시장의 미곡상들이 큰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곡상들의 미곡 매매량은 1/5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특히 1960년대 후반기부터 정부미(政府米)를 방출하면서 이 시장의 미곡상들은 정부미 판매 허가를 얻어 일반미와 함께 정부미를 판매하게 되어



성동중앙시장의 모습

대도매상들이 소매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1962년 11월 2일, 이 시장은 서울중앙시장운영회를 설립한 뒤 1972년 1월 15일에 서울 성동중앙시장 운영회로 이름을 바꾸어 시장 개설을 허가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성동중앙시장은 양곡·채소·수산물 등 주·부식과 자재 등도 취급하고 있다. 1973년 12월 30일에는 지하상가에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이 목숨을 잃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1억 2,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 시장 지하에는 '신당지하도상가'가 2000년 2월 23일에 개장하였다. 이 상가는 원래 지하상가였던 것을 1999년 4월부터 12월까지 수리 단장한 것이다. 400미터의 긴 이 지하상가는 면적 1,532평으로 의류·침구·생선회를 파는 점포가 입주해 있다.

성동중앙시장은 전일에는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과 함께 서울의 3대 시장으로 손꼽던 대규모시장이었으나 현재는 슈퍼마켓,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 밀려 소시민들의 시장으로 밀려났다.

교량명	연혁
무당다리	광희동 1가 194·195번지와 광희동 2가 351번지를 연결하는 다리로 무당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무당골다리라고 하다가 무당다리, 수당교(水唐橋)로 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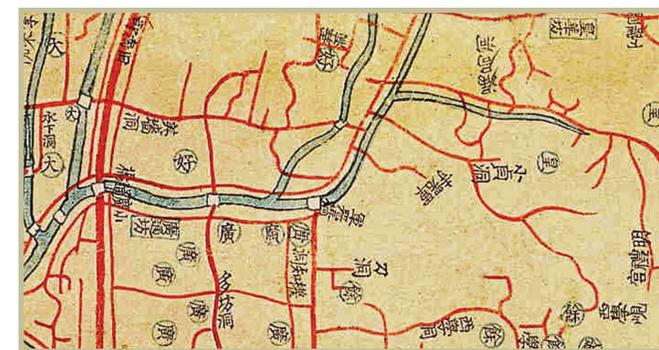
2) 덕수궁과 서울시청을 관통하는 정릉동천(貞陵洞川)

정릉동천은 조선 시대 문헌에 일명 '황화방 정릉동수(皇華坊貞陵洞水)', '군기시교수(軍器寺橋水)'라고 표기되기도 하였다. 정릉동천은 길지는 않지만 두 갈래로 흐른다. 한 갈래는 구 러시아 공사관(중구 정동 15-1번지) 부근에서 발원하여 덕수궁 금천교를 지나 대한문 부근으로 흐른다.

다른 한 갈래는 현재 태평로 삼성증권 사옥(태평로 2가 250번지) 부근에서 발원하여 태평로를 따라 흐르다가 대한문 부근에서 한 갈래와 만나 서울시청을 가로질러 군기시교를 지나 을지로 1가 부림빌딩 앞에서 창동천과 합류하여 소광통교, 다동, 삼각동을 흘러 청계천에 들어간다.

1395년 8월,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였다. 태조 이성계가 총애하던 신덕왕후 강씨는 어린 방편, 방석 형제와 경순공주를 남겨 두고 세상을 떠났다. 태조 이성계는 사대문 안에 묘지를 쓸 수 없는 법을 어기면서 경복궁에서 보이는 가까운 곳, 즉 구 러시아 공사관 자리인 정동에 능터를 정하였다.

태종 9년(1409) 2월 23일, 태조 이성계가 승하한 지 9개월 만에 도성 내에 능침을 두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동소문 밖 사을한리(沙乙閑里), 오늘날 성북구 정릉동으



「도성도」 중의 정릉동천 부근

정릉동천에 놓였던 다리

교량명	연혁
덕수궁 금천교(禁川橋)	덕수궁 대한문 바로 인쪽 어구(御溝)에 홍예(紅蜺)가 반쯤 흠에 묻혀 있다. 1914년과 1970년에 태평로 확장으로 대한문이 뒤로 물러나면서 바로 인쪽에 위치하게 되었고, 하상이 높아졌다.
군기시교(軍器寺橋)	태평로 1가 30번지 동남쪽과 무교동 32번지 부근에 있던 다리로 이 부근에 군기시(軍器寺) 관아가 있어서 군기서다리, 군섯다리 또는 무교(武橋)로도 불렸다.

로 천장(遷葬)하였다.

이어서 태종 10년(1410) 8월에 의정부에서 “광통교(廣通橋)의 흠다리(土橋)가 비만 오면 곧 무너지니, 청컨대 정릉(貞陵) 구기(舊基)의 돌로 돌다리(石橋)를 만드소서” 하고 건의하니, 태종이 그대로 따랐다. 따라서 정릉의 석물은 청계천 광교를 놓는 데에 사용되어 도성 안의 교량 중에서는 최초의 돌다리가 되었다. 그러나 정릉이 도성 밖 정릉동으로 천장된 뒤에도 정릉동이라는 마을 이름은 그대로 사용되었다.

19세기 말 정동 지역에는 외국 공사관이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이 당시 지도를 보면 정릉동천은 복개로 사라졌다.

3) 용산강으로 흘러드는 만초천(蔓草川)

만초천(蔓草川)은 『동국여지비고』에 표기된 이름으로 인왕산 기슭과 안산의 남쪽 골짜기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하여 서대문 네거리의 적십자병원~이화여고 부근~서소문공원~서부역~청파로~용산전자상가~원효로~원효대교 북쪽 지점에서 한강(용산강)과 합류하는 물줄기이다.

만초천은 이 지천에 만초(蔓草)라고 불리는 풀이 많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일명 너추내·녕쿨내·무악천·갈월천(葛月川)이라고도 불렸다. 만초천의 길이는 7.7km, 유역 면적은 12.37km²로서 ‘욱천(旭川)’이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일제 강점기 1915년 하천 명칭 개정 때 고쳐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만초천의 유역 폭은 매우 좁은 장방형으로 중·하류로 내려오면서 점점 넓어져 호리병 형상을 하고 있다. 이 하천은 남산에서 내려오는 후암천이 후암동, 남영동을 거쳐 남영역에서 만나 수량이 늘어나며, 청계천과 함께 주민들의 젖줄로서 농업용수로 쓰이고 세탁을 하던 곳이었다.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만초천은 맑은 물이 흘러 게(蟹)가 많이 살았다. 고려 말 목은 이색(李穡)이 지은 「용산팔경(龍山八景)」 가운데 “만초천의 게 잡는 불빛(蔓川蟹火)”이라 하여 만초천의 게잡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용산강에서 만초천을 바라보면서 밤에 많은 사람들이 게를 잡기 위해 불을 밝혔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 초 태종 때는 이 물줄기를 이용하여 용산강까지 들어오는 배를 남대문까지 끌어 올리기 위한 논의도 있었다. 즉 용산강으로부터 남대문까지 이어지는 만초천에 군사 1만 명을 동원하여 운하를 건설함으로써 물자를 남대문에서 도성으로 운반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제기된 의견이었다. 그러나 당시는 조선을 창건한 이후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처 여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여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세종실록』 세종 12년(1430) 6월 7일에 대사헌 이승직(李繩直) 등이 올린 상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

모화루(慕華樓)는 중국의 사신을 영접하는 곳인데 이 개조 공사에 있어서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 고저(高低)가 잘 맞지 않아 마루



「도성도」 중의 만초천 부근

가 기울어 위태한 지경에 있으니 개조해야 하며, 이 모화루의 개조와 더불어 개천에 대한 역사도 있었는데 빗물 때문에 공사한 축석이 무너졌으므로 그 역사 감독관(役事監督官)의 과죄(科罪)를 논의하여야 합니다.⁵⁶⁾

또 같은 달 26일에 “모화관의 개천을 수축하는 공사는 모두 끝이 났는가?” 하는 세종의 물음에 동부대언(同副代言) 윤수(尹粹)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아뢰자 세종이 “지금은 혹서기(酷暑期)이므로 백성을 오랫동안 노역하는 것은 곤란하니 그 파괴된 곳만을 보수하는 데 그치고, 나머지는 가을철에 다시 시공하라”⁵⁷⁾고 한 기록이 있으므로 이 무렵 모화루(慕華樓) 근처의 개천(만초천) 공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모화루는 서대문 밖 오늘날 서대문구 영천동 65번지에 있었고, 개천은 모화루의 전면 즉 건물의 동편에 있었다.⁵⁸⁾

『동국여지비고』 권2, 산천 만초천조(蔓草川條)에 이런 기록이 있다.

경성 서쪽에 있는 무악(毋岳)에서 원류(原流)하여 도성을 돌아 남쪽으로 흘러 반송방에 있는 혁교(革橋), 돈의문 밖에 있는 경영교(京營橋), 소의문 밖에 있는 신교와 험다리(圮橋), 승례문 밖에 있는 염초청(焰硝廳), 청과동 남쪽에 있는 주교(舟橋)를 거쳐 만초천(蔓草川)을 이루니 서남쪽에서 용산강에 흘러 들어간다.⁵⁹⁾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모화관 앞의 개천은 이 만초천의 상류인 것이다. 따라서 조선 시대의 개천 공사는 오늘날의 청계천 본류 및 그 지천, 지류뿐만 아니라 도성 밖의 하천도 필요에 따라서는 개착·정비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만초천 주변 일대에는 조선 시대에 미나리골·조개골·칠패·청과

등의 마을이 있었고, 개항 이후에는 구룡산에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였다. 일제는 1904년 8월 15일 남대문 밖 도동(桃洞) 남쪽 남산 산기슭에 걸쳐 동쪽으로는 이태원, 서쪽으로는 만초천⁶⁰⁾에서 한강에 이르는 넓은 용산 지역을 군용지로 강제 수용하여 이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매매를 일체 정지한다는 통첩을 발송하였다. 그해 10월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가 조선주차군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이 지역을 이른바 위수(衛戍) 지역으로 선포하고, 일본군이 필요한 군사 설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용산 일대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총검으로 탄압하는 북마전(伏魔殿)으로 변해 갔다.



19세기 말의 만초천 하구, 용산강변 모습

만초천 주변 일대는 홍수 때면 한강물이 역류하여 물이 배수되지 않으므로 상습 침수 지역이어서 일본 거류민들이 자주 물난리를 겪었다. 이에 일제는 일본군을 동원하여 만초천을 준설하고, 1914년부터는 한강 제방을 쌓기도 하는 등 하천을 개수하였다. 1911년도 지도와 1927년 경성시가도를 비교해 보면 이 당시에 구불구불하던 만초천은 직선화된 것으로 보인다.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는 만초천 제방이 무너져 신용산의 일본인 거주 지역이 대부분 침수되고 서울역, 서소문 밖 수렛골(車澗)까지 한강물에 침수되었다. 『경성도시계획자료조사서』(1927)를 보면 일제 때

1918년~1925년까지 제1기 하수도 개수 사업을 벌여 만초천 총 4,692m를 개수하였다. 일제 때 만초천 변에는 수레바퀴를 만들고, 바퀴에 쇠테를 씌우는 공장이 있었다.

6·25전쟁 후 서울의 인구 집중으로 생활 하수가 그대로 배출되어 악취가 진동하고, 청파로 일대가 교통 체증이 심하자 서울시는 1962년부터 만초천의 복개 공사를 시작하여,⁶¹⁾ 1967년에 복개 도로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남영역에서 용산역 간의 약 100m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개되어 이제는 물줄기 자취마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만초천 하류 지역을 처음 복개했을 때는 농산물 시장을 개설하였는데 교통 체증을 일으키므로 가락동농수산물시장으로 이전하고, 세운상가에 있던 전자상가를 이곳으로 옮겨 왔다.⁶²⁾

서울시는 1977년 8월에 제5차 만초천 복개 공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건설에서 총 공사비 15억 6,000만 원으로 폭 31.6m의 만초천 108미터를 복개하였다.⁶³⁾

일제가 철거한 서소문

만초천변 순화동과 서소문동의 경계 지점이 되는 서소문길에는 도성 사소문의 하나인 소덕문이 있었다. 이 문은 소의문이라고도 부르며, 속칭 서소문으로도 불렸다. 서소문이란 이름은 속칭으로, 원래 이름은 소덕문(昭德門)이라고 했다가 소의문(昭義門)으로 개칭했다.

성종 3년(1472)에 작은어머니인 예종의 왕비 장순왕후가 승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관례대로 장순왕후에게 ‘휘인소덕(徽仁昭德)’이라는 시호를 추존했다.

그러자 신하들은 성종에게 “전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승하하신 장순왕후의 시호가 소덕인데 서소문의 이름도 소덕문이오니 같은 이름을 피하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이에 성종은 신하들에게 이

름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물었다. 그러자 신하들이 소덕문을 소의문(昭義門)으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고, 성종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 서소문의 공식 이름은 소의문이 되었다.

그런데 서소문과 동소문은 명칭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일제에 의해 철거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5백 년을 내려온 서소문은 일제가 조선 말 1908년에 철거하였고, 성벽도 1914년 12월에 도시 계획이라는 미명으로 철거되었다.

서소문이 태조 5년(1316)에 건축되었을 때는 다른 성문과 같이 문루(門樓)가 있었다. 그런데 언제 이 문루가 훼손되었는지는 모르나 영조 19년(1743)에 국왕이 “금위영(禁衛營)으로 하여금 소의문의 문루를 만들어 세워 놓도록 하라.”고 명했으므로 금위영은 군사를 동원해 그해 8월에 완공했다.

이제 서소문의 옛 모습은 다시 볼 수 없으나 ‘서소문로’라는 도로명과 ‘서소문동’이란 동명만 남아 있다. 1908년 이전까지 서소문은 현재 중앙일보사가 있는 곳과 길 건너편의 순화빌딩 사이의 대로에 서 있었다.

이 문은 동남쪽의 광희문과 함께 도성 안의 시체를 성 밖으로 운구(運驅)하는 문으로 서쪽의 와우산과 안산 등지로 나가는 시신은 모두 이 문을 통하였다. 광희문을 일명 시체가 나가는 문이라고 해서 시구문(屍驅門)이라고 했지만 서소문은 시구문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서소문 밖은 조선 5백 년 동안 죄인을 공개로 처형하는 사형장이었다. 조선 후기 순조 이후 천주교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서소문 밖 참터(斬址)에서 처형되었다.

서소문 밖의 사형장은 지금의 서대문구 미군동 267번지(현 경의선변 임광빌딩 남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에는 어물전 서쪽으로 만초천이 흐르고, 그 주위에는 채소밭과 백사장이 있었는데 이 백사장에서 죄인을 처형했다.



19세기 말의 서소문 풍경. 길 양쪽으로 초가집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조선 시대에 반역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죄인은 군기시(軍器寺) 앞의 다리, 오늘날 시청 앞에서 거열(車裂)로 능지처참하고, 그 다음의 중죄인은 서소문 밖에서 목을 베었다. 그리고 경미한 죄인은 새남터, 서부이촌동 아파트와 용산의 서울 공작창 일대에서 공개로 처형했다. 그리하여 서소문 밖의 사형장은 참터로 불려 왔다. 개화기에 왔던 선교사 등의 견문록을 보면 형장에서 형이 집행된 후 3일간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홍선 대원군은 1866년(병인년)에 병인박해(丙寅迫害)를 일으켜 천주교인들을 체포, 처형하도록 명했다. 이때 프랑스 신부 9명은 새남터에서, 남종삼(南鍾三) 등은 서소문에서 처형되었다. 그 당시 서울에서만 2만여 명의 천주교인이 체포되었고, 전국적으로 8천 명이 순교하자 프랑스 함대가 출동하여 강화도에 상륙, 전투를 벌인 병인양요가 일어났다.

그 후에도 서소문 밖은 개화파가 일으킨 갑신정변(1884)이 3일 천하로 끝나자 김옥균, 박영효 등과 같이 일본으로 망명하지 않고 미처 피하지 못한 개화파 인물들이 체포되어 처형된 곳이기도 하다.

중앙일보 사옥 서쪽 모퉁이는 서소문 밖이 되고, 이곳의 네거리를 서소문네거리로 부른다. 이 네거리에는 쌀을 파는 미전(米廩)이 있었다. 조선 시대 후기 이후에는 종로구 공평동 의금부 서쪽, 종로 4가 배우개시장, 서강, 마포 그리고 이곳 서소문 네거리 5곳에서 양곡이 거래되었다. 조선 후기에 만초천변 소의문(서소문) 네거리 일대에는 어물전·상전(床廩)·초물전(草物廩)·계란전 등이 들어섰는데 이를 신전(新廩)이라 하였다.

또한 서소문네거리 주변과 서소문공원 일대는 전일에 장마로 만초천의 수위가 높아지면, 배가 드나들었기 때문에 농포(農浦)라고 불려 왔다. 현재는 복개되어 믿기는 어렵지만 전일에는 무악에서 시작된 만초천이 이곳을 지나 용산강으로 흘렀으므로 이 만초천을 거슬러 온 배가 서소문공원 일대에서 어물과 조개 등을 팔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소문공원에는 수산시장(水産市場)이 있어서 어물(魚物)이 거래되었다.

말을 빌려 주던 고마청(雇馬廳)

조선 시대에 역마를 빌려 주던 고마청(雇馬廳)은 현재 이화여자고등학교 내의 스크랜튼홀 건물이 위치한 곳에 있었다.⁶⁴⁾ 이에 따라 이곳을 고마동(雇馬洞)이라고도 하였다. 조선 말에 발행된 「서울지도」에도 고마청은 표기가 되어 있다. 고마동은 조선 시대에 서울의 주택지로 유명하였고, 의주로 1가에는 순청(巡廳)이 있어서 순라군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고마청은 조선 후기 현종 때 화곡(華谷) 이경억(李慶億)이 경기감사로 재임할 때에 우관(郵館) 여섯 곳을 세워 역마(驛馬)를 기르게 하고, 부

족한 역마를 보충하기 위해 민간인으로부터 돈을 주고 말을 빌리는 고마법(雇馬法)을 시행한 것에서 비롯되었다.⁶⁵⁾ 고마법은 사신의 왕래나 세폐(歲幣), 진상물의 운반, 지방관의 교체에 따른 영송·접대비용을 종전의 급마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이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쇄마법(刷馬法)이라고도 하였다.

조선 전기 역참(驛站)에서는 마호(馬戶)의 입역(立役) 형태로 역마를 마련하였다. 각 지방 군현은 분양마 등 관마(官馬)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광해군·인조 대를 거치면서 점차 민간인의 말을 돈으로 사서 이용하는 쇄마고립제(刷馬雇立制)가 시행되어 고마법이 성립하게 되었다.

고마청은 고가청(雇價廳)·고마고(雇馬庫)라고도 하는 민고(民庫)의 일종이다. 기본 재원을 민결(民結)에서 징수하였기 때문에 고마조(雇馬祖)·고마전(雇馬錢)이라고도 하며, 혹은 방역전(防疫錢)이라고도 하였다. 쇄마(刷馬)비용은 『경국대전』의 관리 등급에 따른 급마규정(給馬規程)에 의하였다.⁶⁶⁾

『속대전』에는 거리의 원근에 따라 최고 말 15~20필에서 최저 2~7필이 추가되었으며, 일정에 따라 말의 필수에 차등을 두었다.⁶⁷⁾ 진상품 운반과 공무로 내왕하는 데 타는 말 값은 거리를 계산해 지급하였다. 30리를 1식(息)이라 하여, 경기·호서는 북마 1필에 쌀 2말, 기마 1필에 쌀 1말 5되를 지급하였다. 짐꾼(負持軍) 1인에 쌀 1말씩을 지급하였다.

서대문구 미근동 서울경찰청 일대와 농협중앙회 본부 건물에서 의주로 1가와 이화여고 담장을 연결하던 만초천변에는 미나리밭이 넓게 분포되어 있었으므로 수근담(水芹畚)·근담(芹畚) 혹은 미나리짚으로 불렸다. 이곳에서 재배된 미나리는 연하고 깨끗해서 궁중에도 진상되었던 최상품으로 대한제국 때까지 유명하였다. 사신들의 행차가 평원처럼 넓게 전개되었던 미나리밭 한가운데를 거쳐 의주까지 가는 풍경을 그린 시(詩)가 여러 수 남아 있다.⁶⁸⁾

6진을 개척한 김종서(金宗瑞)의 집

『한경지략』에는 고마청 근처에 김종서(金宗瑞)와 심정(沈貞)의 집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김종서(1390~1453)는 중구 인현동 1가에서 서대문 밖 고마동(雇馬洞)으로 이전해서 거주하였다.

김종서는 태종 5년(1405) 문과에 급제한 후 세종 때 함길도 도관찰사가 되어 야인들의 변경 침입을 격퇴하고, 7~8년간 6진(六鎭)을 설치하여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선을 확정하는 데 공을 세운 뒤 1435년 함길도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를 겸직하였다.

문종 즉위년에 좌의정에 오르고, 문종이 죽자 왕의 고명(顧命)을 받은 김종서는 황보인(皇甫仁) 등과 함께 어린 단종을 보필하고, 『고려사』 등을 편찬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위를 노리는 수양대군에 의해 1453년 두 아들과 함께 격살되고, 대역 모반죄로 효수(梟首)됨으로써 계유정난(癸酉靖難)의 희생자가 되었다.

그는 담력이 커서 야인의 화살이 술잔을 꿰뚫어도 화살을 빼고 태연히 술을 마셨다는 일화도 전한다. 김종서의 죄는 22년이 지나 사면되어 숙종 4년(1678)에 후손들이 채용되었고, 영조 22년(1742)에 좌의정으로 복관(復官)되었다.

기묘사화를 일으킨 심정(沈貞)의 집

심정(1471~1531)도 고마청 근처, 서대문 밖 도제동(桃諸洞)에 거주하였다. 심정은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정국공신 3등으로 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하다가 남곤(南袞)·홍경주(洪景舟) 등과 같이 기묘사화를 일으켜 선비들을 숙청하였다. 이어 좌의정에 올랐으나 탄핵으로 유배되었다가 사약을 받았다.



농업박물관 옆 김종서 집터 표석

심정의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정지(貞之), 호는 소요정(逍遙亭)이다. 적개공신(敵愾功臣) 심응(沈膺)의 아들로,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연산군 8년(1502)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1503년 수찬(修撰)을 거쳐, 1506년 중종반정에 가담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 3등에 녹훈되었다.

1507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서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그해에 남곤(南袞)·김극성(金克成) 등과 함께 김공저(金公著)·박경(朴耕) 등이 반정공신 박원종(朴元宗)·유자광(柳子光)·노공필(盧公弼) 등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사전에 탐지하여 옥사(獄事)를 일으켰다. 그 뒤 성천부사를 거쳐 1512년 한성부 우윤(右尹)으로 약 5개월 재직하였으며, 1515년 이조판서에 올랐다. 그러나 삼사(三司)의 탄핵으로 파직되었으므로, 현재 강서구 방화동에 소요정(逍遙亭)을 짓고, 만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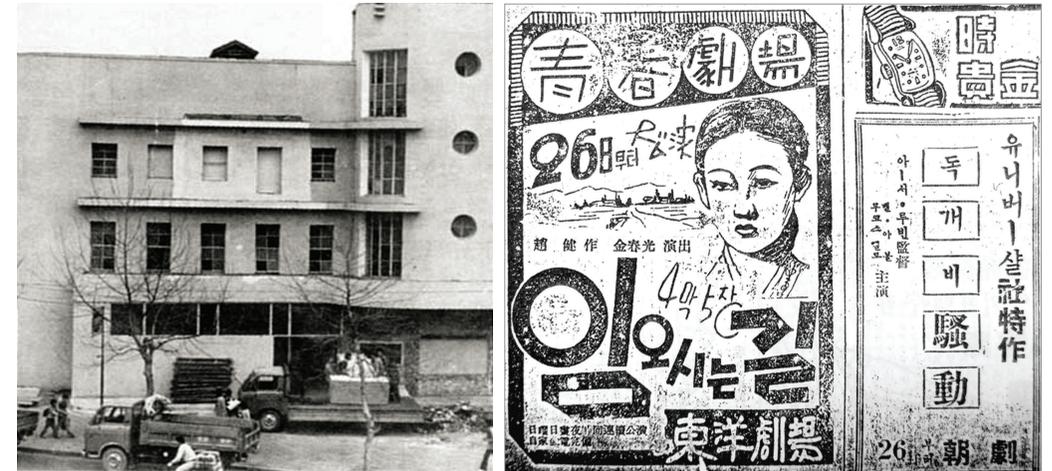
중종 14년(1519)에 조광조(趙光祖) 등이 중종반정 공신에 대한 위훈(僞勳) 삭제를 요구하자 남곤(南袞)·홍경주(洪景舟) 등과 모의하여 중종을 움직여 기묘사화를 일으켜 사람들을 제거하였다. 그 뒤 정권을 장악하여, 1527년에는 좌의정에 오르고, 화천부원군(花川府院君)에 봉해졌다.

그러나 경빈 박씨(敬嬪朴氏)의 동궁 저주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드러나 3사(三司)의 탄핵을 받고, 강서로 유배되었다가 '신묘삼간(辛卯三奸)'으로 지목되어 사사(賜死)되었다. 형제간에 우의가 두터웠고, 교묘한 꾀를 잘 내었다고 전한다.

서울 최초의 연극 전용 극장, 동양극장

현재 문화일보사(중구 충정로 1가 62번지) 자리에는 일제 때 문화의 전당으로 연극·영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동양극장(東洋劇場)이 있었으나 1995년에 헐렸다. 이 극장은 1930~1940년대 개량된 신파(新派)의 대중극 시대 전성기를 이루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1935년 서울에 세워졌던 최초의 연극 전용 극장이던 동양극장은⁶⁹⁾



헬리기 전의 동양극장과 연극 상연을 알리는 선전물

평양 출신의 홍순언(洪淳彦)이 그의 아내이자 당대의 무희 배우자(裴龜子)와 함께 설립하였다. 이 극장에는 많은 연극인이 모여들어 1930년대와 1940년대에는 대중 연극의 메카로 군림하였다. 일제 때 서울 구경을 나선 시골 사람들은 이 극장의 연극 한두 편을 관람해야 서울 구경을 했다는 보람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전한다.

이 당시 조선극장·단성사·우미관(優美館)과 같은 극장들이 주로 영화 상영·음악회·가극 대회를 위주로 하였을 때 이 극장의 출현은 연극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일대 활력소가 되었다. 이 극장의 출현으로 연중무휴로 연극을 볼 수 있었고, 당시 연극 상설 극장의 건립을 염원하던 많은 연극인들의 숙원이 풀리게 되었다.

시설은 객석 648석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회전식 무대(호리존트(horizont, 무대의 후방에 설치해 놓은 벽)를 갖추었고, 조명 시설도 훌륭하였을 뿐 아니라 무대 밑에는 기관실과 난방 시설까지 갖추었다.

이 극장은 신파극의 토착화 운동에 주력하여 연출가와 배우들로 전속 극단인 일반 연극의 '청춘좌(靑春座)'를 결성하고, 이어서 제2의 전속

극단으로 사극 중심의 '동극좌(東劇座)', 제3의 전속 극단인 희극 중심의 '희극좌(喜劇座)'를 창단하고, 연중무휴로 연극을 공연하였다. 희극좌와 동극좌가 병합하여 재출범한 극단 '호화선'은 '청춘좌'와 함께 동양극장을 대표하는 2대 극단이었다.

1935년 12월 15일에는 극단 '청춘좌'가 신극사상 최초의 본격적 직업 극단으로서 최독견(崔獨鵠) 작 『승방비곡(僧房悲曲)』으로 첫선을 보였고, 1936년 9월 '호화선(豪華船)'은 이운방(李雲芳)의 『정의의 복수』로 출발하였다.

이 극장의 대표 흥순언은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어머니의 힘』, 『황진이』, 『장한몽』, 『유정무정』, 『복두칠성』 등과 같이 작품성보다는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작품을 계속 무대에 올려 흥행에 성공하였다.⁷⁰⁾ 또 흥순언은 이 극장의 전속 배우와 작가를 1급~4급으로 구분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등 획기적인 운영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연구생으로라도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았다.

당시 연극을 좋아하는 관객은 대부분 종로권번(鐘路券番)과 한성권번(漢城券番)에 속해 있던 500여 명의 기생들이었다.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가 공연될 때는 장안의 많은 기생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의 관극평은 시중 여론을 좌우할 정도로 연극 흥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 주로 기생들이 즐겼던 연극은 화류 비련극(花柳悲戀劇)과 가정 비극류였다. 이 당시 작가들은 우선 관객들의 눈물을 짜기 위한 작품을 써야 했고, 그것이 또한 돈을 벌고 관객을 모으는 길이라 믿었다.

그러나 이 극장의 설립자 흥순언이 죽은 이듬해에 19만 원이라는 거액의 부도를 내어 극장주가 바뀌었다. 극장주가 바뀐 이 극장은 1939년 8월 '청춘좌'와 '호화선'의 합동 공연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고, 연기자들 중 일부는 새로 창단된 극단인 '아랑'으로 옮겨 갔다.

1946년에 극단 '호화선'이 재기하여 조향남(趙香南)의 『사랑을 팔아 사랑을 산 여자』로 재건 공연을 가졌으나, 흥행에 실패하여 그해 말 제7회 공연을 마지막으로 해산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동양극장은 대관(貸館)극장으로 변신하고, 6·25전쟁 때 극장주 김태윤이 납북되자 그 후에는 완전히 3류 극장으로 전락하였다. 그 뒤 영화관으로 사용하다가 1976년에 완전히 폐관하고 말았다.

이 극장은 연극연구소를 설치하고, 신인을 양성하여 이월화, 석금성, 조미령, 김승호, 주태선 등 술한 명배우들을 연극계와 영화계로 배출하였다.

철도 교통의 심장부, 서울역

현재 사적 제284호로 지정된 서울역사는 남대문역이 비좁았으므로 일제 때 총독부 철도국 주관으로 1922년 6월 지금의 자리에 벽돌과 철골조로 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경성역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1925년 9월에 준공하였다. 총 면적은 2,000여 평이며, 설계자는 동경대학 교수이던 총목정(塚木靖)으로 전해진다.⁷¹⁾ 비잔틴풍의 돔(Dome)을 올린 르네상스 양식으로 외형은 거의 당시에 만든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지금의 서울역사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1987년 12월 15일 착공하여 이듬해 9월 12일 2층 대합실을 포함한 일부가 부분 준공되었으며, 1989년 3월 11일에는 전체 건물이 준공되었다. 경성역 남쪽에 현대식 건물로 신축된 서울역 민자 역사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따라 2000년부터 서울종합민자역사 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 지하 2층, 지상 5층의 역사가 준공되었다.

서울역은 우리나라 중앙부에 위치하여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철도 교통의 심장부가 되고 있다. 서울역에서 시발되는 철도는 경부선·경원선을 비롯하여 경인선·호남선·전라선·충북선·경의선 등이 있으며, 경의선은 현재 문산까지, 경원선은 신탄리역까지 운행하고 있다.



1925년 일제 강점기에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구 서울역사. 사적 제284호로 지정되었다.



2004년 현대식으로 지어진 현재의 서울역

싸전이 많았던 서소문 밖

조선 시대 한성부에 있던 상설 점포를 ‘전(塵)’이라고 하였다. 서소문 밖에는 미전상신동(米塵上新洞)이란 마을 이름도 있지만 조선 시대에 곡식을 파는 싸전으로 유명하였다. 『동국여지비고』 시전 조에는 이런 내용이 보인다.

싸전은 여러 가지 곡식을 파는데 모두 다섯 곳이 있다. 상·하 싸전이 있는데 상전(上塵)은 의금부 서쪽에 있고, 하전(下塵)은 배오개(梨峴)시장에 있는데 이들은 국역 3분(國役三分)에 응하며, 도성문 밖의 싸전은 소의문(서소문) 밖에 있어서 국역 2분(國役二分)에 응하였으며, 서강 싸전과 마포 싸전은 모두 분수가 없다.⁷²⁾

이 기록을 보아도 소의문(서소문) 밖에는 서울의 5대 미전(米塵) 중의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이 책에는 서울에 장시(場市)가 열리는 곳을 종루가(鍾樓街)·칠패(七牌)·배오개 그리고 서소문 밖이라고 하였다.⁷³⁾

현재 서소문공원 일대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건립되기 전까지 서소문 중앙시장으로 불리던 청과(靑果)와 어물 거래 시장이 있었고, 그 맞은편에 합동(蛤洞)시장과 수산시장이 있었던 것은 예부터 시전으로서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방법을 위해 설치한 순창골

현재 중앙일보사가 자리 잡은 남쪽, 순화동의 일부는 조선 시대에는 풀무골, 또는 야동(冶洞)이라고 불렸다. 풀무골이라는 이름은 이곳에 풀무질을 해서 쇠를 달궈 연장을 만드는 대장간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충무로와 퇴계로가 만나는 충무초등학교 북쪽의 풀무재(야현, 冶峴)란 고개 이름도 대장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순화동

의 풀무골은 서울 성곽 밖의 마을로 일제 때 철도관사가 들어선 이래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었으나 재개발되었다.

조선 시대 이곳에는 방범을 위해 순청(巡廳)이 설치되었다. 「수선전도(首善全圖)」 등 옛 지도에 보면 남대문과 서소문 중간에 순청골이라고 써어 있다. 조선 초에 이곳에 순청이 설치되었던 것은 남대문이 가깝고, 또한 중국 사신이 묵었던 태평관 바로 뒤편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곳의 풀무골을 비롯해서 순청골은 조선 시대에 철물이 거래되던 곳이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인근의 봉래동 1가에 철물 상가가 있었으나 삼성생명 건물의 신축으로 헐렸다.

3형제가 한림(翰林) 벼슬을 지낸 한림골

중림동과 서대문구 합동에 걸쳐서는 조선 시대에 한림동(翰林洞)이 있었다. 이곳은 서울에서 거래되던 싸전 도매상 5군데의 하나인 소의문 밖의 미전(米廩)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한림골의 내력은 『동국여지비고』 권2에 “이정암(李廷菴)·정형(廷馨)·정겸(廷謙)의 3형제가 모두 이곳에 살면서 예문관(藝文館)의 사초(史草)를 적는 검열(檢閱, 정9품)인 한림(翰林) 벼슬을 지냈으므로 이들이 거주하던 곳을 한림동이라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서남문 밖 이정암(李廷菴)의 집은 만리현에 있는데 한양정도 때 무학대사가 정해준 명당이므로 뒤에 그의 6세손 이정암 3형제가 모두 한림학사가 되어 한림동이라 했다.”⁷⁴⁾ 것이다. 이들 3형제는 선조 때 명신으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암이 병조참판, 정형이 부제학, 정겸이 이조참판을 역임하는 등 모두 요직을 두루 거치고 명성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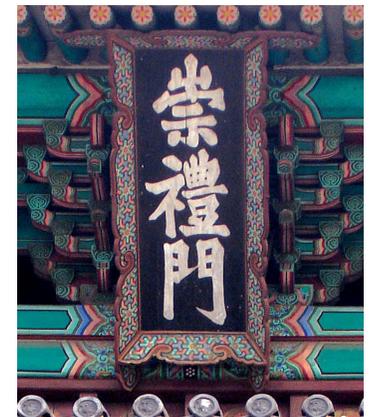
중림동 서북쪽의 형제정동(兄弟井洞)도 이정암 형제가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교량명	연혁
석교(石橋)	혁교(革橋)라고 불렸으며, 「경기감영도(京畿監營圖)」에 석교 표시가 있는데 현재 영천시장 입구에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 말까지 석교동이라는 명칭이 있었다.
경교(京橋)	총정로 1가 90번지 현 적십자병원 앞에 있던 다리로 경기감영 창고 앞에 있었으므로 경곶다리, 또한 경고교(京庫橋)·경구교(京口橋)·경교(京橋) 등으로 불렸다.
신교(新橋)	의주로 1가 106번지 현 경찰청 동남쪽에 있던 다리로 새로 돌다리를 놓았다 하여 새다리, 신석교(新石橋) 혹은 신교로 불렸다.
이교(圮橋)	합동 16번지, 현 서소문공원 북쪽 입구 쪽에 있던 다리로 나무다리를 놓고 흙을 덮어 흙다리라고 하던 것이 변하여 헛다리가 되고, 한자명으로 이교(圮橋)라고 불렸다.
염초청교(焰硝廳橋)	중림동 9번지 남쪽에 있던 다리로 부근에 염초청(焰硝廳)이 있어 염초청다리 혹은 염청교(焰廳橋)라 했으나 변하여 염천교(鹽川橋)라고도 불린다.
주교(舟橋)	‘돌다리’ 혹은 ‘배다리’라고 부르는 이 다리는 청파동 1가와 동자동의 경계가 되는 지역의 물놀이에 놓여 있었던 다리로서 남대문을 나와 남쪽으로 가는 길목에서 제일 먼저 건너야 하는 다리이다. 이 다리를 중심으로 배다리골이라 불렸으며, 주교동의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송례문 현판이 나온 청파 배다리

조선 초기 양녕대군이 썼다고 알려진 송례문 현판이 1592년 임진왜란 중에 사라졌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글씨를 써서 다시 달았더니 다는 대로 현판이 떨어지므로 모든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겼다고 전해 온다.

『한경지략』에 의하면 광해군 때에 이르러 청파 배다리(舟橋) 밑의 웅덩이에서 밤에 서광이 비쳐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밑을 파 보니 송례문 현판이 나와 다시 걸게 되었다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훌륭한 글씨는 영험이 있다고 전한다.



송례문 현판

3. 청계천의 옛 다리들

서울 도심은 서울 성곽이 쌓아진 내사산(內四山)에서 물이 흘러내려 청계천에 합류되는데, 조선 시대에는 각 지천마다 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에 다리가 놓였다.

전통 사회에서 다리는 단순히 물을 건너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서울 사람들의 생활 문화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다. 마땅한 공공장소가 없었던 시절, 다리는 약속과 모임의 장소였고 길 가던 사람들이 쉬어 가는 쉼터이기도 하였다. 다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동네 이름이 생겨나기도 하였으며, 반대로 부근 동네 이름을 따서 다리에 붙이기도 하였다. 다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가 생겨났으며, 웃음과 지혜가 담겨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청계천의 옛 다리들은 도성의 다른 곳에 놓여 있던 다리보다 비교적 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다. 청계천의 옛 다리들은 저마다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으며, 청계천의 중요한 문화유산이었다. 현재 청계천에는 22개 다리가 놓여 있다.

도성 안의 청계천 교량으로 처음 이름이 보이는 것은 통의동 부근의 조선 초 태조 5년(1396) 2월에 놓은 금천교(錦川橋)이다. 태종 10년(1410) 2월에는 혜정교(惠政橋)와 광통교(廣通橋)라는 이름이 나타나는데 이해 8

월에 돌다리로 놓여졌다.

태종 12년(1412)에 실시된 제1차 개천 공사 때는 대광통교·소광통교·혜정교·모전교(毛塵橋) 등 5개 교량을 돌다리로 놓았다.

청계천 교량은 성종 때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장통교·수표교·신교(新橋)·영풍교(永豐橋)·대평교(大平橋) 등의 이름이 보이므로 성종 때에 이르러서 모든 교량 이름이 정해진 것 같다.⁷⁵⁾

조선 후기 순조 때에 저술된 『한경지략(漢京識略)』 권2 교량조와 고종 때에 저술된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권2 개천조에는 앞의 교량 이외에도 도성 안의 많은 다리가 소개되고 있다.

중구청 관내의 청계천 지천은 정동 구 러시아공사관 부근에서 발원한 정릉동천(貞陵洞川)이 덕수궁을 지나 서울시청을 가로질러 소광통교를 거쳐 청계천에 들어간다. 남산 밑의 창동천(倉洞川)은 북쪽으로 흘러 수각교(水閣橋)와 전도감교(錢都監橋)를 거쳐 소광통교로 흐르고, 회현동에서 발원한 장흥동천(長興洞川)은 남대문로를 따라 내려오다가 소광통교에서 창동천과 합류하며, 남산동천(南山洞川)은 남산3호터널 부근에서 발원하여 명동을 지나 동현교(銅峴橋)를 거쳐 장통교에 이른다.

그리고 청계천 3가와 입정동을 거쳐 하랑교(河良橋)를 지나 청계천으로 흐르는 이진동천(履塵洞川)이 있고, 남산 밑의 주자동천(鑄字洞川)도 예장동에서 북쪽으로 흘러 주자교를 거쳐 을지로 3가역을 지나 청계천에 흘러 들어간다.

필동천(筆洞川)은 남산 한옥촌, 충무로역의 필동교를 거쳐 세운상가를 지나 청계천으로 흐르며, 묵사동천(墨寺洞川)은 남산순환로(북쪽) 계곡에서 흘러 예관동의 무침교(無沈橋), 중구청 부근의 청녕교(靑寧橋), 방산시장의 마전교에서 청계천이 합류된다.

쌍리동천(雙里洞川)도 장충동 앰버서더 호텔 부근에서 북쪽으로 흘러내려 오장동의 어청교(於靑橋)를 거쳐 종로 5가 태평교 부근에서 청계

천에 합류하였다. 버티고개의 남소문에서 발원한 남소문동천(南小門洞川)은 국립극장을 거쳐 장충단공원을 지나 광희동에서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한 갈래는 국립의료원, 한 갈래는 동대문축구장 자리의 이간수문(二間水門)을 통해 청계천으로 흘렀다.

청계천 본류와 지천의 교량은 조선 초에 나무다리였다가 차츰 돌다리로 바뀌어 갔다. 휴전 후 1955년의 신문 기사를 보면 종로~동대문에 이르는 청계천의 다리는 사람의 왕래가 매우 번잡한데 나무다리는 대개 나무가 썩고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낮에도 왕래하는 사람에게는 적지 않은 불안을 주고 있다고 보도한 것으로 보아 청계천 교량이 모두 돌다리로 바뀌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시대에 청계천에는 모두 24개의 다리가 있었는데 광교·수표교·관수교·오간수교 등이 유명하였다. 그중 수표교는 수위 측정을 위한 수표석(水標石)이 세워져 있어 유명하였다.

신한은행 본점 앞에는 광통교, 또는 대광교, 광교가 놓여 있었으나, 1959년 청계천 복개 때 지하에 묻혔다가 47년 만에 복원되어 2006년 청계천 복원 공사 때 상류 쪽으로 옮겨졌다. 광통교란 이름은 전일에 이곳을 광통방(廣通坊)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광교는 휴전 직후인 1953년~1958년까지 청계천 복개 때 자취를 감췄다가 2005년에 햇빛을 본 다리로 조선 시대에는 도성 내에서 가장 큰 다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 말까지 청계천 본류에 가설되었던 교량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모전교(毛廛橋)

현재도 모전교가 가설되어 있지만 조선 시대에 서린동에서 무교동으로 통하는 네거리 지점, 곧 무교동 3번지 북쪽에 있었던 다리이다. 태종 12년(1412)에 석교로 조성하였다. 당시는 신화방 동구교라 불렀으나⁷⁶⁾ 영조 때에 작성된 「도성삼군문분계지도(都城三軍分界之圖)」에는 모전교로



광통교 석벽의 석물 조각. 광통교에 새겨진 조각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기록되어 있다.

모전교라는 이름은 이 다리 모퉁이에 토산(土産) 과일을 파는 가게가 있었으므로 모퉁이 가게다리, 우전(隅廛)다리라고 하다가 모전교·모교(毛橋)라고도 하였다.

○ 광통교(廣通橋)

일명 광교(廣橋)로 불리는 광통교(廣通橋)는 남대문로 1가 19번지~서린동 124번지에 놓였던 다리로, 보신각이 있는 종로 네거리에서 을지로 입구 방향으로 나가다가 청계로와 만나는 길목에 놓여 있었다. 조선 시대 광통방(廣通坊)에 있던 큰 다리였으므로 대광통교(大廣通橋)라 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북광통교(北廣通橋)라고 했으나 이후 대광통교, 광통교, 대광교(大廣橋) 등으로 불리었다.

처음에 토교(土橋)였던 광통교는 태종 10년(1410) 8월에 큰비가 내

러 떠나려가자 “큰비로 물이 넘쳐 백성들이 빠져 죽는 사람이 있었다. 의정부에서 계(啓)하기를 ‘광통도교는 비가 오면 무너지니 청계대 정릉(貞陵)의 옛 석물을 이용하여 돌다리(石橋)를 만들고자 합니다.’라고 건의하니 태종이 그대로 따랐다.”⁷⁷⁾라는 기록이 있다.

원래 정릉의 석물은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 강씨를 애도 추념하는 마음에서 특별히 제주목사(濟州牧使) 여의손(呂義孫)으로 하여금 일류 석공들을 상경시켜 감독, 조각하였으므로 그 정교한 솜씨를 짐작할 수 있다. 태종이 정릉 석물을 옮겨 광통교 축조에 사용한 것은 계모 신덕왕후 강씨를 증오한 까닭이라고 후세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다.

현재 광통교 남북 양측의 석벽을 이룬 12개의 신장석(神將石)은 길이 8척, 넓이 3척 4촌의 석면(石面)에, 구름·덩굴무늬 가운데 보관(寶官)을 쓰고 양손을 합장한 모습이 지금도完연하여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일제 말기 경성부의 축탁(囑託)으로 있던 오카다 코우(岡田貢)가 『경성도목건축협회보』(1935년)에 기고한 청계천 본류에 관해 쓴 글을 보면, 광통교에 새겨진 조각은 서울 안에서는 비교할 대상이 없는 수작(秀作)이라고 평하고 아래와 같이 적었다.

1924년 이래 종로를 시작으로 경성부 내 주요 도로의 개수가 이루어져 남대문동 양측에 오수(汚水) 배수 토관을 부설한 결과 고통스럽게 신장석은 오수의 세례를 받으며 있게 되었다. 신장석이 있는 자리, 즉 광통교 아래 양쪽 언덕은 두텁고 넓은 석재 교상(橋床)의 아래쪽 그늘로서 건조한 데다가 약간의 물도 흘러 무척 시원하였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자연히 룬펜의 아파트처럼 되어 이들이 내버린 오물은 그대로 다리 아래로 방류되었다.

이들 중에는 뱀탕집도 있어서 다리 기둥에 흰 글씨로 ‘살무사 판 매소’라고 쓴 것이 있다. 그러므로 신장석을 찾아보려는 사람들은 반



『도성도』 중의 청계천 광통교 부근

드시 장화와 지팡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왕릉을 지키던 용감한 신장석은 하수의 물방울을 뒤집어쓰고 룬펜의 오물 냄새에 둘러싸인 채로 528년을 지내왔으나, 이제 머지않아 복개되면 완전히 지하에 묻혀 영구히 세상 사람들로 부터 잊혀질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광복 후에는 1958년에 청계천 복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광통교 속에 신덕왕후 강씨의 능침석(陵寢石)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⁷⁸⁾

광통교는 예부터 서울에서는 큰 다리로 알려져 정월 대보름이 되면 도성의 양반, 중인, 상민, 부녀자 등의 많은 남녀가 모여 답교(踏橋)놀이를 하던 곳으로 유명하였다.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芝峯類說)』에는 “보름날 밤 답교놀이는 고려조로부터 시작하였다고 되어 있다. 태평할 때에는 매우 성하여 남녀들이 줄을 이어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으므로 법관들이 금해서 체포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풍속에는 부녀자들이 다시 다리를 밟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

유득공(柳得恭)이 기술한 『경도잡지(京都雜誌)』를 보면 고려 때에도 있었던 답교놀이(答교놀이)는 서울 지방, 특히 광통교와 수표교에서 남녀노소 귀천을 가리지 않고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경지략』에는 답교놀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집단 놀이로 원래 중국 연경(燕京)의 풍속이며, 우리나라는 조선 초 중종 때부터 시작되었다⁷⁹⁾는 설도 있다.

광통교는 1953년에 청계천 복개 공사로 서쪽 부분이 덮이고, 1958년에 동쪽 부분마저 덮였으므로 복개된 지하에서나 볼 수 있었다. 1994년 7월 18일, 서울 정도 600년을 맞아 조흥은행 본점에서 1/4로 축소한 광통교를 정문 부근에 설치하기도 하였다. 2005년 10월에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으로 광통교는 52년 만에 햇빛을 보게 되었으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광교에서 청계천 상류 쪽으로 155m쯤의 위치인 SK 본사와 한국관광공사 사옥이 있는 곳에 옮겨 놓았다.

이 다리의 원형 복원을 위하여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부분과 창덕궁 및 탑골공원에 흩어져 있던 교량 난간 중의 7개의 석주(石柱) 부분을 찾아내어 복원하였다.

○ 장통교(長通橋)

중구 장교동 51번지와 종로구 관철동 11번지 사이 청계천에 놓였던 이 다리는 이 근방이 조선 시대 한성부 장통방(長通坊)이었으므로 이를 따서 이름이 붙여졌다. 이 다리 근처에 '장차골'로 불리는 마을이 있었다 하여 이 부근에서는 '장차골다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줄여서 장교(長橋)라 하였다.

『동국여지비고』와 『한경지략』에는 장통교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광제교 동쪽에 위치하며 흔히 장창교(長倉橋)로 불렀다고 하였다.⁸⁰⁾

장통교는 백악산, 인왕산에서 발원한 물이 내려오다가 남산 방면에서 흘러 내려오는 창동천·장흥동천 물줄기가 소광통교에서 만나고, 다시 남산동천의 물줄기가 이 다리 앞에서 합류한다. 여기서부터 일직선으로 오간수문을 지나 영미교 방면까지 물 흐름이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길게

통한다는 뜻으로 장통교라고 불렀다는 설도 있다. 이 다리의 서쪽 기둥에는 '신미개조(辛未改造)', '기해개조(己亥改造)'라는 8자가 새겨져 있었다.

또한 『동국여지비고』에는 청계천의 너비가 "상류 송기교~장통교에선 10여 보(약 12.5m)에 불과하지만 장통교~태평교 사이에선 20여 보(약 24.9m)로 넓어진다"고 하였으니, 장통교를 지나면서 청계천이 비로소 하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옆에 있던 광통교보다 긴 이 다리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장교' 또는 '장통교'로 굳어졌다.

조선 시대에 장통교가 있던 남쪽의 장교동 일대와 북쪽의 관철동 일대는 지금도 많은 상가들이 즐비하게 있지만 이 일대는 일찍부터 도성 안 상업의 중심지가 되어 갓전·관자전(貫子廛)·소금전·신전을 비롯해서 모자·양털·베를 파는 청포전(靑布廛)·모시전 등의 시전 상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다. 그리고 역관·의관·천문관 외에 중앙과 지방 관청의 연락 사무를 맡아 보던 경주인(京主人)들의 본거지여서 사람들의 왕래로 바쁜 지역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노론 세도가들이 몰려 살던 '북촌'이나 퇴락한 딸각밭이들이 몰려 살던 '남촌'과 구별하여 '중촌'이라고 불렀다.

장통교에는 조선 숙종이 장희빈을 처음 만났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조선 후기 야담집을 보면 숙종이 태조 등 국왕의 어진(御眞)



1950년대의 장통교 모습

을 모신 영희전(永禧殿)에 참배를 하고, 수표교를 지나 장통교 부근의 장통방을 지나는데 바람이 휩 불면서 한 여염집 창문의 사창(紗窓)에서 한 아리따운 아가씨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숙종은 우연히 본 그 여인(장희빈)의 미모를 잊지 못해 궁궐로 불러들였는데, 이 여인이 방승 사극의 단골 소재가 되는 장희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등 사료에는 “장희빈은 숙종 때 중신인 조사석(趙師錫)과 왕족인 동평군(東平君, 숙종의 당숙)에 의해 어렸을 때 궁녀가 되었고, 이때 숙종의 승은(承恩)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장희빈은 당시에 역관(譯官)으로 유명했던 인동 장씨 가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장통교 근처에서 살았을 가능성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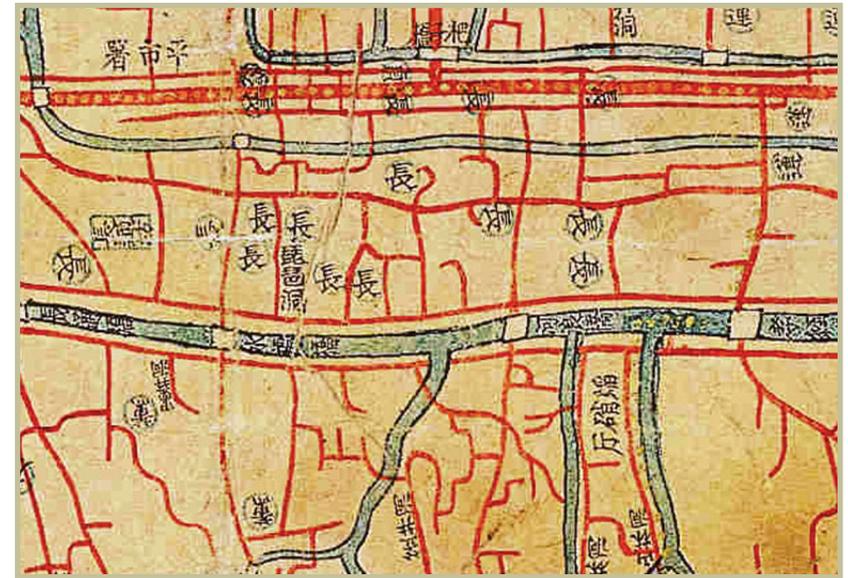
조선 시대에 돌로 만든 이 다리는 일제 때인 1929년 7월 13일에 폭우로 동아일보사 앞의 청계천 복개 공사를 하기 위해 쌓아 놓은 건축 자재가 장통교에 걸리면서 이로 인해 물길의 교량 위로 넘쳐 장통교 중간의 두 칸이 유실되었다.⁸¹⁾ 1958년에 청계천 복개 공사로 이 다리는 철거되었으나 57년 만인 2005년에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 때 원래 위치보다 상류 쪽에 새로 놓여졌다.

○ 광제교(廣濟橋)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동국여지비고』에 의하면 광통교와 수표교 사이에 위치했던 교량으로 나와 있어 지금의 장교동 20번지 부근에 있었던 다리로 생각된다.

○ 수표교(水標橋)

수표교는 원래 중구 수표동 43번지와 종로구 관수동 152번지 사이에 놓였던 청계천 다리로서 세종 23년(1441)에 가설된 것이다.⁸²⁾ 이 다리 서쪽에는 청계천의 수위(水位)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표(水標) 기둥에 10척(尺)



(『도성도』 중의 청계천 수표교 부근)

까지 눈금을 그어 붙어나는 물의 양을 측정하였다. 이때부터 수중주석표(水中柱石標)라는 말이 생겨나 ‘수표교’라고 부르게 되었다.

물길을 건너는 통로뿐만 아니라 홍수의 조절을 위해 수량을 재는 역할을 했던 이 다리는 길이 27m, 너비 7m의 조선 전기의 다리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18호로 지정되어 있다.

화강석을 깎아 만든 석재(石材)를 가구식(架構式)으로 짜 맞추어 세운 수표교는 아래의 돌기둥이 특이하게도 2단을 이루고 있다. 그중 위 단의 돌은 모서리를 물의 흐름과 마주하게 하여 물의 저항을 덜 받도록 하였다. 난간은 연꽃 봉오리, 연잎 등을 주제로 설계해 놓았는데 그 조각들이 매우 아름답다.

바닥의 양쪽 언저리에 돌난간을 세웠는데, 한쪽마다 엄지기둥 11개를 세우고, 그 사이에 동자기둥 1개씩을 세워 6모로 된 난간석을 받쳤다. 난간을 구성하고 있는 부재(部材)는 연꽃 봉오리·연잎 등을 기본으로 하여 설계되었는데 이는 조선 시대 돌난간의 전형적인 형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수표교의 돌다리 기둥에는 ‘경진지평(庚辰地平)’이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다. 경진(庚辰)은 영조 36(1760)년의 간지(干支)이니 그해에 준설한 개천 바닥의 표준을 나타내어 후일 청계천 바닥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는 표시로 삼았다. 수표교에는 ‘정해개조(丁亥改造)’, ‘무자금영개조(戊子禁營改造)’ 등의 글씨가 남아 있어서 조선 후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 수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다리는 1959년에 청계천을 복개하면서 훼손하지 않고, 철거하여 장충단공원으로 옮겨졌다. 44년 뒤인 2003년 청계천 복원 때 수표교를 제자리로 다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문화재위원들이 이를 반대하였으므로 그대로 두고, 상류 쪽에 임시로 만든 수표교를 설치하였다.

수표동의 동명이 유래된 수표(水標)는 수표교 옆 서쪽 개천 바닥에 설치되어 있었다. 수표는 조선 시대에 청계천 물이 불어나는 상태를 수표석의 눈금을 보고 측정하여 장부에 기록한 후 호조를 통해 국왕에게 보고하는 한편 한성판윤에게도 알려 홍수에 대비하는 중요한 계측 기구였다.⁸³⁾ 조선 시대 서울의 홍수 조절 기능을 담당하던 수표는 세종 23년(1441)에 나무로 만들었으나⁸⁴⁾ 영조 36년(1760)에 돌로 만들어 세웠다.

이 수표는 1959년 청계천을 복개하면서 수표교와 함께 장충단공원으로 옮겨졌다가 1973년 10월에 세종대왕기념관(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157번지)에 이전하여 보존되고 있으며, 보물 제838호로 지정되어 있다. 높이 3m에 폭 20cm의 가운데가 볼록하고 양쪽 끝이 뾰족한 방추형(方錐形) 화강석 돌기둥이다.

광통교와 수표교에 얽힌 민속놀이로 정월 대보름날 밤 서울 사람들이 밤을 새워 즐긴 놀이인 답교놀이가 있다.

정월 대보름 전 2~3일은 이 수표교를 중심으로 청계천 아래 위에서 연날리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었는데, 이때 어린아이는 연을 바람 부는 방향으로 날리면서 ‘고고매(苦苦妹)’라고 불렀다. 고고매는



세종대왕기념관에 보존되어 있는 수표(보물 제838호)와 청계천의 물 높이를 측정하던 수표석의 눈금

몽고 말로 봉황이라는 뜻이다.⁸⁵⁾ 수표교를 중심으로 한 청계천 아래위에서는 연싸움이 벌어져 구경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연싸움하는 날이면 서울 시전 상인들도 가게 문을 닫고 구경에 여념이 없었다.

이 다리는 저동 2가에 조선 역대 국왕의 영정을 모셨던 영희전(永禧殿)이 위치하였으므로 국왕이 제사를 지내기 위한 거동 행렬이 잦았다.

조선 왕조 건국 초부터 서울에는 저녁 10시~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가 있었다. 서울 도성은 국왕이 거주하는 국가의 심장부로서 질서 유지와 치안 확보가 매우 중요했다. 따라서 오늘날 경찰서, 파출소, 방범 초소가 있듯이 한성부에는 포도청(捕盜廳), 경수소(警守所), 이문(里門)이 설치되어 있었다. 조선 초에는 의금부(義禁府), 단종 때는 군대, 그리고 중종 때는 포도청이 설치되어 한성부의 치안을 담당했으니 통행금지를 취체하는 기관 이름은 시대에 따라 달랐다.

당시는 시계가 보급되지 않아 통행금지 직전의 순찰 및 숙직 교대 시각은 궁중의 보루각(報漏閣)에서 거의 1시간마다 북과 징을 울려 5경(更)까지 알리기도 했다. 조선 시대에 통행금지 위반자 처벌은 매우 엄해

위반한 시각에 따라 각각 처벌이 달랐다. 통행금지가 있으면 위반자가 있기 마련인데 단골손님은 예나 지금이나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조선 말 철종 때 시인 정수동은 서울 어디에 살았는지 분명치 않으나 수표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장안의 명물로 많은 일화를 남겼다.

어느 날 정수동이 동대문 밖에 나가서 술을 얻어먹고 많이 취했다. 술이 취해 통행금지가 넘어 집으로 돌아가다가 수표교 부근까지 무사히 왔다. 순라군과 맞부딪히게 되자 임기응변으로 담벼락에 팔을 짚 벌리고 섰다. 순라군이 “당신 누구야?” 하니 정수동이 아무 말이 없었다. 순라군이 다시 “당신 누구야?” 하고 묻자 정수동은 “나 빨래요.” 하였다. “빨래가 어떻게 말을 하나?” 물으니, 정수동이 “나는 옷이 한 벌밖에 없어서 옷을 입은 채로 빨았는데 아직 덜 말라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요.” 하였다. 순라군이 하도 기가 막혀 얼굴을 살펴보니 유명한 정수동인지라 꺾꺾 웃고 지나가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일제 때까지도 수표교 밑에서는 여름 장마철에 벌거숭이 소년들이 햇불을 들고 물놀이를 겸한 송사리 잡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1941년 최인규 감독이 제작한 「집 없는 천사」는 이 다리 밑에 사는 걸인 아이들을 소재로 한 영화였다.

○ 관수교(觀水橋)

종로구 관수동 91번지와 중구 입정동 211번지 사이의 청계천에 놓였던 이 다리는 1957년~1961년에 청계천 복개 공사로 사라졌다. 관수교라는 이름은 이 일대를 청계천의 흐르는 물을 바라본다는 뜻에서 관수동이라 하였으므로 동명을 따서 명명한 것이다.

이 다리는 융희 4년(1910)에 수표교와 하랑교 사이에 가설한 것으로 그 규모가 장려(壯麗)하여 당시 도성 내의 교량 중의 제일이라고 하였다.

이 다리는 대한제국 말기 순종 황제가 집무하던 창덕궁과 남산 밑 예장동에 위치한 조선통감부가 직선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하였으므로 빈번한 두 나라 요인들의 왕래를 위하여 가설한 것이다.⁸⁶⁾

○ 하랑교(河浪橋)

입정동 6번지와 장사동 208번지 사이 청계천에 놓였던 이 다리는 다리 부근에 하랑위(河浪尉)라는 부마가 살았다 하여 하랑교라 불렸다. 후에는 그 언저리에 화류장(樺榴穢)을 파는 가게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면서 화류교(樺榴橋), 하리꽃다리 또는 화교(花橋), 「수선전도」에는 하랑교(河浪橋), 「서울지도」에는 하교(河橋)라고 기록되어 있다. 일제 때 콘크리트 다리로 개축되었다.

○ 신교(新橋)

장사동 250번지와 중구 입정동 201·211번지 사이의 청계천 위에 놓여 있는 다리로 ‘새로 놓은 다리’라는 의미의 다리이다. 이 다리는 1900년대 이후 서울에서 돌다리를 콘크리트 다리로 바꿀 때 가장 먼저 시공된 다리였다.

○ 효경교(孝經橋)

주교동 146번지와 예지동 136번지 사이의 청계천에 놓였던 효경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영풍교(永豐橋)라고 기록되어 있다. 속칭 소경다리, 새경다리, 또는 줄여서 효교(孝橋)로도 불렸다. 그 후 다시 순조 때에는 영풍교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 다리 서쪽 기둥에는 ‘정사 금영 개조(丁巳禁營改造)’라고 각자(刻字)가 있었다고 전한다.

효경교 밑에는 종로거리, 대광통교(大廣通橋)와 함께 서울 거지들의 움집이 몰려 있으므로 매년 선달 추울 때에는 왕이 선전관(宣傳官)을 보내어 보살피고, 호조(戶曹)에 분부하여 쌀과 베(布)를 주면서 얼어 죽거나

끓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해 온다.

그런데 효교라고 칭하게 된 연유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이곳에 아들 형제를 둔 과부가 살았는데 이웃에 사는 서당 글방 선생 역시 홀아비인지라 과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모하다가 마침내 밤마다 개울을 건너 이 집에 와서 지내다 새벽닭이 울면 다시 건너갔다는 것이다. 이를 알아챈 아들 형제가 글방 선생이 옷을 적시지 않고도 건널 수 있게 다리를 놓았다 하여 효자다리라고 부르던 것이 변해서 효교(孝橋)로 되고 다시 새경다리로 되었다는 것이다.⁸⁷⁾

둘째는 이 다리 근방에 앞날의 일을 잘 알아맞히는 소경이 살았으므로 소경다리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효교라고 썼다는 것이다.

○ 주교(舟橋)

주교동과 청계천 4가 사이의 청계천에 있었던 다리이다. 그런데 이 ‘배다리’라는 지명이나 동리명(洞里名)은 여러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명칭이다. 다만 이러한 ‘배다리’ 또는 ‘주교(舟橋)’의 이름으로 불리는 다리들의 명칭이 반드시 배로 다리를 놓고 다닌 일이 있는 데에서 유래된 것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주교는 정조 13년(1789) 10월에 한강에 주교를 설치하는 일을 맡았던 주교사(舟橋司)라는 관청을 새로 설치한 데에서 유래된 다리 이름으로 보인다. 도성 내의 개천 정리를 맡았던 준천사(濬川司, 1760년)가 지금의 청계천 4가의 북안 지역에 있었는데, 주교사의 일을 맡은 분사(分司)가 주교 또는 ‘배다리’로 불리는 다리 근처에 있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주교는 나무로 놓여졌다. 정조는 부친 장조가 묻혀 있는 화성시 용릉으로 자주 참배하기 위해 한강을 건널 때 어가(御駕)의 안전을 위해 한강의 주교 가설을 전담하는 주교사를 설치하였다. 한편 정조가 1790년 친히 제정한 『주교지남(舟橋指南)』과 1793년에 정해진 『주교사절목(舟橋司



『도성도』 중의 청계천 마전교 부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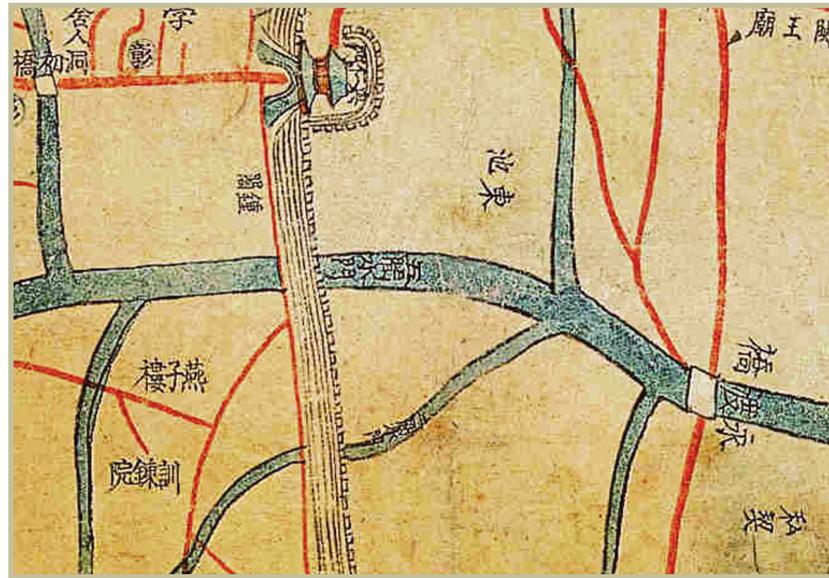
節目』에 보면, 배다리를 만들 때 290척의 배가 동원되었다고 써어 있다.

주교는 연초인 1, 2월 혹은 8월에 가설되지만 대개 춘행(春幸)이 많았으므로 주교 가설에 동원되는 주교선들은 겨울을 한강에서 지내고, 1·2월에 주교의 역을 마친 후 각자 조운에 종사하게 되어 있었다. 동원된 선척은 충청도의 조운선과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강화도에 비치한 훈련도감 대변선 등 관선이었지만, 점차 인근의 사선(私船)도 징발하였다.⁸⁸⁾

○ 마전교(馬廛橋)

종로5가 416번지와 방산동 20번지 사이 청계천에 놓여 있던 이 다리는 태종 때는 창선방교(彰善坊橋)라 불렸으며, 성종 때는 태평교(太平橋)라고 했다가 영조 때부터 부근에 말과 소를 팔고 사는 가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전교(馬廛橋)라고 하였다.

태평교라는 원래 이름보다도 ‘말전다리’로 널리 불렸다가 ‘말전다리’ 즉 마전교가 다시 와전되어 최근에 오교(午橋, 오곶다리)라는 이름으



「도성도」 중의 청계천 오간수교 부근

로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12간지(干支)에 말을 오(午)라고 하는데서 연유된 듯하다.⁸⁹⁾

한편 이 마전교가 있는 방산동(芳山洞)이라는 동명은 이 부근에 청계천을 준설할 때 나온 토사가 쌓여 몇 개의 산더미를 이루어 가산(假山) 또는 조산(造山)으로 불리다가 이 산 위에 무궁화 향기가 매우 좋은 데에서 방산과 방산동이란 명칭이 연유된 것이다.

○ 오간수교(五間水橋)

동대문~을지로 6가로 가는 성벽 아래 청계천 6가(중구 을지로 6가 18-214)에 있던 다리로 청계천 물줄기가 도성을 빠져나가는 오간수문(五間水門)에 설치하여 오간수다리라고 불렀다.

조선 초에 서울 성곽을 쌓으면서 청계천 물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세 개의 아치형 문을 만들었다가 후일 다섯 개의 아치형 문을 만들고, 그 위에 성곽을 쌓아 올렸으므로 오간수문이 되었다. 광무 11년(1908)

에 당시 한성부의 유맹(劉猛) 토목국장이 청계천 물이 잘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오간수문을 헐어 버릴 때 오간수다리도 함께 사라졌다.⁹⁰⁾ 그 대신 전차와 자동차 통행을 위해 콘크리트로 만든 오간수교와 청계천을 건너는 사람들의 통행을 위해 나무로 만든 오간수교가 놓여졌다.

○ 영도교(永渡橋)

영도교는 현재도 가설되어 있지만 송인동 234번지와 상왕십리 748번지 사이, 동묘(東廟) 남쪽 청계천 하류에 있던 다리이다. 조선 시대에는 영도교(永渡橋)라고 불렀는데 일제 때 지도를 보면 영미교(永尾橋)로 표기되어 있다. 동대문 옆에 오간수문이 있어서 동대문 방면에서 왕십리 쪽을 가려면 이 다리를 건너야 했기 때문에 교통량이 몹시 빈번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초의 성종은 절의 중들을 동원해서 살곶이다리(전곶교, 전관교)와 함께 이곳에 돌다리로 중수(重修)하고, 어필(御筆)로 ‘영도교’라 한 것으로 보아 그 규모가 크고 특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다리에 얽힌 전설로는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고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降封)되어 영일로 귀양 갈 때(세조 4년, 1458) 부인 정순왕후(定順王后) 송씨(宋氏)가 이곳까지 나와서 서로 영영 이별을 하였다 하여 ‘영이별다리’ 즉 영도교라 부르고, 혹은 ‘영영 건넌다리’라고 전해진다. 그 후 정순왕후 송씨는 지금의 청룡사 새절승방에 있던 정업원(淨業院, 현 청룡사, 송인동 17번지)에 들어가서 시녀 셋을 데리고, 일생을 불도(佛道)에 바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영도교의 돌다리는 고종 즉위 후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수할 때 헐어다가 석재로 썼기 때문에 이때 없어졌다고 전한다. 그 뒤 나무다리가 놓였으나 가끔 떠내려갔는지 그 옆에는 ‘떠엄들’이라고 해서 개천 바닥에 돌을 띄엄띄엄 놓아서 사람들이 밟고 건너게 한 때도 있었다.⁹¹⁾

주(註)

1부 청계천, 역사와 함께 흐르다

- 1) 『동아일보』, 1927년 1월 22일~24일자.
- 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의 하천』, 2000, 202면.
- 3) 김영상, 『서울육백년』, 1994, 대학당, 40~41면.
- 4) 『동국여지비고』 권2, 한성부 제택조.
- 5) 『주교지남(舟橋指南)』, 주교사 절목 참조.
- 6) 이우성·임형택 역, 『이조한문단편집』 일조각, 「추재기이(秋齋紀異)」, 1973, 335면.
- 7) 이우성·임형택 역, 『이조한문단편집』 일조각, 「추재기이(秋齋紀異)」, 1973, 343면.
- 8) 세종실록 권106, 세종 26년 12월 21일조.
- 9) 세종실록 권106, 세종 26년 12월 22일(병인)조.
- 1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1권, 1977, 322면.
- 11) 태종실록 권13, 태종 7년 5월 27일(경진)조.
- 12)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5월 8일(기묘)조.
- 13)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5월 18일(기축)조.
- 14) 태종실록 권20, 태종 10년 7월 17일(임오)조.
- 15) 태종실록 권20, 태종 10년 8월 8일(임인)조.
- 16)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6월 7일(무술) · 9일(경자)조.
- 17)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6월 12일(계묘)조.
- 18)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3일(계해)조.
- 19) 세조실록 권16, 세조 5년 6월 18일(무진)조.
- 20) 손정목, 『조선 시대 도시사회연구』, 1977, 370~371면.
- 21) 『지봉유설』 권3, 군도부(君道部) 법금(法禁).
- 22) 『연암집』 별집, 방경각외전(放靑閣外傳) 중 광문자전(廣文者傳).
- 23) 손정목, 『조선 시대 도시사회연구』, 1977, 370~371면.
- 24) 효종실록 권13, 효종 5년 6월 9일(정묘)조.
- 25) 효종실록 권13, 효종 5년 6월 20일(무인)조.
- 26) 숙종실록 권49, 숙종 36년 9월 5일(병신)조.
- 27) 영조실록 권75, 영조 28년 1월 27일(기축)조.
- 28) 영조실록 권81, 영조 30년 3월 22일(임신)조.
- 29) 태종실록 권20, 태종 10년 8월 8일(임인)조.
- 30)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9월 7일(을축)조.
- 31)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윤12월 1일(정사) · 14일(경오)조.
- 32)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윤12월 1일(정사)조.
- 33)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1월 10일(을미)조.
- 34)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1월 15일(경자)조.
- 35)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2월 15일(경오)조.
- 36)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2월 15일(경오)조.
- 37)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6월 12일(계묘)조.
- 38) 세조실록 권3, 세조 2년 1월 9일(갑술)조.
- 39) 세조실록 권30, 세조 9년 7월 5일(병진)조.
- 40) 영조실록 권95, 영조 36년 2월 8일(계미)조. 「…관윤 홍계희(洪啓禧) · 호조 관서 홍봉한(洪鳳漢)이 준천(潘川)할 논의를 극력 주장하여 2월 18일에 공역을 시작하였는데, 도청(都廳) 허급과 원중회가 서로 좌차(坐次)를 다투기 때문에 곤장을 친 것이다.」
- 41) 현 세종로 서북쪽, 신문로 1가 23번지에 놓였던 교량.
- 42) 홍계희, 『준천사실(潘川事實)』.
- 43) 영조실록 권95, 영조36년 2월 19일(갑오)조.
- 44) 영조실록 권95, 영조36년 2월 20일(을미)조.
- 45) 영조실록 권95, 영조36년 3월 10일(을묘)조.
- 46) 영조실록 권95, 영조36년 4월 29일(계묘)조.
- 47) 영조실록 권95, 영조36년 2월 27일(임인)조.
- 48) 영조실록 권95, 영조36년 3월 16일(신유)조.
- 49) 홍계희, 『준천사실(潘川事實)』.
- 50) 영조실록 권95, 영조 36년 6월 21일(계사)조.
- 51) 영조실록 권120, 영조 49년 5월 29일(정해)조.
- 52) 영조실록 권120, 영조 49년 6월 10일(무술)조.
- 53) 영조실록 권121, 영조 49년 8월 6일(임진)조.
- 54) 경성부, 『경성부사』 제2권, 1934, 406면.
- 55) 정조실록 권4, 정조 원년 7월 12일(을해)조.
- 56) 순조실록 권32, 순조 32년 8월 13일(정해)조.
- 57) 순조실록 권32, 순조 32년 12월 1일(계묘)조.
- 58) 순조실록 권34, 부록 순조대왕 행장(3).

- 59) 순조실록 권33, 순조 33년 4월 19일(기미)조.
- 60) 순조실록 권33, 순조 33년 3월 22일(계사)조.
- 61) 철종실록 권10, 철종 9년 5월 9일(계미)조.
- 62) 고종실록 권2, 고종 2년 3월 2일(정유)조.
- 63) 고종실록 권2, 고종 2년 3월 11일(병오)조.
- 64) 고종실록 권2, 고종 2년 5월 1일(을미)조.
- 65) 고종실록 권7, 고종 7년 3월 1일조.
- 66) 고종실록 권16, 고종 16년 7월 5일조.
- 67) 고종실록 권17, 고종 17년 2월 15일조.
- 68) 고종실록 권22, 고종 22년 7월 4일조.
- 69) 고종실록 권23, 고종 23년 8월 7일조.
- 70) 고종실록 권30, 고종 30년 5월 18일조.
- 71) 『대전회통』 공전(工典) 교로(橋路) 기타조.
- 72) 『증보문헌비고』 직관고(職官考) 준천사(濬川司). 『육전조례』 공전(工典) 준천사조.
- 73) 영조실록 권95, 영조 36년 3월 16일(신유)조.
- 74)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7월 정유(20일)조.
- 75) 정만조는 조선후기姜위(姜瑋)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문장에 뛰어났고, 1889년에는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예조참의와 승지를 거쳐 1894년에는 내부참의에 이르렀다. 이어서 규장각 부제학이 되고, 『국조보감(國朝寶鑑)』 편찬위원이 되었다. 일제 때에 이왕직 전사관(李王職典祀官)과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촉탁, 그리고 조선사편수회의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1926년 경성제국대학의 강사, 1929년에는 경학원(經學院)의 대제학이 되어 명륜학원(明倫學院)의 총재를 겸임하였으며, 『고종실록』·『순종실록』의 편찬사무를 주재하였다.
- 7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향토서울』 제44호, 「한양도읍을 관류하는 청계천과 교량에 대한 고찰」, 1987, 63면.
- 7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향토서울』 제44호, 「한양도읍을 관류하는 청계천과 교량에 대한 고찰」, 1987, 64면.
- 78) 『고려사』 권 69, 예지(禮志) 가례잡의조(嘉禮雜儀條).
- 7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4권, 1981, 1162~1173면.
- 80) 태종실록 권10, 태종 5년 7월 기유조.
- 81) 선조실록 권88, 선조 30년 5월 21일(신해)조.
- 82) 박경룡, 『역사의 무대 서울·서울·서울』, 수서원, 2003.
- 83) 『신증 동국여지승람』 권3, 한성부, 산천조.

- 84) 이경재, 『서울 정도 600년』 (2), 서울신문사, 280면.
- 85) 영조실록 권95, 영조 36년 4월 10일(갑신)조.
- 86) 경성부, 『경성부사』 제1권, 1934, 408~409면.
- 87) 성종실록 권217, 성종 19년 6월 8일(경자)조.
- 88) 중종실록 권43, 중종 17년 1월 18일(병인)조.
- 89) 박경룡, 『서울을 알고 역사를 알고』, 2003, 수서원, 144~147면.
- 90) 홍기문 외, 『패설작품선집』 (1),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59, 369면.
- 91)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3일(계해)조.
- 92) 명종실록 권26, 명종 15년 11월 24일(병술)조.
- 9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의 하천』, 2000, 206면.
- 94) 홍계희, 『준천사실(濬川事實)』, 「준천사절목(濬川司節目)」.
- 95) 숙종실록 권49, 숙종 36년 9월 5일(병신)조.
- 96) 조수삼(趙秀三)의 『추재집(秋齋集)』 기이편(紀異篇).
- 97) 이규태, 『한국인의 맥』 (9), 한국출판공사, 1986. 중구문화원, 『명동변천사』, 2003.
- 98) 경성부, 『경성부사』 제2권, 1936, 722~723면.
- 99) 경성부, 『경성부사』 제2권, 1936, 726면.
- 100) 경성부, 『경성부사』 제2권, 1936, 726~727면.
- 101)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10, 제16·18표.
- 102) 이혜은, 「경성부의 민족별 거주지 분리에 관한 연구-1935년을 중심으로」, 『지리학』, 제29호, 1984, 20~36면.
- 103) 이규태, 『세상에 불상한 조선너편네』, 신태양사, 1988.
- 104) 『청계중일한관계사료(淸季中日韓關係史料)』 권3, 문서번호 826호, 337~1339면.
- 105) 『구한국외교문서』 제8권(淸案 1), 1884년 5월 22일. 「청상회관(淸商會館)의 낙동(駱洞) 이범조(李範祖) 가옥매수계권(家屋買收契券) 비안요청(備案要請)」.
- 106) 한우근, 『한국개항기의 상업연구』, 1985, 87면.
- 107) 『구한국외교문서』 제9권(淸案 2).
- 108) 경성부, 『경성부사』 제2권, 1936, 617면.
- 109) 경성부, 『경성부사』 제2권, 1936, 1001면.
- 110) 경성부, 『경성부사』 제2권, 1936, 1002면.
- 111) 경성부, 『경성부사』 제2권, 1936, 552면.
- 112) 손정목, 『한국 개항기 도시변화과정연구』, 1982, 204면.
- 113) 손정목, 『한국 개항기 도시변화과정연구』, 1982, 205면.

114) 금정기, 「1890년 서울상인의 철시동맹파업과 시위투쟁」, 『한국사연구』 67, 1989, 88면.

115) 한우근, 『한국개항기의 상업연구』, 1985, 87면.

116) 을지로입구 네거리(남대문로 2가 61) 남서쪽에 고루(高樓)의 청국경찰서를 세우고 40명의 순경을 두었고, 마포에는 계사국(稽查局, 오늘날의 파출소)을 설치하여 도선장(渡船場)의 치안을 담당하게 했다. (경성부, 『경성부사』 제2권, 1936, 617~618면)

117) 한우근, 『한국개항기의 상업연구』, 1985, 91면.

118) 김정기, 「1890년 서울상인의 철시동맹파업과 시위투쟁」, 『한국사연구』, 1989, 93면.

119) 『중앙일보』, 1979년 9월 25일자, 5면, 진유광(秦裕光)의 ‘화교’ ⑦.

12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3권, 1979, 542면.

121)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10년도.

122) 『동아일보』, 1924년 4월 3일, 4월 25일자.

12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향토서울』 제1호, 1957, 158면.

124) 서울학연구소, 『서울의 사회풍속사』, 1995, 83면.

125) 올리버 R 에비슨, 『근대 한국 42년 1893~1935』 하, 청년의사, 2010, 238~240면.

126) 『한성부 통첩』, 광무 2년 6월 23일.

127) 경성부, 『경성부사』 제2권, 1936, 789~790면.

128) 중구문화원, 『명동변천사』, 2003.

129) 손정목, 「일제하 서울남촌·북촌의 형성과 실태」, 서울향토사학술대회, 1985, 58면.

130) 『개벽』 별건곤 제23호, 「진고개」, 1929, 46면.

131) 손정목, 「일제하 서울남촌·북촌의 형성과 실태」, 서울향토사학술대회, 1985, 68면.

132) 황현, 『매천야록』 권1 상, 갑오 이전. 「포락상남촌 오지사십허리 진위왜촌(包絡上南村 五之四十許里 盡爲倭村)」.

133) 경성부, 『경성부사』 제2권, 1936, 573~574쪽.

134) 황현, 『매천야록』 권1 상, 갑오 이전.

135) 손정목, 「개화기 거류 일본인의 행태와 일본정부의 거류민 대책」, 『향토서울』 제37호.

136) 건국대학교출판부, 한상일 역, 『서울에 남겨둔 꿈』, [사쿠라이(柵瀬軍之佐) 저, 『조선시사(朝鮮時事)』 편], 1993, 293~298면.

137) 이경재, 『서울정도 육백년』3, 진고개, 1994, 53~63면.

138) 박경룡, 『역사의 무대 서울·서울·서울』, 수서원, 2003.

139) 박태원, 『천변풍경』, 깊은샘, 2005년 개정판, 22~23면.

140) 조선사회사업연구회, 『조선사회사업』, 5권 2호, 1927, 10면.

141) 이혜은, 「경성부의 민족별 거주지분리에 관한 연구-1935년을 중심으로」, 『지리학』, 제29호, 1984, 20~36쪽.

142) 정수일, 「서울맛·서울 정조(情調)-진고개」, 『별건곤』, 제29호, 1929, 46면.

143) 『동아일보』, 1923년 10월 26일자.

144) 『동아일보』, 1924년 5월 27일자.

145) 『개벽』 48, 1924, 51~52면.

146) 경성부, 『경성부사』 제3권, 제1장 부정(府政).

147) 『매일신보』, 1916년 7월 22일자.

148) 『동아일보』, 1920년 8월 8일자.

149) 『동아일보』, 1935년 8월 22일자.

150) 『동아일보』, 1921년 9월 22일자.

151) 『동아일보』, 1921년 4월 26일자.

152) 『동아일보』, 1921년 5월 18일자.

153) 『동아일보』, 1921년 12월 14일자.

154) 『동아일보』, 1939년 7월 23일자.

155) 『동아일보』, 1922년 7월 11일자.

156) 『동아일보』, 1922년 10월 24일자.

157) 『동아일보』, 1924년 4월 3일, 4월 25일자.

158) 『동아일보』, 1926년 7월 1일자.

159) 『동아일보』, 1927년 11월 6일자.

160) 『동아일보』, 1935년 5월 30일자.

161) 서울시 청계천 홈페이지 「역사」 일제강점기 청계천.

162) 『동아일보』, 1926년 11월 13일자.

163) 『동아일보』, 1928년 1월 14일자.

164) 『동아일보』, 1929년 12월 2일자.

165) 『동아일보』, 1927년 6월 25일자.

166) 『동아일보』, 1920년 7월 21일자.

167) 『동아일보』, 1924년 2월 14일자.

168) 『동아일보』, 1927년 8월 5일자.

- 169) 「동아일보」, 1934년 8월 16일자.
- 170) 「동아일보」, 1934년 3월 14일자.
- 171) 「동아일보」, 1936년 6월 28일자.
- 172) 이경재, 『청계천은 살아있다』, 가람기획, 2002, 250면.
- 173) 이경재, 『청계천은 살아있다』, 가람기획, 2002, 282~283면.
- 174) 「경향신문」, 1949년 10월 17일자.
- 175) 「동아일보」, 1950년 3월 9일자.
- 176) 「경향신문」, 1958년 5월 24일자.
- 177) 「경향신문」, 1959년 2월 13일자.
- 178) 「경향신문」, 1961년 12월 5일자.
- 179) 「조선일보」, 1971년 8월 15일자.
- 180) 「동아일보」, 1977년 5월 3일자.
- 181) 「경향신문」, 1969년 3월 22일자.
- 182) 「경향신문」, 1962년 3월 22일자.
- 183) 「경향신문」, 1984년 1월 30일자.
- 184) 「동아일보」, 1997년 2월 18일자.
- 185) 「경향신문」, 1953년 8월 15일자.
- 186) 「경향신문」, 1954년 7월 29일자.
- 187) 「동아일보」, 1966년 7월 19일자.
- 188) 「동아일보」, 1972년 8월 26일자.
- 189) 「경향신문」, 1953년 4월 13일자.
- 190) 「경향신문」, 1957년 7월 10일자.
- 191) 「경향신문」, 1959년 1월 11일자.
- 192) 「동아일보」, 1978년 1월 19일자.
- 193) 「경향신문」, 1971년 6월 23일자.
- 194) 「동아일보」, 1976년 6월 25일자.
- 195) 「경향신문」, 1982년 11월 1일자.
- 196) 「매일경제」, 1983년 6월 24일자.
- 197) 「경향신문」, 1985년 5월 17일자.
- 198) 「매일경제」, 1989년 11월 21일자.
- 199) 「동아일보」, 1995년 4월 13일자.
- 200) 「동아일보」, 1958년 11월 11일자.
- 201) 「경향신문」, 1958년 3월 4일자.

- 202) 「매일경제」, 1973년 1월 8일자.
- 203) 「동아일보」, 1974년 5월 2일자.
- 204) 「동아일보」, 1976년 7월 24일자.
- 205) 「동아일보」, 1962년 1월 27일자.
- 206) 「경향신문」, 1968년 12월 10일자.
- 207) 「동아일보」, 1962년 7월 21일자.
- 208) 「경향신문」, 1962년 7월 23일자.
- 209) 「경향신문」, 1963년 12월 18일자.
- 210) 「경향신문」, 1968년 7월 31일자.
- 211) 「경향신문」, 1964년 4월 16일자.
- 212) 「동아일보」, 1966년 1월 14일자.
- 213) 「동아일보」, 1966년 10월 27일자.
- 214) 「동아일보」, 1973년 8월 6일자.
- 215) 「매일경제」, 1976년 9월 21일자.
- 216) 「경향신문」, 1976년 11월 12일자.
- 217) 「매일경제」, 1982년 9월 15일자.
- 218) 「경향신문」, 1970년 11월 14일자.
- 219) 「경향신문」, 1971년 5월 14일자.
- 220) 중구문화원,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 2000, 255~257면
- 221) 중구문화원, 『중구문화』 2호, 「황학동 골동품시장」, 1998.
- 222) 「동아일보」, 1981년 3월 23일자.
- 223) 「경향신문」, 1983년 9월 19일자.
- 224) 『청계천 불루북』, 「주간조선」 특별부록(2005년 10월 3일, 1873호), 8면.
- 225) 「경향신문」, 2011년 9월 5일자.

2부 청계천으로 흘러드는 물길

- 1) 김영상, 『서울육백년』, 대학당, 1994, 40~41면.
- 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3권, 1979, 337면.
- 3) 유득공, 『경도잡지』 권1.
- 4) 『각전기사(各廛記事)』 지권, 건륭 11년 11월조.
- 5) 서울특별시, 『서울의 전통문화』 제2권, 1986, 1000~1002면.

6) 宮崎三郎, 『조선의 미담』, 192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II), 중구편, 1992, 136~137면.

7) 조선일보사, 『이규태의 600년 서울』, 1992, 107면.

8) 문일평, 『한국과 한국인』(II), 1986, 286~288면.

9)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 서울편, 1966, 280면.

10) 『육전조례』 권5, 호전, 한성부 오부조.

11) 홍경모 편, 『중정 남한지(南漢誌)』 권7, 인물조.

12) 조선일보사, 『이규태의 600년 서울』, 1992, 195면.

13) 『한경지략(漢京識略)』 권2, 각동조 동현.

1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I), 종로구편, 제2권, 1992, 132면.

15) 한국관광공사,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서울편, 1987, 237면.

1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3권, 1979, 974면.

1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II), 중구편, 1992, 397면.

18) 『동주집(東州集)』 시집 권18.

19) 서울특별시, 『서울의 전통문화』 제2권, 1986, 967면.

2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II), 중구편, 1968, 50~53면.

2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문화사적편, 1987, 576면.

22) 『한경지략(漢京識略)』 권2, 권의각사, 도화서조(圖書署條).

23) 『경국대전』, 이전조(吏典條).

24) 『동국여지비고』 권2, 교량조.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273면.

2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문화사적편, 1987, 277~280면.

26) 한국관광공사,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서울편, 1987, 151면.

2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2권, 1978, 587면.

28) 한국관광공사,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서울편, 1987, 116면.

29) 『훈도방 주자동지(薰陶坊 鑄字洞志)』는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1621년 권반 등이 주관, 편찬하여 남아 있는 서울의 역사지리서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00호로 지정되었고, 『망우동지(忘憂洞誌)』와 함께 희귀한 자료이다.

30) 『한경지략(漢京識略)』 권2, 각동조.

3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II), 중구편, 1992, 511면.

3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1권, 1977, 327면.

33) 『조선일보』, 1994년 6월 22일자.

34)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유적의 현장을 찾아서』.

35) 선조실록, 권106, 선조 31년(1598) 11월 27일(무신)조.

3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II), 중구편, 1992, 441면.

37)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유적의 현장을 찾아서』.

38) 박경룡, 『서울문화유적』(2), 수문사, 1999.

3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4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3권, 1979, 279면.

41) 중구문화원, 『영화의 메카, 충무로』.

42) 중구문화원,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 2000, 213면.

4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 한성부 열녀조.

44)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 서울편, 1966, 265면.

45) 김영상, 『서울육백년』(2), 1994, 116면.

46) 문일평, 『한국과 한국인』, 서울 산악사화편, 1986, 280면.

47) 중구문화원, 『영화의 메카, 충무로』, 2005, 77면.

48) 이덕주, 『개화와 선교의 요람 정동 이야기』, 2002, 88면.

49) 박경룡, 『개화기 한성부 연구』, 일지사, 1995.

50) 영조실록 권81, 영조 30년 6월 5일(계축)조.

51) 한국관광공사,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1987, 216~217면.

52) 『매일경제』, 1976년 3월 15일자.

5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문화사적편, 1987, 581면.

5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1권, 755면.

55)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 서울편, 1966, 97면.

56) 세종실록 권48, 세종 12년 6월 7일(병자)조.

57) 세종실록 권48, 세종 12년 6월 26일(을미)조.

5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1권, 1977, 320면.

59) 『동국여지비고』 권2, 산천 만초천조.

60) 일제는 만초천을 옥천(旭川)으로 칭하였다.

61) 『경향신문』, 1962년 8월 22일자.

6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내고향서울 3, 『서울의 하천』, 2000, 278면.

63) 『매일경제』, 1977년 8월 29일자.

64) 『이화백년사』, 1994, 379면.

65) 『한경지략(漢京識略)』 권2, 각동 고마청동조.

66) 『경국대전』.

67) 『속대전』.

- 6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II), 중구편, 제2판, 1993, 274면.
- 69) 김영무, 『동양극장의 연극인들』, 1998, 24면.
- 70) 김영무, 『동양극장의 연극인들』, 1998, 26면.
- 7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문화사적편, 1987, 615면.
- 72) 『동국여지비고』 권2, 시전조, 미전(米塵).
- 73) 『동국여지비고』 권2, 장시조(場市條).
- 74) 『동국여지비고』 권2, 부방조 서부 반석방. 『동국여지비고』 권2, 제택조.
- 75) 『동국여지승람』 권3, 한성부 교량조.
- 76)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2월 15일(경오)조.
- 77) 태종실록 권20, 태종 10년 8월 8일(임인)조.
- 78) 한국연감편찬회, 『한국연감』, 1959년.
- 79) 『한경지략(漢京識略)』 권2, 교량조.
- 80) 『한경지략(漢京識略)』 권2, 교량조.
- 81) 『동아일보』, 1929년 7월 13일자.
- 82) 세종실록 권93, 세종 23년 8월 18일(임오)조.
- 83) 서울특별시, 『서울의 전통문화』 제2권, 1986, 348~351면.
- 84) 세종실록 권93, 세종 23년 8월 18일(임오)조.
- 85) 유득공, 『경도잡지(京都雜志)』 권2, 세시(歲時) 상원조(上元條).
- 8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문화사적편, 1987.
- 87) 조선총독부, 『朝鮮の橋』, 1927.
- 88) 『주교지남(舟橋指南)』, 주교사 절목 참조.
- 89) 한국관광공사,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서울편, 1987, 86면.
- 9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의 하천』, 2000, 206면.
- 9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명소고적』, 1958, 199면.

지은이 박경룡(朴慶龍, 문학박사)

- (현) 서울시립대학교 시민대학 강사
- (현) 서울특별시 새주소 부위원장
- (현) 서울특별시 문화유적지 표석 설치위원
- (현) 중구문화원 자문위원장
- (현) 노원구 문화재 자문위원
- (현) 노원문화원 향토사 연구소장
- (현) 중구·서초구·노원구 지명위원
- (현)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서울지회 회장
- (현) (사)서울역사문화포럼 회장
- 2004년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인문과학 분야)

저서

『서울 사화』·『문화유산과 관광자원』(서울편)·『한성을 아십니까』·『개화기 한성부 연구』·『역사문화유적의 현장을 찾아서』·『남산아래 큰 동네』·『서울문화유적』(1), (2)·『성북의 문화재』·『마포문화유적』·『한성부 연구』·『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서울 역사이야기』·『서울을 알고, 역사를 알고』·『역사의 무대, 서울·서울·서울』(2003)·『서울 개화백경』·『정동, 역사의 뒀안길』(2008)/『역사의 현장, 서울』(2010)/『서울역사 문화답사안내』(I)·(II)(2010, 2011) 등 저서 25권

편저

『명동변천사』 외 30권

논문

『조선전기의 잠실도회』 외 35편

설립

『사연이 깃든 지명』 등 92편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

중구향토사자료 제13집

발행처 |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

발행인 | 중구문화원장 김 장 환

기획 | 중구문화원

집필 | 박경룡

발행일 | 2011년 12월 30일

제작 | 도서출판 상상박물관

©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 비매품

100-2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장교동 1번지 한화빌딩 1층)

전화 02)775-3001, 팩스 02)775-3068

홈페이지 www.junggucc.or.kr

* 이 책은 중구의 예산을 지원 받아 발간하였습니다.